발간등록번호 11-1550011-000995-01

국외 간행물 수록

발해 고고학

논문 해제집

渤海考古學論文解題集

러시아

국립문화재연구소

I

국외 간행물 수록

발해 고고학

논문 해제집

渤海考古學論文解題集

러시아

I

발 간 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0년부터 우리 역사의 주역인 고구려, 옥저, 발해의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러시아 연해주 콕샤롭카-1성, 시넬니코보-1산성, 스타로레첸스코예 평지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해동성국海東盛國을 이루었던 발해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 발굴성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 언어의 제약으로 인해 그동안 러시아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발해 고고학의 성과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러한 자료 접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국내에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이번에 『발해 고고학 논문해제집 – 러시아 I』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러시아에서 발해를 연구하였던 저명한 고고학자, 역사학자, 자연과학자들이 발간한 도서 13종을 대상으로, 여기에 수록된 105편의 논문에 대한 서지정보를 정리하고, 간략한 내용 소개와 해제를 덧붙였습니다.

이번 해제집은 우리 연구소가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고고학민속학연구소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해유적 공동발굴조사와 함께, 러시아에 남아 있는 발해유적의 현황과 연구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해제집에 수록된 논문들이 비록 러시아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국내의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발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연구의 진전을 가져오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간행물에 자세한 소개와 발해 조사연구 현황에 대한 귀중한 논고를 보내주신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A.L. 이블리예프 박사와 N.A. 클류예프 박사, 그리고 해제와 감수를 맡아 주신 여러 선생님과 한규철 명예교수님, 언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자료 수집과 번역을 담당한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11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지 병 목

일러두기

1. 이 책은 러시아 간행물에 수록된 발해 고고학 관련 학술논문 총 105편을 주제별로 해제하여 수록한 도서입니다.

2. 해제 논문들은 주제별로 분류한 후 한글 자음을 기준으로 저자별로 정렬하였습니다.
   다만 간행물별 수록 논문은 목록으로 부록에 본문 페이지를 함께 제시하여 찾아보기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3. 전체적인 책자의 구성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된 중국 정기간행물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의 편집체계를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러시아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문 병기법에 있어 영어를 추가로 병기하였습니다.

4. 논문의 제목, 간행물명, 소속은 러시아어 원문을 가급적 그대로 번역하였으며, 필자의 소속은 논문이 게재될 당시의 신분입니다.

5. 발행처의 경우 편집의 용이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칭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고고학민속학연구소 →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6. 주제어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제자가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7. 간행물의 해제는 각 분야 전문가가 담당하였으며, 해제 내용은 논문에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책의 객관성 및 서술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용어 등은 수정하였습니다.

8. 해제자가 원문 자체의 오기 ·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등은 본문에 '대괄호[ ]'안에 작성하여 구분하였습니다.

9. 책에 수록된 모든 글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내용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하였습니다.

10. 고유명사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의〈외래어 표기법〉(2017. 3. 28)을 따라 작성하였으며
    한글 + 러시아어 + 영어를 모두 병기하여 표기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11. 출처 표기는 러시아 참고문헌 작성법에 따랐으며 한글은 병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자, 연도, 논문제목//간행물명, 권호, 발행처, 페이지 수

12. 이 책자에 실린 논고의 용어 등은 해제자의 의견이므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발간사 ····· 002

일러두기 ····· 004

Ⅰ. 머리말 ····· 006

Ⅱ. 일반 ····· 010
1) 고고일반 ····· 014
2) 역사지리 ····· 060
3) 지질 ····· 097

Ⅲ. 유적 ····· 102
1) 성곽유적 ····· 106
2) 고분유적 ····· 144
3) 생활유적 ····· 154
4) 생산유적 ····· 173

Ⅳ. 유물 ····· 174
1) 토기류 ····· 178
2) 금속류 ····· 192
3) 자연유물류 ····· 210
4) 기타유물 ····· 229

Ⅴ. 부록 ····· 242
1) 러시아 연해주 발해 조사 연구 현황 및 성과 ····· 244
2) 해제 논문 수록 간행물 소개 ····· 249
3) 수록 논문 목록(간행물별) ····· 253
4) 러시아어 한글 표기 비교표 ····· 262

渤海考古學

論文解題集

Ⅰ 머리말

머 리 말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은 2000년부터 러시아 극동 지역 우리 역사문화 관련 신석기시대에서 발해시대에 이르는 유적발굴조사와 분포현황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신석기시대 수추섬 유적 등 9개 유적 22회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발해관련 유적발굴조사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성곽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연해주 일원에 대한 분포현황조사('06~'18)을 통해 옥저 · 발해 등 관련 유적 350개소를 확인하여 발해 동북지역 핵심거점과 영역 확장과정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와 함께 한국 고고학계와 사학계도 러시아 극동지역에 1990년대부터 국내 14개 기관이 2019년 말까지 약 80여 차례 현지조사 및 학술회의 등을 통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과 시간 · 공간의 물리적 제약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자료확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연해주, 아무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와 함께 러시아 학계의 연구동향 및 최신 성과에 집성하여 국내 연구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해제집 발간을 기획하였다.

해제 대상 논문은 러시아 고고학 관련 간행물 중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된 105편이다. 공간적 범위는 러시아 연해주지역 일대와 일부 아무르강 유역 발해 관련 유적 조사연구 논문, 시간적 범위는 2000년 이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간행물의 종류는 연구단행본, 기념논총, 논문모음집, 부정기간행물 중 저명 학술발표대회 발표문을 정리하여 출간한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간행물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러시아 고고학자가 직접 정리한 글을 부록으로 따로 수록하였다.

이번 해제집에서 '발해 관련'이라는 용어에는 말갈, 여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현재 러시아학계에서는 발해사 인식에 있어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즉 발해, 말갈, 말갈발해, 후발해, 여진 등 용어와 편년 및 분포지역 구분 등 한국학자와 러시아학자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있어 논문 제목과 인용 유적이 서로 상충되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책자에는 발해시기의 연해주 지역 말갈, 여진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을 함께 수록하여 발해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접하게 하였다.

책자의 구성은 발해시기 81편과 말갈 · 여진 관련 24편의 논문을 일반, 유적, 유물로 구분하였다. 일반으로 분류된 논문은 고고분야 22편, 역사지리 15편, 그리고 유적 및 지역에 대한 기후 · 지질학적 분석을 시도한 논문 4편을 지질로 구분하였다. 유적은 성곽 17편, 고분 6편, 생활유적 10편, 토기 · 기와가마와 공방터를 포함한 생산유적 1편을 수록하였다. 유물은 토기류 8편, 금속류 8편, 자연유물 9편, 기타유물 5편이다. 특히 동물뼈, 식물종자 등 자연유체 분석 연구 자료와 연해주 출토 금석문 2개를 다룬 논문 1편도 기타유물로 수록하였다.

발해의 역사가 남아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지리적, 언어적으로 오늘의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번에 발간한 해제집이 국민들과 연구자들에게 발해사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 발해 유적 현지조사와 함께 러시아 학계의 발해관련 조사연구자료 해제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제집 수록 러시아 간행물 목록〉

* 부록 2. 해제 논문 수록 간행물 연번에 따라 작성

연번	간행물명	발간기관	구분	수록편수
1	『러시아 극동의 고대와 중세 : 발견, 문제, 가설』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단행본	6
2	『극동 중세 제국의 도시』 Города средневековых импер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단행본	5
3	『극동 역사와 고고학 : E.V. 샤프쿠노프 70주년』 История и архе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 70-летию Э.В. Шавкунова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기념논총	6
4	『천년기의 장막을 열면서 : Zh.V. 안드레예바 80주년』 Приоткрывая завесу тысячелетий: к 80-летию Жанны Васильевны Андреевой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기념논총	2
5	『동아시아 고대와 중세 역사 : 발해건국 1300주년』 Древняя и средневековая история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 130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논문모음집	5
6	『극동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논문모음집	4
7	『극동과 중앙아시아의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논문모음집	2
8	『고대 및 중세 러시아 극동 : 문제, 탐색, 해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проблемы, поиски, решения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논문모음집	7
9	『동아시아 : 지역의 역사 및 문화 유산 보존 및 연구 문제. 아무르주 역사문화유산 보존센터 15 주년』 Восток Азии: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и сохранения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региона. К 15-летию Центр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아무르주 역사문화유산 보존센터	논문모음집	1
10	『동아시아 전통문화』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국립 아무르대학교	연속간행물	9
11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ДВО РАН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속간행물	14
12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속간행물	21
13	『연해주의 중세』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속간행물	23
총 계				105

渤海考古學
論文解題集

일반 II

1) 고고일반

2) 역사지리

3) 지질

01 고고일반

E.I. 겔만	「연해주 유적 고고자료로 살펴본 발해의 농업과 경제 생산활동」	014
E.I. 겔만 E.V. 아스타셴코바	「발해 도시의 문화와 일상생활」	016
E.I. 겔만 E.V. 아스타셴코바 S.D. 프로코페츠 A.L. 이블리예프	「발해국가의 도시」	019
A.A. 김	「1990~2000년 북한 고고학자들의 극동지역 발해유적 조사에 대한 평가」	022
N.V. 레셴코	「고고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본 7~13세기 극동의 어로」	024
A.L. 메젠체프	「연해주 성의 규모와 분류」	026
A.L. 메젠체프	「우수리스크 주변 지역의 발해말갈시기 마을 주거지들에 대한 지형적 분류」	029
Yu.M. 바실리예프	「아무르 유역의 포크롭카 문화(9~13세기)」	030
V.I. 볼딘	「1994~1998년 연해주 발해유적의 발굴조사 결과」	033
V.I. 볼딘	「러시아 연해주 발해인들의 농업과 목축」	034
V.E. 샤프쿠노프	「스몰노예 문화 주민의 가내 수공업」	035
V.E. 샤프쿠노프	「스몰노예 문화 주민의 교역에 관하여」	036
E.A. 세르구셰바	「도시 주민의 농사」	037
G.L. 실란티예프	「중세 전기 연해주·아무르 지역 및 일본의 물품 교역 관계 – 유리제품을 중심으로 –」	039
E.V. 아스타셴코바	「발해의 불교 조각과 조형예술」	041
A.L. 이블리예프	「동단국과 연해주 고고학」	044
I.S. 쥬시홉스카야	「연해주 스몰노예 문화: 실제적인 조사 문제」	046
N.N. 크라딘	「중세 국가의 형성과 진화」	049
N.A. 클류예프 A.L. 이블리예프 I.V. 그리다소바	「후발해의 도시」	051
Ya.E. 피스카료바	「극동 남부의 말갈문화: 사회–경제 양상」	054
Ya.E. 피스카료바	「연해주 말갈 유적의 지역 그룹들」	056
Ya.E. 피스카료바	「연해주 말갈유적 편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058

02 역사지리

E.I. 겔만 「발해의 중심과 변두리 지역의 상호관계 (물질문화의 몇몇 측면의 예를 통해)」 060

E.I. 겔만 「발해의 대내외 교역」 064

A.A. 김 「러시아 극동 남부에서의 발해 북쪽 경계와 926년 멸망이후 발해주민에 대한 문제」 066

S.P. 네스테로프 「아무르지역의 발해 이주와 아무르 여진의 기원」 067

Yu.G. 니키틴 「국가이전단계 수이푼강 유역의 주민」 068

Yu.G. 니키틴 「당, 발해와 동이(발해의 동부 변방)」 070

D.A. 비츠코프 「연해주 중세 성곽의 가시권 – 이론, 방법 및 전망」 072

E.V. 샤프쿠노프 「발해의 민족과 문화의 구성」 074

G.L. 실란티예프 「8~13세기 러시아 극동 남부 발해와 여진의 바닷길과 정박지」 076

E.V. 아스타셴코바 「발해와 여진인의 예술에서 권력과 부의 상징」 079

A.L. 이블리예프 「발해사에 대한 개요」 082

A.L. 이블리예프 「중세시대의 연해주와 철리부鐵利部」 086

A.L. 이블리예프 「A.P. 오클라드니코프의 『연해주의 먼 과거(1959)』에서 '고대'와 '중세'에 대한 논평」 088

N.N. 크라딘 「극동 국가형성의 특징과 구조」 091

A.V. 폴루토브 「발해와 일본의 외교사절(722~763)」 094

03 지질

A.M. 마시킨
V.I. 볼딘 「크라스키노 성 주변의 자연–기후 현황」 097

E.A. 베소노바 「발해 취락 주거유적의 지표면 지질 환경의 자기적 성질」 098

E.A. 베소노바
A.V. 삽첸코 「크라스키노 성 북부의 고고학 문제해결을 위한 암석물리학, 광물학 및 지구–화학적 연구 결과」 099

V.A. 타타르니코프 「연해주 북동지역 달네고르스크 지구의 발해시기 광물업」 100

저 자 E.I. 겔만
Е.И. Гельман
E.I. Gelman

연 도 2018
간행물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20권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해주 유적 고고자료로 살펴본 발해의 농업과 경제 생산활동

주 제 어 발해
농업
출산업
식료품
산업작물
들깨
개 뼈
돼지 뼈
야생동물 뼈
물고기 뼈
골각기

목 차
머리말
농경
축산
가내공업
어로
해양과 강에서 채취
결론

러시아 연해주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발해 경제의 중요한 요소인 농업, 축산, 가내공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발해 경제에서 농업과 축산업은 발해인의 생업경제를 받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발해 농업에서 가장 많은 재배작물은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과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성에서 출토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기장과 보리, 밀, 콩이었다. 발해인들은 식료품 외에도 산업작물도 재배했는데 유채씨이다.

출토되는 재배작물과 이를 증명하는 간접적인 자료인 농경구는 발해의 농업이 매우 전문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식과 약용으로 쓰이는 야생식물은 계속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유지의 기초가 되었을 수 있다. 기름을 짜는데 사용한 들깨Perilla frutescens 및 약용으로는 어저귀Abutilon teophrastii 등이 고르밧카 성지에서 출토된 바 있다.

농경과 함께 기른 동물로 발해인에게 고기를 제공했고, 뿐만 아니라 동물의 가죽과 뼈는 군용장비도 다양하게 이용되는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중요한 유적에서 개와 돼지 뼈가 동물 뼈의 70%를 차지하고 식량자원으로 이용되었다.

돼지 뼈는 총 수량의 40%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 80%가 어린 돼지의 뼈이다. 돼지 뼈는 야생과 목축한 동물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개는 총 수량의 25~34%를 차지하는데, 성년과 어린 동물이 구분되지 않았다. 소는 물건을 옮기고 밭을 가는 용도, 말은 기마용으로 이용되었다.

발해인의 생업경제에는 사냥과 어로생활도 일정 정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콘스탄티놉카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Konstantinovka) 유적과 니콜라옙카-2Николаевское-2(Nikolaevka-2), 노보고르데옙카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Novogordeevka), 고르밧카 성지에서 야생동물 뼈의 수는 22~34%를 차지한다.

특히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맷돼지의 뼈이다. 동물뼈 가운데서 늑대, 갈색과 검은 곰 뼈, 검은 담비, 오소리, 수달, 호랑이, 표범 등의 뼈도 적지만 확인되는데, 모피를 얻기 위해서 사냥을 한 것이다.

발해유적에서 발견되는 골각기는 여우, 토끼, 너구리, 비버 등이 이용되었다. 조류뼈도 발견되었는데, 청둥오리, 흰꼬리 독수리, 꿩 등이다. 어업과 관련한 동물 뼈도 고르밧카 유적에서 20종류의 물고기 뼈가 발견되었다.

발해인의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농업과 축산활동으로 발해의 생명 유지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다각화된 농업은 생계수단이었을 뿐

해 제 김재윤

만 아니라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Гельман Е.И. 2018.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промыслы в экономике Боха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амятников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морья) // Труды ИИАЭ ДВО РАН. №20.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168-176.

| 해제 | 발해 생업경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유적에서 출토된 곡물자료 및 동물 뼈 분석을 바탕으로 농경, 목축, 사냥, 어업 생활을 추정한 것이다. 농경과 목축이 발해인들의 생업 수단이었고 연해주의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사냥과 어업도 일정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I. 겔만은 실제로 오랫동안 연해주에서 발해 취락유적이나 성을 발굴해서 얻은 연구결과로 작성된 논문이다. 발해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편년연구만 중심이 되지 않고 생활상을 복원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발해 도시의 문화와 일상생활

저 자 E.I. 겔만 외
Е.И. Гельман
E.I. Gelman

연 도 2018
간행물명 『극동의 중세 제국 도시』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발해
도시 문화
일상생활
여가생활
생계활동
종교

목 차
1. 머리말
2. 발해 도시 구획
3. 발해 시민들의 생계 활동
1) 도시 농사 자원
2) 목축업
3) 수공업
4. 교류
1) 국내 교류
2) 해외무역
5. 도시 문화
1) 교양, 문자
2) 종교
3) 시민들의 여가 생활
4) 예술
5) 음악 및 문학
6. 맺음말

이 논문은 고고학 자료로 발해 도시 문화를 밝히기 위해 쓰여졌다. E.I. 겔만, E.V. 아스타셴코바는 집성한 자료와 이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발해 도시 문화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특징을 논하였다. 본 논문의 필자들은 발해 도시 문화가 지방 문화와 달라지고 독특한 점들로 인해 발전했다고 주장하였다.

행정 중심지 또는 도시가 모든 측면에서 더 발전하였다. 8세기 중엽부터 정방형 또는 그와 가까운 형태의 설계, 내성과 외성 등 중국식 구획이 작용하게 된다. 내성은 궁전 건축물이 있고 유교 관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북쪽에 자리 잡는다. 발해 3개 도성과 연해주 소재 성곽인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콕샤롭카-1 Кокшаровка-1(Koksharovka-1)성의 구획이 유사하다. 필자는 위에 지목된 성들의 발굴조사 성과를 간략하게 서술한다. 동시에 독특한 토착 구획 전통이 형성되고 있었다. 필자는 주거구역, 도로와 광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도로는 도시를 중요한 구역으로 구분하고, 광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었던 곳이라는 주장이다.

출토된 농경 도구로 미뤄보아 발해 도시 주민들의 주요 농사 방법은 경작이라고 할 수 있다. 재배 식물은 14 종류가 발견되었는데, 조는 주요 재배종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곡물과 콩 종류도 확인된다. 가축의 주요 종류는 돼지였으며 개, 말, 소도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수렵, 채집, 어로 등의 수공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12 종류의 야생 식물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발해인들은 채집경제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야생 동물 등의 멧돼지, 사슴, 새, 파충류 등이 발견되어 수렵생활을 하였다고 보았다. 더불어 수렵용 도구도 출토되었는데 이는 무기류와 유사하다. 또한 조개도 29 종류 이상 확인되었는데 조개가 생계경제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어로 도구도 나와서 당시 어로가 생계경제에 일부였다는 점이 실증되었다. 어종은 아직 상세한 동정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바닷물고기, 민물고기, 회유어 여러 종류가 확인되었다. 또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수공업 중에 금속가공과 관련된 것은 다수의 유구 및 유물에서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주철과 청동 주물, 금속가공용 도구, 주조된 유물 등이 확인되었다. 다른 중요한 수공업은 기와가 포함된 토기 제작인데 대량생산 단계로 성장하고 기술 전통 3가지로 형성된다.

교역은 국내 교류와 국외 교류로 구분되는데 문헌 자료에서 국내 교류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물로 교역 상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몇 개의 교류 상품과 관련된 근거를 논하였다. 요약하자면 주로 해안 지역과 대륙 지역 사이의 교

그 림 4.1. 크라스키노 성 출토 토기편과 기와 편의 한자와 낙서
4.2. 횡단구멍이 있는 토제 제품: 1, 2 – 크라스키노 성; 3 – 니콜라옙카Николаевское (Nikolaevka) 성(미하일롭카 Михайловский(Mikhailovsky) 지구); 5, 6 – 고르밧카 성
4.3. 놀이판(1) 및 토기 편과 기와로 제작된 놀이말(2–7)
4.4. 크라스키노 성 출토 일상생활 도구 및 미술 공예 제품: 1 – 작은 용기의 오리 모양 석제 뚜껑; 2 – 청동제 대장식구; 3, 5 – 청동제 대장식구; 4 – 낙타 모양 청동제 조각상; 6 – 청동제 펜던트; 7– 청동제 팔찌편; 8 – 토제 수막새

해 제 S.S. 실리체바

류가 진행되었고 국외 교류의 근거 유물은 소수이지만 당나라와 주변 국가에서 바다, 강, 육지를 통한 교역이 활발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발해는 교양수준이 높은 편으로 자체字體 3가지가 존재한다고 하나, 고고학 자료로는 1개 자체만 확인된다. 이것은 당나라 영향으로 보이고 일본에서 발해 대사가 쓴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여러 토기와 기와에서 확인되는 명문에 의하여 발해 일반 계층도 글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로 쓸 수 있었다고 본다. 필자는 기와에 확인된 글자를 7가지로 구분하고 해당 유물과 유적을 소개한다.

발해 종교 중에 도교, 불교와 샤머니즘이 있었는데 도교는 고구려와 당시 중국 영향으로 들어왔다. 도시 귀족은 불교를 신앙하였기 때문에 불교가 발해의 주요 종교가 되었고 도시에는 사찰이 지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소규모의 사찰은 도시와 먼 곳에 짓기도 하였다. 이것은 이념을 통일시키려고 했던 정책이었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 사찰의 모습을 복원해 보았을 때, 발해는 당나라 영향을 받은 요소와 자신들의 독특한 요소들이 확인된다. 지방 지역에는 불교 흔적이 없다. 일반인들은 전통 신앙인 샤머니즘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유물은 골각기 또는 작은 조각상 등 소량만 출토되었을 뿐이다. 게다가 일정한 형태가 없는 평지성은 건축에 영향 끼치는 샤머니즘적 요소로 보기도 한다.

일반 여가 생활에는 고누와 같은 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9~10세기 초에는 인기가 가장 많았는데 주사위를 이용한 놀이도 하였다. 이 외에는 바둑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지만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문헌 자료에 따르면 격구擊毬 놀이도 즐겼다.

시각 예술은 조각, 응용미술, 회화, 건축 등이 있고 공연 예술은 문학, 음악 등이 있다. 조각은 불교 영향 하에 발전해서 고구려와 당나라 전통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였지만 점차 독특한 발해 전통이 형성되고 있었다. 발해 조각은 더욱 길어진 양상으로 비례가 이상적이며 크기가 큰 편이다. 응용미술은 뼈, 뿔, 돌, 조개, 물고기 뼈로 만든 장신구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다. 또한 진흙으로 토용과 놀이용구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주조 기술도 발전되어 청동, 주철, 철 등으로 장신구, 일상생활용 도구, 허리띠, 소형 조각상 등을 주조하였다. 주조품에는 기하학 문양, 식물 문양의 조각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 외에 금제, 은제 주조품이 있는데 귀족들 무덤에서 다양한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도금 기술을 사용할 줄 알고 정교한 금제 유물도 발견되었다. 회화로는 당나라 영향을 들여 능숙한 기법의 채색 벽화도 남겼다. 발해 음악은 문헌 자료로 복원할 수 있으며, 유물이 소수 발견되었으며, 독특한 음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악사, 주머니에서 꺼내기 전의 악기의 모습을 일반인들도 음악을 누렸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학 발전을 살펴보면 일상생활과 노동에 대한 시를 썼던 시인들이 있었고, 비석에 새겨진 글들은 유교 관념을 반영한다.

도시 문화는 지방 문화와 많이 다르지 않았지만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건축물, 수공업의 전문화, 높은 인구 밀도와 그로 인한 분화, 기술과 재료가 다

르지만 동일한 유형의 장신구 세트 등이다. 또한 도시에는 엘리트 문화와 민간 문화로 분류되기도 한다. 엘리트 문화는 당나라 영향을 받아들이며 성장한 반면 민간 문화는 말갈 전통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문화와 민간 문화는 별도로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융합하여 발해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요약하자면 발해 도시들은 정치 · 경제적인 중심지였고 육지, 바다, 강으로 대내외 교역을 활발하게 하였다. 또한 발해는 미리 준비된 계획 도시를 건설하고 구획을 유지하도록 건물들을 중앙에서 수리와 재건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발해 도시 문화가 형성하고 점차 발전하였다.

Гельман Е.И., Асташенкова Е.В. 2018. Культура и повседневность бохайских городов // Города средневековых импер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 ИВЛ РАН; Ин-т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С. 124-148.

| 해제 | 이 논문은 발해 도시 문화의 여러 면을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깊은 연구가 아니라서 한계가 될 수 있지만 발해 문화에 대한 초보적 지식을 위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더불어 도판이 함께 제공되고 있는 장점도 있다.

발해국가의 도시

저 자 E.I. 겔만 외
Е.И. Гельман
E.I. Gelman

연 도 2018
간행물명 『극동의 중세 제국 도시』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연해주
중국
성곽
발해 문화
도성
도시

목 차
1. 서론: 발해 도시의 현황과 편년
2. 발해도성
3. 러시아 연해주 지역 발해 도시
1) 크라스키노 성
2) 고르밧카 성
3) 니콜라옙카-1 성
4) 니콜라옙카-2 성
5) 노보고르데옙카 성
6) 아우롭카 성
7) 시넬니코보-1 산성
8) 스타로레첸스코예 성
9) 마리야놉카 평지성
4. 맺음말

이 논문은 고고학 자료를 통해 문헌에서 잘 언급되지 않은 발해 도시의 성격, 기능, 운용방식, 구조 등 다양한 면모를 밝히라는 문제인식으로 쓰여졌다.

발해 성은 평지성과 산성으로 구분하고 평지성이 다수를 자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로 규칙적인 것(장방형), 불규칙한 형태가 다양하다. 전자는 일정한 구획을 갖는 발해 동경성東京城 등을 모방하여 축조되었다. 산성은 규모(3~4ha)가 크지 않으며 전망 좋은 산/언덕 위에 지형에 맞추어 축조되었다. 발해 평지성은 규모상으로 대형(10~16ha)과 소형(1.2~7.5ha)으로 2개 그룹으로 나뉜다.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 콕샤롭카-1Кокшаровка-1(Koksharovka-1) 성은 규모가 큰 것으로 보아 주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후자는 후발해까지 운용하였다. 발해 성은 문지의 수량(1~4기), 옹성 유무 등으로 구분된다. 성벽을 양면석축기법과 치를 설치하는 것은 고구려 성과 유사하여 고구려 축성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편년과 관련하여 발굴조사된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 고르밧카 성은 5~6건축층이 확인되어 운용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다. 금석학 자료가 부족하여 건축층의 절대연대를 적용하기 힘들다. 한편, 중국 자기 출토 기계로, 고르밧카 성의 하한연대는 대략 8세기 말, 크라스키노 성의 하한연대는 8세기 초기로 각각 편년할 수 있다. 이는 문헌을 따라 일본교류가 727년에 처음 실현된 사실로 인증된다. 발해 성에 대한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문화층의 두께 양상, 내부 구획을 복원하기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발해는 4번에 걸친 천도하였다. 당唐에서 모방한 5경제도는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기에 적절한 수단으로 8세기 중엽 혹은 9세기 초엽부터 운용하였다는 의견이 있다. 구국舊國의 위치는 오동성敖東城으로 비정하였지만 발해 이른 시기 자료가 없어 최근에 중국학자들은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서고성西古城은 중경현덕부中京顯德府의 소재지로 비정하였지만 최근 일부 학자는 이 성이 2대 무왕 수도인 현주顯州의 위치로 파악하였다. 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구성되었는데 외성은 총 길이는 2,720m의 토성이고, 내성은 총 길이 992.8m로 내부에 5개의 궁전터는 회랑으로 연결되었다.

동경성은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로 파악하였으며 외성, 황성과 궁성으로 구성된다. 외성은 석축으로 총 길이 16,313m이다. 성 내부는 8개의 대형도로로 구획되어 진다. 황성은 외성 북부에 위치하여 규모는 1,050m×454m이고 내부에는 관청 등 행정 건물을 배치하였다. 황성 북쪽에 궁성이 연결되어 있으며, 중심 구역은 720m×620m이며 돌을 이용

그 림 3.1. 동경성, 발해 상경용천부
3.2. 발해도성:
1 – 서고성(중경현덕부)
2 – 팔련성(동경용원부)
3.3. 연해주 지역 발해 성:
1 – 크라스키노 성
2 – 노보고르데옙카 성
3 – 고르밧카 성
4 – 니콜라옙카–1 성
5 – 니콜라옙카–2 성
3.4. 연해주 지역 발해 성:
1 – 아우롭카 성
2 – 시넬니코보–1 산성
3 – 마리아놉카 평지성
4 – 콕샤롭카–1 성
5 – 스타로레첸스코예 성
3.5. 크라스키노 성의 조사된 동문지와 치성의 평면도
3.6. 크라스키노 성 불교 유구:
1) 크라스키노 성 북서부에 유구와 조사구역 배치
2) 크라스키노 성 절 모형도
3.7. 크라스키노 성 불교 유구에 출토 불교유물:
1) 석불상 편;
2, 3) 보살 청동상
4) 청동불상
5) 청동불상의 손
6) 절의 누각 지붕 장식
3.8. 공공건물지와 주거지가 발견된 크라스키노 성 주거구역
3.9. 크라스키노 성(1~3, 7, 8, 12)과 고르밧카 성(4~6, 9~11)에 출토 발해 절기(1, 4, 5, 8–12)와 주철제(2, 3, 6, 7)
3.10. 크라스키노 성과 고르밧카 성 출토 공구
3.11. 크라스키노 성 출토 발해 토기
3.12. 크라스키노 성(1~7, 10, 12– 16, 19)과 고르밧카 성(8, 9, 11, 17, 18, 20, 21)에 출토 발해 무기와 갑주
3.13. 러시아 연해주 지역 발해 성 출토 낚시 도구
3.14. 발해 성 출토 직조 도구

해 제 M.A. 스토야킨

해 축조하였다. 중심 축을 따라 5개의 궁전터가 배치되었는데 모두 쪽구들을 갖고 있다.

팔련성八連城은 북한 학자를 제외하고는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의 소재지로 비정되었다. 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구성되었다. 외성은 총 길이는 2,894m이며 토성이다. 내성은 총 길이는 1,072m이며, 내부에는 2개의 대형 궁전터가 배치되었다.

동경성, 서고성, 팔련성은 모두 중심축을 따른 대형 건축물 배치양상, 유약바른 장식을 갖는 궁전 등 도성의 전형적인 요소를 갖는 유사함이 있으며 3대 문왕 때 건설되었다. 동경성은 9세기에 많이 확대되었는데 장안성長安城과 유사하였다.

서경西京은 남아있지 않고 5경 중 유일한 사례로 남경남해부南京南海府의 소재지로 청해토성이 들 수 있다. 함경남도에 위치하며 평면 장방형, 총 길이 2,132m이다. 토벽 위에는 치, 각루가 설치되었고 내부에 행정 건물지, 쪽구들 건물지, 와당 등 발해 유구, 유물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 연해주에 분포한 발해 성의 연구현황을 살펴보았다.

크라스키노 성은 연해주 남부, 바닷가에 위치하는데 수십년 동안 발굴조사하고 있으며 동경용원부 관내의 염주성에 해당한다. 성은 항구에 위치하여 일본도의 시발점이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지만 북부는 호형으로 총 길이 1,380m, 면적 12.6ha이다. 성벽은 양면쌓기 기법을 이용하였다. 치, 옹성 등 방어시설과 몇 차례 증측한 것이 확인되었다. 내부는 중심 축을 기준으로 구획하였는데 물리탐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서북부에는 불교사역에서 금당지, 탑기단, 가마터, 우물 등 건축물, 부처상, 치미, 와당 등 유물이 출토되었다. 도시는 내 · 외 무역, 도공, 기와, 금속 등의 산업 중심지였다.

고르밧카 성은 일리스타야Илистая(Ilistaya) 강 우안에 위치한다. 성은 석축하여 평면 형태가 불규칙하고 총 길이는 약 1,250m이다. 성벽 위에 방어시설이 없고 내부에 중앙 도로에 의해 구획하였다. 크라스키노 성처럼 이른 시기에 반수혈식 주거지를 사용하다가 쪽구들을 갖는 지상식주거지로 변했다. 철기, 토기 등 유물이 출토되어 복합 경제 성격을 보여준다. 성은 규모상 크라스키노 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주성으로 운영하고 일부 기간에 발해 국경의 행정 거점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니콜라옙카–1Николаевское-1(Nikolaevka-1) 성은 같은 지역에 위치하여 평면 장방형이고 총 길이는 1,010m이다. 유적은 다문화층을 이루고 있으며 발해시기의 주거지, 수혈에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니콜라옙카–2 성은 니콜라옙카–1성 주변에 위치하며 평면 장방형, 면적은 4ha이다. 성은 발해 초–말기에 해당하며 공방시설과 풍부한 고고자료를 발견하였다. 니콜라옙카 1 · 2성은 고르밧카 성이 관리하는 현의 소재지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노보고르데옙카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Novogordeevka) 성은 연해주 중부에 해당하는 산정상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3.25ha이다. 유적은 다문화층인데 발해 늦은 시기에 토루, 쪽구들이 있는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아우롭카Ауровское(Aurovka) 산성은 연해주 중부에 위치하여 석축하였다. 유적은 다문화층

이며 발해 후기와 후발해까지 오랜 기간에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넬니코보-1Синельниково-1(Sinelnikovo-1) 산성은 연해주 서부에 위치하는데 석축에 뒷채움하여 축조한 8세기에 해당하는 성이다. 지상식 주거지 1기, 말갈 반지하식 주거지 다수와 토기, 철기 등이 출토되었다.

스타로레첸스코예Старореченское(Starorechenskoe) 평지성은 주변에 위치한다. 파괴가 심하여 남아있는 면적은 2.5ha이다. 발해후기의 2개 건축면이 확인되었으며 쪽구들 주거지와 수혈유구가 발견되었다.

마리야놉카Марьяновское(Maryanovka) 평지성은 우수리乌苏里江 우안에 위치하여 면적은 7.5ha이다. 성은 발해에 초축된 후개축한 것이다. 토성에는 옹성, 치 등 부속시설이 설치되었다. 성 동남부에 내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성은 발해 동쪽 국경의 거점지 혹은 현의 치소지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해국가는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도시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지위에 따라 행정, 물품 보관, 운반, 수공, 국내 · 외 무역 관리 등을 하였다. 발해 영토 확장 시 성을 축조하여 이는 새 지역의 거점지 역할을 하게 하였다.

Гельман Е.И., Асташенкова Е.В., Прокопец С.Д., Ивлиев А.Л. 2018. Города Боха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 Города средневековых импер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 ИВЛ РАН; Ин-т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С. 68-123.

| 해제 | 이 논문은 발해도성과 연해주 지역의 발해 성을 종합하여 조사 현황과 발해 성의 입지, 축성방법, 방어시설, 내부 구조, 물질문화, 경제활동, 기능 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발해 도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수십년간 조사된 크라스키노 성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대표적인 발해 성을 복원하기에는 좋은 자료이다. 발해도성의 성격, 구성, 유적에 대한 연구사도 포함하여 발해문화, 도성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한편, 연구 대상은 도성과 당시 변방에 해당하는 연해주에 분포하는 성에만 제한하여 전체 발해 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보인다. 그리고 콕샤롭카-1 성은 규모상으로 주성으로 파악하지만 한 · 러 공동조사 결과 안변부의 소재지로 파악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저 자 A.A. 김
A.A. Ким
A.A. Kim
연 도 2015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3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1990년대, 2000년대 북한 고고학자의 극동지역 발해유적 연구에 대한 평가

주 제 어 발해
북한
고고학자
유적조사
평가

해 제 김동훈

이 논문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북한 고고학자들의 러시아 극동 발해유적 연구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1992년에서 1993년 사이 북한 고고학자들은 연해주 초기철기시대 크로우놉카 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 주거유적과 발해시대 콘스탄티놉카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Konstantinovka) 주거유적 발굴조사를 러시아 학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은 1990년 후반기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해외에서의 고고학 공동조사가 추진되지 못하였다.

1990년대 초 북한에서의 발해 연구는 박시형과 그의 제자들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박시형은 발해의 지배자들이 고구려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말갈인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다른 연구자들은 이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2000년대에는 북한학자들의 러시아 극동 발해에 대한 평가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졌다. 이는 말갈문화적 요소를 발해의 고고문화에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구분된다. 장국종을 대표로 하는 한 그룹은 흑수말갈을 제외한 말갈의 종족 대부분이 사실상 고구려의 지역 주민이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들 그룹은 러시아 학자들의 연해주 중세성곽 비정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림호성을 대표로 하는 또 다른 한 그룹의 연구자들은 발해고고문화에서 말갈문화요소를 배제하였다. 림호성은 발해가 고구려의 후예로 지상건물에서 생활한 문명인이기에, 7~10세기 성곽에서 지상주거가 확인되어야 발해유적으로 비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스타로레첸스코예Староречeнское(Starorechenskoe), 노보고르데옙카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Novogordeevka), 보리솝카Борисовка(Borisovka), 코르사콥카Корсаковка(Korsakovka), 니콜라옙카Николаевское-1·2(Nikolaevka-1·2), 마리야놉카Марьяновское(Maryanovka) 유적에 대한 러시아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근거하여, 연해주의 남부와 중부에서 발해의 도시유적이 존재했으며, 연해주 북부와 중부 일부 지역은 말갈의 영역이었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북한에서는 발해와 고구려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초 중국이 발해를 당의 자치주로, 고구려를 중국의 국가라고 새롭게 소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 학자들은 중국 학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러시아 극동 남부 발해유적연구에 대한 북한 학자들의 지식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 소련 시절의 연구성과와 1990년 초 북러 공동발굴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여러 사정이 좋지 않아 북한학자들이 2000년대 러시아 학자들이 새롭게 출간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Ким А.А. 2015. Оценка изучения памятников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археологами в 1990-2000 гг.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3.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303-307.

| 해제 | 이 논문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북한 발해연구자들이 본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고고연구를 개관하는 글로서 발해사 연구의 학사적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분석한 북한 학자들의 논문 수가 적어 성급하게 일반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저 자 N.V. 레셴코
Н.В. Лещенко
N.V. Leshchenko
연 도 2017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3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고고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본 7~13세기 극동의 어로

주 제 어 발해성지
어망추
아무르강
여진문화
오호츠크 문화
작살

목 차
머리말
어로도구의 특징
결론

러시아 연해주의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지에서는 수년간 발굴 과정에서 점토와 석재로 만들어진 어망추가 70개 이상 발굴되었다. 크라스키노 성지 외에 마리야놉카Марьяновское(Maryanovka), 노보고르데옙카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Novogordeevka), 니콜라옙카-2 Николаевское-2(Nikolaevka-2) 유적에서 비슷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모두 11가지로 구분되며,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모양에 따라서 낚시 바늘과 몸통의 모양이 차이가 있다. 크라스키노 성지 내에서는 20가지가 넘는 바다 물고기 뼈가 확인되었다.

1유형 : 가장자리에 홈이 있는 직사각형. 구멍크기 0.2~0.5cm, 길이 3~4cm, 너비 1.7~3cm, 두께 0.6~1.5cm, 무게 12~31.4g

2유형 : 단면이 직사각형인 어망추, 구멍크기 0.3~0.5cm 2개, 길이 7cm, 너비 2~3.6cm, 두께 0.75~2cm, 무게 16~70.4g, 사암

3유형 : 가로 세로의 홈이 있는 대형. 길이는 7.8~8.3 cm, 두께는 1.7~3.1 cm, 무게는 51.5~75.1g, 재료는 주로 사암

4유형 : 측면에 홈이 있음. 석제와 점토로 제작. 점토무게가 3.2~3.8cm, 두께 0.4~0.6cm, 무게 7~7.6g, 석제 길이 5.4~7.5 cm, 깊은 홈 0.3~0.4 cm, 무게 25.5~92 g.

5유형 : 중앙에 관통 구멍이 있는 점토 원통형 싱커.

6유형 : 둥근모양, 구멍 2~4개, 직경 5.8~6cm이고 두께는 0.8~1.7cm

7유형 : 중앙에 홈이 있는 원통형. 사암제.

8유형 : 납작한 형태, 측면이 잘림

9유형 : 납작한 형태로 모서리에 구멍이 있는 형태.

10유형 : 자갈

11유형 : 둥근 상단에 구멍이 있는 둥근 모양의 경석으로 만든 제품.

아무르강 유역의 9~12세기 중반 포크롭카Покровская(Pokrovka) 문화의 고고학 유적지에서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고리가 있는 일종의 회전식 작살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오호츠크Охотская(Okhotsk) 문화에 속한 사할린, 홋카이도 북부, 쿠릴 열도에서 비슷한 도구가 확인된 바 있다. 오호츠크 문화에서는 주로 뼈로 만들어졌고 해양어업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아무르강에서 확인되는 회전식 작살은 철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당연히 어로와 해양사냥에 유용한 유물은 철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포크롭카 문화에서 상당히 특징

표 1. 크라스키노 발해 성에서 출토된 어망추(1980년, 1981년, 1983년, 1990년, 1994년, 1997년, 1998년, 2000~2014년 출토품)

그 림 1. 경석,
1) 크라스키노 출토,
2,4) 니콜라옙카-2 출토,
3)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출토
2. 아무르강에서 출토된 작살
1) 다다Дада(Dada)마을
2) 우스티-툰구스카 Тунгуска(Tunguska)-1
3) 체프치키Чепчики(Chepchiki)
4) 우스티-툰구스카-2
5) 아뉴이Анюй(Anyui)
3. 횃불을 켜고 하는 낚시, 베잔 히로사와平沢屏山 (1822~1876)

해 제 김재윤

적인 유물이다. 낚시 도구로 인해서 포크롭카 문화가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Лещенко Н.В. 2017. Рыболовств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VII-XIII века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ыпуск 3. Ремесла и промыслы.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76-85.

| 해제 | 연해주의 발해 유적인 크라스키노 유적에서 출토되는 석재와 토제 어망추 및 아무르강 하류에 위치한 여진 문화인 포크롭카 문화에서 확인되는 철제 회전식작살에 대한 고찰이다. 발해와 여진에 대한 문화가 사냥 뿐만 아니라 해양어업도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최근에 발해 유적에서 드러나는 농경의 직접적인 증거와 함께 발해 및 여진의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참고할 만한 연구로 생각된다.

연해주 성의 규모와 분류

저 자 A.L. 메젠체프
А.Л. Мезенцев
A.L. Mezentsev

연 도 2012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1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연해주
성
중세
말갈
발해
여진
동하국

이 논문은 선사부터 중세까지 연해주에 분포하는 성을 종합하고 면적, 입지, 축성 등 외형적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연해주에는 약 200개의 성곽이 알려져 있으며 연구자마다 '성', '보루' 등 통일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전에 성곽은 지형 조건 혹은 일정한 시기의 성곽 입지, 규모 등에 의해 분류했는데 소형, 대형 등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자연 절벽으로 보호하는 유적(시니예 스칼리Синие Скалы(Siniye Skaly) 등)과 성벽, 해자가 소규모인 유적(코르사콥카-16Корсаковка-16(Korsakovka-16) 등)을 특수한 성격으로 보고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나 모든 성곽의 면적을 세밀하게 분석한 형식분류안을 제안하고 있는 점은 커다란 연구결과이다.

성의 규모라는 분류기준은 인구수와 역할도 설명해준 것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시기에 따라 성의 규모에 대한 기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년 기준 없이 모든 성을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68개소는 보고내용이 소략하여 제외하면 나머지 중 77개소 소형(2ha까지), 37개소 중형(2.5~8.7ha), 27개소 대형(10~85.5ha), 4개소 특대형(100~180ha) 등 4개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은 다시 소형(a), 중형(b), 대형(c)으로 소분류하였다.

소형 성은 수량이 가장 많으며 청동기시대부터 중세 후기(17세기 전반)까지 오랜 기간 사용되었는데 청동기시대와 발해시기가 가장 많다. 중 · 대형은 발해와 금시기에 자주 사용되었고 특대형은 금과 동하국에서 2개씩이 축조되었다. 발해, 금, 동하국 시기에는 모든 규모의 성이 사용되었다. 특히 발해부터 축조된 성의 수량이 증가하는데 흑수말갈을 비롯한 주변과의 잦은 전쟁과 국경 설정 등 국제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후발해 성은 수량이 많지 않아 연구가 미흡하고 빈도가 가장 많은 성은 12~13세기에 해당한다. 13세기 이후 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기원전 2천년기 말에 문화간 갈등에 의해 소형(a) 성(체르냐티노-3Чернятино-3(Chernyatino-3) 성 등)이 출현하였다. 이후 리돕카 문화에 소형(b)이 출현하였다. 폴체Польце(Poltse) 문화권 주민은 아무르강에서 남쪽으로 이주하면서 성을 축조하게 되었다. 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 문화에서 소형 성은 모든 유형에 속해 면적이 증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규모상 말갈 성은 이전 시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그 기능과 군사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발생 전 소형 성이 유일하며 그 중 a유형이 주류인 것으로 보아 중 · 대 · 특대형 성은 국가 전 · 후 단계를 구분시킬 수 있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 림 1(a). 소형 성의 면적 빈도 분포
1(b). 중형 성의 면적 빈도 분포
1(c). 대·특대형 성의 면적 빈도 분포

표 1. 면적당 성 분포
1. 청동기시대
2. 철기시대
3. 말갈시기
4. 발해시기
5. 후발해 시기
6. 금시기
7. 동하국시기
8. 후여진 시기
9. 중세 후기

해 제 M.A. 스토야킨

발해의 성 등급은 중국 성 등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급 성의 내성 면적은 하급 외성 면적에 해당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특대형보다 큰 성은 도성都城, 특대형은 부성府城, 대형은 주성州城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수도와는 다르게 성의 등급에 대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수이푼绥芬河 지역의 중심지(면적 14~24ha)로 추정한 대성자고성大城子古城 혹은 폴탑카Полтавка(Poltavka) 성은 부성, 대형(a · b)인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 콕샤롭카-1Кокшаровка-1(Koksharovka-1) 성은 주성, 중형(a · b) 성은 현성의 소재지로 비정하였다. 소형 성은 행정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특히 크라스키노 성은 문헌이 잘 남아 있어 대형(a) 성은 주성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준다.

후기발해와 여진 초기에는 발해성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소형 산성을 새롭게 축조하였다. 마이스코예Майское(Mayskoye) 성 등은 평면 방형인 중형이며 모두 금 초기에 해당한다. 동하국시기에는 몽골 공격을 대비하기 위하여 동일한 규칙을 이용해 복잡한 방어시설이 설치된 산성을 축조하였다. 왕조는 붕괴하여 완공되지 않은 산성(오를롭카Орловка(Orlovka) 산성)도 발견되었다.

중 · 대형 산성 내부에 '레두트'라는 시설물은 행정 기능과 관련되어 지휘관의 치소지로 판단된다. 스토곱카Стоговское(Stogovka) 산성 등 중형 성과 샤이가Шайга(Shaiga) 성 등 대형(a) 성은 모극謀克[1모극은 100호로 구성되고 10모극은 1맹안을 이루었다.]의 중심지로 판단되며 일부는 모극 여러 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b, c) 성은 맹안猛安의 중심지로 추정할 수 있다. 샤이가 성은 주성으로 비정하는 의견과 동의하여 일부 대형(b, c) 성은 주성에 해당하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크라스노야르Красноярровское(Krasnoyarovka) 산성은 여진시기에 대형(b)에 속하다가 13세기에 특대형으로 개축한 것으로 동하국 상경으로 비정하였다. 연해주 북부에 무지자Музиза(Muziza) 성 등은 포크롭카Покровская(Pokrovka) 문화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모든 성은 입지에 따라 산성, 평지성과 평산성으로 나뉜다. 산성은 퇴뫼식, 포곡식, 테라스식 유형으로 분류된다. 입지와 축성의 성격으로 단순한 구조의 곶성, 복잡한 구조의 곶성 및 결합한 곶성(여러 개 곶과 계곡을 포함한 형태) 등으로 구분된다. 평지성은 형태가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한 것 등으로 나뉜다. 모든 성은 방어시설에 따라 단순한 것(토루와 해자), 복잡한 것(다수의 토루와 해자), 결합된 것(토루, 해자 및 부속시설) 등 하위 속성으로 소분류된다. 단순한 구조의 곶성은 가장 수량이 많다.

형태 분류에 따른 편년을 살펴보면 고금속기시대 성은 산성에 속하며 모든 유형의 1, 2형, 1, 2식에 포함한다. 국가성립 전 말갈 성은 양상이 유사하며 발해확장에 저항한 동남부에 거주한 말갈은 추가로 多곶성을 적용하게 되었다. 발해시기에 평지성이 출현하여 모든 형식이 확인되었다. 여진시기에 이전 형태를 포함하여 평산성 3형, 3식이 추가로 발생되었다. 13세기에 여진 국가가 붕괴된 후 일부 성이 계속 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콕샤롭카-1 · 2 성은 명시기에 이용했다는 가설이 있다. 천명제의 소재지는 평면상 원형을 띤 것을 보아 연해주 원형 성은 중세 후기에 축조했을 가능성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Мезенцев А.Л. 2012. Размеры и классификация приморских городищ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1.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61-81.

| 해제 | 선사부터 중세까지 약 150개의 성에 대한 면적 분류와 체계적인 편년 작업을 실시하여 면적에 따른 각 시기의 성곽 특징과 발전과정을 밝히는 좋은 시도의 결과물이다. 통계분석을 통해 세밀하게 성의 면적을 분류하여 기존의 연해주 성 연구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성 발전과정에서 면적이라는 기준만 적용하여 성에 대한 지위, 역할, 인구수를 보여주는 입장과 달리 예외가 있어 편년, 정치, 경제, 입지 등 조건을 염두에 둔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 논문에서 콕샤롭카–1 성은 주성으로 파악하는 반면에 발굴결과를 통해 한국에서는 안변부의 부성으로 비정하여 큰 차이가 보인다. O.V. 디야코바О.В. Дьякова(O.V. Dyakova)가 산성, 평지성 외에 '곶형' 형식을 새롭게 선정하였으나 20세기 초에 이미 연구 대상으로 시도되었다는 저자의 비판은 주목된다.

저 자 A.L. 메젠체프
А.Л. Мезенцев
A.L. Mezentsev
연 도 2014
간행물명 『동아시아의 전통문화』 7호
발 행 처 국립 아무르대학교

우수리스크 주변 지역의 발해말갈시기 마을 주거지에 대한 지형적 분류

주 제 어 발해
취락지
언덕 경사면
강변의 범람원
계곡부 입구
산 아래
강의 범람원

해 제 김재윤

발해시대의 취락지는 자연적 · 지리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모여서 사는 장소 거주지는 지형과 자연적 특징이 가장 고려된다. 말갈문화의 취락지가 우수리스크 근처에서 40건 이상 발견되었다. 취락의 입지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언덕의 경사면에 위치하는 경우로 말갈 취락지 가운데 가장 큰 미하일롭카-2Михайловка-2(Mikhailovka-2)와 올레뇹카-1Оленёвка-1(Olenevka-1) 유적이다. 두 번째는 강변의 범람원에서 위치하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취락지이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코르사콥카-32Корсаковка-32(Korsakovka-32), 보리솝카-3Борисовка-3(Borisovka-3) 유적 등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강의 계곡부 입구에 위치하는 유적으로 라콥카Раковка(Rakovka) 강의 하류에 위치한다. 네 번째 유형은 산 아래에 위치한 곳으로 대표적인 유적은 쿠구키-2Кугуки-2(Kuguki-2) 유적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강의 범람원에 위치하는데 우수리스크-15Уссурийск-15(Ussuriysk-15) 유적과 우툐스노예-2Утёсное-2(Utesnoe-2) 유적이 있는데, 말갈 유적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유적에 속한다. 모든 유적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입지가 아닌 다른 곳에도 있다. 자고로드노예-4Загородное-4(Zagorodnoye-4), 우툐스노예-7 유적은 강이 교차하거나 회전하는 곳에서 취락지가 형성되었다. 현재 우수리스크 부근에서 발해 마을은 계곡 옆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서, 발해 마을 유적과 말갈의 마을 유적은 거주지가 대부분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외가 우툐스노예-4 유적에서는 말갈시기 위에 발해의 취락지가 확인되어서 전통이 계속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수리스크 부근의 라즈돌나야Раздольная(Razdolnaya) 강 유역에 있는 말갈의 취락지 입지를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유적이 입지한 곳은 강의 범람원에 있고 언덕의 봉우리와 계곡 안의 평지에서도 확인된다. 말갈이 있던 지역에서는 발해와 여진시대뿐만 아니라 발해 이후의 여진 시기에도 계속 취락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산의 정상부에 위치한 취락지는 말갈 사람들이 남겨 놓은 것이다.

Мезенцев А.Л. 2014. Топографическая классификация средневековых сельских поселений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Уссурийска //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Вып. 7. Благовещенск: Изд-во АмГУ. С. 212-21.

| 해제 | A.L. 메젠체프는 말갈 유적 가운데서 취락지를 유적의 입지에 따라서 구분했다. 그런데 A.L. 메젠체프의 자료는 발굴된 유적이 아니라 단순히 지표조사 혹은 시굴 트렌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다. 연해주의 유적은 봄과 가을에는 구지표에서 수혈의 흔적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지표 위에서 육안으로 수혈의 구분이 가능해서 유적의 유무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발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적의 말갈과 발해를 구분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 자 Yu.M. 바실리예프
Ю.М. Васильев
Yu.M. Vasiliev

연 도 2005
간행물명 『러시아 극동의 고대와 중세: 발견, 문제, 가설』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아무르 유역의 포크롭카 문화 (9~13세기)

주 제 어 포크롭카 문화
폴체 문화
말갈 문화
트로이츠코예
코르사콥카
나데진스키–루단니콥스키
크라스노쿠롭스키

목 차
1. 머리말
2. 문화 경계
3. 포크롭카 문화 유적
4. 장법
5. 물질 문화
6. 문화 단계
7. 생계 경제
8. 영문 초록

1975년 A.P. 오클라드니코프 А.П. Окладников(A.P. Okladnikov)와 V.E. 메드베데프B.E. Медведев(V.E. Medvedev)는 아무르 지역의 9~13세기 중세문화를 '아무르 여진'문화로 분류하였으나, 1985년 필자는 포크롭카Покровская(Pokrovka) 문화로 명명한 바 있다. 포크롭카 문화는 처음에는 말갈에서 나왔으며, 점차 포크롭카 문화로 발전하였다.

이 문화의 경계는 북으로는 아무르 하류, 동으로는 시호테 알린 산맥, 남으로는 비킨Бикин(Bikin) 강이나 이만Иман(Iman) 강(볼사야 우수르카Большая Уссурка(Bol'shaya Ussurka))이었으나, 최근에는 한카호(흥개호)의 동북변까지로 본다. 서편으로는 소흥안령과 눈강嫩江까지이다.

유적으로는 취락지, 성터, 고분이 있다. 주거지는 수혈주거지로 구들이 설치된 것도 있다. 성은 산성과 평지성이 있다. 가장 큰 성은 드자린스코예Джаринское(Dzharinskoye) 성이다. 고분은 봉토분과 토광묘가 있는데, 토광묘로는 코르사콥카Корсаковский(Korsakovka)와 나데진스키Надеждинский(Nadezhdinsky) 고분군이 잘 알려져 있다. 봉토분은 11세기 초부터 나타나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상부에 구덩이가 있다는 점이다. 구덩이 수는 매장수와 일치한다.

장법으로는 매장, 화장이 있다. 앙와에 무릎을 구부린 굴신장이다. 부장품으로는 토기가 가장 많은데, 수제와 윤제가 있다. 금속품으로는 칼, 화살촉, 귀걸이, 팔찌, 중국 동전, 동종, 과대세트 등이 있다. 코르사콥카 유적에서 출토된 과대가 유명하다. 도끼, 창끝, 검은 드물게 출토된다. 방어 장비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데, 대부분은 찰갑이다. 등자, 재갈 같은 마구는 매우 드물다. 장신구로는 옷에 꿰맸던 표찰과 패식이 있다. 드물게 남아 있는 옷감은 모직과 명주이다. 관 바닥에는 자작나무, 펠트천, 동물가죽을 깔았다. 말과 돼지의 턱뼈와 이빨도 있고, 좁쌀이 보존된 경우도 있다. 소규모의 유아용 무덤도 있다. 유아용 무덤에는 미니어처, 장남감, 맛있는 음식(잣, 과일 등)이 부장되는 경우가 있다. 2인에서 4인 정도의 집단묘는 드문 데, 친척들이다. 집단묘는 여러 층이거나 중복되어 있다.

모든 포크롭카 문화 무덤은 고대에 고의로 파내는 시체발굴이 있었다. 두개골과 같은 인골의 보존을 위한 의례와 관련이 있다. 3~5년 정도 지나서 행한다. 대체로 두개골의 얼굴과 상완골 부분을 없앤다. 의례적으로 관을 태운다.

포크롭카 문화에서 화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매장지 내부와 외부가 있다. 11세기 말에서 12세기에 등장한다. 내부 화장은 나데진스키와 볼론스코예Болонъский(Bolonskiy) 고

그 림 104. 포크롭카문화 경계와 유적들. 고분들
145. 포크롭카 문화 주거지 유형
146. 고분 유형
147. 고분 내부 목제 결구 유형
149. 포크롭카 문화 고분의 주검 방향
150. 토기들
151. 12~13세기 용기들
152. 과대와 과대장신구들
153. 포크롭카 문화 무기들

해 제 홍형우

분군에서만 보인다. 외부 화장은 보다 보편적이며 주로 봉토분에서 잘 알려져 있다.

유물로는 그릇(토제, 금속제), 과대 장식품, 의류, 장신구(목걸이, 귀걸이, 팔찌), 호부, 생산도구(칼, 도끼, 부싯돌, 낚시도구, 굴지구), 공구(목공구, 철공구), 사냥 및 전쟁 무기(칼, 화살촉, 활과 화살통, 창끝, 주조철부, 검), 마구(등자, 재갈, 안장, 마구) 등이다. 포크롭카 문화의 가장 전형적인 유물은 토기와, '아무르식'이라 불리는 과대와 무기들이다.

토기는 수제와 윤제가 있다. 수제는 '말갈'형식으로 구연부에 돌대문이나 동체부에 격자문이 있다. 드물게 '코수염'모양의 돌대문이 있는 것도 있다. 유사한 문양의 토기가 아무르 유역의 말갈 유적과 부르호투이Бурхотуйская(Burkhotuy) 문화에서 보인다. 발형, 호형, 쇠솥을 모방한 토기, 컵, 뚜껑 등 5개 형식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주로 조리용으로, 그을음이 묻어 있다. 윤제토기 역시 5종류로 발형, 호형, 컵, 대접, 뚜껑으로 구분된다. 6번째 형식은 한 유적에서만 보이는 특수한 형태의 토기들이다. 과형 토기는 기원에 관해 흥미로운데, 금속기를 모방한 것이다. 과형 토기는 말갈, 발해, 거란 토기에 알려져 있다. 다양한 형태가 거란토기에서 보인다. 문양은 마연, 스템프, 찌름문으로 새겼다. 아무르 지역의 9~13세기 토기는 연해주의 여진 유적 토기들과는 유사하지 않으며, 말갈 유형 토기에 알려지지 않은 과형토기가 포함되어 있다. 11세기 포크롭카 문화에는 금속 용기가 출현한다. 과대는 4형식으로, 일반형, 투르크형, 아무르형 그리고 얇은 판모양으로 나뉜다.

포크롭카 문화와 관련 있는 고고학문화는 폴체Польце(Poltse), 말갈, 포크롭카이다. 매장법, 물질문화, 화폐자료 그리고 방사성탄소연대측정에 따라 포크롭카 문화는 4단계로 나뉜다.

1단계(트로이츠코예Троицкий(Troitsky) 단계, 7~9세기). 트로이츠코예, 나이펠드найфельд(Naifeld), 코치코밧카Кочковатка(Kochkovatka), 샵카Шапка(Shapka) 고분군이 여기에 속한다. 이 단계에는 토광묘만 존재한다. 매장, 앙와굴신장, 두향은 북향(트로이츠코예 그룹) 혹은 위도방향(나이펠드 그룹)이다. 관태우기 의례가 있었다. 토기는 수제 혹은 회전판 손질이다. 유물은 대부분 투르크 기원이다.

2단계(코르사콥카 단계, 9세기 말~10세기). 코르사콥카, 나자이첸스키Назаичевский(Nazaichevskiy), 두보바야 룔카Дубовая Рёлка(Dubovaya Rolka), 프로토카 비스트라야Протока Быстрая(Protoka Bystraya), 그랴즈누하Грязнуха(Gryaznukha) 고분군 등 토광묘만 존재한다. 매장, 앙와굴신장, 두향은 동향이다. 의례에 변화가 있어 불태우기와 다른 보조행위가 공존한다. '가정'토기는 수공업품을 모방한 회전판에서 제작되었다. 윤제 회색 토기에 대한 높아진 수요가 금속을 모방한 토기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투르크와 아무르 유형의 과대가 있었으며, 여기에 삼릉형 화살촉, 단면 Z자형 화살촉이 출현한다.

3단계(나데진스키-루단니코바, 11~12세기 초). 두보보예Дубовое(Dubovoe), 몰차니하Молчаниха(Molchanikha), 나데진스키, 볼론스코예, 테지노 오제로Тежино Озеро(Tezhino Ozero), 아뉴이Анюй(Anui), 프로토카 크리바야Протока Кривая(Protoka Krivaya), 루단니코바 솝카Луданникова Сопка(Ludannikova Sopka)(동 · 서 그룹), 유크타칸-1Юктакан-1(Yuktakan-1) 고분군이 있다. 이 시기

에 봉토분이 출현한다. 매장법과 부장유물에는 양자 간 차이가 없다. 주검은 전통적인 앙와굴신장이며, 두향은 동향이다. 불태우기 의례는 토광묘에서만 존재하며, 봉토분에는 유일한 예외만이 존재한다.

2, 3단계의 유물은 거의 동일하나, 3단계에는 2단계에 비해 약간의 변화가 관찰된다. 투르크 과대장식품은 드물어졌으며, 아무르유형이 우세해 진다. 토기는 윤제토기가 많아졌으나, 말갈토기와 같은 수제토기도 여전히 존재한다. 단순한 화살촉의 수는 줄고, 철판을 관통하는 Z자 모양 화살촉이 많아진다. 말뼈는 드물어지고, 대신 1단계에 비해 마구가 늘어났다.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에는 불태우기 의례는 화장으로 바뀐다. 화장의례를 행할 때 인골들은 무덤으로부터 제거되거나, 완전히 사라진다. '말갈'토기는 적어지고, 물레에서 제작된다. 철제 판으로 된 과대가 자주 출토된다.

4단계(크라스노쿠롭스키Краснокуровский(Krasnokurovskiy) 단계, 12~13세기). 바르수치 노리Барсучие Норы(Barsuchiye Nory), 프로토카 스베틀라야Протока Светлая(Protoka Svetlaya), 프로토카 크리바야, 구단니코바 솝카 중 오제르나야Озерная(Ozernaya) 그룹, 크라스노쿠롭스키 고분군이 속한다. 점차 화장으로 바뀌며, 매장은 일반인의 고분에만 남는다. 화장과 관련 있는 방형과 장방형의 새로운 형태의 봉토분이 출현한다. 과형토기가 두드러지게 늘어난다. '말갈'형식의 토기는 모양만 남고 거의 물레에서 제작된다.

농경과 목축, 그리고 어로와 수렵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가내 수공업과 토기 제작이 어느 정도 발달하였다. 철 슬래그가 거의 모든 취락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공업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르의 민족들은 투르크, 중국, 한국, 발해, 거란, 여진 그리고 여타 다른 민족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였다.

Васильев Ю.М. 2005. Покровская культура Приамурья (IX-XIII вв. н.э.) // Росси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о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592-614.

| 해제 | 이 논문은 포크롭카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문화경계, 유적들, 장법, 문화유물, 문화단계, 생계경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포크롭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글이다.

1994~1998년 연해주 발해유적의 발굴조사 결과

저 자 V.I. 볼딘
В.И. Болдин
V.I. Boldin

연 도 2001
간행물명 『동아시아의 고대와 중세 역사: 발해건국 1300주년』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연해주
발해
성곽

해 제 최재경

이 논문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이루어진 연해주 발해유적의 발굴조사 성과를 정리하는 글이다. 대상 유적은 다음과 같다.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 시넬니코보Синельниково(Sinelnikovo) 성,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성, 유즈노 우수리스크Южно-Уссурийское(Yuzhno-Ussuriysk) 성, 니콜라옙카Николаевское(Nikolaevka) 성, 마리야놉카Марьяновское(Maryanovka) 성, 아우롭카Ауровское(Aurovka) 성, 콘스탄티놉카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Konstantinovka) 유적, 아브리코스Абрикосовское(Abrikos) 유적, 제의 관련 유적인 코르사콥카Корсаковский(Korsakovka)사지, 코피토Копытинский(Kopyto), 아브리코스 사지, 그리고 크라스키노 고분군, 체르냐티노-5Чернятино-5(Chernyatino-5) 고분군이다

일부 연구자들의 의견과는 달리 본 논문의 필자는 연해주 남부가 발해의 영토 및 행정 구역의 일부였다고 파악하였는데, 적어도 하산Хасанский(Khasan) 지구 남부는 동경東京 지역의 일부였다고 보았다.

필자는 조사 과정에서 고구려의 건축 전통이 발해에 의해 계승되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연해주 중부와 북동부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해의 북동쪽 경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했다.

크라키스노 성의 발굴 성과를 통해 10세기 1/3분기로 유적의 연대를 파악하고, 이를 926년 거란의 발해 정복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크라스키노 성은 그 후로도 일정 기간 동안 존속하였는데, 이 때 거란이 속주를 설치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다른 중세 유적들의 연대 또한 명확해졌다. 크라스키노 고분군은 발해 시기에 속하지 않으며 이 지역의 첫 거주자는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문화인들이었다고 추측했다.

Болдин В.И. 2001. Результаты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Приморья в 1994–1998 гг. // Древняя и средневековая история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 130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С. 72-75.

| 해제 | 이 논문은 1994년에서 1998년 사이의 연해주 발해유적의 발굴성과를 정리한 글이다. 기존 다른 연구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연해주 남부가 발해의 영역에 속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 자 V.I. 볼딘
В.И. Болдин
V.I. Boldin

연 도 2015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3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러시아 연해주 발해인들의 농업과 목축

주 제 어 발해
생업
가축사육 농업
철제농기구
개 뼈
돼지 뼈
말 뼈

목 차 머리말
어로도구의 특징
결론

그 림 1. 연해주 발해유적에서 출토된 철제 농기구
1–철제 가위, 2–낫, 3–쟁기, 4–맷돌, 5–삽, 6–마개, 7–핀

해 제 김재윤

8~10세기에 연해주 발해인들은 소를 사육하고 사냥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들은 가축사육 뿐만 아니라 농업이 주요 경제활동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유적지에서는 철제 농기구가 많이 출토된다. 주로 철제 쟁기편이다. 삼각형 모양으로 고구려와 신라 유적지에서도 유사한 것이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철제 삽과, 낫도 출토되었다. 수확용구인 낫은 'ㄱ'자로 굽은 것인데 동아시아에서 널리 퍼져 있는 형태이다.

철제 농기구뿐만 아니라 발해 유적에서는 기장, 보리, 밀, 메밀, 콩 등 곡물자료가 많이 출토되어서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농경에 대한 증거는 유적의 입지에서도 알 수 있는데 범람원을 이용했다. 특히 재배식물의 다양한 종구성은 작물을 회전시켜서 휴경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발해인들이 활발한 농경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축사육을 통해서 비료가 원활히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발해 유적에서 확인되는 동물뼈는 소, 말, 돼지, 개 뼈인데, 말의 뼈가 14.7%를 차지하고, 니콜라옙카–2Николаевское-2(Nikolaevka-2) 유적 등에서는 돼지 뼈가 44.1%를 차지한다. 이 유적에서는 개 뼈도 26.8%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어린 동물뼈였다. 이 유적의 예를 보면 발해인도 개를 식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 뼈는 직접 확인되지 않지만 유적에서 양털 깎는 가위가 출토되어서 양도 길렀을 가능성이 있다. 발해 유적에서 확인되는 철제농업용구, 재배식물 및 가축의 구성은 발해 이후의 여진시기에도 이어지고 20세기 초까지 만주지역에 살던 한국인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이다.

Лещенко Н.В. 2017. Рыболовств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VII-XIII века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ыпуск 3. Ремесла и промыслы.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76-85.

| 해제 | 이 논문은 오랫동안 연해주의 발해 평지성을 조사한 볼딘이 그간 연구된 농업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다. 최근에 Е.А. 세르구세바Е.А. Сергушева(E.A. Sergusheva) 가 분석한 식물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E.V. 샤프쿠노프Э.В. Шавкунов(E.V. Shavkunov) 연구한 1960년대에 발해인들이 농경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식물자료 및 철제 농경구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연해주의 발해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발해인의 생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스몰노예 문화 주민의 가내 수공업

저 자 V.E. 샤프쿠노프
В.Э. Шавкунов
V.E. Shavkunov

연 도 2015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2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스몰노예 문화
가내 수공업
방추차
바늘
허리띠
마구
야금술

도 면 5. 허리띠 장신품
6. 스몰노예 성 철기
7. 스몰노예 성 출토 철기
8. 철제 톱. 샤이가–레두트 성
9. 석제 끌. 프롤롭카–2 Фроловка-2(Frolovka-2) 주거유적

그 림 1. 스몰노예 성 토제 방추차 도면
2. 스몰노예 성 토제 방추차 도면
3. 샤이가–레두트 성 토제 방추차 도면
10. 스몰노예 성 2호 주거지 출토 모루채(망치)
11. 삽 자루끼우개. 스몰노예 성

해 제 홍형우

이 논문은 스몰노예Смольнинская(Smolnoye) 문화에서 출토된 다양한 가내 수공업에 관한 유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글로, 방적과 바느질, 가죽 가공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제조, 그리고 목공예와 야장冶匠작업 등을 알려주는 다양한 출토유물을 소개하고 있다.

스몰노예 문화에는 과거 물레를 이용한 토기 제작에 관하여만 알려진 것에 비해, 가내 수공업에 대해 알려주는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다.

스몰노예 문화 유적에서 가장 많은 것은 직조와 관련된 방추차이다. 모두 21점으로, 17점은 스몰노예 성에서 4점은 샤이가–레두트Шайга-Редут(Shaiga-Redut)에서 출토되었다. 토제로 평면 둥근 형태이다. 앞뒤면이 모두 평평한 것과 앞뒤면이 볼록한 것(2점)으로 나뉜다.

옷을 꿰매는 철제 바늘이 샤이가–레두트에서 2점, 스몰노예 성 1호 주거지에서 1점, 그리고 샤이가–레두트 성 저장구덩이 근처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다양한 허리띠 관련 철제품이 출토되었다. 둘레 버클, 허리띠 고정 고리, 허리띠 끝 장식 등이 있다. 허리띠 끝 장식은 U자 형태이다.

마구와 관련된 철제품도 출토되었는데 철제 비녀 못, 빰피스(cheekpiece)가 출토되었다. 또한 못과 끈 묶는 긴 조각도 나왔으며, 샤이가–레두트에서는 쇠톱과 동제 끌도 출토되었다.

그 밖에 쇠를 부리는 도구도 출토되었는데 철제 모루채(망치)가 스몰노예 성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농기구인 철제 삽자루 끼우개도 출토되었다.

Шавкунов В.Э. 2015. Домашнее хозяйство населения смольн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ып. 2. Городища и посел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187-193.

저 자 V.E. 샤프쿠노프
В.Э. Шавкунов
V.E. Shavkunov

연 도 2019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1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스몰노예 문화 주민의 교역에 관하여

주 제 어 스몰노예문화
발해
말갈
교역
담비의 길
소그드 콜론

그 림
1. 1–스몰노예 성. 유리 구슬, 2–관옥편
2. 샤이가–레두트 Шайга-Редут(Shaiga-Redut) 성. 알타이에서 수입한 찰갑
3. 연해주 지도. 발해 영역, 스몰노예 유적, 소그드 코론
4. 샤이가–레두트 성. 줄무늬가 새겨진 장방형 손잡이

해 제 홍형우

이 논문은 스몰노예Смольнинская(Smolnoye) 유적에서 출토된 타 지역 생산품으로 여겨지는 세 가지 유물 즉, 특정한 형식의 찰갑, 암청색 페이스트 유리로 만든 구슬, 그리고 염록색 연옥으로 만든 관옥편의 생산지를 각각 알타이, 근동지역, 자바이칼로 추정하고, 소그드 상인에 의해 실크로드와 '담비의 길'을 통해 연해주 중부에 있는 아르세니옙카Арсеньевка(Arsenyevka) 강 주변의 소그드 상인의 거주지(노보고르데옙카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Novogordeevka) 마을유적)까지 들어왔을 것을 추정한 글이다.

연해주 스몰노예 유적에서는 지역 생산품과 연관시키기 어려운 유물들이 가끔 출토된다. 직접적으로는 찰갑, 암청색 페이스트 유리제 구슬, 그리고 염록색 연옥제 관옥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슬과 찰갑은 스몰노예인과 발해인 그리고 말갈인의 주변 지역에는 없다.

이러한 형식의 찰갑은 극동지역의 다른 유적에서 나온 적이 없으며, 8세기 초원 알타이 유적들에는 폭넓게 분포한다. 연해주에 연옥은 없으며, 가장 가까운 곳이 자바이칼에서 나온 녹색연옥이다. 구슬로 만들어진 페이스트 유리는 근동지역에서 생산된다.

연해주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이러한 물품들은 그들의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스몰노예인들에게까지 전달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고대 실크로드와 어쩌면 '담비의 길'을 통해 서쪽으로부터 들어왔을 것이다. 이 길은 일련의 소그드 콜론(식민지)를 따라 알타이를 지나 서쪽으로 몽골, 그리고 자바이칼과 아무르 강을 통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지점은 아르세니옙카 강 중류에 있는 마을 유적이었을 것인데, 이 지점은 발해, 스몰노예, 그리고 말갈의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아무르 강으로부터 우수리강乌苏里江을 통과해 아르세니옙카 강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Шавкунов В.Э. 2019. К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торговых отношений носителей смольн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1.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79-87.

도시주민의 농사

저 자 E.A. 세르구셰바
E.A. Сергушева
E.A. Sergusheva)

연 도 2018
간행물명 『극동의 중세 제국 도시』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연해주
중세시대
발해
요
금
농경
목축

목 차
러시아 남부 중세시대 농업복원의 연구사
러시아 극동남부의 기후조건
연해주의 기후조건
러시아 극동남부의 농경연구약사
러시아 극동남부 중세시대(6~8세기) 농경
1. 러시아 극동남부 중세시대 (6~8세기) 농경-말갈문화
2. 발해의 농경
2.1. 발해의 동북지역의 농경
2.2. 러시아 극동 남부 발해시기의 축산업
3. 러시아 극동남부 중세시대 요(907~1125)의 생업
3.1. 러시아 극동남부 중세시대 요(907~1125)의 농경
4. 러시아 극동남부 중세시대 금(1115~1234)의 생업
4.1 러시아 극동남부 중세시대 금(1115~1234)의 농경
4.2. 연해주 고고유적 자료로 본 여진 동하국 (1215~1233)의 목축
맺음말

러시아 연해주에서 농경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신석기 후기 자이사놉카Зайсановская(Zaisanovka) 문화에서 발생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유적에서 발견된 기장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이라기 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형태였을 것이다. 본격적인 농경은 고금속기시대인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 문화인데, 유적에서 기장이 많이 출토된다. 크로우놉카 문화는 인접한 중국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농업발전이 극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8세기의 연해주 남부 발해 유적에서 확인된다.

발해인의 생활에서 농경이 생산 활동의 기초가 되는 증거가 많이 확인된다. 그 이후인 원나라와 명나라 시기 때의 농경과 관련된 연해주의 자료는 부족하다.

발해 성립 이전에 연해주에서 중세시대 처음부터 거주하던 원주민인 말갈은 만주의 동남쪽에 위치했으며, 그들이 살았던 유적은 발해 성립 이전과 발해 성립 이후, 발해 멸망 이후로 성격이 구분된다. 말갈유물에는 발해 성립 이후뿐만 아니라 그들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된다. 말갈에 관한 중국의 기록에는 기장과 밀농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만주지역 남부에서는 기원 후 1천년기 전반의 유적에는 곡물이 실제로 출토된 예가 없다. 그러나 이 시점의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지역에서는 쌀, 보리, 밀, 콩, 팥, 기장을 재배해서 농경이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말갈인이 만주지역 남부에 거주했을 때는 농경생활이 그들 생업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유적에서 확인되지 못했다.

그러나 발해가 이 지역에서 국가를 형성한 이후에 재배되는 식물의 종류와 양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것은 기장이다. 체르냐티노-5Чернятино-5(Chernyatino-5) 유적과 시넬니코보-1Синельниково-1(Sinelnikovo-1) 유적은 라즈돌나야Раздольная(Razdolnaya) 강 주변의 발해유적으로 식물유체가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이 유적의 문화층 흙을 분석한 결과 4가지 종류의 곡물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기장과 보리로 밝혀져서, 두 유적의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도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체르냐치노-2, 아브리코스Абрикосовское(Abrikos) 등의 발해 유적지에서 재배식물의 유체를 확인했다. 발해 유적에서 확인되는 재배식물은 주거지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이 아닌 도로, 집과 집 사이의 공간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발해유적에서 발견된 곡물은 10가지 정도인데, 세 종류의 기장, 2종류의 보리, 밀, 콩, 팥, 완두콩 일종의 렌틸콩(?), 메밀씨, 들깨, 대마씨, 순무Brassica sp. 등이다.

표 1. 연해주 중세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재배식물

해 제 김재윤

특히 발해에서는 농업과 가축업을 함께 하기 때문에 더욱 발전 할 수 있었다. 발해 유적에서는 돼지, 개, 소와 말뼈가 주로 확인된다. 돼지와 개는 주로 식용으로만 이용되었고 소와 말은 교통 수단 및 고기로도 이용되었다. 소와 말은 성인기에 도살되었으나 나이든 동물만 식육했던 것은 아니다. 유적에서 동물 뼈의 비중은 60~75%를 차지한다.

러시아 동부지역은 생태적 지리적 다양성이 특징이며, 전문적인 것까지 다양한 생명유지시스템이 존재했다. 연해주에 있었던 발해에서는 농경에 가장 적합한 영토이다. 발해국가 시기에 특정한 경작 식물과 경작을 위한 기술 및 기술방법을 갖춘 농업 유형이 개발되었다. 기장, 보리, 아마, 밀이 가장 주요한 식물이었다. 이런 농업의 유형은 발해의 중앙지역에서 연해주까지 옮겨졌고 국가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인접한 중국의 요와 금에서 농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발해에서 확인되는 농경과 목축 공생의 시스템은 발해 이후의 요와 금에서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가축과 곡물을 기르는 시스템이 비슷할 수 있는데, 이는 금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철제 농기구 때문이다. 두 국가의 농경구는 거의 비슷하다. 같은 유형의 식물과 가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기술 및 기술 관리 방법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민족지학적으로 20세기에 만주, 한국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은 연해주의 중세시대(발해 및 여진)의 유물과 유사하다. 농경도구는 발해 이후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오랫동안 지속된다. 만주지역에서 농기구가 오랫동안 그 모습이 보존되는 것은 토지와 기후조건에 해당하는 구조물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Сергушева Е.А. 2018.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город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 Города средневековых импер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 ИВЛ РАН; Ин-т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С. 251-280.

| 해제 | 세르구세바는 식물고고학자로 연해주의 신석기시대부터 발해 및 여진까지 유적에서 출토되는 모든 식물자료를 동정(同定: Identification)하고 그와 관련된 논문을 쓰는 연구자이다. 그래서 이 논문도 연해주 중세시대 발해 및 말갈 유적의 농경 연구도 주로 유적에서 직접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농기구와 관련된 논문보다는 직접 재배된 곡물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최근에는 농경뿐만 아니라 발해유적에서 대량으로 확인되는 동물 뼈 자료도 함께 이용해서 논문을 작성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논문이다.

연해주에서는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부터 기장이 출토되는데 발해 유적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장자료가 계속 출토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해주 중세시대에는 말갈과 발해 유적의 특징을 구분하는데, 곡물자료로도 그 경계가 명확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미 말갈과 발해를 고고학적 자료로 구분한 유적을 바탕으로 곡물자료가 말갈 유적에서 출토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저 자 G.L. 실란티예프
Г.Л. Силантьев
G.I. Silantiev

연 도 2017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3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중세 전기 연해주·아무르 지역 및 일본의 물품 교역 관계
-유리제품을 중심으로-

주 제 어 연해주
일본
교역
유리구슬
화학조성
프리아무르
포타쉬 유리
납유리

목 차
머리말
1. 중세 전기 프리아무르지역 유리 생산
2. 중세 전기 일본지역 유리 생산
3. 교역 관계
맺음말

이 글은 연해주와 아무르주 일부가 포함된 프리아무르外滿洲지역과 일본지역 출토 중세 전기 유리구슬의 특징과 교역 관계에 대해 논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유적 32개소 출토 유리구슬 2075점을 대상으로, 제작기술(화학조성 · 색상 · 성형기법)을 통해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고, 교류를 통한 수입품과 지역 내 제작품을 추정하였다. 형식분류는 주성분의 화학조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1. 중세 전기 프리아무르지역 유리 생산

총 4개 유형의 유리구슬이 확인된다. 중세 전기(말갈-발해) 연해주에서는 1 · 2유형 유리구슬이 주로 부장품으로서 출토된다. 1유형은 나트륨-칼슘-실리카 조성 유리로, 광물natron융제의 특성을 띠며, 출토량의 과반을 차지한다. 색조는 보라색이며 띠상帶狀으로 나타난다. 외곽형태는 원형이며, 투공의 평균지름은 2㎜로 비교적 크고, 성형기법은 늘인 기법 · 말은 기법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말은 기법은 유럽, 근동지역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화학조성으로 보아 관련기법을 체득한 지역 내 공인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유형은 칼륨-칼슘-실리카 조성 유리로, 식물재plant ash융제의 특성을 띤다. 색조는 푸른 청록색으로 불투명하고 말은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9~10세기 연해주 내륙의 발해 유적에 널리 분포한다. 다만, 연해주 동해 연안에 위치한 시니예 스칼리Синие Скалы(Siniye Skaly)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해로와 육로라는 교역루트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3유형은 납-실리카 조성인 것으로(납유리), 말은 기법으로 성형하였으며 녹색과 청색이 있다. 4유형은 칼륨-납-실리카 조성(포타쉬유리)인 것으로 프리아무르 지역 중 극동 남부지역에서만 확인되며, 연주형聯珠形도 있다. 말은 기법으로 성형한 것은 녹색과 청색을 띠며, 아무르주 트로이츠코예Троицкий(Troitsky)고분군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출토되는 등 7~12세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이른시기부터 납유리기술이 나타나는 이유는 납:모래=1:2로 단순한 화학조성인 점, 지역 내 납산지가 풍부하여 원료조달이 용이한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말갈~발해시기에는 납유리를 제작하지 않았으나, 여진-금金시기에 들어 급증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중세 전기 일본지역 유리 생산

총 3개 유형의 유리구슬이 확인된다. 1유형의 늘인 기법 유리, 2유형의 말은 기법 유리, 3유형의 늘인 기법 · 말은 기법 유리가 있으며, 그 중 1유형의 출토수량이 가장 많다. 처음에는 중국 및 아랍으로부터 수입하였으나, 6세기에 들어 1유형과 2유형을

도 면 1. 중세 전기 프리아무르지역 유리 I형식–네트론 유리
2. 연해주 및 프리아무르지역 유리 II형식–(4~12) 식물재 유리, (2·3·11·15·16)납 유리
3. 1)일본과 프리아무르의 교역로, 2)중세 유리구슬, 3)중세 일본 선박
4. 시호테 알린 산맥 중부의 해상 교역로

해 제 정윤희

자체 생산하였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따르면 531년 백색 및 암청색유리, 666년 녹색유리, 692년 백색 납유리를 생산하였으며, 9세기 전반에는 유리생산 전담 관청을 두었다. 즉, 프리아무르 및 일본 지역의 유리생산은 중앙아시아 및 근동近東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한 2유형, 원료 수입 후 생산한 1유형, 지역 내 조달 원료로 자체 생산한 3유형의 공통점이 있다.

3. 교역 관계

납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도성지역에서는 소다 유리를 주로 생산했기 때문에, 납유리가 널리 제작되지 않았다. 이와 비교하여 일본지역 또한 납 매장량이 풍부하지 않았지만, 홋카이도北海道 · 혼슈本州와 같은 지역에서는 8세기에 납유리구슬이 다량 출토되어 프리아무르 지역과 일본 간 대표적인 교역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아무르 강 하류일대는 시호테 알린 산맥이 위치한 동해연안과 강 하구가 접하는 곳마다 성곽이 축조되어 있다. 이곳은 '담비(모피)길' 및 '실크로드'의 지선과 같은 대륙과의 교역루트로서 근동近東 · 중동中東의 공예전통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일본의 유리생산과 발전에도 프리아무르지역이 중계지로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Силантьев Г.Л. 2017.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контакты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населения Приморья, Приамурья и Япон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стеклообрабатывающе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ып. 3. Ремесла и промыслы.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117-126.

| 해제 | 필자는 일찍이 러시아 극동지역 중세유적 출토 유리생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해왔으며, 한반도의 고대 교역문화와도 관련깊은 연해주 · 아무르지역 내 유리제품에 대해서 접근한 연구자로는 거의 유일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필자가 거론한 납유리구슬과 같은 선재품船載品은 동해를 둘러싼 해상교역 루트를 파악하기에도 유용한 것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은 지역별 유리의 융제 · 안정제 · 성형기법 속성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면, 다른 유적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한 소권역별 긴밀한 유통관계에 대해서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발해의 불교 조각과 조형예술

저 자 E.V. 아스타셴코바
Е.В. Асташенкова
E.V. Astashenkova

연 도 2012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2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발해
불교조각
조형예술
불상
연해주

지원사업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목 차
1. 머리말
2. 상부 문화층 토기
3. 주거유구 토기
4. 토기 형식분류
5. 토기 문양 기술
6. 맺음말

이 논문은 연해주에서 출토된 발해 불교조각들의 다리형태와 손모양에 따라 유형적으로 분류하고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본 글이다. 또한, 발해 불교조각에서 고구려와 당나라의 어떤 예술적 흔적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발해국이 존재하던 시기의 주요 교리 중 하나는 불교였으며, 주변에 놓인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환경에 모순되지 않았다. 기원후 7세기~8세기 불교는 중국에서 번성했고, 발해도 그 인접국으로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당시 불교는 정치적인 권위자이면서 8세기 말까지 공식적 교리의 역할을 담당했다. 불교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넘어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갔다. 7세기대에 불교 조각과 조형예술은 지역적 양식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불교는 다양한 흐름으로 나뉘었다. 발해시대 불교에 대한 기록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없기에 그 종교적 특징을 논하는데 유용한 것은 불교조각과 조형예술이다. 지금까지 발해 동경성東京城과 팔련성八連城을 포함한 연해주의 발해 성곽 유적에서 불교조각과 조형예술품들이 출토되었는데, 대다수의 것들은 작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유물들은 돌, 점토, 철, 청동으로 제작되었으며 금박을 입한 것도 존재한다. 오랫동안 불교 수공업자들은 엄격한 규칙을 바탕으로 부처와 보살상 그리고 불상들을 만들었고, 명확하게 재현된 본질은 최대의 신앙력을 보유한다. 불교 교리는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지역민들을 위한 특징으로 예술적인 관념을 내포했다. 이와 관련해 인지해야 할 중요한 점은 어떤 단계의 불교 도상 원칙이 발해 수공업자들에게 남아있었는지, 그리고 발해 불교 예술에 어떤 예술적 전통이 문화적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발해 불교조각과 조형예술은 부처상, 보살상, 불상으로 직접적으로 구분된다. 도상학적으로 몸체가 명확한 위치에 있고, 선정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불상의 자세는 서 있는 것, 앉아있는 것, 천천히 거닐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무릎을 굽히고 있는 것, 오른쪽 측면에 앉아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해, 불상이나 보살상의 지위가 높을수록 보다 정적으로 표현되고, 수호자들과 위협하는 신들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자세를 보인다. 정적인 입상들은 많은 부처와 보살들에 표현되었고, 이것들은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사원복합체, 보리솝카Борисовка(Borisovka) 사원, 동경성, 팔련성 발굴조사에서 발견되었다.

서있는 자세의 불상과 보살상에 보다 많이 활용되는 것이 시무외인의 수인이다.

그 림 1. 발해 불상 일괄
2. 발해 불상 일괄
3. 발해 불상 일괄
4. 발해 불상 일괄

해 제 이우섭

시무외인은 오른쪽 손이 팔꿈치 쪽으로 구부러져 있고, 손바닥이 어깨높이에서 위를 향한다. 시무외인은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두려움이 없는 동정심을 상징한다. 시무외인은 시원인과 조합되어 활용되는데, 왼손은 아래쪽으로 하고 손바닥은 관객을 향한다. 아쉽게도 발해 예술품의 질과 보존상태는 불상의 손바닥과 위치를 항상 정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 불상 중에서 동경성에서 발견된 것은 명확한 규범에 따라 제작되었다. 이 불상의 손 위치는 크라스키노 사원지와 동경성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고, 오른손은 아래로 향하고 왼손은 위를 향한다. 불입상 중에서 손의 위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발해 입상들 가운데 주시할만한 점은 부처의 배나 내려진 손에 용기를 쥐고 있었다는 점이다.

좌불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화대좌에 앉아있는 형태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발해 상경성에서 발견된 청동 조각상이 있으며, 명확한 원칙에 따라 제작되었다. 손의 위치는 시무외인과 시원인을 조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머리 형태는 얇고 팽팽한 머리타래 형태를 띠고, 이것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특징들이기도 하다. 팔련성과 동경성의 발해 예술품 중에서는 이와 유사한 머리 형태를 보이는 것들이 존재한다.

발해 유적에서 발견된 예술품 가운데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불교적 전통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것들은 2점의 좌불상으로 나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중 한점은 금박이 입혀진 흔적이 있는 청동상으로 팔련성에서 발견되었다. 두 번째 불상은 토제품으로 보리솝카 사원에서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은 형상들은 불교 도상의 특징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석가모니의 어릴적 부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예술적 전통이 발해의 불교 예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이것은 매우 어렵고 논쟁점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예술품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론적으로 결과를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은 몇몇 발해 예술품의 전통이 북위시대 양식과 부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예로는 팔련성에서 출토된 돋을새김과 크라스키노 성곽 출토품의 양각인데, 이러한 양식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얼굴이 뚜렷하게 표현되었고, 직사각형에 약간 길쭉하며, 모가 나있는데 때때로 부드러운 미소를 보인다. 이것은 고유한 양식이며, 필자의 견해로 볼 때 북위와 발해 불상들의 양식적인 유사성이 보인다. 다른 문제로 넘어와 발해 불상 제작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양식들을 인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우연치 않게 연구자들 가운데 팔련성 출토 불상의 부조가 고구려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불상 제작 제작의 시원지는 중국이었다. 이른 시기의 고구려 예술품들은 북위시대의 양식과 부합한다. 하지만, 그 후 길쭉한 얼굴의 형태가 둥글게 변하고, 표현들은 보다 부드럽고 인간적 이게 되며, 덜 추상적이게 바뀐다. 하지만, 이러한 불상들은 남조 불교 조각의 영향도 함께 받았다. 이렇게 고구려 사람들은 북위 양식들이 발해에 전파되는 것을 촉진시켰다.

발해의 불교조각과 조형예술에서 고구려, 당나라의 예술적 영향의 흔적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브리코스Абрикосовский(Abrikos) 사원과 상경성 발굴조사에서 매우 많이 발견된 좌불소조상의 돋을새김은 당나라 시대의 점토 타일 묘사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발해 불교조각과 조형예술은 이미 잘 알려진 양식의 무분별한 복제로 귀결되지 않았다. 지역의 수공업자들은 그들만의 불교 교리에 대한 견해가 있었고, 그것이 항상 같지는 않게 내버려 두었다. 발해 불교의 도상학적 특징을 확인을 위해서는 중세 의례 구조물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필수적이다.

Асташенкова Е.В. 2012. Бохайская буддийская скульптура и пластик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2.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259—268.

| 해제 | 이 글은 어떤 문화가 발해의 불교 예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필자 스스로도 문화적 영향 문제는 매우 어렵고 논쟁점이 많은 주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위시대 양식과의 공통점을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고구려와 당나라의 예술적 영향을 함께 파악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남조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저 자 A.L. 이블리예프
А.Л. Ивлиев
A.L. Ivliev

연 도 2018
간행물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20권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동단국과 연해주 고고학

주 제 어 연해주
발해
동단국
거란
콕샤롭카

이 논문은 동단국東丹國의 위치와 관련한 O.V. 디야코바O.B. Дьякова(O.V. Dyakova)의 의견을 반박하고, 콕샤롭카–1 성곽의 동단국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콕샤롭카–1 성곽의 문화적인 양상은 발해적 요소를 띠고 있었고, 토기의 경우 중심지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볼 만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콕샤롭카 출토 기와는 매우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를 장인들의 기술적 미숙함으로 파악했다.

926년 거란은 발해와의 전쟁 이후 그 장소에 동단국을 건설했다. 930년에는 수도를 요하遼河(현재의 조양朝陽) 으로 옮겼고 982년까지 존속했다. 얼마 전 우수리강乌苏里江 연안에 일련의 성곽인 콕샤롭카–1Кокшаровка-1(Koksharovka-1), 포드네베스노예Поднебесное(Podnebesnoye), 지기톱카Джигитовка(Zhigitovka), 크라스노예 오제로Красное Озеро(Krasnoye Ozero)들이 형성되었고 나아가 동쪽 해안 일대에 동단국과 요나라 제국이 세워졌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굉장한 의심스러움을 불러일으킨다. 본 논고에서는 동단국과 관련해 연해주의 유적들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발해와 거란의 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동단국의 형성에 대해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당나라 멸망 이후 거란이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떠올랐고 916년 제국으로 건립되었다. 당시 10세기 초 발해 왕정은 약해지고 몰락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역사적 증거들이 존재하는데, 요나라 태종에게 보내진 비망록에 보면 아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발해와 전쟁을 할 때 발해인들을 활용했고 많은 이견과 불화가 있었다고 한다.

『고려사』에 따르면, 발해는 거란의 침공 이전에 내분이 있었고, 지도층이 백성을 이끌고 도망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925년 고려로 7명 이상의 고위 대신들이 귀순해 왔고, 920년에는 4명의 발해 대사들이 일본에 남았다. 발해의 약화는 종속되어 있는 종족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에서도 증명된다. 912년 1세기만에 처음으로 흑수말갈이 중국의 후양後梁에 사절을 보낸다.

925년 거란은 서쪽으로의 진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국의 북쪽에는 오직 발해만이 정복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거란의 황제 야율아보기는 발해에 대항하여 진군을 명령했다. 거란 외에도 이 진군에는 해奚, 위구르, 투판, 당항党項, 실위室韋, 사타沙陀, 오손烏孫, 신라가 참여했다. 진군은 굉장히 신속했고 2주 만에 발해의 서쪽 국경을 함락시키고 대인선大諲譔은 항복했다.

동단국의 고고학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고고학적 관점에서 콕샤롭카–1 성곽은 동단국적인 요소가 없다. 콕샤롭카–1 유적에서는 대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

그 림 1. 동단국 통치자의 좌우명이 표시된 명문 기와. 팔련성 출토
2. 압인 문이 새겨진 토기 형태들. 콕샤롭카-1 출토
3. 미구기와 편. 콕샤롭카-8 출토

해 제 이우섭

며, 9세기에서 11세기까지 오랜기간 동안 존속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여러 차례의 재건축이 이루어졌는데 3개 방향의 평면배치가 이를 증명해준다. 또한, 발굴조사뿐만 아니라 물리탐사도 함께 병행되었다.

콕샤롭카-1 성곽의 문화적인 양상은 발해적인 요소를 띠고 있다. 아마 이곳에는 발해의 영토를 관리하는 중심관청이 9세기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유적에서는 발해적인 요소를 보이지 않는 토기들도 발견되었는데, 포크롭카Покровская(Pokrovka) 문화와 거란 토기와는 다른 압인 장식들이 확인되었다. E.I. 겔만Е.И. Гельман(E.I. Gelman)은 이와 관련해 콕샤롭카-1 출토 토기들의 관계를 제르칼나야Зеркальная(Zerkal'naya) 강 연안의 연해주 동북쪽 해안에서 우수리강으로 들어가는 파블롭카Павловка(Pavlovka) 강까지의 영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토기가 이 중심지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특히 E.I. 겔만은 이중구순과 삼중구순의 구연부가 발해 토기의 특징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한편, 이와 유사한 토기들이 발해 시기 이후에도 성곽이 존속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보았다. 동단국 내 거란의 역할을 고려하자면, 우리는 발해 상경上京의 동경성東京城이나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곽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발해 유적 내에서 거란계 토기들을 기대해 볼 만 하다. 하지만, 콕샤롭카-1에서 이런 토기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굉장히 독특한 제작기술로 만든 기와들이 콕샤롭카-8 쿠르간에서 발견되었는데, 성곽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다. 이 구조물은 콕샤롭카 성에 살았던 주민들이 지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와에는 독특하게도 포목흔이 없고, 단면은 타원형이다. 제작기법과 관련해 기와를 만들기 위해 특별하게 제작한 하나의 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2매나 4매로 분할되는 동아시아의 기와제작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콕샤롭카 기와를 생산한 장인들은 기와를 만들 때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조사된 콕샤롭카-1 성곽의 건물지들은 발해의 궁전지와 구들이 달린 구조물의 요소들을 상기시켜준다. 이것은 주민들이 세세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중앙의 문화를 지방에서 모방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성곽이 동단국의 수도 혹은 요나라의 동경과는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콕샤롭카-1 성은 동단국과 요나라에 해당하지 않고, 10~11세기로 편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Ивлиев А.Л. 2018. Государство Дундань и археология Приморья // Труды ИИАЭ ДВО РАН. №20.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177-186.

| 해제 | 이 논문은 동쪽의 거란이라고 해서 동란국이라고도 불리는 동단국과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연구 결과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콕샤롭카-1 성곽의 시기와 문화적 특징에 대해 서술한 글이다. 필자는 고고학적 관점에서 콕샤롭카-1 성곽에 동단국적 요소가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한국 학계의 견해와 상통한다. 또한 콕샤롭카-1 성곽의 문화적 양상은 발해적인 요소를 띠고 있으며, 영토를 관리하는 중심관청이 9세기에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저 자 I.S. 주시홉스카야
И.С. Жущиховская
I.S. Zhushchikhovskaya
연 도 2015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3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해주 스몰노예 문화: 실제적인 조사 문제

주 제 어 스몰노예 문화
영역
층위
연대
기원
크로우놉카
폴체
올가
말갈
발해
토기

목 차 1. 스몰노예 문화 고고학 자료의 구성과 축적
2. 스몰노예 문화 영역
3. 스몰노예 문화 층위 상황
4. 스몰노예 문화 연대
5. 스몰노예 문화 기원

현재 스몰노예Смольнинская(Smolnoye) 고고학적 문화는 연해주 중세 고고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구대상으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문화의 주요 연구자인 V.E. 샤브쿠노프에 따르면 이 문화는 아직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점과 논쟁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현재까지 연구상황에 대한 임시적인 중간결산 및 향후전망을 해보고자 한 것이다.

간략한 연구사를 먼저 살펴보면, 스몰노예 문화는 처음으로 1950년대 말 E.V. 샤프쿠노프Э.В. Шавкунов(E.V. Shavkunov)에 의해 분리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가서야 '격자문(вафля, waffle)'토기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2006년 동시에 '니콜라옙카 Николаевская(Nikolaevka) 고고학 문화'와 '극동 중세 토기제작 전통의 스몰노예 문화'가 정의되었다. 이 둘은 같은 것을 다르게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 발해와 여진 문화와는 다른 하나의 중세 문화가 분리되었다.

'스몰노예 문화'는 2009년 토기복합체와 특정지역 유적들에 따라 정의되었다. 가장 중요한 분리 요소는 원저'격자문'토기이다. 특징은 1) 3가지 기술(수제 점토 대와 띠, 회전판 가공, 구연에서 저부까지 빽빽한 격자문)이 결합된 성형방법, 2) 타날 후 마연하지 않은 확실한 격자문 3) 연기를 씌운 회색의 환원 소성 4) 뚜렷한 목, 어깨, 구형동체를 가진 호형토기, 전부는 아니지만 독특한 둥근 저부로, 실험에 따르면 타날 성형이다. 아래는 현재 주요 논점을 정리한 것이다.

1. 스몰노예 문화 고고학자료의 구성과 축적

1) 현재 10개 유적이 거론되고 있는데, 조사에 따라 확장될 것이며, 여기에 니콜라옙카-1 성이 추가된다. 아직 발굴 면적이 협소하다. 2) 도시전통 요소로서의 요새 조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3) 주거지는 2기만 발굴되었는데, 샤이가-레두트Шайга-Редут(Shaiga-Redut) 주거지 1기는 이 문화인지 불분명하다. 4) 고분, 사원 같은 의례 유적이 없다. 5) 2가지 토기제작 전통이 있다. 1-가장 많은 원저'격자문'토기, 2-회전판 사용하지 않은 수제 토기, 일부 견해에 따르면 회전판에서 가공된 것도 포함된다. 6) 금속유물, 철제는 무기, 칼, 바늘 등 중세의 보편적 유물이며 청동제는 드물다. 7) 연대를 알 수 있는 유물이나 예술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방추차, 석제 구슬과 도구들만 출토되었다. 8) 자연유물, 식물이나 고생물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스몰노예 문화 영역

10개의 유적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영역보다는 유적 집중지역에 대해서만 거론

그 림 1. "스몰노예 토기"제작 실험, 바닥 성형.
2. 타날문 토기
3. 토기 저부

해 제 홍형우

가능하며, 동서남북 경계에 관해서는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니콜라옙카-1성이 위치한 미하일롭카Михайловский(Mikhailovka) 지구가 서쪽 경계일 수 있고, 남쪽은 파르티잔스크Партизанская(Partizansk) 강까지 혹은 그 넘어 해안까지일 수 있다.

3. 스몰노예 문화 층위 상황

첫째, 스몰노예 성의 층위는 아래층은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 문화, 위층은 스몰노예 문화로 확인되었다. 둘째, 스몰노예 문화 위층은 여진 문화층이다. 셋째, 최근까지 스몰노예와 발해 문화가 한 유적에서 동시에 발견된 적이 없었으나, 니콜라옙카-1 성에서 확인되었다. 폴체-올가Польце(Poltse)-ольгинская(Olga) 및 말갈 토기제작 전통이 스몰노예 문화에서 존재하는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이다. 현재 발굴 면적이 작아 스몰노예 문화 유적에서 폴체-올가 문화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말갈 토기 전통이 보이므로 말갈층의 존재도 배제할 수 없다.

4. 스몰노예 문화 연대

절대연대측정치가 없어 추론만이 가능하다. E.I. 겔만Е.И. Гельман(E.I. Gelman)은 니콜라옙카 문화(스몰노예 문화의 대체 이름)를 발해와 늦은 여진 사이에 위치하는 점으로 보아, 10~12세기로 보았다. V.E. 샤프쿠노프는 처음에는 9~11세기로 보았지만, 최근에 앞부분은 6~8세기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크로우놉카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필자(즉 I.S. 쥬시홉스카야)는 스몰노예 문화의 한반도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시작 부분을 7~8세기로 본다.

5. 스몰노예 문화의 기원

기원과 관련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주로 토기제작과 관련된 것이며, 연대, 층위, 영역과도 관련된다.

첫 번째로 E.I. 겔만은 니콜라옙카(스몰노예) 문화의 기원을 '이른' 연해주의 여진과 관련시켰다. 이는 겔만의 연대관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니콜라옙카 문화의 형성에는 폴체-올가와 크로우놉카 토기제작 전통이 영향을 미쳤음도 지적하였다. '격자문(와플)'을 폴체-올가 문화 전통의 타날기법과, 니콜라옙카(스몰노예) 토기의 파수를 크로우놉카 문화의 '그루터기' 손잡이와 관련시켰다.

필자는 스몰노예 '격자문'토기는 제작기법, 형태, 문양 등에서 동시기의 1천년기 말 한반도의 토기제작 전통과 관련시키기도 한다. 특히 삼국시대 말 정치적 혼란에 따른 백제인들의 이주의 영향으로 본 것이다(주시홉스카야 2009).

두 번째는 말갈문화 전통과의 관련이다. '격자문'토기와 말갈 유형 토기가 함께 출토됨에 따라 두 문화의 혼합을 거론한 것이다. 최근 샤이가-레두트 유적 발굴에서 이러한 접촉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역 전통인 크로우놉카 문화와는 '그루터기 손잡이'가, 폴체-올가 문화 전통과는 '격자문'이 관련된다. 그러나 '격자문'과 타날에 의한 원저 성형 그리고 손잡이 등은 모두 한반도 삼국시대에도 보이는 특징들이다. 스몰노예의 '격자문'토기와 한반도 1천년기의 회색토기와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크로우놉카 전통과의 관련성에는 토기 저부의 '발뒷꿈치'로 불리는 부분 역시 거론된다. 저부에서 동체로 이어지는 부분에 작은 굽처럼 단이진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신석기시대나 말갈문화 토기에도 보이는 현상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두형토기 역시 검토된다. 그러나 두형토기는 얀콥스키Янковская(Yankovsky), 크로우놉카, 폴체–올가문화에도 두루 보이는 기종으로, 이를 통하여 이 세 문화를 동일 전통으로 보지 않듯, 두형토기는 동아시아의 공통된 현상이다. 두형토기(고배)는 I–II 천년기 또는 보다 앞선 시기의 한반도에서도 많이 보인다.

따라서 원저 '격자문'토기 제작 전통과 크로우놉카 문화와의 관련성보다는 한반도 철기시대의 관련성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 이전의 철기시대에 회색의 원저 타날문토기와 크로우놉카 토기와 유사한 수제토기가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와의 관련성이라는 또 하나의 추론을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스몰노예 문화의 기원에 관하여는 토기제작기법 뿐 아니라 다른 고고학적 사항(영역, 유적 유형, 주거지 유형, 유물 유형, 생계경제 유형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스몰노예 문화의 시작 연대와 관련해서는 말갈, 폴체–올가, 발해층이 함께 있는 다층위 유적인 니콜라옙카–1 유적을 발굴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Жущиховская И.С. 2015. Смольнинская культура Приморья: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исследования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3.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242-256.

| 해제 | 이 논문은 스몰노예 문화의 분리 · 명명에서부터 유적, 영역, 층위, 연대, 기원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되짚어 보고, 향후 전망을 논의한 글이다. 니콜라옙카–1 유적을 스몰노예 문화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과 원저단경호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특히 백제)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중세국가의 형성과 진화

저 자 N.N. 크라딘
Н.Н. Крадин
N.N. Kradin

연 도 2005
간행물명 『러시아의 극동의 고대와 중세: 발견, 문제, 가설』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국가
발해
요나라
금나라

해 제 박규진

이 논문은 중세시대 국가형성의 이유와 국가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사회-정치적 발전에 있어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조건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기원 후 1천년기 중반, 유라시아대륙 각지에서는 경제적 그리고 문명적 성장과정이 시작되고 있었고, 중국도 긴 시간의 분열 끝에 수, 당 왕조가 건국되었다. 이러한 것은 주변지역, 특히 만주, 연해주, 아무르지역 소수민족에도 영향을 끼쳤고, 이곳에서는 7세기에 들어 발해가 건국되었다. 그 이후 이 지역은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가 건국되었고, 종래에는 몽골에 정복되었다.

국가의 형성과정은 많은 내 ·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되고, 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 중 극동지역과 관련된 여러 국가들은 1차적 국가와 2차적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1차적 국가는 중국 중원왕조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중국 동북지역, 연해주, 한국, 일본 등은 모두 2차적 국가에 해당한다.

발해는 퉁구스-만주족과 전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갈족에 의해 건국되었다. 전통적인 초기국가로 그 특징은 생산수단에 있어서 사유재산이 없고, 관료제의 완전한 형성이다. 초기 발해의 사회구조는 왕, 왕족, 6부의 귀족, 족장과 원로, 평민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전성기의 사회구조는 크게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지배계층은 관료 그리고 왕족과 대신, 귀족 등을 포함하는 8단계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지배계층은 생산에 종사하였고, 이들은 부곡이라는 마을 조직을 이루었다. 또 노예층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었으며, 완전한 권리가 보전되지 않았다.

요나라와 금나라는 유목민이나 수렵과 농업이 결합된 생산체제를 영위하는 민족이 자신들보다 발전된 농경민족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건국된 국가이다. 이들의 행정체제는 사람들이 정착생활을 하는 많은 도시와 농업사회의 복합 경제를 관리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복제국 중심의 통치제체에서는 새롭게 정복한 영토의 경제 및 사회적 기반을 장악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이 부재할 경우, 위기는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위의 제국들은 이를 막고자 이중의 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 즉 자신들에게는 민족 고유의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새로운 정복지와 주민에게는 그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시켰다. 또 5경체제를 사용하였고, 국가관리에 있어 관료제, 문서기록 등의 중국적인 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들은 정복영토의 유지와 국가방어와 관련해서 군사조직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요나라에서는

오르도, 금나라에서는 맹안모극猛安謀克으로 불렸다.

한편 유라시아 극동지역 중 서아무르지역은 국가와 관련해서 아직 연구된 것이 없고, 위와 같은 시기에 속하는 성곽 유적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나 자세한 고고학적 자료, 문헌 기록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수준을 유지했는지는 알 수 없다. 동아무르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은 서아무르지역보다 좀 더 고고학적으로 조사가 많이 되었지만, 문명을 논할 정도의 고고학적 발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Крадин Н.Н. 2005. Становление и эволюция средневеков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439-448.

| 해제 | 이 논문의 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고고학적 결과와 사서기록 등을 사용하여 극동지역 중세시대 국가 즉 발해, 요, 금 등 국가의 형성과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분석에 있어, 서구의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동시에 서구적 관점으로 극동지역의 국가형성과 발전 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한편 해당 논문에 등장하는 각 국가들에 대한 필자 혹은 러시아학계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발해 건국세력을 퉁구스–만주계 즉 말갈로 본 것이 그러하다.

저 자 N.A. 클류예프 외
Н.А. Клюев
N.A. Kluyev
연 도 2018
간행물명 『극동의 중세 제국 도시』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후발해의 도시

주 제 어 안변부
동단국
후발해
발해 고분
발해 성곽
발해 구들
콕샤롭카-1
콕샤롭카-8

목 차
1. 연구사
2. 콕샤롭카-1 평지성 조사결과
3. 콕샤롭카-1 평지성 편년
4. 콕샤롭카-8
매장의례콤플렉스 조사결과

이 글은 2008~2013년 발굴조사된 콕샤롭카-1 · 8 유적의 성과와 의미를 종합 고찰한 것이다.

1. 연구사

콕샤롭카-1Кокшаровка-1(Koksharovka-1)평지성 · 콕샤롭카-8 매장의례콤플렉스(한국 보고서에서는 석축구조물로 러시아학계에서는 매장의례콤플렉스라고 함)은 추구옙카Чугуевский(Chuguevka)지구 콕샤롭카 마을로부터 동북쪽으로 3km 떨어져 있으며, 우수리乌苏里江 강의 지류인 콕샤롭카 강 좌안에 위치한다. 1888년 유적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2008~2014년에 성 내부의 북편건물지 · 성벽 및 해자와 성 외부의 매장구조물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2. 콕샤롭카-1 평지성 조사결과

평지성의 전체 면적은 16.45ha로, 성벽의 너비는 10~14m, 높이는 4~6.2m이다. 북벽과 서벽에는 각 1개의 문지가 확인되었으며, 'ㄱ'형 옹성이 에워싸고 있다. 성곽 외부에서 확인되는 구하상舊河床은 당시 해자로 설비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토루로부터 물성이 다른 흙을 차례로 교차성토한 기법은 연해주 니콜라옙카Николаевское(Nikolaevka)성, 마리야놉카Марьяновское(Maryanovka)성에서도 확인된다.

성 내부에서는 주변 지표면보다 높고 평탄한 성토 대지 3곳이 육안으로 확인되는데, 북편 대지에 세워진 북편건물지군이 대표적이다. 대지는 구지표보다 약 1m 높게 성토되었고, 외곽을 따라 돌담이 확인된다. 연해주 중세유적 중 단일 건물군으로는 대규모(1,133㎡)에 속하며, 마당이 딸린 구들 주거지 7동과 창고로 구성된다. 구들주거지들은 동-서 축선을 따라 일렬로 배치되었고, 내부 구조도 동일하지만, 면적이 조금씩 달라서 중앙에 위치한 4호 건물지가 가장 크다. 각 건물지는 평면 장방형의 초석건물지로, 출입문은 남벽에 위치한다. 북벽에는 ㄷ형 2줄 고래가 있으며, 외부의 굴뚝과 연결된다. 굴뚝은 석축 기초의 바닥 평면 방형에서 사각뿔의 형태로 좁혀 올라가는 형태로 추정된다. 고래벽은 강돌로 쌓은 후 판석으로 덮었다. 초석 하부에는 자갈돌로 된 적심을 시설하고 그 위에 원통형의 나무 기둥을 세웠으며, 벽체는 회칠한 후 황색 · 적색 · 흰색의 안료를 발라 마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와는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판자에 짚과 점토를 섞어 덮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건물 간 배치가 긴밀한 것으로 보아, 상부 지붕이 단을 지며 하나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편건물지군은 주요 관청 건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건물이 성 내 북

그 림 5-1. 콕샤롭카-1 평지성 조사구역 평면도
5-2. 콕샤롭카-1 평지성 북편건물지 평면도
5-3. 콕샤롭카-1 평지성 출토 토기류
5-4. 콕샤롭카-1 평지성 북편건물지 출토 기타유물
5-5. 콕샤롭카-8 매장의례콤플렉스 축조 단계 모식도

해 제 정윤희

편에 위치하는 것은 7~13세기 중원 및 발해 도성의 설계에 해당한다. 규모, 구들, 배연 구조는 발해 도성의 행정건물지와 유사하지만, 지붕 · 회랑 부재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유물은 토기, 금속기, 석기, 골각기, 자기편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금속제품 중 철촉 · 철도자 · 철제 자물쇠 · 청동제 팔찌편, 석제품 중 구슬 등은 발해 유적 출토품과 유사하다. 그리고 토기는 물레성형 · 기형 · 정면 기법 · 문양 등으로 보아 발해 토기에 해당하며 9세기~10세기 초의 제작기술 특성이 반영되어있다. 기종 구성 또한 병, 내만구연호, 옹, 시루, 원통형 기대 등으로 연해주 발해유적의 전형적인 출토품과 동일하다. 하지만 2조의 홈이 있는 구순부口脣部 · 넓은 경부廣頸 · 전고全高가 낮은 기종은 인접한 우수리강 유역 북동부 포크롭카Покровская(Pokrovka)문화에서도 주로 확인되는 것으로, 주변지역과 상호교류한 사례 혹은 발해 멸망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3. 콕샤롭카-1 평지성 편년

트렌치 조사를 통한 층위 양상, 성벽 및 해자에 대한 절개조사, 방사성탄소연대, 물리탐사결과 등을 통해 발해 후기(멸망 후 포함)에 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층위상 이른 시기에 방어시설이 없는 주거유적을 축조하고, 이후 성벽과 해자 등의 방어시설이 축조되었다. 성벽은 운용기간 동안 재차 증 · 보축되었다. 북편건물지군의 트렌치 조사 결과, 성곽 초축층보다 상층에 위치한다. 총 2개의 건축단계로 구분되는데, 늦은 건축단계에서 대지의 너비가 3m 더 확장되었다. 북편 · 서편 대지의 방사성탄소연대는 대부분 9세기 말~11세기 초로 확인되었다. 자력탐사결과에 따르면, 성벽 전체에는 시기를 달리하여 3개 유형의 건축 계획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한 내용을 근거로, 발해 존속시기에는 안변부安邊府의 행정치소였을 것으로 비정된 바 있다. 최근에는 발해 멸망 이후 동단국東丹國의 중심지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다만, 발해 중앙지역 뿐 아니라 연해주에 소재한 발해 후기 축성에서도 종종 확인되는 판축기법이 본 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4. 콕샤롭카-8 매장의례구조물 조사결과

평지성의 북문지로부터 서북쪽으로 0.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2012~2014년에 전면 조사되었으며, 봉토를 제거하자 판석을 쌓아 만든 대형의 매장구조물이 발견되었다. 화강암 판석을 쌓아 만든 평면 장방형(15×16m)의 구조물로, 서쪽 · 북쪽 · 동쪽은 수직의 벽면을 이루고, 남쪽에는 판석을 놓아 넓고 완만한 계단 형식의 진입시설이 남아있다. 매장 구조물의 세부 구조와 축조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면 방형으로 석축하였다. 석축의 둘레를 따라서 그보다는 낮은 두께로 쌓아올려 외연을 확장하였으며, 배수시설의 흔적도 확인된다. 중앙에는 후대 도굴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상부에서 기반층까지 매장 구조물을 관통하며 파괴된 상태였다. 바닥에는 판석이 놓여있으며 표면에는 황토덩어리와 유기물의 부패흔이 일부 남아있었다. 피장자를 안치한 관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도굴갱과 그 주변에는 착장품 혹은 신근물품信根物品으로 추정되는 금제박판薄板 · 은제 못 · 은제 과판이 다수 출토되었다. 따라서 매장 구조물은

매장 주체부 위에 축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단계는 1차 구조물 주변에 화강암 판석을 더 쌓아서 구조물의 전체 규모를 확장시킨 것이다. 또한 상단에서 담장의 구조가 변경되었으며, 이 단계에서 남벽을 따라 일련의 나무 기둥이 세워졌다. 이후 남쪽과 서쪽에는 화강암 판석으로 계단을 시설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크기가 큰 산돌을 이용해 담장을 축조하였으며, 건축물의 동쪽 · 북쪽 · 서쪽에 위치한다. 담장을 축조한 후에 구조물 위에 봉토를 덮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돌담의 상단 부분, 구조물 상부 및 남쪽 계단은 덮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와 지붕을 설치하였다. 매장 구조물의 서쪽 · 북쪽 · 동쪽 기초부의 외곽 둘레를 따라 기와편 및 탄화된 목조 부재가 발견되었으며, 돌담의 범위까지 덮여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는 기대器臺를 비롯한 토기편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해당 토기들은 콕샤롭카–1 평지성에서 출토품과 유사한 것이 많아서, 매장 구조물은 평지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매장 구조물의 규모 및 출토유물로 보아 신분이 높은 피장자와 관련지어볼 수 있으며, 제단祭壇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시 · 공간적으로 유사한 비교 사례는 연해주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중국 육정산六頂山고분군과 홍준어장虹鱒魚場고분군에서 확인한 귀족급 석축묘를 들 수 있다. 구조가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발해문화 전통을 분명히 보여준다. 출토유물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를 참고하면, 콕샤롭카–8 유적은 10~11세기로 편년된다.

Клюев Н.А., Ивлиев А.Л., Гридасова И.В. 2018. Городища постбохайского времени // Города средневековых импер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ВЛ РАН; Ин-т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С. 149-168.

| 해제 | 14년 간 조사된 크라스키노 성을 제외하고 한 · 러 공동조사 중 가장 대단위로 발굴된 발해 중~후기의 유적이다. 콕샤롭카–1성은 러시아 학계에서 발해 경계를 축소시켜 본 가설의 최북단에 위치하나, 이마저도 발굴자료가 부족하여 추론에 머무르던 것을 발해 중후기에 공고히 점유하였음을 확증하였기에 의미가 크다. 콕샤롭카–1 성은 한민족 고유의 구들이 부설된 대형건물지와 말갈토기와 계통이 다른 회전판 성형의 발해양식 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 발해 후기 주민이 조영하고, 발해 멸망 후까지 연용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필자가 언급한 발해 멸망 후 제3의 세력이 북편건물지를 축조했다고 보는 러시아 학계의 견해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비교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과 인접한 콕샤롭카–8 유적은 한국에서는 '콕샤롭카–8 석축구조물'로 보고된 것이다. 또한 토기 등 출토유물이 양식적으로 일치하여 동일 집단이 축조 · 운영한 유적임은 확실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외 위구르계 토기나 성곽 내 건물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도질토기陶質土器 또는 일본 스에키須惠器토기편 등 대외교류의 적극적 증거는 발해의 적극적인 이민족 포섭정책의 일면이 낳은 성과물로서, 연해주 발해 무덤의 지역성의 한 사례로 한국학계에서는 이해하기도 한다.

저 자 Ya.E. 피스카료바
Я.Е. Пискарева
Ya.E. Piskareva

연 도 2019
간행물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25권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극동 남부의 말갈문화: 사회-경제 양상

주 제 어 말갈
초기중세
인구분포
토기
경제
주거유적
성

목 차
1. 러시아 초록
2. 영어 초록
3. 머리말
4. 고고학 자료로 본 연해주 지역에서의 말갈 인구분포 체계
1) 성
2) 주거유적
5. 토기 제작의 사회–경제 양상
1) 토기 생산 조직
2) 토기 다양성 및 표준화
3) 토기 제작에서의 젠더 양상
6. 맺음말
7. 참고문헌

이 논문은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말갈 사회와 경제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쓰여졌다. 필자는 연해주 남부 인구분포를 분석하고 말갈 유적을 분류하는 연구를 실행하여 당시 말갈 사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1984년에 O.V. 디야코바О.В. Дьякова(O.V. Dyakova)는 말갈 토기를 바탕으로 말갈 사회의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A.L. 메젠체프А.Л. Мезенцев(A.L. Mezentsev)에 의하여 도시 등급을 지정하는 연구도 이뤄진 바 있다. 이 논문은 연해주 남부 지역이 인간에 의하여 상당히 개발되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필자는 토기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말갈 사회가 가내수공업에서 전문수공업으로 바뀌는 단계를 거쳤다고 파악한다.

사회 · 경제적 상황의 복원은 무덤, 생산 잔고, 인구 분포 체계에 의해 실행된다. 곧 유형 문화는 그러한 재현을 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말갈 문화의 경우에는 자료의 제한이 존재하며 유적 연구도 적을뿐만 아니라 자료 획득이 어렵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인구 분포와 도예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해보고자 한다.

취락고고학은 주거유적의 행정 순위와 그 종합을 다룬다. 행정 순위가 낮은 주거유적은 행정 중심지 주위에 모여 있다. 말갈 고고학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적들은 규모에 따라 각각 3 등급의 성城과 주거유적으로 분류된다.

성은 총 13개소가 확인되었고, 대부분은 방어시설이 설치되었고 성벽은 보이지 않는다. 높이 15m 정도 지대에 자리 잡았지만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성들도 있다. 규모에 따라 대 · 중 · 소형으로 분류하고 각 성의 특징을 설명하였으나 특정 유물이나 유구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성을 행정 중심지로 단정할 수 없다.

장기간 취락지, 계절간 취락지, 생산지 등 100개소 이상의 주거유적은 주로 높이가 낮은 지대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주거유적 규모와 주거지 수혈구덩이의 수는 관련성이 없고, 여러 문화층이 있는 주거유적도 있으므로 말갈 유적에 대한 해석과 편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새로운 발굴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인구 분포 체계에 관하여 행정 중심지 주위에 등급이 보다 낮은 주거 유적이 위치한다. 나아가 주거지들은 열을 지어있고 도로도 있으며 멀리 떨어져 축조한 주거지도 발견되었는데 신분이 독특한 것으로 본다.

조사된 40개소 이상의 주거지에서 구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들은 말각방형이고, 기둥 구멍이 불규칙하게 위치하며 우진각지붕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입시설에는 종종 작은 계단이 있으며 돌출되어 있다. 주거지 중앙에 원형이나 장방형 노지가 확

해 제 S.S. 실리체바

인된다. 수리 흔적이나 개축 흔적이 없으므로 단기간 주거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 생산은 소성燒成시설과 제작소가 특징적이다. 제작소는 임시적이거나 항시적이고, 주거지 안에 있거나 따로 건물을 지어 만들어졌다. 소성 시설은 노지에서 가마까지 종류가 다양한데 경제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기 생산 발전과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로이짜-2Троица-2(Troitsa-2) 주거유적 근처에 토기 제작소 유적이 발견되었다. 가마들, 기타 공방터, 전문 도구들이 확인되며 재료, 물, 취락지에서 가까운 제작공간의 입지도 의미가 있다.

가마 구조는 복잡해졌지만 토기 질이 발전하지 않았다. 복잡한 구조의 가마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토기의 종류가 발전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가마 구조가 복잡해지는 이유를 환경 변화 또는 도공의 이주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요구가 인구 분화를 더 밀접하게 한다고 본다.

토기는 문양보다 형태가 더 다양한데, 크기가 다양해질수록 기법도 복잡해진다. 필자는 기의 용도에 따라 그 기능에 따라 고체의 식품 보관용, 액체 보관용, 요리용, 식용, 생산용 5종류로 분류한다. 시넬니코보-1Синельниково-1(Sinelnikovo-1) 성에서도 1인당 식기 세트도 출토되었다. 토기는 주로 주거지 생산 구역이나 벽, 노지, 출구 근처에서 노출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토기형도 바뀌었지만 개수는 비슷한데, 이 세트에 들어가는 용기들은 극단적으로 기능적이어서 최소 필요한 용기들이 출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토기 제작의 주체는 주로 남성으로 보는데 생활용 토기는 여성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주장한다. 연해주 지역 기후로 인해 토기 제작은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여 여름 · 가을에 작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다른 계절적 작업(농사 등)과 일정 갈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여자들은 토기 제작을 하며 남자들은 또 다른 생산작업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다른 일이 없었던 남자들은 토기를 제작하였다고 본다. 여자들은 집에서 제작했는데 따로 제작소가 확인되는 것은 전문화와 공동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거지 20~25개소에서 대략 100~125명이 살고 있었다고 본다. 주거유적은 높은 지대, 언덕, 평야에 단기간 살았던 마을로 주장한다. 가정생산에서 수공업으로 변화하는 단계였고 토기 제작은 계절적 작업환경을 가진다.

Пискарева Я.Е. 2019. Мохэская культура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 Труды ИИАЭ ДВО РАН. №25.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136-150.

| 해제 | 이 논문은 말갈 사회를 인구분포와 토기 제작 방법을 통해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사회 · 경제적 양상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토기 제작은 사회 경제와 간접적인 관계만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 · 경제적 양상을 유적 분류형식과 토기 제작으로만 측정하는 것은 다른 문화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갈 유적 분류와 토기 제작 과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다고 하겠다.

연해주 말갈 유적의 지역 그룹들

저 자 Ya.E. 피스카료바
Я.Е. Пискарёва
Ya.E. Piskareva

연 도 2005
간행물명 『러시아 극동의 고대와 중세: 발견, 문제, 가설』 1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말갈
발해
한카
해안
카발레로보
라콥카
수이푼
고르밧카
북쪽 그룹

목 차
1. 연해주 말갈유적 토기
1) 한카 그룹
2) 해안 그룹
3) 카발레로보 그룹
4) 라콥카 그룹
2. 발해유적 출토 말갈토기
1) 수이푼 그룹
2) 고르밧카 그룹
3. 10~11세기 말갈 유적
1) 북쪽 그룹
4. 영문초록

이 논문은 연해주에서 말갈 토기가 발견된 유적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 그룹으로 구분하고자 시도한 논문이다. 필자는 말갈 유적들을 편년적으로 3개의 범주 즉 말갈 유적들, 발해 시기의 유적들(발해 유적들), 10~11세기의 말갈 유적들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지역그룹들을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먼저 연해주 말갈 유적들에는 한카 그룹, 해안 그룹, 카발레로보Кавалерово(Kavalerovo) 그룹, 라콥카Раковка(Rakovka) 그룹이라는 4개의 지역 그룹을 포함시키고, 아우롭카Ауровское(Aurovka) 성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

한카 그룹에는 한카호興凱湖 가까이 위치하는 연해주 남서부 지역의 유적들이 포함된다. 쿠르쿠니하-3Куркуниха-3(Kurkunikha-3), 노보셀리셰-2Новоселище-2(Novoselische-2), 쿠르쿠니하, 카메누시카Каменушка(Kamenushka) 등이 있다. 한카 그룹 토기들은 기형은 길쭉한 모양이 기본이며, 문양은 구연부 아래와 어깨 두 부분에만 장식하고 있다. 어깨 부분의 단사선문이 특징이다.

해안 그룹에는 연해주의 남쪽 해안지역에 분포한다. 트로이차 만의 가마들, 트로이차-5Троица-5(Troitsa-5) 주거유적, 만주르바자-1Маньчжур-база-1(Man'chzhur-baza-1) 유적, 포시에트Посьетская(Pos'yet) 동굴, 스파세니예-1Спасения-1(Spaseniya-1) 주거유적, 알레우트-15Алеут-15(Aleut-15) 쿠르간 그룹, 알레우트-20 유적, 자포베드노예-7Заповедное-7(Zapovednoye-7) 주거유적 등이 포함된다. 유연한 곡선의 토기가 덧띠 융기대와 결합한 토기가 기본적이며, 문양은 구연 아래, 목, 동체부 혹은 저부에 위치한다.

카발레보 그룹은 연해주의 북동해안에 분포한다. 우스티-제르칼노예-1Усть-Зеркальное-1(Ust'-Zerkal'noye-1) 주거유적, 제르칼노예-4, 제르칼노예 유적이 포함된다. 토기 자료가 많지 않고 편이며, 수제와 윤제토기도 있다. 문양은 구연 아래와 어깨 부분에 있다.

라콥카 그룹은 라콥카 강과 아브라몹카Абрамовка(Abramovka) 강 유역에 분포한다. 라콥카-10, 미하일롭카-1,2Михайловка-1,2(Mikhailovka-1,2), 젤료느이 야르-1Зеленый Яр-1(Zeleny Yar-1), 야로슬랍카-1Ярославка-1(Yaroslavka-1), 아브라몹카-2,3유적이 대표적이다. 토기의 특징은 구상의 동체가 있는 토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우롭카 성의 말갈 수제토기는 시문토기가 매우 적고, 올가 및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 문화의 특징이 결합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발해 시기의 유적들에는 수이푼綏芬河 그룹,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그룹,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 그리고 마리야놉카Марьяновское(Maryanovka) 성을 포함시킨다.

수이푼 그룹에는 체르냐티노-2Чернятино-2(Chernyatino-2) 주거유적, 체르냐티노-5 고분

그 림 104. 연해주 말갈유적 지역 그룹
105. 한카 그룹 유적 말갈 토기
106. 해안 그룹 유적 말갈 토기
107. 카발레로보 그룹 유적 말갈 토기
108. 라콥카 그룹 유적 말갈 토기
109. 아우룹카 성 말갈 토기
110. 수이푼 그룹 유적 말갈 토기
111. 고르밧카 그룹 유적 말갈 토기
112. 크라스키노 성 말갈 토기
113. 마리야놉카 성 말갈 토기
114. 북쪽 그룹 유적 말갈 토기
115. 모나스트리카-3 고분군 토기

해 제 홍형우

군, 시넬니코보-1Синельниково-1(Sinelnikovo-1) 산성, 콘스탄티놉카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Konstantinovka) 취락지가 포함된다. 수제와 회전판을 이용한 심발형, 호형, 화병형이 있으며, 구연 아래 융기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거의 같은 비율로 있다. 침선문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수직 띠 모양의 광택나는 마연문이 있는데, 이는 이 그룹의 유적들에서만 보인다.

고르밧카 그룹에는 일리스타야Илистая(Ilistaya) 강 유역의 유적들이 해당한다. 고르밧카 성, 니콜라옙카-1,2Николаевское-1,2(Nikolaevka-1,2) 성이 대표적이다. 수제와 회전판 토기가 있으며, 회전판 토기가 약간 더 많다. 기벽에 격자 타날문이 남아 있다. 타날 후에는 표면은 매끈하게 정면 또는 마연한다. 어깨 부위를 따라 융기대를 시문하기도 하며, 대체로 환원 소성의 특징을 보인다.

크라스키노 성 말갈토기는 그룹 A는 좁은 바닥, 곧은 구연부, 넓고 약간 둥근 동체가 있는 심발형토기, 그룹 B는 외반 구연 호형 및 심방형의 수제와 회전판 토기이다.

마리야놉카 성은 발해의 말기로 간주되는데, 나지막한 호형토기가 많다. 어깨 부분에 융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격자타날문도 보인다. 어깨 융기대와 격자타날문은 고르밧카 성과 가깝고, 호형토기의 모양은 포크롭카 문화에 가깝다.

끝으로 10~11세기 연해주 말갈 유적은 북쪽 그룹과 모나스트리카-3Монастырка-3(Monastyrka-3) 고분군으로 구분한다.

북쪽 그룹에는 무지자Музиза(Muziza) 성, 로시노Рощино(Roshchino) 고분군, 노보포크롭카Новопокровка(Novopokrovka) 고분군이 포함된다. 깨끗하게 정면한 호형토기가 많다. 기형은 위나 중간이 아니라 아래 부분이 널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나스트리카-3 고분군 말갈토기는 수제와 회전판 제작이 있고, 수제가 더 많다. 기벽은 타날한 다음 광택이 없는 마연을 하였고, 물손질의 예도 있다. 기형은 위나 중간 부분이 아니라 아래 부분이 넓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이 고분군을 O.V. 디야코바O.B. Дьякова(O.V. Dyakova)는 나이펠드найфельд(Naifeld)에, P.L. 쇼민П.Л. Семин(P.L. Semin)과 S.A. 콜로미예츠С.А. Коломиец(S.A. Kolomiets)는 트로이츠코예Троицкий(Troitsky) 고분군과 흡사한 것으로 보았으나, Ya.E. 피스카료바는 나이펠드와는 형태가, 트로이츠코예 그룹과는 격자문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그룹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한카 그룹은 4세기 말~5세기 초로, 라콥카 그룹은 7세기로 보며, 라콥카, 해안, 카발레로보는 같은 시기 공존 가능성이 있다.

Пискарева Я.Е. 2005. Локальные группы мохэ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Приморье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419-438.

| 해제 | 이 논문은 연해주에서는 처음으로 말갈토기를 지역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말갈토기를 발해시기 및 발해 이후의 시기까지 포함시킨 점, 지역성을 강조하고 시간성에 대한 고려가 소홀한 점 등의 비판이 있었으나, 연해주의 말갈토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논문이다.

저 자 Ya.E. 피스카료바
Я.Е. Пискарёва
Ya.E. Piskareva

연 도 2014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1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해주 말갈유적 편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주 제 어 말갈
올가
발해
연해주
쿠르쿠니하
아브라몹카–3
체르냐티노–5
코르돈–드보랴니크
라콥카–10 유적

지원사업 아시아–태평양 초기 국가 형성
Статья подготовле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гранта ДВО РАН № 12-III-A-11-216 "Становление ранн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목 차
1. 본문
2. 결과 논의
3. 맺음말
4. 영문 초록

이 논문은 연해주의 말갈유적의 편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필자는 기존에 연해주에서 가장 빠른 말갈유적은 4~5세기로 편년된 쿠르쿠니하Куркуниха(Kurkunikha) 유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한다. 보다 확실한 자료는 같은 한카Ханка(Khanka) 그룹에 속하는 아브라몹카–3Абрамовка-3(Abramovka-3) 유적으로, 연해주에서 가장 빠른 말갈유적으로 본다. 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연해주의 폴체Польце(Poltse)) 문화의 특징을 분명히 보이며, 동인同仁과 단결團結 유적과 유사하고, 방사성탄소연대측정에 따라 6~7세기 초로 본다. 체르냐티노–5Черняпино-5(Chernyatino-5) 주거유적의 출토 유물도 올가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6세기 말로 편년된다.

다음 단계의 유물로는 코르돈 드로뱌니크Кордон Дровяник(Kordon Drovyanik) 주거유적을 들 수 있으며,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에 해당한다. 라콥카–10Раковка-10(Rakovka-10) 유적은 회전판 사용, 구형 동체 호형토기와 벌어진 동체의 화병형 토기 등 보다 늦은 특성을 보인다. 이 유적은 라콥카 그룹에서 가장 늦은 8세기로 편년된다. 논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연해주에서 가장 빠른 말갈유적은 한카 지구에 위치하는 쿠르쿠니하 유적이다. 1959년 A.P. 오클라드니코프 А.П. Окладников(A.P. Okladnikov)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많은 연구자들, O.V. 디야코바О.В. Дьякова(O.V. Dyakova), S.P. 네스테로프 С.П. Нестеров(S.P. Nesterov), E.I. 데레뱐코Е.И. Деревянко(E.I. Derevyanko) 등은 모두 블라고슬로벤노예 Благословенное(Blagoslovennoe) 또는 나이펠드найфельд(Naifeld) 그룹으로 분류하고, 4~5세기, 또는 5세기로 편년한 바 있다. 그러나 층위 등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하나의 연대측정치 1560±60 B.P.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연해주에서 좀 더 분명한 자료는 아브라몹카–3 유적에서 나왔는데, 이 유적은 1984, 1989, 1993년에 발굴되었다. 6기의 주거지에서 토기 자료들이 수습되었다. 아브라몹카–3 유적 토기에는 올가 문화와 관련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광구형에 구형 동체를 가진 대형 호형 토기라는 기형과 지두문 등에서 모두 올가 문화의 모습을 보인다. 유사한 토기가 루카셰카–5Лукашевка-5(Lukashevka-5) 주거유적(호롤Хороль(Horol) 지구), 미하일롭카–1, 2Михайловка-1,2(Mikhailovka-1,2)(미하일롭카 지구), 트로이차Троица(Troitsa)(하산 Хасанский(Khasan) 지구)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이 토기들은 동인同仁과 단결團結 유적의 것과 유사하다. 연대는 600~760년, 610~760년, 450~1150년으로 측정된 바 있으며, 6~7세기로 편년된다. 이를 통해 아브라몹카–3 유적은 연해주에서 가장 이른 말갈유

그 림 1. 쿠르쿠니하 주거유적 토기들
2.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토기들
3. 말갈 주거유적 토기들
4. 체르냐티노-5 말갈 주거유적 토기들
5. 코르돈-드로뱌니크와 체르냐티노-5 유적 자료들
6. 라콥카-10 주거유적 토기들
7. 라콥카-10 주거유적 토기들
8. 연해주 지도

해 제 홍형우

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비슷한 기간의 유물로는 체르냐티노-5 고분군 북쪽 끝부분에 위치한 말갈 주거지 에서 출토된 유물을 들 수 있다. 주거지 출토 유물은 아브라몹카-3처럼 올가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6세기 말로 편년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2012년에 라조Лазо(Lazo) 지구에서 발굴된 코르돈-드로뱌니크 주거유적 자료들이다. 말갈주거지 1기에서 7점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체르냐티노-5 고분군의 1유형에 속하며, 661~681과 681~715년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토기는 7세기 후반~8세기 초로 편년할 수 있다.

또 다른 유적으로는 라콥카-10 주거유적이 있다. 3개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이 유적은 아브라몹카-3과 같이 라콥카 그룹에 속한다. 이 토기들은 회전판 사용, 구형 동체 호형토기와 벌어진 동체의 화병형 토기 등 보다 늦은 특성을 보인다. 라콥카-10 유적 토기는 라콥카 그룹에서 가장 늦으며, 8세기로 편년된다.

이와 같이, 연해주의 말갈 문화 중 가장 빠른 것 중의 하나는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이다. 이 유적의 토기에는 올가 문화의 특성이 분명히 보인다. 이 토기 자료와 비슷한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에 따라 6세기말~7세기 초로 편년된다. 다른 한카 저지대 유적(라콥카-10, 미하일롭카-2), 몇몇 동편 해안 취락지(코르돈-드로뱌니크)는 수이푼綏芬河 강 중류의 발해 유적들과 함께 존재했으며, 시기는 토기 자료와 방사성탄소연대에 따라 8세기이다.

Пискарева Я.Е. 2014. К вопросу о хронологии мохэ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Приморья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80-91.

저 자 E.I. 겔만
Е.И. Гельман
E.I. Gelman

연 도 2005
간행물명 『러시아 극동의 고대와 중세: 발견, 문제, 가설』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발해의 중심과 변두리 지역의 상호관계
–물질문화의 몇몇 측면의 예를 통해

주 제 어 발해
중앙
변방
시유도기
도자기
기와

이 논문은 연해주 내 발굴조사 결과로 얻어진 고고자료 분석을 통해 발해국의 지방과 변방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해 검토한다. 연구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주로 내외부의 교역과 중앙과 변방의 수공화 전문화 수준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중앙과 변방의 상호관계는 다른 다양한 연구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검토보다 많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발해 동쪽 지역의 중앙과 변방의 상호관계는 권력의 중앙집권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중앙과 변방의 상호관계 문제는 다양한 인간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고고학 자료를 통한 중앙과 변방의 상호관계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해의 교역과 그 개별적 양상에 대한 문제들이 일본과 러시아에서 간헐적으로 다뤄지긴 했지만, 발해국 자체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발해 동쪽의 중앙과 변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발해국은 속말말갈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전성기에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다. 발해에는 15주 62주 125현이 형성되어 있었고, 3번째 왕인 대흠무大欽茂 시기에는 중국 당나라에서 차용한 5경제도가 시행된다. 러시아 연해주는 행정구역상 솔빈부率賓府에 해당했고,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 지구에 속했다.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으로부터 훈춘시琿春는 약 70km 떨어져 있고, 그곳에는 팔련성八連城이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동경용원부는 대흠무가 집권하던 785~793년까지 일본의 연결 통로로 역할을 했으나, 상경上京 천도가 이루어진 794년 이후에는 변방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해의 위계 구조에 따라 살펴보자면 러시아 연해주에는 크라스키노 성곽이 위치했고, 이 유적은 등급 2단계에 해당했다고 할 수 있다. 2단계 등급 유적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성곽 면적이 12ha 이상. 성벽 형태의 요새 구조물, 3개의 문지 (남문, 동문, 서문).
– 30m 이상의 넓은 중앙도로(남문에서 북쪽의 성벽을 향하면서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를 포함하는 내부 평면 구조를 가진 성곽
– 성곽 구역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서 활동했던 불교사원 복합체 형태의 종교 중심지의 존재
– 내부와 외부 교역의 고고학적 증거들(시유도기와 도자기)
– 높은 수준의 수공업 전문화에 대한 자료들(기와 생산, 도공, 사원 구조물 건축 등)
– 이른 발해시기에 해당하는 유물과 토층의 존재

이 외에도 최근의 연구자들은 문헌 기록에 근거해 크라스키노 성곽이 일본과 발해

표 118. 연해주 발해 유적 출토 시유토기, 도자기 분포도
119. 연해주 내 발해시기 시유토기, 도자기 분포도
120. 연해주 내 발해시기 출토 시유토기, 도자기 생산지
121. 연해주 불교 사원 출토 일반 수키와 형식들
122. 기와내면표면포목흔형식들
123. 기와 내면 점토띠 흔적과 와통 눈테 흔적
124. 기와 외면 타날형태의 기술적 흔적들
125. 암막새 문양 형식들

해 제 이우섭

대사관들과 배들이 오고 갔던 항구였다고 추정한다. 정치적 목적 외에도 이러한 대사관들은 교역소로서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발해의 내부 교역과 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에 해석에 대해 살펴보자. 농경과 관련한 증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최근까지 니콜라옙카-2Николаевское-2(Nikolaevka-2) 성곽에서 출토된 탄화 곡물 중에 콩과 메밀만이 유일했다. 하지만, 2년간에 걸친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성곽 발굴조사와 부유분석을 통해 발해의 농경 연구의 정보 영역이 확연하게 넓어졌다. 총 12가지 종의 식물이 확인되었는데, 일리스타야Илистая(Ilistaya) 강 연안에서 경작하던 주민들의 흔적이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와 피이며, 그 다음으로는 밀이 많다. 팥, 콩, 보리, 메밀 등이 이어서 발견되며, 이렇게 조사된 자료들은 직접적인 교역의 증거는 되지는 못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교류 연구를 위한 잠재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를 제공한다. 한편, 발해국이 존재했던 시절의 기후는 현재보다 매우 따뜻했을 것이고, 농경을 위한 더 적합한 조건을 형성했을 것이다.

발해의 내부 교역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다른 곳에서 확인되었다. 고르밧카 성곽에서는 800점의 연체동물이 발견되었는데, 15가지 해양 연체동물 종을 포함해 29가지의 종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연해주 대륙 주민들과 해안지역 주민들의 상호 교류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해안지역과 내륙은 약 70km 떨어져 있었는데, 육로나 해안로를 따라 가는 거리로 본다면 95~130km이다. 모든 연체동물들은 재배종이고, 음식을 위해 활용되었다. 모든, 해양 연체동물 종들이 성곽에서 음식으로 활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종들은 예술품을 만드는데 활용되기도 했다.

바다와 강에 서식하는 연체동물 연구는 발해 내의 정기적인 교류가 중앙과 지방간에 존재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중앙-지방 체제 속에서의 이런 높은 수준의 교류는 서로 간의 정비된 상호 교류 기구에 대해 증명해준다. 이를 통해 상호 교류 기구의 활동을 수행하고 조율했던 강한 엘리트 집단이 지방에 존재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시유도기와 도자기는 일반 토기들에 비해 발해 유적에서 자주 발견되지 않고, 가치 있는 범주에 속한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은 유약 발린 기와와 몇몇 시유 건축물들이 예외적으로 발해 왕이 살았던 수도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이다. 연해주 발해 고고 유적에서 모든 시기 동안에 걸쳐 약 70점의 도자기 편들이 발견되었다. 대다수는 편들이기에 자기의 형태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몇몇 유물들은 고고학적 복원을 통해 추정 가능하다.

연해주 발해 유적의 시유 도기들은 중국(당나라시대)에 기원을 둔다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해의 시유 도기들은 당나라의 삼채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단색의 잿빛 시유 도기는 특히나 다른데, 이는 발해국에 다른 가마터가 존재했고, 여기서는 이와 유사한 도기들을 생산했던 것으로 보인다. 발해 도기는 단색과 다색으로 구분 가능하며, 유적마다 다양한 색깔들이 조합(녹색, 갈색, 노란색)되어 확인된다. 기형은 매우 다양한데, 뚜껑, 구형도기, 삼족기 등이 존재한다.

발해인들은 중국의 당삼채를 지역적인 생산품으로 모방해냈다. 아마 처음에는 중국의 도공들이 참여했을 것이고, 점토의 질은 중국의 그것과 달랐을 것이다. 잿빛을 띠는 시유도기는 가치가 있고 희귀한 것이었다. 이는 해당 유물이 많은 발해 유적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알수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대다수가 크라스키노 사원지에서 발견되었고, 코피토Копытинский(Kopyto), 아브리코스Абрикосовский(Abrikos)에서도 나타난다. 유약이 발린 유물들은 사원의 행사나 장식을 위해서 활용되었을 수 있고, 사원의 부를 상징했을 것이다.

사서에는 발해가 다른 나라들과 대외적인 교역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외 교류는 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는 사절단을 의미했다. 당나라 제국으로의 방문에 대해 중국 학자들은 조공을 바치기 위함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절의 중요한 내용은 교역이었다. 양자 간의 교역을 위해 중국의 항구 등주登州에는 발해의 사절과 상인이 머물기 위한 숙박시설이 있었다. 200여년 동안 이곳에는 150번의 방문이 있었다.

발해를 833~835년에 방문했던 장건장張建章의 기록에 의하면, 발해 사절단들에게 선물로 가지고 온 물건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이는 금속(철, 동), 쌀, 연유, 배, 미역, 된장, 직물(실크, 무명), 사슴, 말, 호랑이 가족, 표범, 곰, 물, 야생고양이, 말린 생선, 야생식물, 약초와 뿌리, 향수, 해산물, 독수리와 꿩의 깃털이다. 발해에서 당으로 가져온 물건들은 말, 동, 은, 금제 불상, 자색의 토기들이었다.

727년부터 발해는 일본과의 교류를 열었고,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했다. 727년부터 922년까지 발해에서 일본으로 37번의 사절이 보내졌다(1번은 비공식). 답방은 보다 적은 13번으로 적었으나 630~837년까지 15번 중국의 당나라로 대사를 보낸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 당나라의 중국 사신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9차례로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발해와 일본은 매우 활발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역사 기록을 통해 밝혀진 바처럼 발해의 대외 교류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완전치 않지만, 충분히 폭넓은 내용들이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한 고고학적 자료는 아직까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자료는 중국 가마터에 기원을 두고 있는 시유도기와 도자기이다. 이 도기와 자기들은 중국의 동쪽 월주요越州窯와 북쪽 하북성의 정요定窯에서 제작된 것들이다. 이 외에도 후난성의 장사시長沙市 인근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편이 발견되었다. 장사요 도자기들은 서방의 다양한 국가들에도 잘 알려져 있었는데, 실크로드를 통해 연해주와 동남아시아로 넘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발해 동쪽 지역의 중앙과 변방에는 수공업 생산이 집중화되어 나타났고, 이는 기와 생산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발해의 기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 나가면서 하나의 표준화된 형태로 변화해갔다. 연해주의 불교 사원지에서는 수키와와 암키와가 모두 발견되었으며, 산화염와 환원염 소성이 모두 확인된다. 대체적으로 환원 소성된 것이 많고 71% 이상이 800~850℃의 온도에서 소성되었다.

발해국 동쪽지역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통합된 권력의 중앙집권화 과정이 끝나

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언급하고자 하는 점은 중앙집권화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국가 경제의 중요한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 발해국에는 변방과 반변방半邊方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것은 경제력과 경제활동에 반영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변방으로의 방향을 약화시킨 경향이 있었다. 발해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양한 교역을 수행했고, 여기에는 변방의 권력자들이나 왕권을 대표하는 기구들 등이 참여했다. 변방 귀족들의 권력은 높았고, 이는 발해 멸망 이후 경제적 안정성이 보존되는 것을 가능케 했다(아우롭카Ауровское(Aurovka) 성곽과 같은 유적의 존재와 이곳에서 출토되는 발해 유물들은, 후발해 시기의 공존을 말해준다).

Гельман Е.И. 2005.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центра и периферии в Бохае (на примере некоторых аспектов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476—516.

| 해제 | 이 논문은 발해의 중앙과 변방지역의 상호관계를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것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로 발해의 농경, 연체동물, 성곽, 시유도기, 역사기록, 기와 생산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그 교류관계를 살펴보았고, 특히 크라스키노 성 주변 발해 동쪽지역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발해 동쪽지역의 중앙과 변방에는 수공업 생산이 집중되어 나타났고, 통합된 권력의 중앙집권화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발해의 대내외 교역

저 자 E.I. 겔만
Е.И. Гельман
E.I. Gelman

연 도 2019
간행물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25권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발해
교역
교환
토기
도자기
동물고고학
연해주
동아시아

목 차
1. 머리말
2. 대상유적과 연구방법
3. 지역 내 교역
1) 지역 수준에서의 교역 연구
2) (유약바르지 않은) 윤제토기
4. 지역 간 교역
1) 납 유약을 바른 토기
2) 연체동물 연구
3) 어류 연구
5. 국제 교역
1) 유약 바른 토기와 도자기
2) 발해 유적 출토 이국적인 유물
6. 맺음말
참고문헌

이 논문은 러시아 연해주의 발해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발해의 교환과 교역(무역)에 관해 고찰한 글이다. 연해주에는 약 150개소의 발해 유적이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은 지표유물만으로 판단된 경우이며 20여개 유적이 발굴조사되어 실체가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이 된 발해유적은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평지성,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평지성, 콕샤롭카–1Кокшаровка-1(Koksharovka-1) 평지성, 니콜라옙카Николаевское-1·2(Nikolaevka-1·2), 평지성, 시넬니코보Синельниково(Sinelnikovo) 산성, 스타로레첸스코예Староречeнское(Starorechenskoe) 평지성, 마리야놉카Марьяновское(Maryanovka) 평지성, 스테클랴누하Стеклянуха(Steklyanukha) 평지성, 아우롭카Ауровское(Aurovka) 산성, 아브리코스Абрикосовское(Abrikos) 주거유적, 콘스탄티놉카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Konstantinovka) 주거유적, 체르냐티노–2Черняпино-2(Chernyatino-2) 주거유적, 체르냐티노–5Черняпино-5(Chernyatino-5) 고분군, 콕샤롭카–8 무덤 복합체이다.

발해는 고유의 화폐시스템이 없어서 주로 물물교환으로 교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자로 된 중국 문헌 자료들이 고고학 자료들과의 비교와 해석을 위해 인용되었다. 동경용원부 산하 책성의 된장, 상경용천부 용주의 주紬, 솔빈부의 말, 태백산(백두산)의 토끼, 미타호의 붕어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다.

발해 지역 단위의 교역품은 수제 토기와 윤제 토기가 있다. 발해유적에서 수제 토기의 비율은 높지 않아 5%(고르밧카 평지성)에서 12%(콘스탄티놉카 주거유적)가 주를 이루는데 크라스키노 평지성에서는 비율이 1% 미만이어서 주목된다. 수제 토기는 800℃ 미만에서 소성하였는데 대부분 취사와 관련된 용기이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윤제 토기 또한 지역의 점토를 이용하여 제작되고 지역단위로 교환된 물품이다. 윤제 토기는 800~850℃에서 환원 소성되어 만들어지는데 기와가마와 동일한 가마에서 제작되기도 하였다. 코르사콥카 주거유적에서는 토기가마가 3기 조사되었는데, 중형 크기의 토기를 한 번에 12~20점 소성할 수 있는 규모로 확인되었다. 3기의 가마가 동시에 조업한다면 한 번에 36~60점의 토기를 소성할 수 있는데, 이는 약 2ha 면적의 주거유적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발해에서의 토기 생산은 수공업장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계절적 요인이 있으나 토기제조업은 안정화되어 있었다.

지역 간 교역은 발해 삼채, 연체동물과 어류 등 자연유물을 통해 분석되었다. 발해 삼채는 납 유약을 바른 것으로 당 삼채를 모방하여 제작되었다. 연해주에서는 크라스키노 평지성, 코피토Копытинский(Kopyto) 절터, 아브리코스 절터, 아브리코스 주거유적, 고르밧카 평지성, 니콜라옙카–2 평지성에서 발해 삼채가 출토된 바 있다. 그 중 크라스

그 림 1. 발해(698~926년) 지도
2. 러시아 영토 내 발해 유적과 발해시대 유적
3. 연해주 발해 유적에서 발견된 도자기의 중국 가마터 위치도

해 제 김동훈

키노 평지성은 약 80점의 삼채편이 출토되어 가장 많은 양이 확인되었다. 발해 삼채는 현재 발해 국경을 넘어서는 확인된 바 없다. 조개류와 같은 연체동물의 지역 간 교역 증거로는 상경에서 동해산 조개가, 연해주 고르밧카 평지성에서 15종의 바다조개를 포함하여 29종의 조개가 출토된 바 있다. 동해안에서 직선거리로 약 70km, 하천을 이용하면 95~130km 내륙으로 떨어져 위치한 니콜라옙카-1, 2 평지성에서도 육지 주민들과 해안가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유물이 확인되었다. 고르밧카 평지성 출토 동물유체 중 청어, 가자미, 연어, 송어 등 바닷물고기뼈가 1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또한 지역 간 교역의 증거로 활용가능하다.

대외 교역에 관해서는 발해에서 당으로는 말, 구리, 금제와 은제의 불상, 가죽 등이 수출되었고, 비단을 포함한 직물들, 차잎, 한약재, 금속제품 등이 수입되었다고 중국학자인 진위푸金毓黻의 자료를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실제 발해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관련 유물로는 시유도기와 자기가 있는데, 크라스키노 평지성, 콕샤롭카-1 평지성, 고르밧카 평지성, 니콜라옙카-2 평지성, 노보고르데옙카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Novogordeevka) 산성, 마리아놉카Марьяновское(Maryanovka) 평지성, 아우롭카 산성, 콕샤롭카-8 고분군, 시니예 스칼리Синие Скалы(Siniye Skaly) 주거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이들 중국 도자기들의 중국 내 가마터로는 하북성의 정요定黨와 형요邢黨, 호남성의 장사요長沙窯, 절강성의 월요越窯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발해 삼채와 달리 중국 도자기들은 더 먼 거리를 이동하여 교역이 되었는데 이는 당시 당과 발해의 정치적 교류에 의한 것이다.

염주鹽州인 크라스키노 평지성에서는 다양한 교류 유물이 출토되었다. 발해와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로는 내면에 일본 불교 승려의 이름이 선각된 토기편이 있다. 또한 한반도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로 각배편(구경 10.5cm, 현존높이 27.5cm), 8~9세기 통일신라로부터 수입된 편병이 확인되었다. 또한 평지성 내 주거구역에서는 낙타뼈가 출토되어 동경(훈춘 팔련성)으로 온 대상들이 크라스키노 평지성을 거쳐 동해 건너 일본 및 한반도와도 직접적으로 교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는 발해의 북동지역으로 지역 내에서, 또한 지역 간 교역은 물물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대외교류는 발해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신 교류 시스템의 일환으로 교역이 병행되었다. 특히 염주(크라스키노 평지성)는 동해를 항해하는 일본도의 항해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며, 동경과 연결되는 항구로서 한반도와의 교류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다양한 교류 유물을 통해 입증되었다.

Гельман Е.И. 2019. Внутренняя и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в государстве Бохай // Труды ИИАЭ ДВО РАН. №25.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151-166.

| 해제 | 이 논문은 발해의 지역 내, 지역 간 교역과, 발해와 인근 국가간 교역이라는 여러 차원의 교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논문이다. 중국 문헌기록 또한 인용하여 고고자료로 밝힐 수 없는 교역의 전체적인 실상을 보여주려 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연해주 발해유적에서 출토된 교류 관련 고고유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저 자 A.A. 김
A.A. Ким
A.A. Kim
연 도 2005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2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러시아 극동 남부에서의 발해 북쪽 경계와 926년 발해 멸망이후의 문제

주 제 어 발해
경계
말갈
여진

지원사업 Herda Henkel Stiftung

지 도 1. 발해영역과 천도과정

해 제 박규진

이 논문은 발해의 경계와 멸망 이후 주민의 동향 등에 관한 한국학자의 의견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박과 보완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발해 북쪽 경계와 관련한 문제는 지금도 각 나라별 연구자들의 시각이 매우 다르다. 이는 정확한 사서자료가 없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같은 자료인 경우에도, 각 나라별로 해석의 시각은 판이하다. 러시아 학자들은 극동 러시아에서 발해의 경계를 연해주 중부, 혹은 북부지방으로 국한한다. 반면 한국 연구자들의 경우 연해주 전부를 발해영역으로 보거나, 그 경계가 하바롭스크Хабаровск(Khabarovsk) 지역까지 이른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는 말갈에 대한 종족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말갈에 대한 인식은 이후에 등장하는 여진과도 연관이 된다. 한국 연구자들은 여진의 시작을 발해 속 말갈로 보며, 여진과 한국역사의 연관관계를 찾으려는 여러 시도를 하였다. 한국 연구자들은 발해 멸망 후 발해주민 일부는 여진형성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는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의견은 발해를 한국의 역사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여진, 이후에 건국된 금나라는 기본적으로 고려와 적대적 세력이었다. 또 발해와 여진은 기본적 생활방식도 다르고, 사회 구성 역시 차이가 크다.

물론 『금사金史』를 비롯한 일련의 사서에서 여진과 발해의 연관성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만, 이는 말갈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고구려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Ким А.А. 2012. К вопросу о северной границе Бохая на юг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и проблеме боха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сле 926 год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2.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238-242.

| 해제 | 이 논문은 연해주 지역 발해의 경계와 발해주민과 여진족과의 관계에 대한 글로 러시아 학계의 발해에 대한 영역적, 민족적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실제로 러시아 연구자들이 보는 발해의 영역, 특히 연해주 지역의 경우 한국 쪽 자료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발해를 말갈의 역사로 보고 있으며 논문 또한 그러한 시각 하에서 발해 이후 여진의 등장을 논의하고 있다.

저 자 S.P. 네스테로프
С.П. Нестеров
S.P. Nesterov

연 도 2001
간행물명 『동아시아의 고대와 중세 역사: 발해건국 1300주년』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아무르지역의 발해 이주와 아무르 여진의 기원

주 제 어 아무르
발해의 이주
아무르 여진의 기원

목 차 1. 본문
2. 영문 초록

해 제 홍형우

소흥안령 동편(송화강松花江–우수리乌苏里江) 아무르지역 주민의 기원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다. V.E. 메드베데프В.Е. Медведев(V.E. Medvedev)는 이 지역 주민들을 '아무르 또는 북 여진'으로 명명하였으며, 1) 7~9세기 전반, 2) 9세기 후반~12세기 1사분기, 3) 12세기 2사분기~13세기 중반으로 나누었다. 이와 달리, Yu.M. 바실리예프Ю.М. Васильев(Yu.M. Vasiliev)와 E.V. 샤프쿠노프Э.В. Шавкунов(E.V. Shavkunov)는 '아무르 여진' 대신 '포크롭카Покровская(Pokrovka) 문화'로 명명하고, 9~12(13)세기로 편년하였다. 이 중 8~9세기는 말갈 문화(트로이츠코예Троицкий(Troitsky) 유형)로 보았으나, 이들을 말갈족이 아닌 실위室韋족에 귀속시켰다. 한편, O.V. 디야코바О.В. Дьякова(O.V. Dyakova)는 말갈 문화 트로이츠코예 유형과 아무르 여진 문화를 같은 문화로 보고, 단계에 따라 발해, 요, 금으로 나누었다. E.I. 데레뱐코Е.И. Деревянко(E. I. Derevyanko)는 이 지역 중세 고고학 문화를 퉁구스 말갈과 그 후예(아무르 여진)의 역사로 보았다. 본 논문의 필자는 고고학 자료의 분석을 통해, 제야–부레야Зея-Бурея(Zeya-Bureya) 지역(북실위 지역)과 송화–우수리 지역(흑수말갈 지역)에 발해 말갈인들이 출현하는 이유를 8세기 발해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시킨다. 흑수말갈(나이펠드найфельд(Naifeld) 그룹)은 아무르 서부(제야–부레야) 지역으로 8세기에 들어 왔으며, 이보다 약간 늦게 발해말갈 또는 속말말갈인(트로이츠코예 그룹)이 이주해 왔다. 이 지역에서 발해와 흑수말갈은 한동안 공존한다. 제야–부레야 지역으로 이주해 온 발해인들은 첫 번째 이주의 물결을 반영하며, 송화–우수리의 아무르 지역에 출현했던 발해말갈인들은 두 번째 이주를 반영한다. 기존 연구에서 두 번째 이주와 관련이 있는 코르사콥카Корсаковский(Korsakovka) 유형은 여진 문화와 관련시킨다. 그러나 중국 사서에 따르면 '여진'은 10세기 이전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르 지역에서 발생했던 종족명의 변화는 여진 문화의 나데진스키Надеждинский(Nadezhdinsky) 유형 이후이다. 요약하면, '아무르 여진'이라는 종족명은 8~9세기까지는 아무르 지역에 적용될 수 없으며, 10세기 이후에나 가능하다.

Нестеров С.П. 2001. Бохайские миграции в Приамурье и происхождение амурских чжурчжэней // Древняя и средневековая история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 130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С. 76-79.

| 해제 | 이 논문은 필자의 오랜 연구 결과를 짧게 압축한 것으로, 아무르지역의 고고학적 문화와 이주, 종족 그리고 '아무르 여진'에 대한 상관관계를 큰 틀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저 자 Yu.G. 니키틴
Ю.Г. Никитин
Yu.G. Nikitin

연 도 2000
간행물명 『극동의 역사와 고고학: E.V. 샤프쿠노프 70주년』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국가이전 단계 수이푼강 유역의 주민

주 제 어 수이푼강
하안단구지형
크로우놉카 문화

해 제 박규진

이 논문은 수이푼강 중류에서 새롭게 확인된 선사에서 국가형성이전 단계 유적이 이 지역 자연지형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수이푼綏芬河 강은 중국에서 발원해서 연해주를 지나 동해와 만나는 강으로, 중류와 하류가 러시아 경내에 위치하며 길이는 191km이다. 이 중 연구대상인 중류의 경우, 연해주 남부 내륙지역을 통과하며 전반적으로 하안단구 지형이 발달해 있는 상태로, 이 지역 고고학 유적의 분포는 이러한 지형조건과 연관이 있다. 수이푼강 유역에서의 고고학적 연구는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리고 1994년부터 시작된 연차조사를 통해 구석기시대부터 중세후기까지의 유적 250여 곳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필자는 각 시기별로 유적의 입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유적 배치의 특징과 그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구석기시대 유물은 기본적으로 수이푼강이 통과하는 현무암 대지 위에서 확인이 된다. 그러나 유물 이외 고고학적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그 면모를 밝히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유적은 주로 단구대 고위면 끝부분에 위치한다.

신석기시대는 기본적으로 자이사놉카зайсановская(Zaisanovka) 문화에 해당된다. 이는 발굴된 유적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조사되지 않은 유적이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많은 수의 유적은 강가 높은 곳 돌출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전 시기보다 유적이 증가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신석기시대 주민이 수이푼강 유역 지형에 적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고금속시대 유적은 입지를 기준으로 험준한 고지대에 위치한 그룹과 단구대 저위면에 위치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그룹의 유적은 각각 대응하며, 위급시 고지대, 평상시 저위면의 유적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해주의 초기철기시대는 여러 문화로 구분되지만, 해당지역의 경우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 문화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 지역 크로우놉카 문화는 연해주에서 일어난 두 단계의 농경위주 주민 확산 중 두 번째 단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기원전 1천년기 후반에 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학자들은 이러한 행위의 주체를 북옥저로 보기도 한다. 금세기 초반까지 72곳의 유적이 확인되었고, 모두 주거유적이며 주로 높은 범람원, 일부는 하안단구 저위면에 위치하고 있다. 크기에 따라 3개의 그룹(Ⅰ: 15~20ha, Ⅱ: 2~3ha, Ⅲ: 1.5ha이내)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있다. 분석결과 기원전 1천년기 후반~기원후 1천년기 초반에는 주거유적의 수가 초기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고, 중심에 하나의 대촌이 있으며, 주위에 소촌 10여 개가 있는 형태를 보인다. 좀 더 늦은 시기에는 15ha이상의 주거지가 등장한다. 크로우놉카 문화의 주민은 생계경제로 농업, 가축사육 말고도, 수렵, 채집 등도 행하였다. 또 주거지와는 별도로 농사에 유리한 범람원이나 하안단구 저위면에서 작물을 재배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비록 드문 경우이지만, 연해주 폴체Польце(Poltse) 문화의 유물도 센키나 샵카Сенькина Шапка(Sen'kina Shapka) 유적 등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

5~6세기 이 지역에는 말갈이 등장한다. 고고학적 자료로 볼 때 이들은 동인문화계 흑수말갈로 추정되며, 유적의 입지나 특징 등을 볼 때 방어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원주민과 말갈인 사이의 분쟁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지역 말갈 유적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로 정식 발굴된 유적은 한 곳 밖에 없다. 이 후 이 지역은 아마 8세기 초반 다른 세력으로 대체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증거는 관련 유적에서 분명한 흔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새로운 세력은 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듯, 솔빈率賓말갈이 해당될 것이다.

Никитин Ю.Г. 2000. Население долины р. Суйфун в пред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риод // История и архе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 70-летию Э.В. Шавкунова.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во Дальневост. ун-та. С. 147-153.

| 해제 | 이 논문은 수이푼강 중류 고고학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기별 주민들이 이 지역에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살펴본 글로, 자연지형 안에서 일어난 시기별 유적 입지의 변화와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일정규모로 발굴된 유적보다 그렇지 않은 유적이 대상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면모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편이다. 한편, 이 강은 연해주 남부 최대수계이자, 가장 비옥한 지역으로 발해시기 유적 말고도 수많은 유적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글에도 언급되었듯, 크로우놉카 문화의 유적이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당, 발해와 동이(발해의 동부 변방)

저 자 Yu.G. 니키틴
Ю.Г. Никитин
Yu.G. Nikitin

연 도 2005
간행물명 『러시아의 극동의 고대와 중세: 발견, 문제, 가설』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당
동이
연해주 동부
발해 변방
말갈
국가발전단계
발해 경역

목 차
1. 동이와 변방 :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과 변방 관계
2. 발해 존속시기에 따른 북동부 경계 변화
3. 맺음말

이 글은 사료 및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연해주 지역에 소재하는 말갈세력의 경계변화와 발해로의 국가 편입과정에 대해 개괄한 것이다.

1. 동이와 변방

발해시기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고대 중국의 세계관에 따라 외교관계가 형성되었으며, 당은 동쪽 변방 지역을 '동이東夷'로 통칭하였다. 발해는 서쪽의 당과는 책봉관계를 맺고, 동쪽의 민족들과는 황제국을 표방하는 관계를 맺었다. 그 중 연해주 지역에 위치하는 민족들과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 발해 유적의 분포와 정치사적 구분에 따라 3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신당서新唐書』에 따르면, 5경 15부 62주 125현의 지방통치체제가 존재하였으며, 그 중 연해주 라즈돌나야Раздольная(Razdolnaya)강 유역에 솔빈부率賓府의 관할 지역이 존재했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2. 발해 존속시기에 따른 북동부 경계 변화

1) 첫 번째 단계(건국~8세기 중반)

하산Хасанский(Khasan)지구와 라즈돌나야 강이 위치한 연해주 서 · 남부는 발해 영토로 편입되었고, 북 · 동부는 편입되지 않은 완충지대로서 흑수黑水말갈이 결집했다. 『신당서』에서는 우루虞婁 · 불열拂涅 · 철리鐵利말갈은 아직 발해에 복속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분포가 확인된 말갈~발해 120개 유적(2002년 기준)은 밀집도에 따라 미하일롭카Михайловский(Mikhailovka) · 우수리스크Уссурийский(Ussuriysk) · 한카Ханка(Khanka) · 라즈돌나야 지구와 같은 내륙지역과 동해안 남부 · 동해안 동부와 같은 해안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말갈전형의 유물로는 수제 니질토기, 아무르식 대장식구, 결합식 이식耳飾, 반수혈식 방형주거지를 들 수 있다. 그 중 토기상으로 한카 지구와 라즈돌나야 지구가 차이를 보이는데, 양 지역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라즈돌나야 강 중류지역이 발해 전기의 경계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경계에 위치한 유적으로는 시넬니코보-1Синельниково-1(Sinelnikovo-1), 센키나 샵카Сенькина Шапка(Senkina Shapka)등의 소형 산성을 들 수 있다.

2) 두 번째 단계(8세기 중반~9세기 전반)

불열拂涅 · 월희越喜말갈을 발해말갈로 편입함에 따라 일리스타야Илистая(Ilistaya) 수계의 북 · 동쪽에 완충지대가 형성되었다. 연해주 동부에서 묘제 · 부장품 · 축성기법에서 '발해모방'이 나타나는 것은 변방에 거주하는 발해 주민들이 토착민들과 활발하게 교류한 증거이다. 그 중 중국화폐가 이식耳飾의 드리개로서 이용된 사례들로 보

도 면 126. 연해주 지역 내 발해의 경역 변화
A. 발해 전기
B. 발해 중기
C. 발해 후기
127. 발해 변방지역의 고고유적 (발해 이전부터 운용)
1. 미하일롭카–우수리스크
2. 한카 변경
3. 라즈돌나야(수이푼緩芬河)
4. 해안 남쪽
5. 해안 동쪽 및 연해주 동남부
128. 발해 변방지역 성곽 – 고지대(단애·곶) 입지
129. 발해 변방지역 성곽 – 범람원 입지
130. 발해 변방지역과 일본 열도 북부 간 교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고고유물의 분포도
131. 말갈 유적의 복합 배치 – 성곽 2개소와 그 주변의 대형 주거유적

해 제 정윤희

아, 실물교환경제였을 것이다. 경계선에는 한카호~일리스타야 수계의 니콜라옙카–1 Николаевское-1(Nikolaevka-1), 니콜라옙카–2성, 오트라드노예Отрадное(Otradnoye)성 등 고지대(단애, 곶)에 위치한 방어성과 범람원에 위치한 방어시설이 있는 주거유적이 연속적으로 배치된다. 비킨Бикин(Bikin)강 · 이만Иман(Iman)강~시호테 알린Сихотэ-Алинь(Sikhote-Alin)산맥~해안 동부에서 출토된 청동제 '좌효위장군 섭리계左驍衛將軍 攝利計'명 어형부절魚形符節, 금동제 '수도성水道城'명 방울, 정요定黨자기편, 청동제 대장식구帶粧飾具 를 통해 교역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8세기~9세기로 편년된 바 있으며 일본 홋카이도北海島로도 유입되었는데, 발해의 북쪽 영토확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치 · 경제 · 문화적 영향을 동북부로 확대하면서 당과 일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강화하였다.

3) 세 번째 단계(9세기 중반~발해 멸망)

선왕宣王의 정복활동으로 우루 · 철리말갈이 발해의 지방통치구조에 편입된다. 그 경계에는 한카호兴凯湖 북단 마리야놉카Марьяновское(Maryanovka)성~우수리강乌苏里江 상류의 노보고르데옙카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Novogordeevka)성, 루다놉카Рудановское(Rudanovka)성~연해주 해안 동부의 오크라인카Окраинка(Okrainka) 성이 위치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발해부들이 중국 송화강松花江, 목단강牡丹江 유역에 분포하고, 그 중 흑수말갈이 송화강 하류, 우수리강, 아무르강에 분포하면서 연해주의 북부와 북동부를 점유하였다. 여기에서 라조Лазо(Lazo) · 올가Ольга(Olga)지구 등 동쪽으로 발해의 영향력이 좀 더 확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고고자료가 아직 미약하여, 강안분지에 위치한 말갈–발해유적들은 아직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모나스트리카–3Монастырка-3(Monastyrka-3) · 로시노–4Рощино-4(Roshchino-4) · 글라즈콥카–1Глазковка-1(Glazkovka-1) · 소콜롭카Соколовский(Sokolovsky)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청동유물들은 9~10세기로 편년되며 묘제 및 유물상으로 '말갈', '발해모방'적 특성에 포크롭카Покровка(Pokrovka)문화의 영향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Никитин Ю.Г. 2005. Тан, Бохай и «восточные варвары» (Восточная периферия Бохая)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517-539

| 해제 | 필자는 연해주 소재 발해유적에 대한 다수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해주의 남부지역까지로 축소시켜보는 러시아 학계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 그 중 필자가 새로이 지적한 점은 발해시기 최대 경역과 관련하여 콕샤롭카–1성 ·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을 경계로 동북쪽으로 확대시켜 볼 가능성인데, 이는 2010년 이후 새로이 확보된 발굴조사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 학계 다수는 우수리강 이동以東지역에 대해서 포크롭카 문화와 같이 9세기에 별개로 발전한 지역 문화라는 개념을 들어 발해 경역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서,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 자 D.A. 비츠코프
Д.А. Бычков
D.A. Bichkov

연 도 2016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4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해주 중세 성곽의 가시권
–이론, 방법 및 전망

지원사업 국가학술사업분야과제
(№ 33.702.2014K).

주 제 어 가시권
말갈성곽
실카강
연해주

이 글은 연해주 말갈 성곽에도 가시권可視圈 분석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러한 방법론은 아무르주 자바이칼 동남부지역에 위치한 중세 전기 말갈성곽인 우스티–쵸르노예Усть-Черное(Usti-Chernoye)성의 봉수를 통해 실험고고학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연구대상의 경관적 특징은 구릉의 꼭대기 혹은 돌출된 지점에 강의 지류가 합수되는 지점마다 2~3개의 성곽이 하나의 그룹群을 이루고 있다. 이는 자바이칼 동남부 지역의 말갈 성곽들이 실카Шилка(Shilka)강과 같은 자유곡류하천을 끼고 있으며 가시권이 탁월한 고지대에 집중 분포한다.

연구대상의 규모는 A.L.메젠체프A.A. Мезенцев(A.L. Mezentsev)의 연해주 성곽분류안에 따르면, 소형성(0.6~1.6hα) · 12개소와 중형성(3.6~8.7hα) 2개소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대형성보다 방어에 훨씬 효과적인 소형성이 우세하다는 것은 지역 내 잦은 전쟁의 정황을 반영한다.

연해주 지역에서도 돌출된 고지대에 위치하며, 봉수 신호가 상호전달되기 위해 군사경관적 문화적으로 부합하는 사례들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기톱카Джигитовка(Zhigitovka) 강하구에 위치하는 크라스노예 오제로Красное Озеро(Krasnoye Ozero)성과 클류치Ключи(Klyuchi)성은 말갈부터 발해시기(8~10세기)로 편년되며, 평지성과 산성이 짝을 이루는 배치로서 유적간 3.5km 간격을 두고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리고 동해안을 면하는 평지성인 미스 툐플리Мыс Тёплый(Mys Teply)성과 말라야 카리마Малая Карыма(Malaya Karima)보루는 돌출된 곶 지형에 입지하고, 양 유적 간격이 1km가 채 되지 않는다.

한편, 아브라몹카Абрамовка(Abramovka) 분지에 위치한 주거유적들은 실카강 유역과 경관적으로 유사하다. 루카셴코바–1Лукашенкова-1(Lukashenkova-1)성, 아브라몹카–4 주거유적과 아브라몹카–5 주거유적은 5~7km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 위치한 고지대에서는 양쪽에 대한 가시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상호연결되는 봉수유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지역에서 균일하게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형적 ·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향과 반경을 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봉수를 올렸을지 실험고고학을 통해 가시권역의 가능성을 점검해볼 수 있다. 유적 주변에 위치하는 자연 장애물, 대기의 습기와 기압에 따른 빛의 산란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유적 내에서 조망하는 방향 또한 가시권의 비율에 영향을 준다. 봉수구조물의 흔적은 탄화된 구조물의 잔재와 발화지점이 뚜렷한 점을 통해 파악가능

도 면 1. 가시권분석대상 연해주 말갈 성곽의 위치도

해 제 정윤희

하며, 유적 내 돌출된 암석 등 가장 레벨이 높은 지점에 위치한다.

위의 내용을 실제 고고조사에 적용한다면, 물리탐사시 유존탐색구간을 좁힐 수 있다. 그리고 연해주와 아무르주 실카강 유역의 대상유적 모두 소형 · 중형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가시권이 넓고 누적가시권이 연속되며, 고고 · 역사자료로 보아 주기적인 군사적 접전이 존재했던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 유적의 가시권은 군사적 전보 체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추후 지표 · 발굴조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Бычков Д.А. 2016. Средства визуаль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средневековых городищ Приморья: обоснование, метод и перспективы поиск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4.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328-336.

| 해제 | 필자는 아무르주 실카강 수계 말갈성곽의 봉수시설에 대한 실험고고학적 방법을 적용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지형적 · 시기적 맥락이 유사한 연해주 지역 유적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간략히 비교해봄으로써, 새로운 방법론적 개념과 전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분석용 데이터와 이에 대한 해석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추후 이에 대한 자료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해의 민족과 문화의 구성

저 자 E.V. 샤프쿠노프
Э.В. Шавкунов
E.V. Shavkunov

연 도 2001
간행물명 『동아시아의 고대와 중세 역사: 발해건국 1300주년』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발해
다민족 국가
고대 몽골어
거란어
타지크 어
만주어
거란
실위

발해는 다민족 국가로 특히 말갈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고구려의 유민인 고구려 주민이 포함되었다. 말갈과 이웃한 남쪽에는 고구려와 거란이 있었고 서쪽에 실위, 서북쪽에 사모부思慕部, 북쪽에 군리부郡利部, 동쪽에 굴설부窟說部가 있었다.

거란 문자를 판독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고대 몽골어를 사용했는데, 실위도 거란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 다구리족達翰爾族도 고대몽골어를 사용했다. 굴설부를 제외하고 위에 열거한 말갈과 이웃한 민족은 거란과 실위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

실위室韋가 사는 영역은 아르군Аргунь(Argun) 강과 아무르Амур(Amur) 강, 눈강 연안과 송화강의 중하류 일대이다. 다구르 족은 실위의 동쪽 말갈의 북쪽에 살았다.

이를 종합하면 7세기에는 요하, 눈강, 아르군 강, 아무르강 중상류에서 송화강 합류 지점까지 송하강 중하류에 거주하던 고대 몽골어를 사용하는 종족인 거란, 실위, 다구리 종족이 말갈의 영역을 남쪽, 남서쪽, 서쪽, 북서쪽, 북쪽에서 반원모양으로 싸고 있다.

사료에 따르면 실위가 거란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지만, 다른 사료에서는 실위와 말갈의 언어가 동일하다고 증언한다. 실위의 음식이 말갈과 동일했다는 기록도 있다. 일부 실위집단이 말갈과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조영 사망 후 대무예는 정복정책을 펼치는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위와 관직 외에도 현재 내몽골 동북쪽에 있던 9개의 위구르 씨족과 후연의 감독 직함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뒤에 이곳은 위구르 칸국(745~840)이 다시 발해로부터 자신의 영토를 빼앗았다.

발해의 영토에 위구르족이 나타난 것은 9세기 후반에 다시 발해로 대거 이동해 왔을 것이다. 이 때 예니세이 키르키즈가 840년에 위구르 칸국을 멸망시키고 발해로 들어온 것이다. 이 시점의 발해 내부에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9세기 후반의 대외활동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위구르 족이 발해로 들어올 수 있었던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은 발해와 소그드인과의 교류로 개척된 담비의 길 때문이다. 발해는 강 덕분에 아무르강 유역, 동몽골, 자바이칼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사료에 나타난 발해는 중앙아시아의 민족과 매우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류는 담비의 길을 통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표 1. 타지크 어와 만주어의 단어와 의미비교

따라서 발해는 다민족 국가로 소그드 및 이란과도 교류하는 많은 무역 중개지를 통해서 국가를 번영시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Шавкунов Э.В. 2001. О слагаемых этноса и культуры Бохая // Древняя и средневековая история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 130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С. 11-16.

해 제 김재윤

| 해제 | E.V. 샤프쿠노프의 발해영역에 대한 생각은 현재 러시아의 다른 연구자와도 차이가 있다. 말갈 뿐만 아니라 실위 등 고대 몽골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영역도 발해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E.V. 샤프쿠노프의 연구는 비판도 있으나, 발해 연구자 중에 가장 손꼽히는 한명이다. 러시아의 발해연구가 다민족 국가이면서, 말갈 중심의 국가라는 역사인식은 현재의 러시아연구자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그는 발해의 다민족과의 대외활동에 많은 성과를 보였는데, 특히 소그드상인과 발해인이 모피무역을 한 교역로인 담비의 길을 처음으로 제시한 연구자이다.

발해의 대외교역이 당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과 교류했던 무역 중심의 국가라는 점을 밝혀서 중국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러시아사 관점에서 발해를 연구했다는 점은 매우 주관적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가 엄혹했던 소비에트 시절의 역사가(고고학자)가라는 점에서, 러시아인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 자 G.L. 실란티예프
Г.Л. Силантьев
G.L. Silantiev

연 도 2001
간행물명 『동아시아의 고대와 중세 역사 : 발해 건국 1,300주년 기념』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8~13세기 러시아 극동 남부 발해와 여진의 바닷길과 정박지

주 제 어 발해
여진
바닷길
닻
닻돌
표트르 대제 만

이 논문은 중세시대 러시아 연해주에 존속한 정치체인 발해와 여진시대에 연해주를 중심으로 그 인근에 위치한 한반도, 일본, 중국과의 바닷길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다.

발해시대 연해주 표트르 대제Петр Великий(Peter the Great) 만의 남서쪽에 있는 엑스페디치야б. Экспедиции(Ekspeditsii) 만에서는 일본으로 가는 바닷길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염주성(크라스키노 평지성)이 위치한다. 연해주 내륙에는 라즈돌나야Раздольная(Razdolnaya) 강(발해시대 솔빈강率賓江), 우수리강乌苏里江, 아무르 강 등 주요 하천이 선사시대부터 19세기까지도 교통과 통신, 교역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즈돌나야 강 하류에서 약 100km 상류에 있는 우수리스크Уссурийск(Ussuriysk)에는 두 개의 발해 도시가 위치했으며, 1215년부터 1233년까지 존속했던 여진 동하국東夏國의 수도인 크라스노야르Красноярвское(Krasnoyarovskoe) 산성 또한 우수리스크 인근에 위치하였다. 이들 도시들은 라즈돌나야 강을 이용하여 동해안 표트르 대제 만까지 연결되었다. 연해주 앞바다인 표트르 대제 만에서는 해변을 따라 여러 지점의 정박지가 확인되었다. 당시 크지 않은 목제 범선들이 안개, 비와 돌풍 같은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이 발생할 시에는 이들 정박지로 대피하였다. 발해시대 윤제토기편이 포함된 문화층이 있는 표트르 대제 만의 해안가 바다 속에서 돌닻의 출현빈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해토기는 해저에서 닻돌과 함께 출수되기도 하였다. 선박 정박지 해저 바닥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닻돌들이 발견되었다. 표트르 대제 만은 두만강 어귀에서 라즈돌나야 강 어귀에 이르는 해안선에서 소형 범선을 위한 주요 정박지가 여러 지점 확인되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닻과 닻돌, 토기 등의 고고유물이 출수되었다.

1. 표트르 대제 만 남서부 국립해양보호구역 내 팔시비 섬 인근 시부차야 만, 푸루겔림о. Фуругельма(Furugelm)섬 인근과 칼레발라б. Калевала(Kalevala) 만의 정박지 : 세베르나야б. Северная(Severnaya) 만의 해저 바닥에서는 두 점의 닻돌이 수습되었는데, 한 점은 183×40×32cm 크기의 평행사변형이며, 또 다른 한 점은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의 입구 옆 건물벽 앞에 놓여있는 닻돌이다.

자파드노이б. Западной(Zapadnoy) 만의 해저 바닥에서는 대상파수가 부착된 발해 윤제토기편이 수습되었고, 해변가 높은 테라스에서도 발해윤제토기가 묻힌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팔시비 섬 인근 시부치야 정박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나무와 돌로 만든 닻이 확인되었다. 시부치야б. Сивучья(Sivuchya) 만의 언덕에서는 연해주 초기철기시대 얀콥스키Янковская(Yankovsky)문화층과 10㎡ 크기의 넓지 않은 면적에 일자형의 두 줄 고래를

그 림 1. 중세시대 극동 남부의 바닷길
2. 표트르 대제 만 남서 지역의 중세 바닷길
3. 샤이가 성(12세기 초~13세기) 출토 토기 기벽에 새겨진 범선 그림
4. 나홋카 만과 파르티잔 강 하구
5. 범선과 수호문구가 표현된 중세시대 동경
6. 보스토크 만과 리톱카 강 하구
7. 표트르 대제 만 해저 출수 닻돌
8. 시부치예이 만 유물산포지 출토 나무와 돌로 만든 닻의 닻돌
9. 기원전 천년기 지중해 출토 나무와 돌로 만든 닻 복원도
10. 표트르 대제 만 가모프 반도, 정박지와 바닷길
11. 슬라뱐카 항, 안티펜코 섬과 시비랴코프 섬 인근 정박지
12. 1989년 시비랴코프 섬 해안가 석비 발견지점
13. 시비랴코프 섬 출토 한자가 새겨진 석비 모사도
14. 시비랴코프 섬 출토 구세탑救世塔 명문 석비 세부 모사도
15. 표트르 대제 만 블라디보스토크와 루스키 섬 주변 교역로와 정박지
16. 19세기 초 중국의 군용 범선

해 제 김동훈

갖는 쪽구들이 시설된 발해 주거지가 발굴조사되었다. 팔시비o. Фальшивый(Fal'shivyy) 곶 인근 정박지에서는 해저 6~10m 깊이에서 철제 닻을 단 범선의 잔해가 확인되었다. 또한 133×26×6cm의 편암제 닻돌, 79×20~26×7~8cm의 닻돌, 79×12×5cm의 닻돌 등 3점의 닻돌이 수습되었다. 발해와 여진의 군선은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닻과 닻돌 또한 세베르나야 만에서 출수된 닻돌처럼 크고 무거운 형태로 제작되었다.

2. 포시예트Посьетская(Pos'yet) 항 엑스페디치야 만 팔라다의 경박지Рейд Паллада(Reyd Pallada)만 : 포시예트 반도 북서해안가의 티롤 곶 인근 정박지 해저 바닥에서는 현재 포시예트 항 박물관에 보관 중인 철제 닻이 수습되었다.

3. 가모바Гамова(Gamova) 반도 인근 비탸지б. Витязь(Vityaz) 만과 스파세니예б. Спасения(Spaseniya) 만의 정박지 : 비탸지 만 남서쪽 슐차Шульц(Schultz) 곶 해변에서는 불교사원이 새겨진 청동판이 발견되었고, 스파세니예 만 해안에서는 말갈과 발해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4. 슬랴반카Славянка(Slavyanka) 항 안티펜코о. Антипенко(Antipenko) 섬과 시비랴코프о. Сибирякова(Sibiryakov) 섬 인근 정박지 : 슬랴반카 항에서는 밧줄을 걸기 용이하도록 가로와 세로에 홈이 파여있는 150×60×30cm 크기의 방형 닻돌이 해저에서 수습되었다. 시비랴코프 섬의 정박지 해안가에서는 '구세탑救世塔'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석비가 발견되었는데, 중세시대부터 근대 19세기까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여행자들의 기도처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크기는 46×32×17~24cm의 방형이다.

5. 블라디보스토크 항 금각만金角灣과 루스키 섬의 노빅б. Новик(Novik) 만의 정박지, 페스찬니 반도 인근의 정박지 : 사페르니Саперный(Saperny) 반도에서는 팔라디 카파로프Палладий (Кафаров)(Palladius)가 1871년 발해 요새로 명명한 방형의 구조물이 확인되었다. 규모는 50×30m이며 높이는 1.7~2.5m로 북벽과 서벽이 잘 남아있었다. 예르몰라예프Ермолаева(Ermolaev) 곶 해변의 정박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 추정되었다.

연해주 해안을 따라 있는 바닷길은 강 어귀에서 20~100km 강을 따라 내륙에 위치한 발해와 여진 시대의 중세 도시와 연결된다. 방형의 돛이 달린 범선이 선각으로 새겨진 토기가 13세기 초 여진 산성인 샤이가Шайга(Shaiga) 성의 256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샤이가 성은 나홋카Находка(Nakhodka)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파르티잔스크Партизанская(Partizansk) 강(수찬강)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 어귀에서 70km 떨어져 있다. 강–바다 모두에서 항해가 가능한 샤이가 성 출토 토기에 새겨진 그와 같은 범선은 연해주 해안을 따른 연안 항로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제 닻과 연결하는 원형의 홈이 파여진 닻돌이 노보리톱스크 마을 인근 리톱카 강р. Литовка(Litovka)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리톱카 강은 나홋카 만으로 흘러들어간다. 발견된 닻돌은 길이 47cm이고 지름 27cm의 규모로 발해와 관련된 유물로 추정되었다.

Силантьев Г.Л.. 2001. Морские пути и якорные стоянки бохайцев и чжурчженей на юг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в VIII-XIII в. // Древняя и средневековая история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 130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С. 217-238.

| 해제 | 이 논문은 저자인 G.L. 실란티예프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러시아 연해주 표트르 대제 만의 해변과 바닷속에 대한 고고학 조사를 직접 진행한 결과 수습한 닻돌 등의 학술자료를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해안가의 유적과 유물산포지뿐 아니라 연해주 주요 하천과 동해안 일대 범선의 정박지에 대한 수중고고학 조사는 향후 연해주와 주변 국가와의 바닷길을 복원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 자 E.V. 아스타셴코바
E.V. Astashenkova
Е.В. Асташенкова
연 도 2019
간행물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25권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발해인과 여진인의 예술에서 권력과 부富의 상징

주 제 어 발해
여진
금金
동하국
위세품
연해주

목 차
1. 발해
1) 고분군
2) 위세품
3) 관청 – 사원 콤플렉스 (복합군)
2. 여진
1) 고분군
2) 위세품
3) 제왕적 상징으로서 용의 도상
3. 결론

이 글은 발해와 여진의 정치 ·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는 예술 공예품을 대상으로 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연해주 지역 소재 고분 · 불교사원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논하였으며, 그 중 여진의 유적은 러시아 극동지역 중세 문화계보를 기준으로 금金(1115~1234), 동하국東夏國(1215~1234)을 포함한다.

1. 발해

발해의 고분은 도성과의 인접성에 따라 묘제 및 등급의 변화가 나타난다. 왕족의 장지인 용두산龍頭山고분군은 중경中京 서고성西古城 주변, 마적달탑지馬滴達塔地는 동경 주변, 삼령둔三靈屯고분군 및 홍준어장虹鱒魚場고분군은 상경성上京城 주변,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고분군은 염주성鹽州城, 체르냐티노-5Черняτино-5(Chernyatino-5)고분군은 솔빈부성率賓府城주변에 위치한다.

발해의 관영 불교사원은 도성 중 하나인 상경성 안팎에서는 약 10개소, 지방 중 연해주 남부 크라스키노 성 · 코피토Копытинский(Koryto)불교사원지 등 6개소가 확인되며, 연해주 북동부 시호테 알린Сихотэ-Алинь(Sikhote-Alin)산맥 영동領東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유물로는 건물 외장용 수막새 · 치미, 건물 내 장식용 소형 불상모형이 대표적이다. 수막새 중 크라스키노 성 내 2문화층 출토품에서는 도성과 흡사한 문양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발해 중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지방 치소로 위상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형 불상모형은 아직 주거 관련구역에서 확인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불교는 상위 계층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하위 계층에서는 전유專有하지 않았던 사상으로 볼 수 있다.

발해의 위세품으로는 허리띠 장식, 머리 장식, 구슬, 옥기玉器, 거울, 아궁이틀을 들 수 있다. 허리띠 장식은 재질에 따라 철제 대구帶扣와 청동제 과판銙板 (홍준어장 고분군, 체르냐티노-5고분군), 철제 대구와 철제 과판(홍준어장 고분군, 체르냐티노-5 고분군, 크라스키노 성), 철제 과판(홍준어장, 니콜라옙카-1Николаевское-1(Nikolaevka-1) · 시넬니코보-1Синельниково-1(Sinelnikovo-1) ·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성, 콘스탄티놉카-1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1(Konstantinovka-1)주거유적, 옥 · 석제 과판(크라스키노 · 니콜라옙카-2성, 콕샤롭카-8Кокшаровка-8(Koksharovka-8)유적)으로 나눠볼 수 있다. 여기에 문양이 새겨진 것은 연해주 지역은 크라스키노 성에서만 확인되지만, 평면형태가 다양한 것 들은 연해주의 여타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머리장식은 관식과 비녀가 있는데, 삼지형三支形 관식冠飾은 왕실고분인 용두산 고분군에서 출토되었고, 비녀는 아브리코스Абрикосовское(Abrikos)

도 면
1. 정혜공주묘貞惠公主墓(1~3)
2. 용두산 고분군 (1~3. 순목황후順穆皇后묘 출토 토제 모형상, 4~7. 13호묘·14호묘 출토 막새)
3. 용두산 고분군 13호묘·14호묘 유구(1) 및 부장품(2~4)
4. 크라스키노 발해 고분
5. 크라스키노 성 출토 허리띠 장식 및 기타 장신구 (1~6. 석제·유리제·토제구슬, 7. 옥제 고리형 판, 8~11·14~15. 청동제 허리띠 장식(과판), 13. 청동제 허리띠 장식(대단장식), 12. 청동제 팔찌편, 16. 청동제 드리개)
6. 크라스키노 성 출토 허리띠 장식 및 기타 장신구 (1·2. 청동제 비녀장식, 3. 금동제 반지, 4·5. 청동제 과판)
7. 청동제 거울 (1·2. 홍준어장, 3. 크라스키노 성)
8. 홍준어장 고분군 중 거울 출토 유구
9. 크라스키노 성 출토 불상 모형
10. 크라스키노 성 출토 건축 장식부재
11. 석제 인물상 및 동물상
12. 용 문양 도기
13. 허리띠 및 재갈 부속품

해 제 정윤희

사원 및 크라스키노 불교사원 건축층 상층에서 확인되었다. 구슬은 유리제 · 석제 · 토제가 있다. 그 중 유리제품은 원료를 수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옥수)석제품은 규격이 일정하고 수량도 많아서 기성품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토제품은 형태와 규격이 다양하며, 고분에서는 출토된 바 없다. 옥기는 중앙에 구멍이 있는 원판형으로, 홍준어장 · 체르냐티노-5고분군의 석축묘에서 유리제 구슬 · 청동제 허리띠 장식 · 은제 이식耳飾 · 단검과 공반되는 것으로 보아, 피장자는 중위계층으로 추정된다. 거울은 금동제와 청동제품이 확인되며, 대부분 당唐에 계보를 두고 있다. 그 중 금동제 거울은 용두산 고분군 13호 고분에서 확인되었으며, 동물 · 꽃 문양의 화려함으로 보아 최상위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입품으로 추정된다. 청동제 거울은 홍준어장 석축묘와 크라스키노 · 고르밧카 성에서 출토되었다. 크라스키노 출토품은 문양 · 얕게 주출된 테두리周緣部 · 중앙의 반구형 돌출부에서 발해 거울의 특징이 나타난다. 홍준어장 2239 · 2241호 출토품은 석축묘의 묘문 주변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요대遼代동경銅鏡과 마찬가지로 벽사의 상징으로 추정된다. 주철제 아궁이틀은 식물문양이 주출되어 장식성을 더했고, 상경성과 고르밧카 성에서만 출토되어 상위 계층이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해 사회의 상위 계층은 정치 · 종교 · 군사적 지위를 모두 관장하고 있었다. 그 중 주거유적 · 성곽보다 기종이 다양한 고분 출토 위세품은 상위 계층 내 분화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재질, 문양의 도상, 중앙과 지방의 차이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어 주목된다.

2. 여진

여진의 고분은 묘제와 주변에 배치된 조각상 구성을 통해 사회적 차등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란舒蘭에 위치한 완안부完顔部귀족 고분군 입구에는 비석이 세워져있는데, 용 모양의 비석머리와 거북모양의 비석받침으로 장식되어있다. 비석 주변에는 2마리의 양 · 호랑이 · 인물 석상도 배치되어있다. 매장 주체부는 석곽 내 목관 위에 펠트가 덮여있었다.

이와 유사한 구조의 고분이 연해주 우수리스크Уссурийск(Ussuriysk)지역에서도 확인되었는데, 4명의 인물상, 2마리의 산양, 2마리의 거북모양 비석받침이 확인되었다. 그 중 석제 인물상은 안녕安寧을 상징하는 구슬을 손에 쥐고 있으며, 허리에는 주머니를 차고 있어, 고위 관리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금 왕실 고분의 구성 및 상징체계와도 강하게 결부되어있음을 보여주어, 피장자는 완안씨 아사괴阿思魁로 비정되기도 하였다.

그 중 용의 도상은 국가적 권위를, 거북이의 도상은 견고성과 영원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위 계층들에게 각광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소지자의 사회적 지위가 반영되었다. 다만, 지금까지의 자료만 놓고 보면 금과 동하국 간 고분문화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는 추후 발굴성과 축적을 통한 규명이 필요하다. 연해주 소재 여진의 공예품은 고분 외에 주거유적에서도 현저하게 많은 수량이 출토되어 특징적이다.

샤이가Шайга(Shaiga)성 내 수공업 전문구역에서 출토된 고급 재질과 정교한 기법이 베풀어진 물품은 일상용품의 수준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용의 도상은 중앙에서 정한 정치적 위계 차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문양 · 세부 형식 · 주제에 규율을 정하였다. 따라서 이전 발해시기와 비교하여 금 · 동하국 상위 계층의 예술적 상징은 소재, 질質, 수량, 기종에 따라 표준화되었다. 관청 · 궁성 건물의 조영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출토 유적이 속한 행정구역의 등급 혹은 소지자의 정치적 계급을 단적으로 표지한다.

Асташенкова Е.В. 2019. Символы богатства и власти в искусстве бохайского и чжурчжэнь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 Труды ИИАЭ ДВО РАН. №25. С. 189-222.

| 해제 | 이 논문은 러시아 극동 남부지역 중세시기 고고유적 출토 예술 · 공예품을 전공한 필자의 후속 논문으로, 중세시기 정치 · 사회를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조명하였기에 의미가 있다.

발해의 위세품 중 삼지형(또는 삼익형三翼形) 관식冠飾은 학계에서 고구려 계보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그리고 체르냐티노-5고분군 석곽묘 출토 금동제 과판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연해주 지역의 계층이 청동제 · 철제 대장식구만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중앙과 지방차이를 논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사에 대한 개요

저 자 A.L. 이블리예프
А.Л. Ивлиев
A.L. Ivliev

연 도 2005
간행물명 『러시아 극동의 고대와 중세: 발견, 문제, 가설』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발해
말갈
역사
연해주
정안국

이 논문은 러시아 역사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발해 역사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발해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는 E.V. 샤프쿠노프Э.В. Шавкунов(E.V. Shavkunov) 외 단행본인 『러시아 극동의 민족들과 발해국』에서 N.N. 크라딘Н.Н. Крадин(N.N. Kradin)이 작성한 글을 참고하였다

발해국 형성 이전 총체적인 인종 정치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러시아 극동 남쪽지역에서 처음으로 발해국 형성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곳은 말갈족들의 영토였다. 기원후 1천년기 중반 중국의 역사 기록에서도 잘 알려진 말갈과 물길勿吉은 동북지역에 위치한 만주 지역에서 인종–정치적 변화 과정에서 발전해 왔다. 『수서隋書』 기록에 의하면, 기원후 6세기 말 물길–말갈은 7개의 큰 그룹으로 나뉘었고 그 명칭은 속말부粟末部, 백돌부伯咄部, 안거골부安車骨部, 불열부拂涅部, 호실부號室部, 흑수부黑水部, 백산부白山部이다. 대다수의 말갈인들은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고 당나라, 백제, 신라와의 전쟁에 참여했다.

사라무렌 강과 노합하의 대흥안령 남동쪽 언덕에는 오랫동안 거란족 연합으로 구성된 몽골어 계통의 목축 유목민이 살고 있었으며, 기원후 7세기 유명무실하게 당나라 복속되어 있었다. 이 영토에는 송막도독부松漠都督府가 형성되어 있었다. 당시 거란과 영주營州지구는 많은 분쟁이 있었고 거란 추장 손만영과 이진충은 영주지역을 점거했고(현재 요령성 조양朝阳시 서쪽에 해당), 당나라의 북쪽지역을 침범했다. 약 30년간 영주지역에는 속말말갈의 걸걸중상乞乞仲象이 이주했다. 걸걸중상은 668년 멸망한 고구려 시대에 활약했던 자로 훗날 발해를 건국하는 대조영大祚榮의 아버지이다. 당시 이 지역에는 적지 않은 수의 속말말갈이 거주했고, 신당서 기록에 의하면 걸걸중상은 거란의 관료인 사리舍利의 작위를 받았다.

걸걸중상과 말갈의 추장 걸사비우乞四比羽(아마도 속말말갈, 영주지역에 살았던)는 고구려의 유민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측천무후則天武后에 대항하는 힘을 모았다. 당나라가 걸사비우를 회유하려 했으나 듣지 않자, 당나라에 항복한 거란족 사령관 이해고李楷固를 대표로 하여 징벌군을 보냈다. 걸사비우는 패배하여 사망했고, 이후 징벌군은 동쪽으로 도망간 대조영을 쫓았다. 하지만, 천문령天門嶺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 대조영은 목단강牡丹江 상류 북쪽의 오루하奥婁河 동모산에 성을 쌓고 터전을 마련했다.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은 말갈인 거주지의 남쪽과 중앙을 황폐하게 했고, 이는 이전의 이주 시스템을 파괴했다. 목단강에 이주한 속말말갈은 대조영을 수

그 림 116. 말갈 민족의 이주와 진국의 형성 지도
117. 발해의 수도와 주 (중국의 동북 아시아 역사 지도 물질문화를 통해)

해 제 이우섭

장으로 하여 주변의 말갈들을 병합해 나가 첫 번째 말갈국가를 만들었다.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697~698년에 일어난 것이다. 이해고는 당나라에 697년에 넘어왔고, 698년에는 돌궐이 중국의 북쪽을 침범하였고 거란을 복속시켰으며 당나라가 만주로 넘어가는 길목을 차단했다. 698년 대조영은 유리한 상황을 활용해 진국震國을 세웠고 돌궐과 손을 잡았다.

역사의 공통적인 법칙성과 마찬가지로 말갈족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은 국가체제 형성이라는 측면까지 적절하게 구현되었고 이들은 중심부의 번영을 통해 명확한 말갈 그룹에 영향을 주면서 초기의 결정체가 되었다.

705년 진국에는 당나라에서 보낸 감찰관이 왔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대조영은 당나라의 장안에 황제를 개인적으로 보필하는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 구당서 기록에 의하면 거란과 돌궐이 여러 해 동안 국경을 침공하였고, 713년에 와서야 당나라는 대조영을 좌효위대장군左驍衛大將軍 홀한주도독부도독忽汗州都督府都督에 명목상 책봉하였다.

719년 발해의 두 번째 왕으로 즉위한 대무예大武藝는 자신만의 연호를 정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당나라와 일본만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 독립국가임을 표방하는 것이었다. 대무예는 이후 영토를 확장하고 흑수말갈, 당나라와 분쟁을 일으켰고 처음으로 일본과 국교를 맺었다. 이후 자신의 동생인 대문예에게 흑수말갈을 공격하라고 하지만 동생은 이에 반대했고, 결국 당나라로 도망갔다.

8세기 중엽 발해의 세 번째 왕인 대흠무大欽茂 시기는 발해국의 첫 번째 번영기라고 할 수 있다. 대조영이 현재의 길림성 돈화시敦化市에 건립한 수도는 국력의 증가에 비해 규모나 지리적으로 부합하지 못했다. 8세기 중엽 대흠무는 상경성上京城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현재의 동경성東京城과 가깝고 목단강牡丹江의 우안에 위치한다. 흑룡강성은 거의 모든 기간동안 발해 수도가 위치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는데 당나라 덕종德宗 재위 정원貞元년에 동경東京으로 수도를 옮겼다. 대흠무가 793년에 사망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천도는 785~792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794년에 발해 대화여大華璵가 즉위하면서 상경성으로 다시 옮겨갔다. 대흠무는 일본과 함께 신라를 공동으로 공격하려고 했고, 753년에는 일본과 관계를 맺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스스로 천손天孫이라고 표현하여 일본보다 높다는 것을 보였다. 실제로 대흠무 시기에 발해의 5경제도가 확립되었다. 현재 중국의 역사 학자들은 당나라의 5경제도가 757년에 형성되었고, 5년 뒤에 발해왕이 국왕으로 봉해졌다는 점을 결부시킨다. 이와 관련해 당나라에서 5경제는 오랜기간 지속되지 않았고, 발해에서는 모든 기간동안 이 제도가 작동했다. 대흠무 시기에는 문화 수준이 크게 발전했고 정효공주貞孝公主와 정혜공주묘貞惠公主墓의 비석이 증명해준다.

발해의 새로운 번영은 대인수大仁秀 시기에 시작된다. 신당서 기록에 따르면 그의 조상은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大野勃의 4세손이다. 전반적으로 9세기 말에 들어 발해의 영토는 동해안과 연해주의 남쪽 한반도의 북쪽 그리고 우수리강乌苏里江의 상류를 포함했다. 우수리강의 상류에는 연해주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발해 유적

인 마리야놉카Марьяновское(Maryanovka) 성곽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행정적으로는 키롭스키Кировский(Kirovskiy) 지구에 해당한다. 발해의 강역은 북쪽의 송화강을 넘어 흑룡강성의 의란현依蘭縣에 이르렀다. 발해의 군사 조직은 10개의 근위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당나라의 14 근위대와 유사하다. 각각의 근위대 수장에는 대장군 1명과 장군 1명을 두었다. 전반적으로 발해의 통치 체제는 많은 부분에서 당나라의 것들과 유사하다. 3성 6부의 제도를 도입하였고 명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있으나, 그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것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 아닌 중앙집권화된 국가였던 것이다.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 발해를 둘러싼 동아시아에서는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발해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906년 황소黃巢의 난으로 쇠약해진 당나라가 멸망하고 이와 유사하게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 신라와 후백제 그리고 고려(태봉)가 서로 대치한다. 당시 발해의 상황은 좋지 못했고 흑수말갈의 통치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886년 흑수말갈의 사절이 신라에 갔고 발해에 대항할 공동의 활동을 요청했다. 924년 이후 흑수말갈의 대사는 후당後唐의 관할에 들어갔고, 발해의 권력에서 최종적으로 해방된다.

중요한 위험은 발해의 서쪽에서 도래했다. 당나라의 멸망과 함께 거란이 주도적인 정치력을 가지게 된다. 916년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는 거란제국의 황제임을 선포했고 인접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침략 정책을 폈다.

915년 거란의 동쪽으로는 압록강鴨綠江이 흘렀고 이곳에서 야율아보기는 낚시를 했다. 근심에 쌓인 신라와 고려는 즉각적으로 귀한 선물과 함께 대사를 파견했다. 918년 야율아보기의 궁전에 발해로부터의 사신이 당도했다. 하지만, 발해와의 평화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음해 야율아보기는 발해의 땅을 침략하고 요하遼河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그는 고대 도시 요양遼陽 에 수도를 재건하고 동평군東平軍이라 부르고 이곳에 중국인과 발해인들을 이주시킨다. 923년 거란군의 동진은 성과 없이 끝나지만, 발해를 멸망시키기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는다. 당시 거란은 과거 위구르카간이 존재했던 곳으로 정벌하느라 바빴지만, 925년 야율아보기는 친위대와 대군을 이끌고 발해를 공격했다. 926년 초 거란은 발해의 중심인 부여성扶餘城을 포위하고 3일만에 함락시킨 후 6일 뒤에 선봉대 기마병 10,000명으로 공격한 후 수도인 상경성을 포위했다. 3일 뒤에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大諲譔은 항복했다. 야율아보기는 항복을 받아들이는 예식을 거행하고 그를 놓아줬다. 하지만 6일 뒤 대인선은 다시 한번 거란에 대항했고, 거란은 그의 군대를 격파하고 상경성을 습격했다. 그 달에 발해는 동단국東丹國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야율아보기의 맏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동단국의 관제는 대체로 옛 발해국의 제도를 그대로 이었고, 스스로 일본과 중국에 대사를 독자적으로 파견했다. 이후 동단국의 수도는 동평성東平城으로 옮겨갔고 수많은 발해인들이 이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발해의 유민들은 정안국定安國을 세웠는데 그 위치는 정확하지 않다. 명칭으로 볼 때 연변이나 송화강, 목단강에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철리부鐵利府에서 얼마 떨어

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970년대 거란의 요나라 국경 침공이 시작된다. 여진과 정안국은 거란과 송나라의 전쟁 마지막에 요나라에 대한 활발한 군사활동으로 그들을 몰아내려 했다. 1029~1030년 거란의 동쪽 수도는 발해인들의 대규모 반란으로 상실된다. 당시 거란은 소금과 술의 전매와 물품 교역에 대한 과다한 세금 부과로 발해인을 수탈했고, 대조영의 후예인 대연림大延琳은 이에 저항했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그는 수차례 고려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고려 왕은 이를 거절하고 국경을 강화했다. 대연림은 동쪽의 수도에서 해자를 강화하고 저항했으나, 거란군에 의해 성곽이 포위당했다. 1030년 8월 발해의 장군 양상세楊詳世가 비밀스럽게 남쪽 문을 열었고 이곳에 거란군이 들어와 대연림은 체포되었다. 많은 발해인들은 다른 제국의 영토 혹은 고려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 반란이 일어난 몇 년 뒤에도 거란정부는 새로운 과세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

마지막 발해인들의 부흥 운동은 여진족의 금나라와 요나라가 전쟁을 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1116년 요나라의 동쪽 수도에서 스스로 대발해국 황제라고 칭했다. 10일 동안 동경의 50개 지구를 점령했지만, 이후 여진족들에게 격파된다.

Ивлиев А.Л. 2005. Очерк истории Бохая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449—475.

| 해제 | 이 논문은 러시아 학계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발해사를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발해의 건국과정에서 주변지역에 있던 말갈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발해가 당나라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지방정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발해 멸망 이후 정안국의 위치 비정이나 부흥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도 논문에 함께 서술하였다. 문헌적으로 발해사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러시아 학계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큰 의의가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다.

저 자 A.L. 이블리예프
А.Л. Ивлиев
A.L. Ivliev

연 도 2016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4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중세시대의 연해주와 철리부鐵利部

주 제 어 금동부절
철리
말갈
발해

이 논문은 2013년 연해주 나홋카Находка(Nakhodka) 지구에서 철리라고 적혀있는 금동부절金銅符節의 발견을 통해서 철리부에 대한 내용과 위치, 해당유물이 발견된 배경 등을 고찰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금동부절은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형식으로 당나라 정원11년(795)에 제작되었고 이 부절의 소유자는 신분이 높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금동부절이 발견된 곳은 기존에 알려진 철리부의 위치와 500km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중국 연구자들의 경우, 철리부는 현재 흑룡강성 쌍압산시雙鴨山와 의란현依兰县 사이 혹은 송화강 북쪽 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필자는 한국, 중국, 일본의 사서를 이용하여 금동부절이 철리부의 중심지와 멀리 떨어진 연해주 남부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을 논의하고 있다.

『신당서新唐書』에서 철리는 흑수말갈 16부족에 속했으며, 그들의 땅은 남쪽으로 발해에 이르고, 북쪽과 동쪽은 바다로 접하고, 서쪽은 실위室韋와 마주한다고 나와 있다. 철리가 처음 사서에 언급된 것은 714년 당에 조공한 내용으로, 740년 마지막 조공기록 때 까지 총 14회 등장 한다. 발해는 철리의 땅에 철리부를 설치하고 그 아래 광주廣州 · 분주汾州 · 포주蒲州 · 해주海州 · 의주義州 · 귀주歸州의 6주를 두었다. 발해 멸망 이후에도 정안국定安國과 함께 거란에 항전했던 기록도 요사에 등장한다. 사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 철리세력은 발해시기에 상당히 높은 사회 문화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철리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중국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통적인 경향은 발해시기와 요나라 시기 철리의 위치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발해 멸망 후 철리를 포함하는 흑수말갈이 남쪽과 서쪽으로 이동하여, 빈 땅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나라 시기 철리의 위치에 대한 여러 의견 중에서 필자는 철리가 현재 흑룡강성 화천진樺川縣, 발리, 보청에서 부금, 동강에 이르는 지역 안에 있어야 하고, 서쪽은 오국, 동쪽은 오제와 접하며 북쪽으로는 아마도 송화강 너머까지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지지한다.

발해 시기 철리의 위치와 관련해서도 역시 많은 의견이 존재한다. 그 중 다수가 흑수말갈 남서쪽에 위치했을 것이라는 견해로 현재 흑룡강성 지역이 유력한 대상지로 이야기 되고 있다. 또 철리부 내 해주의 존재를 들어서, 바다와 접한 지역, 혹은 바다

해 제 박규진

로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있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필자의 경우 중국학자 장태상张泰湘 · 최광빈崔广彬의 의견을 수용하였는데, 그는 해주지역의 존재와 철리(흑수말갈)의 영역 중 북쪽과 동쪽이 바다와 접한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철리부는 반드시 동해안에 위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구체적인 장소로 수찬Сучан(Suchan), 즉 현재의 파르티잔스크Партизанская(Partizanskaya) 강을 거론하였다. 이 지역은 최근 금동부절이 확인된 장소와 같은 파르티잔스크강 유역이며, 역시 같은 유역 안에 위치한 니콜라옙카Николаевское(Nikolaevka)성에서도 '좌효위장군섭리계左驍衛將軍攝利計'가 적혀있는 물고기 모양의 청동부절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런 부절의 경우 당나라 시기 흑수말갈의 어떠한 집단이 당에 조공을 할 때, 그 세력의 대표에게 하사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파르티잔스크강 유역은 발해 시기에 발해와는 다른 세력이 있었고, 독자적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 아마도 이 세력은 철리였을 것이다.

Ивлиев А.Л. 2016. Племя тели и Приморье в средние век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4.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103-109.

| 해제 | 이 논문은 철리세력에 대한 내용을 한중일 여러 문헌사료와 논문을 이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글로 극동지역에서 잘 주목하지 않는 철리를 논의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철리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물론 다른 학자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지만, 현재 한국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흑룡강성 의란근처 혹은 하바롭스크Хабаровск(Khabarovsk) 근처)와는 차이가 크다. 필자가 주장하는 파르티잔스크 일대는 한국에서 정리부가 위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발해의 영역과 관련해서 필자는 부절이 발견된 곳이 발해에 복속되지 않고 독립적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저 자 A.L. 이블리예프
А.Л. Ивлиев
A.L. Ivliev

연 도 2020
간행물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26권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A.P. 오클라드니코프의 『연해주의 먼 과거(1959)』에서 '고대'와 '중세'에 대한 논평

주 제 어 A.P. 오클라드니코프
『연해주의 먼 과거』
비추린
오역
6장
7장

목 차 영문요약
A.P. 오클라드니코프의 『연해주의 먼 과거』 6장 발해국가와 말갈종족
A.P. 오클라드니코프의 『연해주의 먼 과거』 7장 여진국가시대

이 논문은 1959년에 A.P. 오클라드니코프가 연해주의 역사를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쓴 러시아 최초의 에세이 책인 『연해주의 먼 과거 Далёкое Прошлое Приморья』에 대한 비판적 논문이다. 이 책은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용되는 책이지만, 현재의 자료로 보면 잘못된 내용이 아직까지도 인용되는데, 이러한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책의 6장은 발해와 관련된 내용이다. A.P. 오클라드니코프는 N.Ya. 비추린Н.Я. Бичурин(N.Ya. Bichurin)(1950)이 번역한 책을 인용했는데, 번역에는 오역이 포함되어서 잘못 인용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179페이지에 『수서隋書』의 내용 가운데서 '米'와 관련된 내용, '嚼米為酒', '在伯咄東' 등은 비추린이 오역한 부분을 이용하면서 A.P. 오클라드니코프의 책에도 문제가 있다. 180~181 페이지에는 비추린에 의해서 번역된 당서의 내용을 가져온 것인데 명확하지 않다. 돌궐계와 그의 아들 이근행은 말갈의 땅이 아닌 중국 동북지방에 살았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는데, A.P. 오클라드니코프는 비추린이 언급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화했다. 이근행과 관련된 기사인 『구당서』의 '累拜右領軍大將軍, 為積石道經略大使'에서도 잘못 해석되었다. '적석도의 경락대사가 되었다'는 의미를 감숙성의 지방이름 '적석積石'과 '도로道'를 각각 해석했다.

188페이지에서는 『구당서』와 『신당서』의 내용을 혼돈한 경우도 확인된다. 이 외에도 다수 확인된다고 한다.

7장은 여진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장에서 A.P. 오클라드니코프는 당시에 설명된 자료에 대해서 러시아어와 영어로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M.V. 보로비요프M.B. Воробьев(M.V. Vorobyev)가 발표한 새로운 자료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중요한 근간은 변하지 않았다.

연해주의 여진시대 고고학 유적을 산성, 평지성, 마을유적, 주거지, 무덤과 취락의 복합체로 구분했는데 현재는 여기에 무덤군만 포함시키면 된다. A.P. 오클라드니코프는 크라스노야르Красноярское(Krasnoyarovskoe) 성곽을 설명할 때 남서부에 있는 궁전지를 두고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왕실의 궁전 및 사원과 도심이 있는 도시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자료의 증가로 연구가 가능해졌는데 이 유적은 동하국과 관련된 도시였을 것이다. A.P. 오클라드니코프는 여진과 관련된 내용은 G.M. 로조프Г.М. Розов(G.M. Rozov)(이하 로조프)가 번역한 『금사金史』(1975)를 광범위하게 이용했다. 이름과 지명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이곳에 언급된 것이다. 『금사』에 적힌 내

해 제 김재윤

용은 로조프가 번역했으나 이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연구소의 V.E. 라리체프В.Е. Ларичев(V.E. Larichev) 주도 하에 편집되었다. 이 책은 『황금 제국의 역사История Золотой империи』로 러시아에서 출간되었으나 로조프가 번역한 내용에서 날짜가 1년씩 변경되었다. 예를 들면 대정大定 3년은 계미癸未해로 서기 1163년이지만 이 책에는 1162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A.P. 오클라드니코프가 쓴 책도 이러한 부분이 고쳐져야 한다.

Ивлиев. А.Л. 2020. Комментарий к исторической части глав по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ю в книге А.П. Окладникова «Далёкое прошлое Приморья» // Труды ИИАЭ ДВО РАН. №26.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7-32.

| 해제 | 러시아가 17세기에 극동으로 진출하면서 만주학을 시작했다. 북경에 정교회 신부를 파견하면서부터인데, 북경교회 사절단으로 파견된 신부들은 중국어, 몽골어, 만주어를 연구하고 이를 번역했다. 1808~1820년 간 파견된 N.Ya. 비추린은 러시아로 돌아가서 중국 정사 25사에 기록된 한국과 동아시아에 관련된 역사책을 번역했다. 그는 만주어를 비롯해서 티베트어, 몽골어 자료도 번역해서 러시아 동양사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강인욱 2016).

A.P. 오클라드니코프가 자신의 저서 『연해주의 먼 과거』를 작성할 때 N.Ya. 비추린이 번역한 책 내용과 고고학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작성한 것이다. 러시아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연해주의 먼 과거'라고 해제자가 번역했으나, 그 내용은 연해주의 선사시대부터, 중세시대인 발해 및 여진까지 망라한 것이다. 이는 A.P. 오클라드니코프 특유의 책 제목 짓기 방법이다. 해제가 여러 가지 살펴본 결과 이는 특정한 연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쉽게 다가가게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에서 역사연구는 가장 기초적인 학문의 영역이다.

발해사는 한국사의 입장에서는 고대사이지만, 러시아 연해주의 역사에서는 발해를 시작으로 중세사로 여기고 있으며 러시아가 17세기에 극동으로 진출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중세사로 보고 있다.

연해주 발해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N.Ya. 비추린의 번역서는 오역된 부분이 여전히 많이 통용된다. 예를 들면 이블리예프가 지적한 대로 구당서의 '累拜右領軍大將軍, 為積石道經略大使'를 비추린이 오역했고, A.P. 오클라드니코프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런데 이블리예프가 이를 지적하기 전에 N.Ya. 비추린의 번역에 오역이 있다는 점은 한국에서 먼저 지적되었다. 발해연구의 선구자인 E.V. 샤프쿠노프Э.В. Шавкунов(E.V. Shavkunov)(이하 샤프쿠노프)도 그의 저서(1994)인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и памятники его культуры в Приморье』(러시아 연해주와 발해의 역사)(송기호, 정석배 역)'에서 발해와 대외관계를 설명하면서 이근행이 중국과 교역 경제 사절교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석도石道를 축조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 구절은 O.V. 디야코바О.В. Дьякова(O.V. Dyakova)도 'Военное зодчество Ситотэ-Алиня(러시아 연해주의 성城유적과 고대 교통로)(김재윤 역)'에서 샤프쿠노프의 번역을 인용했는데, 해제도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이블리예프가 이번에 지적한 부분은 러시아 연해주 발해 및 여진시대 연구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해제는 이블리예프가 지적한 모든 부분을 다 요약하지는 않고 현재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꼽은 것이다.
비추린의 번역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의 전체 업적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그의 노력은 러시아 만주학 연구자로서 연구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블리예프는 연해주의 발해 및 여진시대 연구자로 고고학자이지만 중국어에 능통해서 중국자료를 많이 인용한다. 그래서 다른 러시아 연구자에게 영향력이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해영역문제는 한국학자와 다른 견해가 많다.

원래 러시아(구 소련)의 동방학자들은 중국이 발해를 연구하는 관점을 그들의 중화사상과 같다고 비판했고 이에 영향을 받은 샤프쿠노프(1994)도 이를 지적했다. 중국연구자들이 중국과 발해의 두 국가 관계를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구의 관계로 보는 것이 중화사상과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블리예프도 발해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중국연구자의 관점에서 발해사를 바라보고 있다. 이 점은 연해주 중세시대 성의 연대문제와 관련되어있다. 그는 연해주 중세시대 성의 연대를 대부분 동하국과 관련시킨다. 유적의 연대가 발해국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제는 이 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의 초축연대는 성의 단면 조사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조사 없이 단순히 조사된 유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동하국은 1215~1234년 사이에 아주 단기간에 존재한 나라이다. 이런 국가에서 거대한 성을 새로 짓는 것이 가능할까? 해제는 이미 있던 시설을 개축하거나 그대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연해주의 성 유적은 대부분 성 절개면 조사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 절개면조사를 한다면 러시아 연해주의 성에 대한 편년은 매우 달라질 것이며, 발해영역문제도 재고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인욱, 2016, 「17–20세기 러시아 만주학 연구의 시작과 전개과정」, 『민족문화연구』 73호.

에붸 샤브꾸노프(송기호 · 정석배 역), 1994,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의 역사』.

극동 국가형성의 특징과 구조

저 자 N.N. 크라딘
H.H. Крадин
N.N. Kradin

연 도 2016
간행물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25권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국가형성
국가
발해
거란
여진

목 차
1. 문제점의 일반적 양태
2. 국가형성의 요인과 구조
3. 국가조직으로의 과정
4. 초기국가 발해(698~926)
5. 유목제국 요나라(907~1125)
6. 여진과 금나라
7. 결론

이 논문은 국가의 탄생과 발전에 대한 현대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극동지역 중세시기 국가와 국가형성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필자가 생각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중세, 즉 5~15세기이고, 공간적 범위는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발해, 요나라, 금나라이다.

국가형성이라는 용어는 여러 문헌상에서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의 탄생, 두 번째는 복합사회와 정치조직의 형성과 진화, 세 번째는 인간사회 전체에서 정치조직의 기원에 그에 수반되는 변화 등이다.

필자는 국가의 탄생과 관련한 현대적 관점은 역사학, 정치학, 법학에서 연구된 전통적인 이론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선 중앙집권체제의 성장에는 많은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현대의 고고학자, 인류학자, 역사학자들은 국가의 기원이 화합과 분쟁의 두 가지 상호 연관된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또 현대과학은 국가의 형성과 발전을 단선과정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중세시대 극동지역 국가형성의 특징은 모두 중국의 정치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2차적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앞서 존재했던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당시 당나라의 영향을 제외하고, 발해의 경우는 고구려 세력이 일정부분 역할을 하였고, 거란의 정치체계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돌궐의 가한(제도)에서 차용하였다. 이후 차례대로 거란은 여진의 국가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여진 역시 몽골의 국가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발해는 기원 후 1천년기 중반 만주, 연해주, 아무르 일대에 살았던 퉁구스-만주계 민족인 말갈이 건국한 국가이다. 말갈은 사서에 의하면 7개의 대표적인 부족이 있었고, 그 중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족은 속말말갈과 흑수말갈이다. 이중 속말말갈은 주변을 규합하여 발해를 건국하게 된다.

발해는 건국이후 자신들의 행정체계를 만들었지만, 전성기로 갈수록 당나라의 체계를 많이 모방하였다. 처음 발해의 사회구조는 왕과 왕족, 6부의 귀족, 족장과 원로, 평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를 거치게 되었고, 황제와 황족 그리고 대귀족, 군인, 지방귀족 등을 포함하는 8단계의 관료층의 지배계급과 지역사회에 포함된 농민, 기타 다양한 범주의 불평등계층의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졌다. 여러 특징들로 보아 발해는 극동지역의 전형적인 초기국가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극동지역 국가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이중의 정치체계이다. 거란족의 국

가인 요, 뒤따르는 여진족의 국가인 금의 경우 이전시기의 발해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란과 여진의 국가는 이른바 초기제국으로 여겨진다. 초기제국에서 국가수입의 기본적 형태는 공물과 세금을 농민이나 도시주민에게 징수하는 것이었다. 위의 국가들은 유목민(거란)이나 반농반렵(여진)의 민족이 보다 발전된 농경민(중국)을 전쟁을 통해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징이 있다. 그 결과 복잡한 사회구조와 이중의 행정체계가 만들어졌다.

정복자인 거란이나 여진은 원래 그들 자신의 행정체계를 유지하였고, 새롭게 정복한 중국지역과 한족 출신 농민 등은 중원국가의 행정체계를 사용하여 통치하였다. 그러나 정복활동을 통해 국경이 넓어지고, 또 중국 쪽 영역이 새롭게 포함될수록 이들 제국은 만주지역 자신 고유의 전통을 잃고, 점점 중원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거란과 여진의 제국은 점진적으로 전형적인 중국식 왕조로 변화해 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극동지역 국가와 제국은 짧은 시간 후에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그 위기와 멸망에는 기후의 변화, 외부에서 더욱 강력한 제국의 출현, 내부 봉기와 혁명 등 여러 요인이 있다. 멸망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결과가 있는 상태이다. 반면 농업국가 흥망성쇠의 본질은 구조적 인구학 이론에 가장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 해당 이론에서 설명하는 위기의 원인은 농업 자원의 양, 생산자의 수, 상위계층의 수, 생산자들로부터 징수된 세금의 양과 같은 구성 요소의 균형 변화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인구증가는 자원에 대한 압력 증가와 기타 비용 등의 상승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와 관련 조직의 규모 역시 동시에 증가한다, 생산계층은 이러한 세금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를 위기와 붕괴로 이끈다.

위에서 설명한 모든 상황은 극동지역 중세시기 국가의 역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발해의 경우 당시 내부사정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편이다. 반면 거란제국에서 당시 관료계층의 과잉 배출에 대한 상황은 사서기록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요사'에는 988년에서 1118년까지 시행된 과거제 진시進試에 합격한 인원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만약 처음 16년 동안 합격자의 수가 10명 이내였다면, 1006년에는 이미 수십 명 이었고, 1056년은 매년 합격자가 백 명을 넘었다. 거란의 군대와 국가기구에 소요되는 국고는 매우 방대했다. 실제로 송나라로부터 받은 모든 공물은 국고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며 대지주가 된 거란의 귀족들은 점점 조세 납부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위는 이미 많지 않았던 조세수입이 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부족한 세금을 채우기 위해 농민에 대한 착취의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곳곳에서 도주와 봉기가 시작되었다. 또 거란의 일부다처제로 인해 엘리트층이 과도하게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국가의 권력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거란의 국가에서 있었던 비슷한 과정은 여진의 국가인 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83년까지 관료의 수는 19,700명으로, 당시 총 인구수는 44,700,000명이었다. 1193년

에는 관료의 수가 11,499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인구수는 조금 늘어나 48,500,000명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관료의 수가 줄어든 것은 장종章宗이 한족과 거란족에 대한 배제 정책의 결과이다. 1207년의 경우 관료 수가 47,000명까지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1188년부터 1207년까지 인구 1인당 관료의 수가 2.8배 증가한 양상이다. 구조적 인구학 이론의 관점에서 이는 결정적으로 여진의 국가를 멸망으로 이끈 고전적인 위기 지표라고 할 수 있다.

Крадин Н.Н. 2019. Особенности и механиз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политогенеза // Труды ИИАЭ ДВО РАН. №25.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7-44.

| 해제 | 본 논문의 필자는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고고학적, 인류학적, 역사학적 관점에서 발해를 비롯한 요나라, 금나라 등의 탄생배경, 흥망성쇠 등을 고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미 다년간 해당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많은 결과물을 발표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은 그간 필자가 시행한 연구의 종합 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물로 2018년에 '극동 중세 제국의 도시들'이라는 단행본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필자가 각 왕조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한국사와 관련이 있는 발해의 경우, 건국세력을 말갈족으로 보고 있으며, 또 2차적 국가라는 이론적 틀 안에서 당나라의 영향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필자뿐만 아니라 발해와 관련된 러시아학계의 일반적 경향으로 여러 논문에서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발해를 전형적인 초기국가로 보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나 근거가 다소 부족한 편이다.

발해와 일본의 외교사절(722~763)

저 자 A.V. 폴루토브
А.В. Полутов
A.V. Polutov

연 도 2015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3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발해
일본
외교시절
문헌자료

해 제 M.A. 스토야킨

이 논문은 잘 알려지지 않은 발해역사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한 일본학자의 논저를 토대로 발해와 일본과의 1~6차 외교사절에 대한 현황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전 연구사를 정리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이시이 마사토시石井正敏, 마츠에다 마사네松枝正根, 우에다 다카시上田雄 등이 있다.

최초 발해 사절단은 727년 가을에 출발하였으나 강풍으로 인해 일본이 관리하지 않고 있던 데와국 出羽國에 표류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이 살해되었다. 다음 해 겨울에 남아있던 사절 일행은 나라奈良의 수도인 헤이조쿄平城京에 도착하여 일본국 왕을 알현하였다. 발해 제2대 왕 대무예 大武藝의 국서에는 고구려 옛 땅에서 왕위에 올랐고 동등하고 우호적인 양국관계를 맺고자 귀중한 검은 단비 모피 300개를 선물로 전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A.L. 이블리예프A.Л. Ивлиев(A.L. Ivliev)는 무왕이 당唐과 대항할 목적으로 국제적 동맹국을 얻기 고위급 관료를 일본 사절로 보내어 발해와 일본과의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일본에서는 8세기 초에 발해와 신라를 야만국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일본 황제와 동등한 지위로 생각하는 발해 왕을 부하로 생각했기에 국서의 동등한 외교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728년에 사절은 큰 성과 없이 에치젠국越前國을 통해 귀국하였다.

대흠무大欽茂는 739년에 제2차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들은 당에서 발해를 경유한 일본 사절과 동행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외교 경로였다. 발해 사절은 호랑이, 곰, 표범 모피를 비롯한 귀중한 선물을 전했으나 국서는 이전과 비슷하여 일본의 반응은 큰 변화가 없었다.

752년에도 사절단을 보냈으나 이번에는 국서가 없다는 이유로 일본은 외교절차를 무시한다하여 갈등을 일으켰다. 따라서 황제를 알현했으나 군사지원은 얻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746년에 발해인과 철리인鐵利人 1100명 이상이 일본을 모화慕化하여 망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에다는 그들이 현재 연해주 지역, 바닷가에서 거주한 해양 어류에 익숙한 작은 부족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은 외교사절과는 연관이 없지만 당시 위험한 환경속에서 해양 이주와 발달된 항해 수준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필자는 주장하였다.

당시 발해와 신라와의 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갈등은 심화되었다. 그러나 신라와 일본 관계는 우호와 적대관계가 번갈아 벌여지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753년에는 신라와 일본은 외교 갈등이 심각해져 일본은 신라를 적대하기 위해 발해와 친교정

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신라를 군사적으로 협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해와 동맹하고자 757년에 후지와라 나카마로藤原仲麻呂의 주장에 의해 처음으로 발해에 먼저 사절을 보냈다는 우에다의 입장에 대해 필자는 동의한다. 758년에 출발하는 이 사절을 통해 일본에서는 안록산安祿山 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은 중요한 성과도 있었다. 또한 대흠무는 처음으로 '고(구)려국왕高麗國王'이라고 칭하고 이후 발해 사절을 발해나 고려왕국으로 전통적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759년도 대흠무는 일본사절과 같이 새로운 발해 사절을 보냈다. 발해와 일본간의 이러한 잦은 사신왕래는 고금에 없던 일이며 왕조는 군사적 이익을 위해 교섭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발해는 모두 고위 무관武官을 대사로 보내고 있어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이전과 달리 발해 사절을 환대하여 발해가 군사 동맹을 권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지와라는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여도 당은 안록산의 난으로 신라를 도울 수 없을 것이라 보고 758~761년까지 계속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추정한다.

762년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대흠무에게 일본은 다가오는 신라 공격에 참여하도록 발해로 사절을 다시 보냈는데 그 사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다. 한편, 발해의 제6차 사절은 고위 무관이 아닌 고위 문관을 보냈는데, 이는 양국이 군사 동맹을 맺고 신라를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762년에 당은 대흠무와 신라 왕에게 동시에 각각 '국왕國王'이라는 칭호를 하사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일본과 러시아 학자들은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변 나라는 당과 친교정책에서 우세한 입장을 갖게 되었다. 그래도 발해가 고위 문관을 보낸 것은 일본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 정책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외교 정황은 일본에서도 잘 파악하게 되었고 전능한 후지와라도 난을 일으켰으나 764년에 권력을 잃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일본과 발해의 외교 관계는 발해에 의하여 시작하였는데 이는 발해가 당과 군사 · 정치적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후 일본은 신라를 반대하기 위해 발해와 군사 동맹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양국가간의 상황이 달라졌다. 발해의 제1차로부터 제5차에 걸친 일본에 대한 사신파견은 고위 무관이 이끌었으며 이들은 일본–발해와 반신라 군사 동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국제 상황의 변화, 일본과 발해의 대내외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은 실현될 수 없었다. 제6차 발해 사절은 고급 문관이 이끌며 문화적 외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필자는 727~763년은 군사 외교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8세기 후반부터 발해 멸망시기까지 무역 관계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Полутов А.В. 2015. Посоль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в Японию (727–763 гг.)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3.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276–302.

| 해제 | 분석이 어려운 일본 고대 문헌을 토대로 발해와 일본과의 6차례 외교사절에 대한 현황, 역사 배경, 사건 등 자세한 해석을 실시하여 초기 발해–일본 뿐만 아니라 당, 신라 등 동아시아 국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의미가 큰 논문이다. 특히 수십년에 걸쳐 발굴조사 된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이 발해 일본도의 시발점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문헌자료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발해 외교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이 부족했던 단계였다. 이 논문에서는 유기물(모피, 비단 등)을 통해 고고학적으로 잘 남아있지 않은 물품의 목록, 운송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발해 물질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구난희 교수의 발해와 일본 관계에 대한 논문도 참고할 만하다.

저 자 A.M. 마시킨 외
A.M. Машкин
A.M. Mashkin
연 도 2015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2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크라스키노 성 주변의 자연
-기후 현황

주 제 어 발해
기후 온난화
해수면 상승
크라스키노의 사원지
토층변화

해 제 김재윤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유적에서 경관 형성 변화가 관찰된다. 8~16세기에는 따뜻한 기간, 16~19세기는 차가운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남겨져 있다. 발해는 온난화 기간동안 존재했던 국가이다.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해서 공기 상층의 밀도와 열 팽창을 감소시키고 일반적으로 해수면을 증가시킨다. 해안지역의 해수면 상승 또는 하강은 좀 더 부드럽게 형성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벨이 순조롭게 증가되고 정착민은 사전 홍수에 대비해서 집을 대비할 수 있었다. 유적의 북서쪽 사원지에서는 두께가 30~40cm가량의 사양 토층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는 지하수 상승에 따른 유적의 수계시스템의 변화 증거이다. 이 지역 해안선의 발달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양 높이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그러한 변화의 결과로 유적에서는 주기적으로 물이 차고, 건조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하수가 상승된 시점은 1천년기 말(기원후 9세기)이다. 크라스키노 성과 가장 가까운 항구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은 추카놉카Цукановка(Tsukanovka) 강의 우측 단구대로 강바닥의 깊이가 선박이 진입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Машкин А.М., Болдин В.И. 2015. Природно-клима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района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ып. 2. Городища и посел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24-29.

| 해제 | 크라스키노 유적은 동해안과 바로 인접한 유적으로 유적의 남쪽은 해발고도보다 낮아서 북서쪽만 발굴이 가능하다. 유적이 항구로 사용했을 때 보다 현재의 해수면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유적의 북서쪽에서도 사양토층이 발견됨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물이 차서 생긴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저 자 E.A. 베소노바
Е.А. Бессонова
E.A. Bessonova

연 도 2011
간행물명 『고대 및 중세의 러시아 극동: 문제, 탐색, 해결』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발해 취락 주거유적의 지표면 지질환경의 자기적 성질

주 제 어 발해
성지
자기장 이상
AMP
4~10NT
온돌
건축물경계

그 림
1. 인위적 물체의 국소 자기장 이상에 대한 계산 모델 1) 호스트 암석, 2)모델화된 신체, 3) 모델화된 바디와 암석 평균 호스트의 자화비율 4)자기장 강도의 전체 벡터의 계수 증가
2. 코르사콥카–1 Корсаковка-1(Korsakovka-1) 유적의 자기장 이상 인위적 기원, 2차원 로컬 데이터 소스의 계산 모델. 모델 바디와 인위적 물체의 번호는 모암의 자화비율의 표시.
3. 크라스키노 Краскино(Kraskino) 성지에서 XXXVI발굴구역 내의 AMP 결과 비교
   a) 주거 건설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의 국부적 이상 (1–발굴의 경계,2 주거의 외부경계는 자기장 반영)
   b) 4층 계획후 굴착 계획
4. 콕샤롭카–1 Кокшаровка-1(Koksharovka-1) 유적에서 확인된 AMP결과, 흰색: 2009년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물 구조의 윤곽

해 제 김재윤

현대 지질물의 자기 특성 측정결과는 인위적 물체에 의해 생성된 변칙적 영향 계산 및 시굴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다. 발해 유적에서 자기장 이상이 발견되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자기장이 국소적으로 비이상적인 현상이 발견되는데, 그 원인은 기하학적인 건축물의 구조 때문이다. 건축구조물의 방향과 크기에 따른 것이다.

아궁이와 북쪽의 자오선을 따라서 온돌자리에서 나오는 연도에 의해서 생성된 특정적인 자기장 이상 현상이 확인된다. 아궁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난방 시스템의 형상에 대응하는 국소자기장 이상이 결합해서 생긴 것이다.

건물구조의 외부경계에서 변칙적 자기장의 진폭변화는 4~10NT로 변칙적 객체의 상단 가장자리까지 깊이 0.5m 이상에서 비정상적인 물체가 표면에 더 가깝다.

Бессонова Е.А. 2011. Магнитные свойства близповерхностной геологической среды бохайских укреплённых поселений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проблемы, поиски, реш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 ООО «Рея». С. 212-219.

| 해제 | 러시아에서는 유적의 부식토층이 매우 얇게 형성되어서 발해와 여진 유적은 발굴하지 않고 자기물리장검사로 그 아래에 건물지의 여부 및 형태 등을 알아내는 연구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유적을 발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는 자기장 변형을 통한 연구로 발해와 여진시대 유적 가운데 특히 돌이 많이 남아 있는 건축지를 대상으로 삼는다. 발해 취락유적의 주거지에서 자기장변형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아궁이와 온돌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저 자 E.A. 베소노바 외
Е.А. Бессонова
E.A. Bessonova
연 도 2011
간행물명 『고대 및 중세의 러시아 극동: 문제, 탐색, 해결』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크라스키노 성 북부의 고고학 문제 해결을 위한 암석물리학, 광물학 및 지구-화학적 연구 결과

주 제 어 발해성지
지구물리학분석
자성광물분포

목 차
1. 문화층에서 확인된 밀도가 낮은 퇴적물의 과립 및 광물 조성
2. 문화층의 철 변환의 물리 화학적 모델
3. 문화층에서 확인된 밀도가 낮은 퇴적물의 자기장

그 림
1.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XL발굴구역) 문화층에서 확인된 광물 퇴적물의 자화율 부피분포,
a-남서쪽에서 찍은 보기,
b-남동쪽에서 찍은 보기

해 제 김재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물리학적 분석으로 지표면 토양과 지하 퇴적물의 높은 효율성은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지의 북쪽에 현대 지질 퇴적물로 덮힌 고고학적 건물구조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스키노 성지의 북서 부분에서 확인되는 자성광물 분포의 특성은 자연적인 변화 옵션에 따른 인위적 활동의 결과로 인위적 구성요소가 증가된다.

문화층에서 인위적 조건에서 형성되는 밀도가 낮은 퇴적물이 기계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확인된다. 표토 및 깊은 토양에 있는 물질의 생물학적 순환, 토양층의 점토 광물 및 부식질 물질에 대한 흡착과정을 알 수 있다. 크라스키노 성지에서 북서지역에서 확인되는 자성광물의 분포 지역적 특성은 인위적 활동결과-자연과정 옵션의 영향으로 인위적 구성요소만 증가된다.

이 연구를 통해서 토양표면과 퇴적물의 지구물리학 특징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고고학적 현장에서 매장된 고고학 유적지를 효과적으로 찾음으로써 예비 진단 작업에 대한 재정적 비용 및 발굴현장 선택에 효율성을 더 할 수 있다.

Бессонова Е.А., Савченко А.В. 2011. Результаты применения петрофизических, минералогических и геохи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ля решени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задач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проблемы, поиски, реш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 ООО «Рея». С. 220-227.

| 해제 | 이 논문은 지구물리학적 분석을 통해서 발굴되지 않은 토양아래의 고고유적지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글이다. 러시아 고고학은 대부분 학술발굴조사이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발굴을 할 수 있는 기간(여름)이 정해져서 성과 같은 발굴은 매우 국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 노동력,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발굴지를 선정하거나 혹은 예측하기 위해서 지구물리학적 탐사를 많이 이용해서 건물지 등을 찾는데 많이 이용한다. 특히 발해와 여진층은 비교적 표토층이 얇아서 가능하다. 이 논문도 암석학, 지구물리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저 자 V.A. 타타르니코프
B.A. Татарников
V.A. Tatarnikov
연 도 2011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2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해주 북동 달네고르스크 지구의 발해시기 광물업

주 제 어 발해
시호테알린 산맥 동쪽
파세치나야 유적
광물채집

해 제 김재윤

연해주에서 시호테 알린 산맥의 동쪽지역으로 흐르는 강의 하구에는 발해의 성지가 발견된다. 그 중에서 달네고르스크Дальнегорск(Dalnegorsk) 지구의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발해 유적지는 20곳으로 산 위와 강의 하류에 위치한다. 이곳은 동해로 흘러가는 강의 어귀로 항구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는 루드나야Рудная(Rudnaya) 강으로 강의 계곡과 인접한 지역은 발해에서 산지지역 중에 한 곳으로 다양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곳이다.

파세치나야Пасечная(Pasechnaya) 유적은 루드나야 강의 지류인 우셸리예Ущелье(Ushchel'ye) 강의 우측 단구대에 위치하는데, 발해시기의 주거지에서 인위적인 가공의 흔적이 남아 있는 석영덩어리가 남아 있었다.

졸로토이 루드닉Золотой рудник(Zolotoy rudnik) 유적은 파세치나야 산에서 북서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협곡의 돌담은 시냇물 위로 수백미터 길쳐서 뻗어 있다. 현재까지 협곡 하부에서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고대광물 30개 정도가 알려졌다. 그 중 하나는 지하광산이고 작은 채석장도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채굴된 순금속(납, 인) 및 반제품(불순물, 주석이 함유된 금가루)이 있었다. 모든 광산에서는 얻어진 광물은 바시콥카Васьковское(Vaskovskoe) 호수와 연결되는 항구(스미치카-1Смычка-1(Smychka-1) 유적)로 남쪽에서 옮겨온 광부, 장인, 농민이 이를 이송하였다. 여기서 금속은 범선을 타고 발해와 일본으로 옮겨졌다.

남쪽에서 이주 한 주민 중 일부는 채광 및 가공된 광물을 채집했고, 일부는 식량생산 활동을 했고, 일부는 가내수공업을 했다. 산성과 평지의 거주지 사이에는 도로가 존재했고 달네고르스크 지역에서 광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광산을 찾고 고대 착굴장소에 대한 상세한 지도작업이 필요하다. 고대 광산을 찾기 위해서는 지표조사 면적을 늘려야 한다. 현대 인간의 활발한 기술활동으로 인해서 고대의 금속광석 채굴 흔적, 건축지, 토기 등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서 유적을 보호해야 한다.

Татарников В.А. 2012. Горное дело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Приморья (Дальнегорский район) в бохайское время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2.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276-283.

| 해제 | 이 논문에서 광물채굴이 확인된 파세치나야 유적과 졸로토이 루드닉 유적이 확인된 곳은 루드나야 강과 관련된 곳이다. '루드나야'는 광업이라는 뜻이다. 1960년대 이전까지 이곳의 지명은 '테튜헤Телюхэ(Teleukhe)'였으나, 1960년대 루드나야로 개명되었을 만큼 광업이 유행하던 지역이다. 이 논문에서는 발해시기에도 광업이 이 시기에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발해의 연구가 성지와 무덤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왕조사 중심으로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연해주의 최근 발해연구는 유적에서 확인되는 식물 유체와 동물 유체 등 생업경제와 관련된 연구성과가 많이 나오는데, 발해국가의 주민들의 생업경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광업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시도는 좋았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좀 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도 필요하다.

渤海考古學
論文解題集

유적 III

1) 성곽유적

2) 고분유적

3) 생활유적

4) 생산유적

01 성곽유적

E.I. 겔만, A.L. 이블리예프, V.I. 볼딘 「크라스키노 성의 방어시설」 106

N.V. 레셴코 「노보고르데옙카 성의 생계 시스템」 109

V.I. 볼딘 「연해주 중세 전기의 시넬니코보-1성」 110

V.I. 볼딘 「시넬니코보-1성과 연해주 남서부의 중세 고고문화 편년」 112

V.I. 볼딘 「노보고르데옙카 성에 대한 조사의 예비결과」 113

V.I. 볼딘, A.L. 이블리예프 「다층위 유적 노보고르데옙카 성: 1986~1987년 발굴조사 결과」 115

S.A. 삭마로프 「오크라인카 성에 대한 예비조사결과」 117

V.E. 샤프쿠노프, E.I. 겔만 「다문화층 아우롭카 성 유적」 119

V.E. 샤프쿠노프 「연해주 남부의 중세 성곽」 122

V.E. 샤프쿠노프 「아우롭카 성 발굴조사」 124

V.E. 샤프쿠노프 「샤이가-레두트 성곽 연구의 예비결과」 126

I.Yu. 슬렙초프, 김동훈 「토층상 자료를 통해 본 콕샤롭카-1 성 북편건물지군의 구조 특징」 128

N.N. 크라딘, Yu.G. 니키틴 「연해주 북부의 중세 성곽」 129

N.A. 클류예프, S.S. 말코프, M.A. 야쿠포프 「2008~2009년 연해주 콕샤롭카-1 성의 조사 결과」 132

N.A.클류예프, M.A.야쿠포프 「연해주 콕샤롭카-1 성의 방어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134

Ya.E. 피스카료바 「말갈 성」 136

Ya.E. 피스카료바, E.V. 아스타셴코바, S.D. 프로코페츠, E.A. 세르구셰바, A.L. 이블리예프, N.A. 도로페예바, M.A. 라셉스카야, V.B. 바자로바, N.F. 프셰니츠니코바 「연해주 한카 지구의 노보셀리셰 성에 대한 종합조사」 139

E.I. 겔만, E.V. 아스타셴코바, Ya.E. 피스카료바, E.A. 베소노바, V.B. 잘리샤크, S.A. 즈베레브 「크라스키노 성 부근의 발해 고분군 조사」 141

02 고분유적

Yu.G. 니키틴 E.I. 겔만 「수이푼강 유역의 체르냐티노-5 중세 전기 고분군에 대한 일부 조사 결과」 144

Yu.G. 니키틴 「글라즈콥카 만에 위치한 중세 고분군」 147

E.I. 니키틴 A.Yu. 텔레류예프 「체르냐티노-5 고분군 매장시설 구조의 특징」 149

V.V. 아흐메토프 「발해의 벽돌무덤」 152

N.A. 클류예프 I.Yu. 슬렙초프 「연해주의 콕샤롭카-8 고고유적: 1차 조사 결과」 153

03 생활유적

E.I. 겔만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의 문화 소속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154

E.I. 겔만, V.I. 볼딘 A.L. 이블리예프 「크라스키노 성의 우물 발굴」 157

Yu.G. 니키틴 E.I. 겔만, V.I. 볼딘 「체르냐티노-2 주거유적 조사결과」 159

V.E. 샤프쿠노프 「샤이가-레두트 성 말갈 주거지」 162

Zh.V. 안드레예바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의 문화-연대 복합체」 163

Zh.V. 안드레예바 Ya.E. 피스카료바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남사면 고고학조사(1962년 제1구역과 1965년 제3구역)」 164

Yu.V. 크리불랴 「라콥카-10 주거유적의 고고조사」 166

Yu.V. 크리불랴 「미하일롭카-1과 미하일롭카-4 주거유적 조사」 168

Yu.V. 크리불랴 「아브라몹카-3 중세 전기 주거유적의 주거유구와 경제유구」 170

Ya.E. 피스카료바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남사면 고고학 조사(1958~1965)」 171

04 생산유적

V.I. 볼딘 「발해 야요지(코르사콥카 주거유적 자료를 중심으로)」 173

크라스키노 성의 방어시설

저 자 E.I. 겔만 외
Е.И. Гельман
E.I. Gelman

연 도 2020
간행물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26권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발해국가
크라스키노 성
축성
문지
치
편년

지원사업 러시아 학술재단
"№20-18-00081"지원사업

목 차
1. 머리말
2. 서벽 구간 조사
3. 동벽 구간과 동문지 조사
4. 고찰과 결과
5. 결론

이 논문은 발해 염주성鹽州城으로 비정된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에 대한 수십 년간의 발굴 조사의 결과를 소개하고 구조, 부속시설, 축조 단계 분석을 통해 발해 축성방법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성은 연해주 남부, 하산Хасанский(Khasan) 지구 엑스페디치야Экспедиции(Ekspeditsii)만 주변에 위치한다. 평면상 장방형에 가깝지만 북벽은 모양이 궁형이다. 총 길이는 1,380m, 면적은 약 12.6ha이다. 성벽의 높이는 1.5~2m, 상부 폭 1m, 기초부 폭 10~12m이며 표면에 돌 구조물이 노출되어 있다. 남 · 동 · 서문은 옹성이 설치된다. 성은 북고남저이다. 남문부터 북쪽으로 중앙도로로 파악한 넓은 저지가 관찰된다. 성 내부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일부 파괴되었지만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성벽에 대한 발굴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져 여러 구간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동벽과 동문지에 대한 조사는 아오야마 가쿠인青山學院 대학과 공동 조사하였다.

절터 근처 북서벽에 대한 발굴결과 건축 특징을 파악하기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성벽이 일부 가공된 응회암 석재 블록을 이용해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성부는 대지조성 후 내 · 외측에 석축하고 그 사이의 공간(너비 2.2m)은 흙으로 채웠다. 내 · 외측 너비는 각각 1.8m, 1.4m이다. 기초부는 납작한 돌을 이용해 단이 설치된다. 외측은 8~9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이는 2.6m이다. 내측은 6~7단으로 구성하며 높이는 0.9~1.2m이다. 내측보다 외측을 높게 하여 여장의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외측 바깥에 작은 해자가 확인되었다.

성벽 구조에서 수리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응회암이 아닌 다른 석재를 이용해 축조하였다. 사용된 석재는 채석장에서 만으로 운송하였는데 거리는 6.5km까지 떨어져 있다. 성곽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수구를 새롭게 건설하였는데 외측을 파손하여 원래 체성부 기초부보다 높게 축조되었다. 배수구는 길이 2.7m, 너비 1.2m, 높이 0.7~0.9m이며 큰 석판으로 덮였다. 유사한 구조는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발해 성에서도 발견된다.

내측의 북부와 남부 구간의 석재 종류와 축조방식 양상이 다른 점은 구간마다 서로 다른 집단이 축조하고 주기적으로 수리한 결과로 보인다. 토층상에서도 주변에 충적토로 인해 성벽, 방어시설이 덮힌 상태에서 자갈과 흙을 이용해 증축하였으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동문은 기능을 폐기하고 인위적으로 성토하였다.

최근 내측 주변 발굴조사 결과 성벽 축조 단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되었

그 림 1. 크라스키노 성 평면도. 1995년 작성 이후 조사 결과 보완
2. 직방방향으로 본 크라스키노 성 전경
3. 서벽 구간의 토층상(1997·1998년 조사구역 14)
4. 블록 석재로 쌓은 서벽 구간:
1 – 성 안쪽에서 본 외 · 내측 석축 모습
2 – 성 밖에서 본 외측 석축 모습
3 – 성벽의 외 · 내측 석축 사이의 배수로 모습
5. 서벽 구간의 배수로 입·단·평면도 (1997·1998년 조사구역 14)
6. 발굴 과정상의 동벽 치 전경
7. 성벽 연결 부분:
1 – 성벽 체성부와 동문지 옹성
2 – 성벽 체성부와 치
8. 성벽 체성부와 옹성의 연결 부분 모습
9. 조사구역 표시된 크라스키노 성 동벽 평면도
10. 동문 옹성 출구 쪽의 포장도로 모습
11. 성벽 통행로와 동문지 옹성 안의 기와를 깐 도로 모습

해 제 M.A. 스토야킨

다. 7세기 말부터 이 지역에서 마을이 형성되어 오다가 일정 시기에 성이 축조되었다. 즉 이 지역이 항구의 역할을 하면서 발해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가 관리하는 주성으로 성장한 것으로 8세기 초 발해와 일본간의 교류가 시작된 시기(727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다.

성 내부에서 확인된 사찰구역 외곽 담장과 성벽 근처에 도로가 지나갔는데 5개의 건축층에서 확인되었다. 도로 제4건축층은 성벽 내측의 기초부와 같은 높이에서 조성되었다. 도로의 제2 · 3건축층은 성벽의 정기적인 개축과 수리과정이 동일한 층에 해당한다.

동벽 조사결과 성벽 위의 방어시설은 축조당시가 아닌 이후에 추가로 시설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지는 원래 너비가 약 5m였으나 옹성문 건설과 수축과정에서 너비가 약 3.5m로 감소되었다. 동문 옹성에 사용된 석재는 체성부와 다르고 성벽 연결 부분이 체성부의 기초부보다 옹성 기초부가 높은 점에서 볼 때 동문 옹성이 늦게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옹성 규모는 크기 14.4m×16.6m, 내부 면적 239㎡로 추정된다. 옹성문의 너비는 5m이며, 옹성 출구 쪽에서 포장도로가 확인되었다. 옹성문 내부 도로의 너비는 2~3m이며 기와 편을 재사용하여 기초부를 두껍게 마련한 후 그 위에 모래와 자갈돌들을 차례로 깔아 시설하였는데 기와면에서 일부 바퀴자국이 노출되었다. 도로면은 배수를 위해 중앙부를 약간 높게 깔아 자연스러운 경사를 이루게 하였다. 다무라 고이치田村晃一는 옹성 축조시기를 732년 신라와의 전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한다.

동벽의 치는 평면상 장방형이며 크기는 3m×2.4~2.7m×1.1m이다. 사용된 석재는 체성부와 유사하지만 성벽 연결 부분에서 치의 기초부는 체성부의 기초부보다 높아 축조시기가 늦은 것을 입증한다. 이와 유사한 구조는 고구려 국내성國內城 치에서도 보이고 있으나 규모상에서 국내성의 치가 크다는 차이가 있다.

성벽 구조에서는 내외벽을 석축하고 내부를 흙으로 채우는 방법은 연해주 발해성곽의 일반적 특징이며 콕샤롭카-1Кокшаровка-1(Koksharovka-1) · 스타로레첸스코예Староречeнское(Starorechenskoe) · 오크라인카Окраинка(Okrainka) 평지성, 시넬니코보-1Синельниково-1(Sinelnikovo-1) 산성에서도 보이고 있다. 고르밧카 성은 외벽만 석축하였고 마리야놉카Марьяновское(Maryanovka) 평지성에서는 석재를 이용한 구조가 일부 관찰된다. 이는 크라스노야르Краснояровское(Krasnoyarovka) · 샤이가Шайга(Shaiga) 성 등 12~13세기 여진 성의 판축방법과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축성 방법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석축은 발해시기 상경성上京城에서만 확인되지만 문헌자료로 보아 발해 남경남해부南京南海府에서도 있었다고 한다. 발해 토석 혼축성벽은 고구려 성, 특히 수도인 국내성의 축성법과 상당히 유사하다. 크라스키노 성의 축성 연구를 통해 고구려 건축을 계승한 발해의 기술과 건축방법을 알게 해준다.

Гельман Е.И., Ивлиев А.Л., Болдин В.И. 2020. Фортификационные сооружения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ДВО РАН. №26.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157-174.

| 해제 | 발해시기의 염주성으로서 행정 위계가 높은 크라스키노 성에 대한 성벽과 부속시설인 치, 옹성 등의 구조, 축조방법, 축조단계를 조사하고 발해 축성법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구려 성과 비교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기존의 발해 성곽 연구(스토야킨, 2012)에서 연해주 발해 성은 일반적으로 부속시설이 축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이 성은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시넬니코보–1 산성 한 · 러 공동 발굴조사 결과 외측 석축에 뒷채움한 것과 스타로레첸스코예 성은 판축 경사면 양측에서 돌로 보강한 것이 확인되어 필자의 주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크라스키노 성과 관련된 내용은 『발해 염주성 이야기』(동북아역사재단, 2017)를 참고할 수 있다.

저 자 N.V. 레셴코
Н.В. Лещенко
N.V. Leshchenko

연 도 2016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4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노보고르데옙카 성의 생계 시스템

주 제 어 발해
생계 시스템
노보고르데옙카성
수공업

목 차
1. 머리말
2. 농사
3. 축산
4. 수렵채집 활동
1) 수렵
2) 어로
5. 석·토제 제품
6. 목재가공
7. 방직 작업
8. 참고문헌

그 림
1. 그물추(1~5), 찰흙(8~12), 사암(6·7·13)
2. 자연숫돌(1, 5~8), 가공숫돌(2~4) 석제 마광용 도구(9·10)
3. 철제 톱(1·2), 철제 송곳(3·5), 목제숟가락 제작용 철제 칼(4), 철제 칼(6~8) 철제 줄(9), 철제 측각기(10)
4. 경석 제품: 1-크라스키노 성, 2·4-니콜라옙카-2 성, 3-고르밧카 성

해 제 S.S. 실리체바

이 논문은 노보고르데옙카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Novogordeevka)성의 여러 층위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생계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쓰여졌다. N.V. 레셴코의 발굴 성과 보고서 또한 이전에 조사되었던 다른 성곽의 생계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이 논문은 노보고르데옙카 성의 생계 경제 양상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필자는 노보고르데옙카 성에 대한 위치, 발굴조사 경위 등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1965~1966년 E.V. 샤프쿠노프Э.В. Шавкунов(E.V. Shavkunov)에 의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노보고르데옙카 성의 존속연대를 철기시대, 발해(8~10세기), 여진(12~13세기)의 3 단계로 분류되었다.

1970~1973년 L.E. 세메니첸코Л.Е. Семеничeнко(L.E. Semenichenko)에 의한 발굴에서는 토층이 확인되었으며,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문화가 구분되었다. 1986~1987년 V.I. 볼딘В.И. Болдин(V.I. Boldin)에 의한 발굴에서는 얀콥스키-리돕카янковская-лидовская(Yankovsky-Lidovka) 문화, 크로우놉카 문화, 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 문화가 발견되었고, 윗생활면(여진 문화층)에서 획득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농경 관련 중요 유구 중의 하나로서 이른 문화층(크로우놉카 문화)과 중세 문화층에서 갈이용, 경작용, 수확용 등 다양한 농경 도구가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경작하는 농사 방법이 있었으며, 주로 콩과 같은 곡식을 재배하였다고 논하였다. 목축에는 말과 돼지가 큰 역할을 했으며, 소牛가 농경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 유적을 통해 또 다른 여러 가지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그들 중에 식육류, 우제류, 그 외 소형 포유류에 대한 수렵, 조개 채집이 포함된 어로, 야생 꿀을 포함한 야생 식물 채집, 여러 가지 가내수공업 등이다. 수렵 · 어로용 도구, 진흙, 모피, 나무를 이용한 수공업품이 확인되고, 방직 작업의 흔적도 보인다. 이외의 재료로는 돌과 경석輕石이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대부분 일상생활용 도구나 장식 등이었다. 이처럼 생계시스템은 자연자원의 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Лещенко Н.В. 2016. Система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4.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366-375.

| 해제 | 필자는 출토 유물뿐만 아니라 기후, 지형 등 조건을 고려하여 노보고르데옙카 성의 생계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더불어 출토 유물에 대한 기술과 도판도 제공하였다. 그러나 노보고르데옙카 성의 구체적인 출토맥락과 문화적 배경이 고려되지 않았고 주변 성과 비교없이 노보고르데옙카 성만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한계가 있다.

저 자 V.I. 볼딘
В.И. Болдин
V.I. Boldin
연 도 2001
간행물명 『동아시아의 전통문화』 3호
발 행 처 국립 아무르대학교

연해주 중세 전기의 시넬니코보-1성

주 제 어 말갈
발해
연해주
시넬니코보-1성

이 글은 시넬니코보-1Синельниково-1(Sinelnikovo-1)성에 대한 발굴조사결과를 고찰한 것으로서, 성의 방어시설 축조양상, 성 내부에 위치한 수혈식 · 지상식 주거유구, 문화층에 따른 출토유물상의 변화를 논한 것이다.

유적은 1996~1999년에 러시아과학원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에 의해 발굴 조사되었으며, 남서부에서는 방어시설(성벽 및 문지), 동부에서는 주거유구 2개소가 확인되었다. 주거유구는 5m 떨어져 있으며, 서편에 위치하는 것은 지상식, 동편은 수혈식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생활유구 현황을 살펴보면, 지상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2×3m)이며, 서벽과 남벽에 'ㄱ'자형으로 역석들이 놓여있었다. 역석 내부에는 작은 목탄이 포함된 흑갈색 사질토층이 채워져 있었다. 북벽에는 작은 목탄이 포함된 황갈색 사질토층이 확인되어 부뚜막과 굴뚝개자리와 같은 쪽구들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수혈 주거지는 평면 방형(2.8×2.4m)이며, 자연 암반을 0.2m로 굴착한 후 각 모서리마다 1개씩 기둥을 세우고, 중앙에 노爐를 시설하였다. 주요 출토유물로는 토기 · 철기 · 석기가 있다. 토기류 중 지상식 주거지에서는 윤제토기가 수제토기보다 좀 더 많은 것과 달리, 수혈 주거지 내에서는 수제토기만 출토되었으며, 점열문이 시문된 심발류, 삼태기형 토기斜口器가 출토되었다. 여기에서 표토층과 적갈색 사질토층에서는 윤제토기편 다수 · 철기, 문화층 상층에서는 토기류 중 윤제토기 22%, 문화층 하층에서는 윤제토기 출토 비율이 11%로 감소한다. 석기류는 수혈식 주거지에서만 소량 출토되었는데, 몸돌,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 철기류는 지상 주거지에서 출토된 주철제 마구 장식, 철도자 · 철촉 · 찰갑편이 대표적이다. 그 중 철촉은 발해시기에 전형적으로 확인되는 촉두가 있는 유엽형이다, 찰갑편은 평면 형태 및 투공의 배치로 미뤄보아 유라시아 중세시대에 널리 퍼졌던 전형적인 갑옷용과 투구용으로 나뉜다.

방어시설로는 유적 남부에서 길이 700m의 토석혼축土石混築성벽이 확인되었으며, 성벽 중앙에는 문지가 위치한다. 남동벽은 외측높이 2.5m, 최대너비 5m 이며, 남서벽은 높이 1.6m, 외측을 6~7단으로 석축한 것이다. 성벽 절개조사결과, 먼저 기반암을 단을 지게 굴광하여 면을 맞춘 후, 잔존 높이 0.4m, 너비 3.5m의 적색 사질점토를 성토하였다. 상면에는 화재로 소실된 목책흔이 확인되었으며, 수제토기편이 출토되었다. 그 후, 토축성벽의 외측을 수직절토한 후 석재를 쌓았으며, 이는 연해주의 여타 발해 성곽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축성기법으로 알려져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사구역의 동편에 위치한 수혈 주거지는 발해보다 이른시

도　　면 1. 시넬니코보-1 성
2. 말갈 주거지
3. 말갈 토기류
4. 발해 토기류
5. 토기에 시문된 문양 종류 (1~5. 발해 토기. 6~9. 말갈 토기)
6. 기타 유물 (1~10. 발해 문화층, 11~12. 말갈 문화층)

해　　제 정윤희

기에 존재한 연해주의 전형적인 말갈식 수혈주거지에 해당하는 점, 서편에 위치한 쪽구들이 시설된 지상주거지는 연해주의 중세시기 중 발해시기에 해당하는 점, 문화층 상층 및 표토층으로 갈수록 발해 전통의 윤제토기가 증가하는 점으로 미뤄보아, 말갈~발해에 걸친 운용시기의 변화를 간취할 수 있다.

Болдин В.И. 2001.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1 —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ый памятник Приморья //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Вып. 3. Благовещенск: Изд-во АмГУ. С. 122-128.

| 해제 | 이 글에서 다룬 1996~1998년 조사 성과들은 추후 후속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핵심적인 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그 중 수혈주거지의 양상, 토기양식의 특징, 성벽축조기법은 2015~2016년에 한 · 러공동으로 이뤄진 후속조사에서도 보충자료가 재차 확인되었다. 그 외에 식물유체를 통해 본 식생활의 변화 등은 이 논문에서 파악된 것보다 과도기적 변화를 체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저 자 V.I. 볼딘
В.И. Болдин
V.I. Boldin

연 도 2002
간행물명 『극동의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시넬니코보-1 성과 연해주 남서부의 중세 고고문화 편년

주 제 어 발해
말갈
연해주
시넬니코보–1성
라즈돌나야 강

해 제 정윤희

이 글은 발해~여진시기에 연용한 여타 유적과 달리, 시넬니코보–1Синельниково-1(Sinelnikovo-1)유적은 말갈~발해시기에 연용한 특징이 뚜렷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연해주 남서부 소재 유적을 편년할 수 있는 준거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시넬니코보–1유적은 라즈돌나야Раздольная(Razdolnaya)강 우안 절벽 위에 위치하며 길이 700m의 토석혼축土石混築성벽과 어긋문 형태의 문지가 확인된 산성이다. 성벽절개조사 결과, 말갈시기에 토축한 후 발해시기에 석축하여 증 · 개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 내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탄화층으로 덮인 수혈식 주거지와 다수의 수제토기가 완형으로 확인되었고, 문화층 최상면에서는 구들주거지와 윤제토기편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층위 · 축조기법 · 출토유물로 보아 8세기 경까지 운용된 것으로 편년해볼 수 있다. 문헌자료에 따르면, 라즈돌나야 강 유역은 지방행정구역 중 솔빈부率賓府에 속하며 발해 전기(8세기 전반) 무왕武王의 영토 확장과정에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연관지어보면, 시넬니코보–1성의 토축성벽 위에 설치되었던 목책이 불에 탄 흔적, 화재로 폐기된 수혈주거지 등은 정복 전쟁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비교하여, 크라스키노 성 우물 출토 경부에 융기대가 있는 장경호長頸壺와 네 귀 달린 납작병四耳偏甁은 거란遼문화에 계보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발해 멸망 이후 동단국東丹國시기에도 연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준거라고 할 수 있다.

Болдин В.И. 2002.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1 и периодизация средневековых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культур Юго-Западного Приморья //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С. 181-185.

| 해제 | 필자는 연해주 소재 중세시대 말갈 · 발해 · 여진의 생활유적들에 대한 다수의 지표 · 발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시넬니코보–1유적의 운용연대를 일고찰하였다. 다만 2015년에 정리조사된 남동벽에 대해서는 축조방식의 차이가 시기 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토제土堤로 이용하고 외면을 석축한 축조공정상의 차이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크라스키노성 출토 네 귀 달린 납작병은 통일신라시대 울릉도 천부동 출토품과도 유사한 것으로 지적된다. 크라스키노 성이 해상교역의의 중계지였음을 고려하면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 자 V.I. 볼딘
В.И. Болдин
V.I. Boldin

연 도 2016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4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노보고르데옙카 성에 대한 조사의 예비결과

주 제 어 연해주
성곽
폴체(올가)문화
리돕카–얀콥스키 문화
크로우놉카 문화
발해
여진
주거지

이 논문은 연해주 아누치노Анучино(Anuchino) 지구 아르세니옙카Арсеньевка(Arsenyevka) 강에 인접한 노보고르데옙카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Novogordeevka) 산성 발굴 조사 내용을 소개한 글이다. 산성의 총 면적 약 3.25ha이고 토성이며 성벽에는 문지, 치가 설치되었고 내부에는 레두트, 주거용 테라스가 배치되어 구조적으로는 연해주 여진시기 산성과 유사하다.

1973년까지 조사를 통해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 발해, 여진시기의 3개 문화층을 찾았으며 1986~1987년, 2000~2001년 조사(V.I. 볼딘, A.L. 이블리예프A.Л. Ивлиев(A.L. Ivliev)에서 여진시기 2개 생활면, 폴체Польце(Poltse) 문화, 리돕카–얀콥스키лидовская-янковская(Lidovka-Yankovski) 문화층이 추가로 확인된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여진시기 상층면에서 확인된 지상식 주거지는 면적 16~20㎡이며 2~3줄 고래의 쪽구들이 시설되어 있다. 여진시기 하층면에서도 상층가 유사한 주거지가 확인되었지만 면적이 10~12㎡로 작은 차이가 있다. 내부에서 농기구, 무기류, 어로구, 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발해문화층은 2개 생활면으로 나뉜다. 상층에서 확인된 지상식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 면적 12~49㎡, 'ㄱ'자형 혹은 '일'자형의 2~3줄 고래가 시설된 쪽구들이 시설되었다. 하층 생활면에의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 면적 12~28㎡, 노지가 시설되었다. 유물은 발해의 전형적인 대상파수부가 부착된 토기와 시루가 출토되었다. 한편 발해문화층에 해당하는 성곽 서벽의 일부에서 이중 주혈 구조가 확인되었다.

폴체(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문화의 주거지는 평면 말각장방형이고 반지하식이다. 면적은 약 14㎡이며 판석을 이용한 'ㄷ'자형 외고래의 쪽구들과 아궁이 2개, 굴뚝이 확인된다. 주거지 벽체 내외부에서 여러 개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보고르데옙카 주거유적과 루다놉카Рудановское(Rudanovka) 성의 주거지는 유사하다. 출토된 토기의 문양이 다양한 점에서 폴체문화 토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크로우놉카 문화층의 지하식 주거지(면적 35㎡)는 내부에서 위석식 노지 2개와 내외부 벽체을 따라 주혈이 확인되었다. 토기, 석기 등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적에서 확인된 화재로 전소된 반지하식주거지 2기는 리돕카–얀콥스키 문화와 관련된 최초의 사례이다.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이며 1기의 주거지 어깨에서 다수의 주혈이 확인되어 특이하다. 타원형 노지 주위에 작은 수혈은 노지와 관련된 구조로 파악된다. 내부에서 다양한 토기,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 밖에도 신석기시대 아무르식 빗살문 토기가 출토되었다.

그 림 1. 발해 문화:
1) 주거지의 평면도
2–4) 철촉
5–6) 토기편
2. 폴체 문화:
1) 주거지의 평면도
2–8) 토기편
3. 크로우놉카 문화:
1) 주거지의 평면도
2) 석부
3) 갈돌
4) 토기
5) 토제 방추차
6) 연마제
4. 리돕카–얀콥스키 문화:
1) 주거지의 평면도
2) 토기
3) 두형 토기
4) 주철제 공구편
5) 연마제
6) 석제 칼
7) 토제 방추차
8) 석도

해 제 M.A. 스토야킨

이상 본 유적은 연해주 중부지역의 고대~중세까지의 고고문화 변화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층을 갖는 유일한 유적이라고 주장한다.

Болдин В.И. 2016.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м городище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4.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358-365.

| 해제 | 노보고르데옙카 성은 연해주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어 발해, 여진시기에 지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인간이 생활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선사부터 중세까지 고고학 문화를 포함한 유일한 유적에 대한 조사로 연해주 고고학 편년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2002년에 V.I. 볼딘, A.L. 이블리예프가 발표한 『다층위 유적 노보고르데옙카 성: 1986~1987년 발굴조사 결과』와 일부 중복되지만 내용과 도면을 보완하였다.

저 자 V.I. 볼딘 외
В.И. Болдин
V.I. Boldin

연 도 2002
간행물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11권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다층위 유적 노보고르데옙카 성: 1986~1987년 발굴조사 결과

주 제 어 연해주
성곽
올가 문화
리돕카–얀콥스키 문화
크로우놉카 문화
발해
여진
주거지
동하국

이 논문은 1986~1987년 발굴조사 내용을 통한 여러 문화 양상을 밝힌 것이다.

유적은 연해주 아누치노Анучино(Anuchino) 지구 노보고르데옙카Новогордеевка(Novogordeevka) 마을부터 동북쪽으로 5km 떨어진 크루글라야 솝카Круглая Сопка(Kruglaya Sopka) 언덕 위에 위치한다. 성의 형태는 평면 오각형이며 면적은 약 3.25ha인 토성이며 접근이 쉬운 곳인 북쪽 성벽 높이는 내부 1~2m, 외부 13~16m이다. 나머지 성벽은 경사로 인해 높지 않다. 북쪽에서는 고대 도로 2개가 관찰된다. 동북쪽에는 문지가 있는데 주변에 3개의 치를 설치하였다. 성 내부 서남쪽에 방형 '레두트'라는 방어시설이 축조되어 있는데 동하국 시기 산성의 전형적인 유구이다.

성은 1887년에 F.F. 부쎄Ф.Ф. Буссе(F.F. Busse)가 현지 조사하였고 1965~1966년에 E.V. 샤프쿠노프Э.В. Шавкунов(E.V. Shavkunov)는 주거지 2개를 발굴조사한 후 3개의 단계: 하층인 초기철기시대, 중층인 8~10세기, 상층인 12~13세기로 각각 분류하였다. 1970~1973년에 L.E. 세메니첸코Л.Е. Семениченко(L.E. Semenichenko)는 북벽 절개조사를 통해 8세기 이후에 성벽이 축조되었다고 보았다.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유적의 문화 편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취득하여 5~8세기 주거지가 처음 확인하고 발해시기 생활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구조상으로 보아 다른 연해주의 여진시기 산성과 유사하며 유적의 가장 늦은 운용단계는 13세기 동하국시기에 해당한다. 여진시기 문화층은 2개의 건축면으로 나뉜다. 상층에는 대형의 4기의 지상식 주거지가 큰 인공테라스에 건설되었다. 면적이 가장 큰 주거지(112㎡)는 여진 산성 중에 처음 발견된 것이다. 평면 장방형이며, 내부는 석벽으로 2개 부분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각 'ㄱ'자형 쌍고래를 갖는 쪽구들이 확인되었다. 남벽과 동벽을 따라 얕은 주혈이 분포한다. 도기, 다양한 철기, 북송 동전 등이 출토되어 동하국시기로 편년된다. 아래층에는 좁은 테라스에 소형 주거지 7기와 내부에서 도기, 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쪽구들이 '일'자형 혹은 'ㄱ'자형 2~3줄 고래를 띠며 서로 교란된 것으로 보아 상당히 긴 시간동안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한 주거지는 12세기 후반으로 편년된 오시놉카Осиновка(Osinovka) 주거마을에서 발견된 적이 있어 금 시기의 12~13세기 초기로 편년된다.

발해시기 문화층은 모든 조사구역에서 확인되었다. 평면 장방형인 지상식 주거지는 면적 약 20㎡이며 주위에 6개의 기둥 구멍이 확인되었다. 내부 서북쪽에는 쪽구들이 아궁이에서 'ㄱ'자형 쌍고래를 띠며 외부 굴뚝으로 연결된다. 주거지 근처에 성벽이 확인되는데 늦은 시기 토성으로 덮혀 있다. 발해시기 성벽은 경사면을 따라 2열 주혈군을 이루

그 림 1. 노보고르데옙카 성 평면도. 조사구역 1–14
2. 조사구역 13의 여진시기 건축면 상층의 주거지
3. 조사구역 11–12의 여진시기 건축면 상층의 유물
4. 조사구역 9, 11, 13의 여진시기 건축면 하층의 주거지와 유물
5. 조사구역 13의 발해시기 문화층의 주거지와 유물
6. 조사구역 12, 13의 크로우놉카 문화층의 주거지와 유물
7. 리돕카–얀콥스키 문화층의 주거지와 유물

해 제 M.A. 스토야킨

며, 서로 1~1.5m 떨어지는 나무 구조가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토벽을 보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무 대신 돌을 보강한 축성은 연해주 일원 발해 성에서 흔히 보이는 특징이다. 발해 문화층에서는 호형, 시루 등의 전형적인 발해 윤제토기, 철기, 청동기 등이 발견되었으나 수제토기, 골각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9~10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 문화층은 늦은 시기의 교란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다. 일부 남아있는 주거지는 반지하식이며 쪽구들은 판석으로 덮은 외고래이다. 주변에 올가문화에 해당하는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말라야 포두셰치카Малая Подушечка(Malaya Podushechka) 주거유적의 올가 문화층에 발견된 것과 유사하다.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 문화층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일부 남아 있는 주거지는 수혈 깊이가 1m이고 평면 장방형(크기 7×5m)이다. 벽체를 따라 주혈이 배치되었고 중앙에 지붕을 지탱한 4개의 기둥이 있었다. 지붕은 자작나무 껍질로 덮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구시설은 복도식이며 양벽에 각각 장방형 위석식 노지 2개가 확인되었다. 내부에 두형토기를 비롯하여 석기, 토제품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보다 이른 시기의 화재로 전소된 2개 반지하식 주거지는 유적의 북부에 확인되었다. 평면 장방형이며 크기는 6.5m×3m, 4.7m×3.5m이다. 주거지의 수혈식 노지 주위에는 다수의 소토와 수혈이 배치되어 구조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어깨와 바닥을 따라 주혈이 확인되었다. 두형토기, 호형, 다수의 석도, 석촉, 주철제 공구편 등이 출토되었다. 방사선탄소연대 측정결과 기원전 6~5세기로 편년된다. 필자는 2개의 문화의 요소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문화층은 리돕카–얀콥스키лидовская-янковская(Lidovka-Yankovski) 문화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D.L. 브로댠스키Д.Л. Бродянский(D.L. Brodyanski)는 아누치노 문화, N.A. 클류예프Н.А. Клюев(N.A. Kluyev)는 크로우놉카 문화와 리돕카–얀콥스키 문화로 분류한 의견도 있다.

유적에서 이른 시기의 토기와 흑요석제 석촉이 출토되었고 4개의 방사선탄소연대 측정결과 기원전 14~10세기로 편년되어 이른 시기의 문화층도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유적의 다층위 성격을 재입증하여 여진시기의 2개 건축면, 발해문화층, 교란되지 않은 크로우놉카, 리돕카–얀콥스키 문화 유구가 확인된 성과가 있다.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2002. Многослойный памятник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 городище: материалы раскопок 1986–1987 годов //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ДВО РАН. Т.11.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рхеологии.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46-58.

| 해제 | 노보고르데옙카 산성 조사를 통해 선사부터 중세까지 연해주의 대표적인 문화들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연해주 편년 연구에 중요한 연구결과로 보인다. 여진, 발해를 비롯한 주거지의 형식과 축조 방식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주거 발전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발해 성이 있어서는 유일한 성벽 축성 구조가 확인되어 발해 성의 연구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E.I. 겔만Е.И. Гельман(E.I. Gelman)에 의하면 소위 리돕카–얀콥스키 문화 토기는 기형, 정형, 기술 등 특징으로 보아 얀콥스키 문화 토기에만 해당하다는 의견이 주목된다.

저 자 S.A. 삭마로프
С.А. Сакмаров
S.A. Sakmarov

연 도 2016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4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오크라인카 성에 대한 예비조사결과

주 제 어 연해주
성곽
발해 후기~후발해
성벽 조사

그 림 1. 오크라인카 성 평면도
2. 조사구역1 출토 토기의 입·단면
3. 성벽 단면도

해 제 M.A. 스토야킨

이 논문은 연해주 추구옙카Чугуевский(Chuguevka) 지구에 위치한 오크라인카Окраинка(Okrainka) 평지성에 대한 2003~2004년 발굴 조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1996년에 V.I. 볼딘В.И. Болдин(V.I. Boldin), Yu.G. 니키틴Ю.Г. Никитин(Yu.G. Nikitin)은 시굴조사를 통해 10~11세기로 축성된 것으로 편년하였다. 성의 면적은 12,000㎡, 평면 장방형(제형)이다. 크기는 장축 105~111m, 단축 76~113m이다. 성벽 높이는 1.5~2.5m, 너비는 하부 5~7m, 상부 0.5m이다. 성벽 표면에 큰 석재 많이 노출되어 있다.

성문은 5개이며 성벽이 단절된 구간에 시설되었으나 현재 북문은 파괴되었다. 성벽 바깥에 너비 3~4m의 해자가 둘러져 있다. 서문 주변에는 발해시대 도로 흔적과 남벽 바깥에 우물로 추정된 유구도 확인된다.

성 내부는 전반적으로 북고남저의 지형이며 동남쪽에 배구수와 암문이 있다. 또한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 2곳(북쪽부 100m×40m, 동남모서리 50m×20m)과 대형 수혈(서남쪽 45m×20m, 동쪽 중앙부 20m×15m)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는 성 내부 가장 높은 동북부 일대(면적 20㎡)에서 진행되었으며 부석유구와 12개의 주혈과 지상식 건축물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회색 토기 구연부, 물레로 보완성형한 수제토기, 3중구연부와 견부에 3조 횡침선이 있는 토기 등 출토되었다. 토기에 있어서는 E.I. 겔만Е.И. Гельман(E.I. Gelman)이 10세기 후반으로 편년한 노보고르데옙카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Novogordeevka) 주거유적의 토기와 유사하며 발해토기와는 차이가 보인다.

서문지 주변 성벽 절개조사를 통해 체성 구조가 밝혀졌다. 생토층을 약간 제토한 후에 석재를 혼합한 성토다짐으로 기초대지를 조성하였는데 내부에서 2조 횡침선이 있는 윤제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외부에 사질토로 보강하여 주혈이 확인되었다. 내부에 사질점토로 보강하여 목탄이 있는 성격 미상의 대형 수혈이 발견되었다. 중심부는 석축이며 크기가 2.2×1m의 석곽형태이며 내부에는 사질점토로 채웠다. 내벽 경사를 따라 석재로 보강하였으나 구조는 알 수 없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의 형태, 축성 방법과 유물을 통해 발해 말기~후발해시기에 축조되었으며 연해주 중부지역의 새로운 성곽자료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Сакмаров С.А. 2016. Результаты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городища Окраинк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4.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172-179.

| 해제 | 오크라인카 성은 발해의 동북 국경에 축조된 중형 평지성으로 이 지역 관리운영 방식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유적이라 하겠다. 연해주의 독특한 석곽 형태를 갖는 성벽 구조는 발해와 후발해의 축성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절개구간은 서문지 자리에서 실시한 것을 미루어보아 이는 성문의 구조물의 일부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출토된 3중 구연부가 있는 토기는 발해의 전형적인 토기와 다른 특성으로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명확한 편년과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저 자 V.E. 샤프쿠노프 외
В.Э. Шавкунов
V.E. Shavkunov
연 도 2002
간행물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11권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다문화층 아우롭카 성 유적

주 제 어 연해주
성곽
후발해
올가 문화
크로우놉카 문화
말갈 문화
청동기시대
토기

지원사업 러시아 기초연구재단 지원사업
грант РФФИ № 00-06-80326

이 논문은 1997~1999년 성 북문지 주변 조사에서 확인된 상 · 중 · 하층 3개의 문화층에 대한 유물분석을 통해 각 문화층의 성격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유적은 연해주 아누치노Анучино(Anuchino) 지구, 아르세니옙카Арсеньевка(Arsenyevka) 우안 지류의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여 방어와 주변 감시에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 절벽으로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석벽으로 보호가 된다. 성벽과 출입문에는 방어시설이 없다.

V.E. 샤프쿠노프는 기존에는 발해 후기 유물, 입지, 구조, 축성, 쪽구들이 'ㄱ'자형 쌍고래를 갖는 유일한 주거지 구조 특징 등으로 다른 발해와 여진 성과는 차이가 있어 발해 멸망 이후에 축조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발해 멸망부터 금나라까지 운용된 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여 지형-구조의 특징과 유물성격은 알 수 없다.

유적의 상층에서 조사된 주거지 총 9기에서는 토기, 철기, 유약 바른 토기, 청동환 등이 출토되었다. 수제토기 뚜껑 1점 외에 윤제토기는 다수 출토되었는데 기형은 옹, 호, 직구호, 시루, 완, 대접 등이다.

윤제토기의 특징은 첫째 기형, 과형토기 유무, 사립혼입태토는 발해 후기 유적의 것과 일치하지만 종류가 그다지 많지 않다. 둘째 다른 유적과 달리 환원 소성된 토기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기술적 퇴화가 시작하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빠른 물레와 느린 물레로 성형된 토기가 공존하고 있다. 이로 보아 윤제토기는 발해 말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곰 발바닥' 문양이 시문된 토기는 노보고르데옙카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Novogordeevka) 주거유적에서 발견된 바가 있으며, 8세기 말~9세기 초부터 10세기 말~11세기 초까지의 특징을 갖는 월자越瓷요지 생산 대접 편이 출토되어 주변의 노보고르데옙카 발해 산성보다 늦은 시기에 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철환 20점, 석제 연마제가 한 지점에서 집중되어 발견된 것으로 보아 7 · 8호 주거지는 철기 제작 수공업자의 거주지로 추정된다. 철촉은 사두형, 끌형 등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중세 여러 문화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다. 띠고리(교구)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 10세기 말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후발해에 성이 운영된 또 다른 편년자료라 하겠다.

이상 총괄하면 상층의 거주민은 발해물질과 유사성이 많지만 입지와 주거지의 형식이 발해문화에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후발해에 해당한다.

유적의 중층에 지상식 10호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판석으로 조성된 쪽구들이 'ㄱ'자형 외고래를 띠고 있다. 주거건축은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 문화의 전통에서

그 림 1. 아우롭카 성 평면도
2. 아우롭카 성 2–5호 주거지 (상층); 10호 주거지(중층)
3. 2호 주거지 출토 토기
4. 3호 주거지 출토 토기
5. 4호 주거지 출토 토기(1~13); 5호 주거지 출토 토기(14~19)
6. 7호 주거지 출토 토기(1~13); 조사구역2 출토 토기(14~17)
7. 문지부근 상층 출토 윤제토기
8. 6호 주거지 출토 토기
9. 8호 주거지 출토 토기
10. 아우롭카 성 중층 출토 토제 고누알(1), 석도(2)
11. 아우롭카성 하층 출토 석기
12. 아우롭카 성 하층 출토 청동기시대 토기
13. 아우롭카 성 중층 출토 크로우놉카 문화 토기
14. 아우롭카 성 중층 출토 올가 문화 토기
15. 아우롭카 성 중층 출토 말갈 문화 토기
16. 아우롭카성 상층 출토 철촉
17. 아우롭카 성 출토 철기: 상층 – 2, 3, 4; 중층 – 1, 5

표 1. 아우롭카 성 복원 토기의 중요 속성표

해 제 M.A. 스토야킨

기원하여 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 문화에서 이어받았다.

토제 원추형 방추차, 석도가 출토되었으며 연해주 초기철기시대 유적에서 널리 확인된다. 삼각무경형 철촉이 있는데 연해주에서 1~4세기로 편년된 루다놉카Рудановское(Rudanovka) 유적에서 처음 확인하여 올가 문화, 말갈, 발해 유적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크로우놉카 문화 토기는 두형토기, 나무 그루형 손잡이 토기 등 수량이 비교적 적고 유구가 없어 거주민들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토기는 기형이 다양하지 않고 표면을 마연하거나 정연하지 않은 퇴화과정 기법이 관찰된다.

올가문화 토기 중 복원된 나팔형 토기의 표면에는 다양한 문양과 물레로 성형하였으며 산화 소성되었다.

말갈토기는 수제토기이며 잔조상태가 좋지 않다. 문양이 다양하지 않고 환원과 산화 소성되었다.

이상의 토기는 모두 같은 문화층에서 출토되었고 침니혼입태토로 같은 재료를 이용해 제작하고 일부 말갈 토기에서는 올가 문화의 대표 문양이 시문된 특징을 있어 3개 문화의 토기가 동일시기에 속하였을 것으로 파악한다. 크로우놉카 문화 인구를 동화시키는 올가문화 인구는 방어에 유리한 산지를 선택하여 거주하였다가 말갈에 의해 동화 대상이 된 상황을 관찰하게 되었다. 발해 초기 유물이 없어 중층은 말갈이 연해주 중부로 확대하는 과정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며 1천년기 중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기존의 3개 문화가 순서대로 교체하는 모습이 아닌 공존하는 특징을 갖는 집단이 확인된 중요한 성과였다고 주장한다.

3개의 토기문화 전통이 한 문화층에서 공존하는 다른 사례는 체르냐티노–5Чернятино-5(Chernyatino-5) 고분군에서도 확인된다. 1호 고분과 의례시설에서 크로우놉카와 올가 문화 기형의 토기 내부에서 말갈토기 각각 1점이 확인되었다.

하층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 유물은 토기와 흑요석제 격지가 주를 이룬다. 석기는 수량이 적으며 흑요석제 밀개, 칼 및 잔손질 석촉 등이다. 편암제 마제석촉은 연해주지역 신석기시대에 출현하지만 청동기시대 시네가이Синегайская(Siniy Gai) 문화 유적에서 널리 성행하였다. 원추형 석제 연마제는 형태 · 기능면에서 주변에 위치한 아누치노–14 주거유적의 청동기시대 문화층 출토 유물과 유사하다.

토기는 수량이 비교적 많으며 심발형 토기가 대부분이고 외반구연호는 2점만 출토되었다. 기형과 구순형태로 보아 시네가이 문화, 리돕카лидовская(Lidovka) 문화와 유사하지만 태토, 소성, 성형기술 등에 많은 차이를 갖는 특성이 있어 명확한 편년은 불가능하다. 태토로 보아 주변 아누치노–14 주거유적보다 연대가 늦은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독특한 자료가 확인되어 연해주지역 당시 문화의 다양성, 발전과정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유적은 연해주 고고학에서 거의 조사되지 않은 시기의 문화층이 확인된 특징이 갖는다. 다양한 지역의 고고문화 요소가 존재하며 각 문화층의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한

다. 이는 지리적으로 환경조건이 다른 인접한 위치와 주변의 풍요로운 분지에 의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성의 모든 문화층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연해주 중부는 다양한 문화 전통의 지방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Шавкунов В.Э., Гельман Е.И. 2002. Многослойный памятник Ауровское городище //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ДВО РАН. Т. 11.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75-108.

| 해제 | 이 논문은 독특한 지리조건으로 갖는 아우롭카 성에서 확인된 선사부터 후발해까지 여러 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토층상에 의해 토기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기형, 문양, 태토, 소성)을 하여 주민 교류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가치가 높다. 특히 한 유적에서 크로우놉카, 올가 및 말갈 문화가 교체하는 양상이 아닌 유사한 시기에 공존하는 증거를 발견하고 이후 시기 발해가 아닌 후발해에 운용한 것도 확인되어 주목이 된다.

연해주 남부의 중세 성곽

저 자 V.E. 샤프쿠노프
В.Э. Шавкунов
V.E. Shavkunov

연 도 2000
간행물명 『극동의 역사와 고고학: E.V. 샤프쿠노프 70주년』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연해주
성
중세
말갈
발해
여진
동하국

해 제 M.A. 스토야킨

이 논문은 이전에 다루지 않은 연해주 남부 지역 성곽의 발전과정, 발해 멸망시기와 금나라 출현 시기의 성곽 등 러시아 극동 민족의 중세 축성 방식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1990년 중반까지 해당 지역에는 약 100개의 성곽이 알려져 있다. 성곽 분류에 대한 연구사를 언급하고 분류기준은 지형 조건(V.K. 아르세니예프В.К. Арсеньев(V.K. Arsenyev))과 발해, 여진 등 일부 시기에 대한 성곽의 지형, 규모 등 요소로 분류(V.I. 볼딘В.И. Болдин(V.I. Boldin) 등)한 적이 있다. 필자는 성곽의 지형 기준을 감안하며 규모, 방어시설 특징을 알려주고 발전과정을 파악하였다.

1천년기 전기에 폴체Польце(Poltse)(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문화로 편년된 루다놉카Рудановское(Rudanovka) 성 등 곶성(바다나 분지로 돌출된 언덕 위에 위치한 성)이 가장 이른 시기에 축성되었고 말갈시기(5~8세기) 곶성(노보셀리셰Новоселище(Novoselische) 성 등) 분포가 확장되었다.

8세기에 발해의 영향으로 평지성이 출현하였다.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 등은 평면형태가 직사각형에 가깝거나 불규칙하다. 토성이며 성벽은 높지 않고 바깥에 돌을 보강하였다. 성벽에서 치(각루)가 없어 현 중국내 발해 중심 지역 성과 유사하다. 한편 곶성 혹은 높지 않은 언덕에서 일부 성(노보고르데옙카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Novogordeevka) 산성)이 축성되었다. 그리고 노보게오르기옙카-2Новогеоргиевка-2(Novogeorgievka-2) 성은 규모가 아주 작고 강변을 따라 높은 언덕 위에 분포하고 있는 보루로 발해시기 교통로의 통제와 감시 목적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0세기에 거란의 발해 침략으로 치는 없고 면적이 비교적 큰 산성(아우롭카Ауровское(Aurovka) 산성 등)이 출현하였다. 12세기 초 금金시기 발해 일부 평지성(마리야놉카Марьяновское(Maryanovka) 평지성 등)을 수축하여 성벽 위에 치(혹은 각루)를 설치하였다. 연해주의 서부지역은 규모가 작은 마이스코예Майское(Mayskoye) 평지성 등을 새롭게 축조하였는데 만주지역의 금시기 초기 평지성과 유사하다. 그리고 치와 옹성을 갖는 새로운 항구(크라스니 미스 성Красный мыс(Krasnyi Mys) 성)도 건설되었다.

연해주지역에는 평면이 방형, 원형의 파블롭카-2 · 3Павловка-2·3(Pavlovka-2·3) 성 등 소형 평지성들이 분포하며 일부 큰 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나 부족한 조사로 인해 출현시기는 확정하기 어렵다.

12세기 말~13세기 초에 치가 설치된 대형 산성이 축성되었다. 티그로보예

Тигровое(Tigrovoye) 산성 등은 치(각루) 유무를 기준으로 길림성의 성곽과 함께 금 혹은 요금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해주에서는 13세기 초 동하국東夏國시기에 해당하는 산성이 가장 발굴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다. 크라스노야르Красноярское(Krasnoyarovka) 성은 접근이 어려운 높은 산줄기 혹은 높은 언덕 위에 치, 각루, 옹성, 적대, 문루 등의 방어시설을 갖추고 축성되었다. 성벽은 판축기법과 종종 자연석재를 이용(이즈베스트코바야 솝카 성Известковая Сопка(Izvestkovaya Sopka) 성 등)하였으나 벽돌을 이용하지 않았다. 성 내부(문지門址 근처)에 모두 '레두트'라는 장군의 사령부로 판단되는 장소와 내성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성곽은 모두 짧은 시기에 축조된 점과 유물과 유구로 볼 때 중국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동하국 남경南京 추정)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금 시기 이후 연해주 동부 지역 페레발 베뉴코바 성Перевал Венюкова(Pereval Venukova) 성 등이 고갯길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평면형태가 규칙적이고 방어시설이 없는 성이 축성되었다. 입지상 13세기 말에 일본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라조Лазо(Lazo) 지구의 외성과 내성을 갖춘 바튜키Батюки(Batuki) 성은 평면 방형, 문지와 치가 불규칙적으로 설치된 것은 중국 동북지역 원元시기의 평지성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콕샤롭카-1 · 2Кокшаровка-1·2(Koksharovka-1·2) 평지성은 성벽 위에 유일하게 치가 1기만이 설치된 점으로 보아 가장 늦은 시기(14~17세기) 축성으로 편년된다. 천명제天命帝는 이 지역의 인구를 만주로 이주시켜 도시가 쇠퇴하였다.

Шавкунов В.Э. 2000. Средневековые городища южной част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 История и архе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 70-летию Э.В. Шавкунова. Владивосток. С. 166-173.

| 해제 | 지형 조건 기준에 따른 연해주 중세 성곽 문화와 시기 분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연구로 의의가 있지만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2008~2014년 한 · 러 콕샤롭카-1 성 공동발굴조사 결과 14~17세기가 아닌 발해~발해 멸망 이후에 주로 운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본 논문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크라스키노 성은 발해의 전형적인 평지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벽에 치가 설치되어 필자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아우롭카 성 발굴조사

저 자 V.E. 샤프쿠노프
В.Э. Шавкунов
V.E. Shavkunov

연 도 2001
간행물명 『동아시아의 고대와 중세 역사: 발해건국 1300주년』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연해주
성곽
발해 문화
올가 문화
주거지
쪽구들

이 논문은 1997년에 성의 동북지역 발굴조사 내용으로 통해 성의 소속문제를 해석한 것이다.

유적은 연해주 아누치노Анучино(Anuchino) 지구, 아르세니옙카Арсеньевка(Arsenyevka) 우안 지류, 산맥 정상부에 위치하여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석축으로 보호된다. 아우롭카Ауровское(Aurovka) 성 내부에 인공 테라스와 수혈 170기 이상이 분포한다. 조사 면적은 약 150㎡이며 주거지 4기가 조사되었다. 모두 지상식이며 판석으로 시설된 쪽구들은 1~2개의 아궁이에서 'ㄱ'자형 쌍고래를 띠며 굴뚝으로 연결된다. 주거지의 면적은 14~22㎡로 벽체의 기초부가 남아 있다. 수제토기는 일부가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 문화 토기이며 일부는 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 문화와 말갈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철촉 형태로 보아 발해에서 널리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윤제토기는 발해유적에서 출토 사례와 일치하다. 발해 후기로 편년된 과형토기와 유약 바른 토기 등을 통해 볼때 9세기 말~10세기로 편년된다. 그러나 쪽구들은 발해 것과 큰 차이가 보이며 중세로 파악한 페트로바 섬о. Петрова(Petrov island) 유적의 1호 주거지 쪽구들과 유일하게 유사하다.

주거지의 건축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크로우놉카 문화로 편년된 페트로바 섬 유적의 대부분 주거지는 반지하식이며 쪽구들이 외고래를 띠고 있다. 올가문화 주거시설은 이전 전통을 이어 받았다. 말갈문화에서 반지하식 주거지에서 노지만 있고 쪽구들이 없어 초기철기시대와 큰 차이가 보인다. 발해 초기 주거지는 말갈시기 것과 같지만 이후 쪽구들이 널리 사용되었다. 발해 주거지는 4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반지하식이며 노지 유무, 쪽구들이 없다. 2유형은 반지하식이며 쪽구들이 'ㄱ'자형 외고래를 띠고 있다. 3유형은 지상식이며 쪽구들이 다양한 1~2중 고래를 흙을 파서 조성하였다. 4유형은 아우롭카 성의 주거지가 이에 속한다.

아우롭카 성의 쪽구들은 크로우놉카–올가 문화의 'ㄱ'자형 외고래를 갖는 쪽구들에서 발전한 단계이며 이 지역에서는 크로우놉카–올가 문화의 요소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상식 구조, 쌍고래 쪽구들, 굴뚝시설, 주혈이 없는 귀틀형 구조 등 특징을 가지며 다른 발해 주거지보다 발전된 것으로 발해시기보다 늦은 것으로 추정된다.

요 나라는 발해를 멸망한 후 주민을 강제 이주시켜 인구가 줄였다. 대신 올가 문화의 전통을 갖는 새 주민이 이주하여 정착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입지조건으로 올가 문화인 언덕 혹은 산지 위에 선정하여 성을 축조한 양상과 비슷하다.

그 림 1. 아우롭카 성 평면도
2. 아우롭카 성의 2호 주거지(하); 4호 주거지(상)
3. 아우롭카 성의 3호 주거지(좌); 5호 주거지(우)
4. 아우롭카 성 출토 윤제토기:
1–2 – 시루,
3 – 호형토기; 출토 철기:
4 – 3호 주거지 출토 삼각형 철촉,
5 – 5호 주거지 출토 끌형 철촉

해 제 M.A. 스토야킨

성은 발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올가 문화의 후예들이 발해 멸망 직후, 10세기 후반에서 축조한 것이다. 성격이 비슷한 유적들은 연해주 동북부에 많이 분포하지만 조사가 부족하여 확실하게 알 수 없다.

Шавкунов В.Э. 2001. Раскопки Ауро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Древняя и средневековая история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 130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 науч. конф.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С. 173-183.

| 해제 | 연해주 중부에 위치한 아우롭카 성을 조사하여 발해 성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중세 유물을 성격상 발해문화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쪽구들의 형태로 보아 올가 문화가 사라진 후 500년 이상 된 10세기 중반에 이른바 올가 문화 후예 존재 문제이다. 그들은 발해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적에 대한 편년, 토층 등 면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저 자 V.E. 샤프쿠노프
В.Э. Шавкунов
V.E. Shavkunov

연 도 2012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2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샤이가-레두트 성곽 연구의 예비결과

주 제 어 연해주
성곽
스몰노예 문화
토기
물리탐사

지원사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간부회 지원사업
грант Президиума ДВО РАН № 09-III-Д-11-567

이 논문은 2009년에 실시된 성의 동북지역 일대 발굴조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발굴결과 조사지역이 성곽의 외부 지역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본 글에서는 출토 유물에 국한한 분석한 글이다.

유적은 연해주 파르티잔스크Партизанский(Partizansk) 지구을 흐르는 파르티잔스크 강 주변 분지에 위치한다. 성은 규모는 원래 방형(40m×40m)이며 높이 2m이고 외곽에 해자가 설치되었다. 한편 1960년대까지 방어시설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개간으로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다.

발굴조사 전 실시한 GPR 탐사(면적: 3900㎡) 결과 고대 수혈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어 일부 지역(95㎡)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결과 주거지나 저장/제작 장소 등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무기, 공구류, 장식, 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공구는 철제의 칼, 낚시 바늘, 다종 바늘, 버클과 부싯돌, 토제 방추차, 석제 숫돌이 출토되었다. 장식품으로는 옥수제, 연옥제 구슬, 청동제 드리개가 확인되었는데 연옥제 구슬의 경우는 연해주에 처음에 발견되어 주목된다. 특히 연해주 지역에는 연옥 광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중국 수입품으로 추정된다.

출토 유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물은 토기류로서 윤제 · 수제토기로 분류된다. 윤제토기 절반 이상은 표면에 나무 방망이 두드려 남아있는 격자무늬가 새겨져 있다. 복원된 호형토기를 통해 보면 구연부를 제외하고 전면에 격자문과 동체 견부, 경부, 동최대경에서 황침선이 시문되었다. 토기의 기형, 문양의 타날기법, 문양 배치는 스몰노예Смольное(Smolnoye) 성 출토 윤제토기와 유사하다.

토기의 출토수량에 있어서는 윤제토기(64%)보다 수제토기(34%)가 적다. 수제토기는 윤제토기와 달리 압날문, 평평한 횡침선 등 다양한 문양이 확인된다. 수제토기 문양의 종류 · 배치는 스몰노예 성의 토기의 출토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출토된 대접 2점은 소형으로(기고 3.5cm, 4.2cm, 구경 각각 6.5cm, 6.3cm)은 바닥에 7개 투공, 동체에 2개 투공이 배치되어 있어 향로로 추정된다.

또한 초소형(기고 1.8~2.5cm) 토기 3점은 스몰노예 성에 출토된 적이 있다. 이는 토기 소성에 필요한 온도와 태토를 점검해 보기 위해 제작된 이른바 실험용 토제품이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출토된 토기는 기본적으로 스몰노예 성의 토기와 서로 유사하다는 것

그 림 1. 샤이가–레두트 성 출토 유물:
1,2 – 마구용 바늘;
3,4 – 일반 바늘;
5 – 철제 태글;
6 – 철제품;
7 – 청동제 드리개;
8 – 철제 낚시 바늘;
9, 10 – 부싯돌
2. 샤이가–레두트 성 출토 윤제토기
3. 샤이가–레두트 성 출토 수제토기의 문양 사례
4. 샤이가–레두트 성 출토 토제 향로
5. 샤이가–레두트 성 출토 토제 대접 편

해 제 M.A. 스토야킨

을 보여주고 있어 2개의 성은 9~11세기에 해당하는 비슷한 시기에 운용되면서 주민들의 활발한 교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스몰노예 유형' 토기로 대표되는 고고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Шавкунов В.Э. 2012.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я городища Шайга-Редут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2.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269-275

| 해제 | 최근에 V.E. 샤프쿠노프가 명명한 스몰노예 문화와 관련하여 샤이가–레두트 성은 위치, 출토 토기에 있어 윤제와 수제 모두에서 격자무늬가 시문된 점은 스몰노예 성의 토기와 유사하다는 필자의 의견은 매우 타당하다. 한편 유적이 대부분 파괴되어 성곽의 구조와 특징 등 종합적인 성격 규명은 불명확한 한계점이 있다.

저 자 I.Yu. 슬렙초프 외
И.Ю. Слепцов
I.Yu. Slepchov

연 도 2011
간행물명 『고대 및 중세의 러시아 극동 : 문제, 탐색, 해결』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토층상 자료를 통해 본 콕샤롭카-1 성 북편건물지군의 구조 특징

주 제 어 발해
연해주
콕샤롭카–1 평지성
토층
건물지군

목 차 본 내용
참고문헌

그 림 1. 콕샤롭카-1 평지성 북편건물대지 트렌치 토층 단면도 및 평면도
2. 콕샤롭카-1 평지성 북편건물대지 축조 단계
3. 콕샤롭카-1 평지성 북편건물대지 트렌치 내 적석 기초부(첫 번째 건축 관련)
4. 콕샤롭카-1 평지성 북편건물대지 트렌치 내 남벽 단면

해 제 김동훈

이 논문은 콕샤롭카–1Кокшаровка-1(Koksharovka-1) 평지성에 대한 2008~2009년 한러 공동 연해주 고고유적 학술연구의 발굴성과 중 북편건물지군 북쪽 9×1m 범위의 시굴트렌치 조사를 통해 본 건물지군의 조성방법과 축조연대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연해주 중부 우수리 강의 지류에 위치한 콕샤롭카–1 평지성에는 평면 'ㄷ'자형의 두 줄고래 쪽구들이 내부에 시설되고, 외곽으로는 밑변이 4~4.5m에 이르는 대형 석축기초의 굴뚝이 있는 대형건물지가 동서로 연이어 위치한 건물지군이 북편과 서편에 위치하였다. 그 중 규모가 더 큰 북편건물지군에서 북쪽 돌담을 포함하여 북쪽으로 길게 시굴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물대지를 조성하기 이전 평지성 존속의 이른 시기(또는 평지성 축조 시작 시기)에 해당되는 아래문화층이 트렌치 조사시 바닥에서 7개 기둥구멍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기둥구멍의 지름은 0.25~0.45m이며, 깊이는 0.3~0.5m이다. 기둥구멍 내부에서는 석립이 많이 혼입된 마연하지 않은 윤제토기편과 수제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기둥구멍의 바닥은 자갈, 모래, 사질점토 등으로 된 생토로 이어진다.

북편건물지군은 5층 이상 명갈색 점토층으로 성토하여 건물대지를 조성하였는데 성토층 사이사이에는 3cm 정도의 두께로 재층과 불먹은 듯 피열된 사질점토층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었다. 위문화층인 성토층의 상부에서는 마연한 윤제토기편, 철제도자, 옥수제 반지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 단계는 행정중심기능을 갖는 대형건물지들이 축조되어 사용된 시기이다.

Слепцов И.Ю., Ким Дон Хун. 2011. Городище Кокшаровка-1: особенности строения северной платформы (по данным стратиграфии)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проблемы, поиски, реш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 ООО «Рея». С. 107-113.

| 해제 | 이 논문은 연해주 중세유적 중 쪽구들이 있는 대형지상건물이 연접되어 설치된 특이한 건물대지의 조성방법을 밝히고 출토유물을 통해 평지성 축조와의 관계를 드러내어 연해주 발해유적 지상건물대지의 특징을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문에서는 시굴트렌치 바닥에서 확인된 기둥구멍이 위치한 아래문화층과 북편건물대지가 축조되고 건물이 존재한 위문화층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북편건물지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위문화층 건물지군의 하부에 존속한 선대건물지군의 존재가 확인(6호 대형건물지 내부 트렌치)되어 보고서에서는 유적의 문화층이 총 3개로 구분되고 있다.

저 자 N.N. 크라딘 외
Н.Н. Крадин
N.N. Kradin

연 도 2010
간행물명 『동아시아의 전통문화』 6호
발 행 처 국립 아무르대학교

연해주 북부의 중세 성곽

주 제 어 연해주
성곽
중세
말갈 문화
포크롭카 문화

목 차
1. 달네레첸스크 지구의 성
2. 크라스노아르메이 지구의 성
3. 포자르 지구의 성
4. 맺음말

이 논문은 1998~2009년에 조사가 미흡한 연해주 북부 3개 지구에서 확인된 성곽 현황을 소개하고 성곽의 입지, 구조 등 특징을 통해 성곽 운용 시기를 파악하고 있다.

달네레첸스크Дальнереченск(Dalnerechensk) 지구 로바놉카-1Лобановка-1(Lobanovka-1) 성은 로바놉카 마을 근처에 위치한다. 3중 토루와 3중 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면 타원형(60m×60m)으로 외형상 아무르주의 사잔카-1·2Сазанка-1·2(Sazanka-1·2) 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레츠노예Речное(Rechnoye) 성은 마을 근처 이만Иман(Iman) 강가에 위치한다. 평면 장방형이며 성벽은 돌로 보강하였고 바깥에 해자가 설치되었으며 중세 초기의 구조를 갖는다.

베르브노예-1Вербное-1(Verbnoye-1) 성은 마을 주변에 위치하여 총 길이 911m이다. 지형 조건에 맞추어 축조된 토성으로 바깥에 돌로 보강하였다. 성벽 위에는 치 8개와 'ㄱ'자형 옹성이 설치되었다. 지표 채집된 윤제토기, 철기로 보아 중세 중기에 운용되었다.

베르브노예-2 성은 마을 반대 방향에 위치한다. 총 길이 394m이며, 평면형태는 불규칙한 방형이다. 형태상으로 중세 시대에 속한다.

크라스노아르메이스키Красноармейский(Krasnoarmeyskiy) 지구에 보스트레초보-3Вострецово-3(Vostretsovo-3) 성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다. 19세기에 처음 조사되었고 1980년대 말에 평면도가 작성되었다. 2000년까지 성의 절반이 파괴되어 구제발굴조사되었다. 트렌치에서 출토된 철촉, 토제 어망추를 토대로 중세 혹은 근세에 해당한다. 형태상 아무르주의 보론자Воронжа(Voronzha) 성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고골렙카-1Гоголевка-1(Gogolevka-1) 성은 이만 강가에 인접한 언덕 위에 위치하여 평면형태는 불규칙하다. 성벽은 돌을 보강한 것으로 보이며 치 4기, 타원형 옹성, 서북 모서리 바깥에 '레두트' 등 방어시설이 설치된다. 문지 밖에 해자가 있다. 정상부에 내성이 있는데 구조적 특징으로 볼 때 폴체Польце(Poltse) 시기에 초축하여 중세에 수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 내부에는 인공 테라스와 타원형 주거 수혈이 다수 관찰된다. 수습유물은 선사시대, 폴체 시기와 중세에 해당한다.

타보로보-2 성은 타보로보Таборово(Taborovo) 마을 근처, 이만 강가에 위치한다. 평면은 불규칙한 장방형이며 성벽은 2개의 방면에 있고 바깥에 해자가 파여있다. 내부에는 많은 수의 수혈이 있는데 조사가 되지않아 성의 구조로 볼 때 초기철기시대 혹은 중세로 편년할 수 있다.

이 유적에서 멀지 않은 타보로보-3 성은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며 2중 성벽을 쌓

그 림 1. 성의 분포도
2. 로바놉카–1 성 평면도
3. 레치노예 성 평면도
4. 베르브노예–1 성 평면도
5. 베르브노예–2 성 평면도
6. 보스트레초보–3 성 평면도
7. 고골렙카–1 성 평면도
8. 타보로보–2 성 평면도
9. 타보로보–3 성 평면도
10. 노보크레셴카–2 성 평면도
11. 악자니 성 평면도
12. 쿤굴라자 성 평면도
13. 무지자 성 평면도

해 제 M.A. 스토야킨

고 평면반타원형이다. 북쪽에는 옹성문지가 설치된다. 규모와 형태상으로 중세 초기로 편년된다.

노보그레셴카–2Новокрещенка-2(Novokreshenka-2) 성은 타보로보–3 성에서 5km 떨어진 이만 강의 지류의 높은 언덕 위에 지형을 고려하여 크지 않게 성벽을 축조하였다. 성 내 · 외부에 수혈이 다수 분포된다. 수집유물은 말갈과 포크롭카Покровская(Pokrovka) 문화의 토기이다. 구조상 특징은 쿤굴라자 성과 유사하다.

포자르Пожарский(Pozharskiy) 지구의 쿤굴라자Кунгулаза(Kungulaza) 성은 비킨Бикин(Bikin) 강가,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한다. 접근이 쉬운 서쪽에는성벽이 3중으로 축조되었다. 중간 성벽에는 문지 2개, 원형 치 2개, 옹성 등이 설치되고 내 · 외부에 해자를 둘러 팠다. 성벽은 크지 않으며 흙과 돌을 섞여 쌓았다. 성 내 · 외부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 수혈이 분포된다. 시굴 트렌치 조사로 통해 유적은 신석기시대–고금속석기에 사용하였고 상층은 9~12세기 포크롭카 문화에 해당한다.

악자니Акзани(Akzani) 성은 비킨 우안에 위치한다. 평면은 장방형이며 방위에 고려하여 축조되었다. 총 길이 약 190m이다. 문지 2개와 성 바깥에 해자가 축조되었다. 시굴 트렌치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규모와 형태상으로 중세 초기에 해당한다.

무지자Музиза(Muziza) 성은 비킨 지류의 하구 근처에 높지 않은 언덕 위에 위치한다. 접근이 용이한 방향에는 2중으로 평행 토벽을 조성하였다. 1998~2000년에 N.N. 크라딘에 의해 내부에 주거지 수혈이 발굴조사되었는데 석기시대–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한편 지상식 쪽구들을 갖는 주거지가 발견되어 성은 중세 초기인 포크롭카 문화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 12개의 성은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1유형 : 복잡한 구조를 갖는 산성(베르브노예 · 쿤굴라자 · 노보그레셴카–2 성)

2유형 : 언덕에 위치한 성(곶성)(고골렙카 · 타보로보 · 무지자 성)

3유형 : 장방형 평지성(악자니 · 레츠노예 · 베르브노예 성)

4유형 : 불규칙한 혹은 원형 평지성(보스트레초보–3 · 로바놉카 성)이다.

이 지역의 성은 일부가 폴체 시기에 출현하고 말갈시기와 포크롭카 문화에 널리 사용하다가 4유형은 중세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축성법 특징으로는 돌을 이용하는 기법은 연해주 남 · 중부의 중세 초기 성이 있는데 중요한 구조적 속성이며 판축기법을 주로 적용한 중세 중기의 성과 차이가 분명하다. 고골렙카 성을 비롯하여 옹성 형태는 노보포크롭카–2Новопокровка-2(Novopokrovka-2) 성과 유사하다.

연해주 중 · 동부에 크지 않은 중세 초기 성은 성벽을 쌓을 때 토석혼축을 자주 사용하였다. 또한 마리야놉카Марьяновское(Maryanovka) 평지성 등 발해시기 성, 오크라인카Окраинка(Okrainka) 성 등 발해와 유사한 성이 일부 발견되고 있어 연해주 북부 성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Крадин Н.Н., Никитин Ю.Г. 2010. Средневековые городища Северного Приморья //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Вып. 6. Благовещенск: Изд-во АмГУ. С. 164-180.

| 해제 | 이 논문은 접근이 어려운 연해주 북부 지역 중세 성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성과물이다. 특히 아무르와 연해주을 연결하는 이 지역은 고대부터 인구의 이동과 문화 교류에 중요한 지점으로 문화 교체와 확장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중요하다. 유적은 대부분 지표/시굴 조사결과를 기술하고 있으며 발굴조사 자료가 부족하여 운용 시기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한편 저자들은 포크롭카 문화를 9~13세기로 편년한 것으로 보아 중세 초기와 중세 중기(여진 시기)의 개념이 합쳐져 편년에 약간 혼선이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저 자 N.A. 클류예프 외
Н.А. Клюев
N.A. Kluyev

연 도 2011
간행물명 『고대 및 중세의 러시아 극동: 문제, 탐색, 해결』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2008~2009년 연해주 콕샤롭카-1 성의 조사 결과

주 제 어 연해주
발해
성곽
대형 건축물
토기

이 논문은 2008~2009년 연해주 콕샤롭카-1Кокшаровка-1(Koksharovka-1) 성 북쪽 대지에 대한 조사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발해 유적은 주로 연해주 남부 · 서남부에 조사하고 있어 본 유적은 발해 동북지역의 경계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대형 건축물 2기를 노출하여 큰 성과가 있다.

성은 연해주 중부 콕샤롭카 마을 주변, 우수리乌苏里江 강의 지류 서편에 위치한다. 성의 존재는 이미 19세기말부터 알려져 있었으며 20세기에 들어 저명한 고고학자인 E.V. 샤프쿠노프Э.В. Шавкунов(E.V. Shavkunov) 등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후에 A.L. 슘코바 А.Л. Шумкова(A.L. Shumkova) 등에 의해 유적의 평면 측량이 이루어졌다. 성의 평면형태는 불규칙하고 총 길이는 1645m, 너비 10~14m, 면적 약 16ha, 성벽 높이 4~6m이다. 성벽 상부 정리조사 결과 성벽은 돌로 보강하였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서리마다 각루와 이와 비슷한 구조물이 있고 성벽 바깥의 고하상은 해자 역할을 하였다. 서 · 북문은 'ㄱ'자형 옹성문이고 남 · 동문은 출입문으로 구조가 상이하여 축조 연대가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서 여러 개의 대형 대지가 확인되었다. 동남부에 배치된 초석건물지에서 다량의 기와편, 동물문양기와 등이 출토되어 사찰터로 추정된다. 북쪽 대지(90m×70m)는 돌담으로 에워싸고 내부에 건축물 2기가 확인되었다. 건축물은 형태가 장방형이며 크기는 10m×12m이며 사이에 좁은 공간을 두고 나란히 배치하였다. 벽 기초시설 위에 나무 벽체를 축조하여 점토벽체를 발랐다. 기둥은 초석 위에 받치고 있다. 내부에는 'ㄷ'자형 강돌로 쌓은 쌍고래를 갖는 쪽구들이 설치되어 굴뚝과 외부로 연결된다. 지하물리탐사를 통해 유사한 건축물이 계속 연결되어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물은 토기가 대부분이며 철기도 출토되었다. 특히 발해의 대외교류, 축조연대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인 중국 청자도 확인되었다. 토기는 대상파수부 호, 내만구연호, 과형토기 등 종류가 다양하여 연해주 발해 유적과 유사하다. 자연 태토를 이용해 물레에서 점토띠를 붙혀 가며 성형하였으며 문양은 수평 마연이 가장 많고 침선문, 사선문 등도 확인되었다. 투공된 복잡한 형태를 갖는 이형토제품은 출토사례가 없어 용도는 알 수 없다. 정, 꺽쇠, 철환, 칼 등 다양한 철기가 출토되었다.

연해주 고고학에 있어 독특한 내부 구조와 궁궐식 건축물 존재를 통해 이 성은 행정 중심지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쪽구들과 대칭적으로 배치된 대형 건축물은 중경현덕부中京顯德府로 비정된 서고성西古城 내성과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 상경성

그 림 1. 콕샤롭카–1 성 평면도
2. 콕샤롭카–1 성 궁궐식 건축물지
3. 콕샤롭카–1 성 출토 토기
4. 이형토제픔(사진과 실측도)

해 제 M.A. 스토야킨

上京城의 궁성 내부 침전 구조와 유사하다.

Клюев Н.А., Малков С.С., Якупов М.А. 2011.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городища Кокшаровка-1 в Приморье в 2008—2009 гг.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проблемы, поиски, реш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 ООО «Рея». С. 96-106.

| 해제 | 이 논문은 2008~2014년 한 · 러 공동발굴 조사의 내용 가운데 1 · 2차 조사성과를 종합하여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발해의 동북지역 운영방식, 물질문화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북편건물지군 명명된 대형의 7개 건축물은 상경성을 비롯한 발해 수도에 확인된 궁궐 건축물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성의 규모, 내부 시설, 출토 유물 등을 근거로 발해 안변부安邊府의 행정치소(안변부성)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다만, 러시아 연구자들은 안변부성이라는 의견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굴내용은 『연해주 콕샤롭카–1 평지성 I』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2)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 자 N.A. 클류예프 외
Н.А. Клюев
N.A. Kluyev
연 도 2019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1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해주 콕샤롭카-1 성의 방어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주 제 어 연해주
중세 초기
콕샤롭카-1 성
방어시설
발해

이 논문은 2014년 연해주 콕샤롭카-1Кокшаровка-1(Koksharovka-1) 성 방어시설 절개조사 성과을 바탕으로 성의 축조연대와 운영추제를 파악하고 있다.

유적은 연해주 추구옙카Чугуевский(Chuguevka) 지구, 우수리강乌苏里江의 지류인 콕샤롭카강 좌편에 위치한다. 성은 평면형태는 불규칙하고 총 길이는 1,645m, 면적은 약 16ha이다. 성벽 높이는 4~6m, 기저부 폭은 20m에 달한다. 동남 모서리에 각루와 비슷한 구조물이 있다. 성벽 바깥에 고하상은 해자로 이용하였는데 최대 폭 10m, 깊이 1m이다. 서 · 북문은 'ㄱ'자형 옹성문이다. 동문은 통행문이며 성벽이 약 0.5m 돌출된 것으로 보아 목제 문루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람활동으로 인해 남벽을 파괴하여 통행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벽의 상부와 동문에 대한 정리조사를 통해 성벽 내외부를 돌로 보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2014년에 북편건물지군 등을 조사하여 대형 쪽구들 건물지 7동과 주변에 다수의 생산시설이 확인되었다. 성벽 구조, 축조방법, 성의 편년을 밝히기 위한 남벽 중간부 조사와 성벽-해자-성 내외부 토층 관계 파악을 위한 트렌치 조사(길이 31m, 깊이 4.5m)하였다.

성 외부의 아래층에 해당하는 선대문화층에서 쌍고래 쪽구들 시설을 갖는 유구 1기와 내부에서 윤제토기, 철기 등 유물이 출토되어 성벽 축조 전에 발해시대의 마을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물리탐사에서 성 외부에 건축물로 추정되는 반응이 확인된 점과도 일치하고 있다.

성벽 축조는 2단계로 증축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성벽의 붕괴을 막기 위해 성벽 안쪽 부분에서 생토층을 깊게 굴착하여 단을 형성한 후 자갈과 사질점토층을 약 2.5m 두께로 쌓아 올려 중심 토루를 마련하였다. 중심토루부터 흙더미를 내 · 외부에서 교차로 두껍게 성토한 후 돌로 쌓아 보강하였다. 1차 성벽 상부 암갈색 점토층에서 목재 시설이 확인되었다. 3군을 이루어져 각목은 중심은 수직으로 하고 가장자리는 비스듬하게 하여 중심 목재가 2배정도 길다. 목재시설은 최초 완성된 성벽의 정상부에 설치된 구조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단계 성벽은 폭이 넓고 높게 성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상부에는 점토를 혼입하여 석축하였다. 석축 잔존 높이는 약 0.9m, 폭은 1.8~1.9m이다. 외부면에서 주혈이 열을 지어 확인되어 목책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강돌이 다량 섞인 사질층으로 외부면을 마감하였는데 이는 환호를 파서 덥혔을 것이다. 성벽의 단면구

그 림 1. 콕샤롭카 1 성:
1 – 성 위치 표시한 연해주 지도;
2 – 성 지형도;
3 – 조사발굴 구역 표시한 성 평면도
2. 콕샤롭카 1 성 성벽과 해자의 단면도
3. 콕샤롭카 1 성 성벽 각목 출토지점 평면도
4. 콕샤롭카 1 성 성벽과 해자 출토 발해입방체
5. 콕샤롭카 1 성 성벽과 해자 출토 유물

해 제 M.A. 스토야킨

조나 층위로 보아 환호는 성벽의 중축 과정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제1단계 성벽 운용 당시에 콕샤롭카 강이 자연해자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출토된 토기는 성내 북편과 서남 대지에서 출토한 토기와 유사하다. 토기는 자연태토를 이용해 물레에서 점토띠를 붙거나 테쌓기를 하여 성형한 후 주로 환원소성하였다. 문양은 마연, 융기문, 침선문 등을 시문하였다. 그 밖에 소량의 끌형 철촉, 연미형 철촉, '일'자형 긴 방어용 침, 찰갑 판, 골각기 등이 있다. 제1차 성벽과 해자에 발해입방체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투공을 뚫고 표면에 집모양 문양이 시문되었다. 출토 유물로 보아 8 · 9~11세기로 발해와 후발해 시기로 편년된다. 방사선탄소연대 측정 결과 성벽 기초부는 7~8세기, 제2단계 성벽 층은 10~11세기로 측정되었다.

연해주 평지성은 판축기법을 적용하거나 돌을 쌓아 축조된 경우가 많으며, 콕샤롭카–1 성은 공법에서 차이가 보인다. 성벽은 중심토루부터 흙더미를 내 · 외부면에서 교차로 두껍게 쌓은 성토기법을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내면부에서 생토층을 깊게 파서 계단식으로 형성하여 미리 정면하는 독특한 공법을 사용하였다. 이 축조방법은 노보로시야–2Новороссия-2(Novorossiya-2) 성과 크라스노예 오제로Красное Озеро(Krasnoye Ozero) 성과 유사하며 출토 유물상 발해시기로 편년된다. 콕샤롭카–2 성과 스테클랴누하–1Стеклянуха-1(Steklyanukha-1) 성은 두껍게 흙을 쌓은 성토기법도 적용하였다. 후자는 발해 이후에 증축하여 치가 추가로 설치하였다. 증축한 과정은 연해주 남 · 중부의 평지성의 구조에서 확인된 바가 있다. 추쿠옙카 평지성의 중심토루는 토석혼축이며 2차례 걸쳐 증축하여 성벽이 2배로 확장되고 정상부에는 진흙을 혼입한 석축으로 확인되었다. 성 내부에는 발해시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상 언급한 성은 중국식 축성방식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여 토착민의 독특한 축조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주장한다.

Клюев Н.А., Якупов М.А. 2019.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й оборонительных сооружений городища Кокшаровка-1 в Приморье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2019. №1.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44-56.

| 해제 | 필자는 콕샤롭카–1 성 성벽을 직접 발굴한 조사자로서 한 · 러 공동발굴 조사를 통해 발해(후발해) 시기 성벽의 구조 방식, 건축재료를 밝히고 독특한 구조물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축성방법은 중국 전통의 판축기법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어 향후 연해주 성곽 비교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하겠다. 성벽 외부에 돌을 보강하는 축조방식은 연해주의 많은 발해 성 축성기술과 관련성이 높다. 구조적으로도 목재(각목) 시설은 러시아 학자들은 제1단계 성벽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한국 연구자들은 제2단계 성벽 축조 과정에서 지지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 각목 시설의 성격, 기능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연해주 성곽에서 이러한 구조물이 추가로 발견되어 명확한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학자들은 목책시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아 이 부분에 포함한 성벽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자세한 발굴 내용은 『연해주 콕샤롭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15)를 참고할 수 있다.

말갈 성

저 자 Ya.E. 피스카료바
Я.Е. Пискарева
Ya.E. Piskareva

연 도 2018
간행물명 『극동의 중세 제국 도시』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연해주
성곽
말갈 문화
형식분류
발해

목 차
1. 말갈 성 연구사
2. 축성 전통의 기원
3. 성 분류
1) 1형: 성벽이 연결되지 않은 소형 성
2) 2형: 성벽이 연결되는 소형 성
3) 3형: 성벽이 연결되지 않은 중형 성
4) 4형: 성벽이 연결되는 중형 성
5) 5형: 성벽이 연결되지 않은 대형 성
4. 맺음말

이 논문은 말갈 성의 분포현황과 형식학적 분류를 통해 말갈 성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중국문헌에는 말갈 성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사회 발전 단계로 볼 때 국가단계에 해당하여 초기 도시가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중국내 말갈 성 조사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도 제시하고 있다.

말갈 문화는 대표적으로 수제토기(관, 호형 등)의 구연 아래에 돌대가 시문되어 있고 철기 등 유물도 포함된다. 연해주 남부에서 말갈 유적 62개가 확인되었다. 말갈 성은 연해주 남부, 서남부, 중부에 분포하며 V.I. 볼딘В.И. Болдин(V.I. Boldin) 등에 의해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시넬니코보-1Синельниково-1(Sinelnikovo-1) 산성 외 대부분의 유적은 시굴조사만 진행되어 성의 구조, 성격 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연해주 동북과 북부 지역에서도 말갈 성과 구조적으로 비슷한 성이 발견되지만 편년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중국 칠성하七星河 지역에서도 다수의 성곽이 분포하지만 편년에 있어 한 · 위韓魏 혹은 수 · 당隋唐으로 연대 폭이 크고 유물 역시 지표 수집된 점에서 말갈 성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축성법과 구조적 특징은 말갈 성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된다.

말갈 성 기원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초기철기시대의 폴체Польце(Poltse)와 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 문화에서 확인된 언덕에 위치하고 오랜 기간에 주변 분지를 감시 역할로 운영된 소형 토성이 관련되었을 것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말갈과 교류하였을 것이지만 폴체시기 성은 2 · 3중 토루, 복잡한 구조 등 간단한 구조를 갖는 특징에서는 말갈 성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러시아 학계에서는 규모의 차이에 따라 '성'과 '보루'라는 용어로 성을 분류한다. 모든 말갈 성은 지형 조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지형'에 의한 분류는 크게 의미가 없으며, 성의 규모와 축성방법 등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구분으로는 축조재료(흙 혹은 돌)에 따라 분류된다.

말갈 성은 5개 형식으로 분류한다.

1형: 단절형 소형 성으로 일부 구간에만 성벽, 해자만 축조된 것으로 2개 식으로 나뉜다.

1식은 토성으로 라조Лазо(Lazo) 지구의 모자예프 클류치Можаев Ключ(Mozhaev Kluch) 성은 평면상 삼각형이며 면적 1,700㎡이다. 성벽(길이 36m)과 해자는 접근이 쉬운 곳에 축조하였다. 옥탸브리스키Октябрьский(Oktyabrskiy) 지구의 탈롭카Таловское(Talovka) 성은 평면형태는

그 림 2.1. 연해주 지도의 말갈과 발해성 분포도
2.2. 연해주 말갈 토기:
1, 2, 9 – 라콥카–10 주거유적,
3, 4 –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
5 – 바라바시 주거유적,
6–8 – 코르돈 드로뱌니크 주거유적,
10 – 시넬니코보–1 성
2.3. 연해주 말갈 유적 출토 석기, 철기, 토기:
3, 4, 6, 15 – 미하일롭카–2 주거유적,
13 – 미하일롭카–4 주거유적,
8–10, 16 –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
12 – 라콥카–10 주거유적,
5, 7, 14, 17 – 루자놉카 고분군
2.4. 연해주 말갈 성:
1 – 안드레아노프 클류치 성,
2 – 콘스탄티놉카 성,
3 – 모자예프 클류치 성,
4 – 탈롭카 성,
5 – 보리솝카 성
2.5. 연해주 말갈 성:
1 – 노보셀리셰 성,
2 – 바블롭카–2 · 3 성,
3 – 크리니츠노예 성,
4 – 페트롭카 성

표 1. 연해주 말갈 성

해 제 M.A. 스토야킨

불규칙하며 토루 및 해자로 방어기능을 한다. 보리솝카Борисовка(Borisovka) 성에서 토루 3개가 있는데 올가문화, 말갈문화의 8~12세기에 각각 해당하다. 말갈 성의 면적은 약 2,500㎡이며 토루와 2개의 해자가 설치되었다. 파르티잔스크Партизанский(Partizansk)지구의 안드레아노프 클류치Андреанов Ключ(Andreanov Kluch) 성은 면적은 1,200㎡이며, 2중 토루와 2중 해자로 보호하고 있다.

2식은 석성이다. 테르네이Терней(Terney) 지구의 툐블리 미스Теплый Мыс(Teplyy Mys) 성은 면적이 3,000㎡이며, 바다로 돌출된 곳에 위치하여 돌 사이를 흙으로 채운 3중 석벽과 2중 해자가 설치되었다.

2형: 연속형(성벽이 연결되는 축성방법) 소형 성으로 콘스탄티놉카–4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4(Konstantinovka-4) 성은 수이푼绥芬河 우안에 위치하여 면적은 580㎡이다. 추구옙카Чугуевский(Chuguevka) 지구의 파블롭카–2 · 3Павловка-2·3(Pavlovka-2·3) 성은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평면상 각각 방형(1,600㎡)과 타원형(1,400㎡)을 갖고 있다.

3형: 단절형 중형 성으로 토성과 석성 2개 식으로 나뉜다.

1식은 토성으로 노보셀리셰Новоселище(Novoselische) 성은 한카호 주변에 위치하여 면적은 11,000㎡이다. 성은 2개의 토루와 해자로 구성된다. 토루 사이에 말각방형 주거 수혈(규모 18~20㎡) 35기가 일정한 순서로 배치되었다. 1996~1998년에 시넬니코보–1성 발굴 조사를 통해 말갈 문화가 발해 문화로 변화되어 가는 양상이 최초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말갈은 바깥에 큰 돌을 보강한 토성을 축조하였고 성벽 위에 목책을 설치하였다. 발해시기에 큰 석재 블록을 이용해 개축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성 면적은 18,000㎡이다. 어긋문의 너비는 2m이며 서남부에 위치한다. 2015~2016년에 출토 유물 성격상으로 보아 유적은 발해 확장 직전에 짧은 시간에 운용하다가 발해 소유한 후에도 짧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다. 수혈이 서로 밀접하여 배치한 것으로 보아 유적에서 수혈주거지 1,000기 이상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쟁 시 주변 주민의 임시 거주지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2식은 석성이며 확실하지는 않으나 모나스트리카Монастырка(Monastyrka) 우안, 언덕에 위치한 바시콥카Васьковское(Vaskovskoye) 성이 해당한다. 면적은 12,600㎡이며, 석벽은 평면상 호형이며 길이는 160m이다.

4형: 연속형 중형 성으로는 한카호 주변에 위치한 크리니츠노예Кричичное(Krinichnoye) 성이 해당한다. 토루와 양쪽 해자로 보호되며, 문지시설이 보이지 않는다. 면적은 노보셀리셰 성보다 2배가량 큰 것으로 거주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적에서 수혈 100기가 확인되었다.

5형: 단절형 대형 성이며 페트롭카Петровское(Petrovka) 성이 속한다. 연해주 남부, 바닷가 주변에 위치하며, 면적은 70,000㎡이다. 이중 토루로 구성된 내성의 존재, 성벽 높이가 2m정도 등 다른 성과 달리 방어체계가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내부에 수혈 30기가 발견되었다.

말갈 성은 구조상으로 복잡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페트롭카 성과 연해주

동북의 석성은 예외적이다. 성은 운용시기가 비교적 길어 보이다.

이와 달리 수이푼 강가에 위치한 성은 소형의 보루에 해당하며 이 지역의 발해 확장과정에서 발생한 전쟁과 관련되어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조사가 부족하여 말갈 성의 편년 설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토기의 특징으로 볼때 시넬니코보–1 산성과 크리니츠노예 성은 발해 확장 직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해주 말갈 성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성과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Пискарёва Я.Е. 2018. Городища Мохэ // Города средневековых импер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 ИВЛ РАН; Ин-т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С. 52-67.

| 해제 | 이 논문은 극동지역 중세 성의 시발점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연해주 지역의 말갈 성을 현황표를 작성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해와 말갈 관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연구 대상을 연해주에 국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2015~2016년에 한 · 러 공동 조사를 통해 시넬니코보–1 산성 성벽은 발해의 이른 시기에 벌써 석축 뒤편을 흙으로 뒤채움하여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 러시아 학계의 입장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저 자 Ya.E. 피스카료바 외
Я.Е. Пискарева
Ya.E. Piskareva
연 도 2019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1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해주 한카 지구의 노보셀리셰 성에 대한 종합조사

주 제 어 중세
한카 지역
말갈 성
고환경
고대 지리학
사진 측량법

목 차
1. 머리말
2. 유적의 측량조사와 항공 사진 측량
3. 성벽과 해자 조사
4. 1호 주거지 조사
5. 고환경 조사
6. 결과 고찰
7. 맺음말

이 논문은 노보셀리셰Новоселище(Novoselische) 성에 대한 고고학, 식물고고학, 고환경 등 학제간 조사 내용이다.

유적은 노보셀리셰 마을에서 북쪽으로 1.5km에 떨어진 언덕 위에 위치한다. 1978년에 말갈시기로 알려졌으며 2006년에 평면도를 작성하였다. 말갈 유적은 한카호 지역에 많이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미흡하였다. 이에 말갈문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2019년에 Ya.E. 피스카료바 주도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유적에서 3개의 사용단계가 확인된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1단계는 신석기 자이사놉카Зайсановская(Zaisanovka) 문화 한카 그룹에 해당한다. 2단계로는 고금속기시대 혹은 청동기시대에서 해당하고 유적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생각한다. 3단계는 중세 초기(말갈 시기)로 유적 면적은 감소하고 성곽이 최초로 축조되었다. 주거지내 출토 목탄 시료의 방사선탄소연대측정 결과 6세기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확인된 성의 규모는 총 길이 340m, 2개의 성벽, 해자가 확인되었다. 내부에 수혈 주거지는 41기가 확인되었으나 2018년에 측량조사와 항공사진측량 조사결과 외부에 추가로 30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총 71기가 분포한다. 수혈은 평면상 원형 혹은 타원형이며 3개 군을 이룬다. 또한 항공사진측량법을 통해 성벽과 유사한 형태의 동성벽이 확인되어 성의 전체 평면형태는 편자 형태를 띠고 있다. 성과 주거지의 범위를 포함한 면적은 2.5ha이다.

성과 해자에 대해 절개조사에서 성벽은 구지표면을 표토층을 정지한 후에 해자를 판 흙을 이용하여 성벽을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포자 · 화분 분석을 통해 재입증된다. 이러한 방법은 지기톱카Джигитовка(Zhigitovka) 성을 비롯한 중세 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성벽은 높이가 0.5m이고 목탄이 남아 있는 주혈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성벽 위에 목책이 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구조는 초기철기시대 축조된 글라좁카Глазовка(Glazovka) 성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있다.

성 내부에서 발굴조사한 주거지 1기는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규모 4m×4m,수혈 깊이 0.5m이다. 각 모서리에 주혈이 배치되어 있고 무너진 목판 등을 통해 구조는 4개의 기둥과 대들보를 갖는 지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에 노지가 있고 출입문이 없는 구조는 연해주 서남부지역 중세 초기의 주거지와 비슷하다. 주거지 면적은 16㎡로 크지 않은데 한카 지역의 노보셀리셰-1, 쿠르쿠니하Куркунихa(Kurkunikha) 주거유적과 유사하다. 주거지에 유물이 많지 않아 사용시기가 짧거나

그 림 1. 한카 · 호롤Хороль(Horol) 지구 한카호 주변 말갈 유적
2. 서북쪽 방향으로 본 노보셀리셰 성 전경 (드론 사진, 100m 고도)
3. 노보셀리셰 성 평면도 (A.L. 이블리예프, S.D. 프로코페츠 작성)
4. 노보셀리셰 성 정상영상 (S.D. 프로코페츠 작성)
5. 서북쪽으로 본 A–1/A–10선을 따른 노보셀리셰 성 성벽과 해자 절개조사
6. 노보셀리셰 성 성벽과 해자 출토 토기
7. 서북쪽으로 본 3제인공층 제거 후 주거지 전경
8. 4제인공층 제거 후 주거지 평면도
9. 수혈 조사와 최종 정리 조사 후 주거지 평면도
10. 주거지 내부 출토 토기: 1–9) 신석기 토기 편; 10) 고금속기시대 토기 구연부; 11–12) 고금속기시대 토제품
11. 주거지 내부 출토 토기: 1–3) 중세 초기(말갈 문화) 토기 편; 4) 주거지 어깨선에 출토 토기
12. 주거지 내부 출토 석기

표 1. 2017·2018년 노보셀리셰 성 식물유체의 종자 분포량

그 래 프 1. 2017·2018년 노보셀리셰 성에서 확인된 식물유체의 종자별 비율

해 제 M.A. 스토야킨

평상시 방치된 후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주거지에서는 여러 시기의 토기, 석기가 출토되었다. 신석기시대 토기는 동체부에 지그재그 문양이 시문된다. 다른 토기는 무문이며 거친 태토 성형의 단경호로 고금속기시대 토기와 유사하다. 말갈토기는 각목 문양이 시문된 전형적인 이중구연토기, 돌대가 없는 토기가 확인된다. 주거지 내부에서 선사와 중세 토기가 출토되는 반면 주거지 바깥에서는 선사시대 토기만 출토된 양상은 주목된다. 석기는 양면에 사용흔이 다른데 이는 먼저 갈판으로 사용하다가 연마용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에서 부유법을 이용해 확인한 탄화 식물은 총 81개이다. 식물유체 중 재배종이 절반이고 그 다음으로 초본, 자생종이다. 재배종의 대부분은 기장이고 조, 쌀보리/밀은 수량이 적다. 유사한 재배종으로는 연해주 중세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다. 초본과 자생 중 명아주가 많으나 화분포자학 연구에서 이 성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을 미루어 명아주의 씨앗을 의도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야생 식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특이하다.

유적의 고대 환경을 복원하기 위하여 성벽과 해자에서 다수의 시료를 획득하여 포자 · 화분 분석하였다. 북반부는 7세기에 중세 온난기가 시작하였는데 시료분석에서는 이 단계에 해당되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장으로 추정된 유일한 화분 외에 모든 시료에서 재배종과 동반한 초본의 화분이 없는 것을 보아 밭 경작은 유적 주변이 아닌 먼 분지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마大麻의 비율이 높은 점은 주거지 주변에 경작되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대마는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발해성에서도 발견 바가 있다. 또한 쐐기풀과 같은 잡초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시 주민들의 활발한 활동의 증거이다.

결국,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정보를 확보하여 운용 단계, 방어시설과 주거지의 특징을 밝혔다. 또한 고환경분석과 고대 식물 연구자들의 토양 분석으로 통해 고환경을 복원하고 당시 성 거주민들은 기장 위주의 농사가 이루어졌음도 확인되었다.

Пискарева Я.Е., Асташенкова Е.В., Прокопец С.Д., Сергушева Е.А., Ивлиев А.Л., Дорофеева Н.А., Лящевская М.А., Базарова В.Б., Пшеничникова Н.Ф. 2019. Комплекс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Новоселищенском городище в Ханкайском районе Приморья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2019 №1.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88-114.

| 해제 |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축성 특징은 연해주와 아무르 지역의 말갈 성과 유사하다. 또한 러시아 고고학계에서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경관, 평면형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연해주의 말갈 성 가운데에서 최초로 시도된 학제간 연구를 통해 당시의 농작물 재배 방식을 비롯하여 말갈 성내 주민의 환경, 생계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저 자 E.I. 겔만 외
Е.И. Гельман
E.I. Gelman

연 도 2014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1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크라스키노 성 부근의 발해 고분군 조사

주 제 어 크라스키노성
발해
고분
지구물리탐사

지원사업 극동 중세 제국의 도시
Города средневековых импер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РНФ№ 14-18-01165)

목 차
1. 서론
2. 고고학적 조사
3. 고분구역 내 지구물리학적 조사
4. 토양 자화율과 하층토
5. 결론
6. 참고문헌
7. 영문초록

이 논문은 새롭게 조사된 발해고분에 대한 소개와 학제간 연구의 일환으로서 지표상 그 징후를 알 수 없는 고분의 탐지하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은 30년 이상 발굴되었고, 러시아 연해주 지역 발해유적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 · 중 · 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해당 유적을 염주鹽州로 보고 있고, 이는 아마도 성 옆을 흐르는 '연추하鹽州河'라는 강의 명칭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성곽의 남쪽 즉 강의 하구 부분에는 크라스키노 고분군이라는 유적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13세기 여진의 고분으로 판명이 되었다. 한편, 2003년에는 성의 서쪽 약 300m지점에서 Yu.G. 니키틴Ю.Г. Никитин(Yu.G. Nikitin)에 의해서 발해 고분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고분은 석축묘였으며, 현재의 지표아래 있어서 육안으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비록 우연에 의한 결과지만, 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발해고분군이다.

이후 필자는 고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지구물리탐사를 하였고, 조사과정에서 검증을 요하는 데이터가 확보되었다. 그리고 2011년, 이전에 확보된 지구물리탐사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탐침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3년에 조사한 것과 비슷한 유형의 고분 1기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탐침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분의 발굴이 이루어졌다. 고분은 평면상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북-남이다. 2003년 발굴된 고분 서쪽 지근거리에 위치한다. 남-북 길이 3.9~4.1(m), 동-서 폭은 3.2~3.5(m)의 규모이다. 석축벽의 폭은 0.12~0.2(m), 높이는 0.26~0.43(m)이고, 현재의 지표에서 약 0.3~0.4(m) 아래에 석축 상면이 위치한다. 이와 같은 유구의 제원은 발굴조사를 통해 확보된 것으로 탐침조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유구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탐침의 개수를 하여 조사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고분 벽은 다양한 크기의 돌을 이용하여 쌓았고, 고분의 남쪽에서 가장 큰 돌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입구가 남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벽은 가장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며, 서벽과 남벽은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데, 발해시기에 이미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축조에 이용된 석재의 경우, 크라스키노성의 축조와 수축에 이용된 것들과 같은 석재이다.

그 림 1. 크라스키노성 평면도
2. 2호분 평면도 (크라스키노성 근처 발해고분)
3. 석축고분 발굴구역 내 지구물리 탐사archaeogeophysics결과
4. 고분구역 각 층별 자화율 도면

해 제 박규진

발굴과정에서 토기편 6점, 기와편 2점, 놀이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판형 석제품 등이 확인되었다. 인골이나 기타 뼈와 관련된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고분의 문화층은 거의 대부분 남아있지 않았는데, 연속된 강의 범람과 지하수 등의 영향으로 인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고분의 경우 형태나 크기에 있어 전형적인 발해고분이라 할 수 있고, 2003년 발굴된 고분과 보존상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한 형태이다. 또한 중국에 위치한 홍준어장고분군虹鱒魚場古墳群을 비롯한 발해 고분에서도 위와 같은 유형의 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석축묘 2호분은 기본적으로 크라스키노 고분군으로 명명된 여진 고분군과는 다른 것으로 형태적인 특징 등을 볼 때 연해주 지역에서는 체르냐티노-5Черняпино-5(Chernyatino-5) 고분군과 비슷한 형식이다.

한편 해당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중세전기 고분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 2005년에 극소자성 측정Micro-magnetics이 발견된 고분들 근처 2,000㎡ 면적에서 실시되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대안으로 토양 상면의 자화율과 하층토양의 각 층별 자화율 측정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2호분과 관련된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다.

우선 극소자성 측정과 전기 프로파일링 결과, 조사 대상지역 중앙의 경우는 북쪽, 남쪽과 다르게 양성의 자기가 측정이 되었다. 그리고 참조대상인 1호분은 기하학적 모양으로 음성의 자기가 측정이 되었는데 이는 주변지역과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형태이며, 위치 역시 기존에 발굴되었던 장소에 해당된다.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활동은 문화층 내에서 자성을 지닌 광물의 농도변화를 일으키는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 원인에 의한 광물의 변화 역시 토양에 흔적으로 남게 된다. 광물은 각기 다른 자기감수성Magnetic Susceptibility을 지니는데, 특정한 기기를 통해 이를 측정하면 토양에 대한 자화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층 속 석재 등과 같은 인위적인 포함물의 경우 주변과는 다른 자기 감수성을 지니게 되고, 이에 따라 주변지역과는 다른 자화율이 측정이 된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2호 고분이 잔존하는 곳 54㎡를 대상으로 자화율 측정이 실시되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자화율은 서로 다른 측정치에 따라 명확한 경계를 이루며 구분이 되고 있다. 특히 고분 벽과 같은 석축구조의 경우 주변 토양의 자화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발굴지역의 토양은 범람에 의한 퇴적물이 축적에 의해 형성된 무른 토양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데이터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은 고고학적인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보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유구를 찾기 위한 고고물리학적 방법과 탐침봉 작업의 효과는 실제 발굴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과학적 방법은 발해 고분군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지표상 별다른 특징이 부재하고, 석축 구조만 보이는 경우에 기존의 고고학적 방법과는 달리 고분군의 경계, 개별 유구의 위치 및 깊이, 층위 등을 알 수 있는 대안적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물론 고고물리학적 조사와 탐침 작업이 고고학적 발굴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위에서 실행된 작업 중 자화율 측정의 경우 표토에서 고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 그 효과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자화율 측정으로 얻어진 토양의 퇴적 시퀀스를 통해서, 현재 토양 상부의 경우 홍수에 의한 조건 하에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부유물의 유입방향으로 당시 수로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화율 측정은 고분을 확인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조사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어주고 또 신뢰성을 높여 줄 것으로 생각된다.

Гельман Е.И., Асташенкова Е.В., Пискарева Я.Е., Бессонова Е.А., Залищак В.Б., Зверев С.А. 2014. Исследования бохайской группы погребений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ып. 1.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46-58.

| 해제 | 이 논문은 크라스키노성 근처에서 새롭게 발견된 고분의 발굴내용과, 고분탐사를 위한 지구물리탐사의 효용성에 대한 글이다. 필자는 발굴현장에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고분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 크라스키노성 내부에서도 같은 탐사방법을 실제 발굴에 반영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새롭게 확인된 2호분은 1호분과 함께 연해주에서 두 번째로 확인된 발해 석축묘군으로, 고분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염주로 비정되는 크라스키노성의 위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유형의 발해고분은 더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추가적인 발견과 발굴을 기대해본다.

저 자 Yu.G. 니키틴 외
Ю.Г. Никитин
Yu.G. Nikitin
연 도 2002
간행물명 『극동의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수이푼강 유역의 체르냐티노-5 중세 전기 고분군에 대한 일부 조사 결과

주 제 어 체르냐티노
고분
발해
말갈
2차장

목 차
1. 고분의 구조
2. 장례방식
3. 고분의 편년
4. 연대, 고분의 민족적, 문화적 소속

이 논문은 수이푼강綏芬河 유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발해고분군의 조사결과와 그 특징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연해주에서 발해유적이 조사된 지난 50년 동안, 여러 종류의 유적이 확인되었고, 또 발해고분 조사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로시노-4Рощино-4(Roshchino-4) 고분군, 모나스트리카-3Монастырка-3(Monastyrka-3) 고분군 등이 발굴되었으나, 이는 발해와 관련은 있지만, 확실히 발해고분군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성 주변에서 확인된 봉분들은 여진시기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 속, 1997년에 체르냐티노-5Чернятино-5(Chernyatino-5)고분군이 확인되었고,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적은 체르냐티노 마을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3.3km 떨어진 지점, 수이푼강 우안 대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규모는 길이 450m, 폭 35~65(m), 면적 약 3만㎡로 추정된다. 유적은 대지 절단면에 노출된 추모유구를 통해서 처음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총 1기의 추모유구와 24기의 고분이 발굴되었다.

필자는 조사된 고분의 구조적 특징을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후, 그 양상을 파악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단순 토광묘로 다시 3개의 세부타입으로 나누어진다. 1타입은 수직으로 수혈을 판 토광묘이다. 형태는 말각장방형이고, 내부에서 탄화된 목제틀이나 목관의 흔적과 토기편과 완형토기, 불탄 뼈조각이 확인된다. 고분 대부분의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다. 2타입은 토광묘 바닥에 작은 자갈을 깔은 것으로, 자갈 위에서 탄화된 목제틀, 불탄 뼈조각 등이 확인된다. 3타입은 토광 바닥에 부분적으로 자갈을 깔고, 묘광 주위에 돌을 쌓은 형태로 해당유형의 고분에서는 불 탄 뼈와 은제 귀걸이, 환옥, 수제토기 등이 확인된다.

두 번째 그룹은 석축묘로 10호분과 13호분이 해당된다. 두 개의 고분은 서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동일방식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입구의 구조에 따라 2개의 세부타입으로 구분된다. 1타입은 10호분으로 무덤 바닥을 살짝 판 후 납작한 돌 1열을 3단으로 쌓아 만들었다. 남동쪽에 위치한 입구는 규모가 큰 판석을 놓아 막았다. 내부에서 불에 탄 목관, 철제 못, 토기편, 수정제 목걸이알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목관 근처에서 뚜껑돌로 사용된 판석들도 발견되었다. 2타입은 13호분으로 많은 돌을 이용하여 만들었고, 형태는 부정형이다. 판석을 이용하여 크게 3열, 6단으로 축조했고, 남동쪽에 입구와 길지 않은 연도가 있다. 입구는

그 림 1. 유적위치도, 원경, 각 구역별 유구배치도
2. 1~3호분 평면도, 출토유물
3. 5~8호분 평면도, 출토유물
4. 9, 10, 13호분 평면도, 출토유물

표 1. 체르냐티노-5고분군 편년표
2. 체르냐티노-5고분군 각 유구 제원표

해 제 박규진

큰 판석을 놓아 막았다. 그러나 고분은 도굴로 인해서 입구 내외부의 돌들이 원위치에서 이동된 상태이다. 내부에서는 불에 탄 목관, 불에 심하게 타고 무질서한 상태로 놓인 인골, 윤제토기, 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목관과 벽 사이에서 규모가 큰 판석들이 확인되었는데, 아마도 고분 뚜껑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세 번째 그룹은 지표 위에 바로 고분을 만든 형태로, 잔존하는 양상에 따라서 3개의 세부타입으로 구분된다. 1타입은 지표 바로 위에 목관을 놓은 형태로 조사과정에서 목관의 흔적을 통해 분간이 가능하다. 내부에서는 불에 탄 뼈조각과 토기편이 작은 군집을 이룬 상태로 확인되었다. 2타입은 고분 위에 낮은 봉토가 있는 형태로, 지표를 둥근 형태로 살짝 굴착 후, 주위에 부분적으로 돌을 놓아서 고분임을 표시 했다. 내부에서 불에 타고 부식이 심한 인골과 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3타입은 독특한 형태로, 9호분이 해당된다. 잔존물로 볼 때 고분은 목제원통형으로 바닥과 뚜껑이 있고 지름 약 1m, 깊이는 0.5m정도이다. 내부에서 파손된 토기 8개체분과 청동제 비녀, 석제 장신구 등이 확인되었다. 또 토기 아래에서 불에 탄 여성인골, 목제 구조물, 철제 못 등이 발견되었다. 확인된 모든 것들에서 고온으로 불에 탄 흔적이 보인다.

발굴된 고분들에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장례방식이 확인되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2차장을 행했고, 단독묘라는 것이다. 물론 2기의 예외도 있는데 이 경우는 고분 내부에서 아무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고분들 내부에서는 불의 흔적과 불에 탄 인골이 확인되지만, 인골의 발견 상태에 따라서 여러 방식의 2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풍장을 통해 인골을 수습 후, 어떤 장소에서 불에 태운 뒤, 부장품과 함께 고분 내부로 던지고 흙을 덮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목제틀 안에 인골을 안치 후, 위를 나무껍질이나 판자로 가리고, 그 위에 다시 돌을 덮은 다음 주변에 장작을 두른 뒤 불을 지르는 방법이다. 다 타서 불이 꺼지면 흙을 뿌려 마무리한다. 세 번째 방법은 석축묘에서만 확인되는데, 인골을 석축 내부 목관에 안치 후, 주위에 장작이나 나뭇가지를 두르고, 규모가 큰 뚜껑돌로 위를 봉한 다음, 입구 쪽에서 불을 놓은 뒤 입구를 막는 방법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석축묘에서 확인된 부장품은 관과 벽 사이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해당 고분군의 주된 장례방식은 2차장의 화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층위, 부장품, 고분 형태 등의 정보를 통해서 각 고분의 선후관계를 알 수 있는데, 가장 이른 시기부터 가장 늦은 시기까지 총 7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가장 이른 시기로 1, 4호분, 추모유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1기의 경우 430~630A.D., 424~592A.D. 두 개의 절대연대 측정치가 확보되었다. 2기에는 6, 7, 12, 17호분이 속하며, 18호분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6호분은 661~618A.D., 7호분은 681~716A.D.의 절대연대가 확보되었다. 3기에는 5, 8호분이 해당된다. 4기에는 2, 3호분이 해당되는데, 이 고분들은 고분수혈 주위에 돌을 두른 형태이다. 5기에는 석축묘인 10, 13호분이 속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고분은 중국동북지역 발해고분군에서 자주 확인되며, 발해 중기나 후기 관료의 무덤으

로 추정된다. 6기에는 9, 15, 19호가 속하며, 11호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7기의 경우 가장 늦은 시기로, 21~24호분이 해당된다.

1기에서 알려진 절대연대는 1호분 출토 목탄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1호분 출토 유물의 경우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 연해주 폴체Польце(Poltse), 말갈 등 세 문화의 요소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또 추모유구에서 확인된 말갈 토기 역시 위와 동시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이는 세 문화의 주민이 발해시기 이전까지 이 지역에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세 문화의 공생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돌을 바닥에 깔은 고분이나 석축묘 등은 수이푼강 유역이 발해로 편입된 이후 등장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이 지역이 언제 발해로 편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분군뿐만 아니라 주변의 발해유적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Никитин Ю.Г., Гельман Е.И. 2002. Некоторые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могильника Чернятино-5 в бассейне р. Суйфун //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С. 195-215

| 해제 | 해당 논문은 체르냐티노–5고분군 초기 발굴조사 보고이다. 이 유적은 연해주에서 대표적인 발해고분군으로, 최초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발굴된 고분의 수량 역시 가장 많으며, 또 대학 간 한–러 공동발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간략하지만 고분의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였고, 또 각 유형에서 보이는 장례방식, 유구의 선후관계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의문점을 던져 주었는데, 이 후 수년간 지속된 발굴과 연구를 통해서 본 논문에 등장하는 불확실성이나 의문점 등은 일정부분 해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내용 일부는 현재,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해 달라진 것도 있다. 유적과 관련해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규명해야할 문제가 많은 편인데,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저 자 Yu.G. 니키틴
Ю.Г. Никитин
Yu.G. Nikitin
연 도 2002
간행물명 『동아시아의 전통문화』 4호
발 행 처 국립 아무르대학교

글라즈콥카 만에 위치한 중세 고분군

주 제 어 발해
고분
토광묘
화장

목 차
1. 1호 고분
2. 2호 고분
3. 3호 고분
4. 4호 고분

고분군은 연해주 라조Лазо(Lazo) 지구 글라즈콥카Глазковка(Glazkovka)만 남서부에 위치한다. 유적은 사주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해안가로부터 약 60m 떨어져 있다. 1990년 실험시설부지 공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유적의 북쪽 부분은 심하게 파괴되어 발해시기에 속하는 수제와 윤제토기가 수습되었다. 총 112㎡의 면적에서 2기의 고분, 부분적으로 파괴된 고분 2기가 조사되었다.

1호 고분 :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바닥의 크기는 2.2×1.2m, 장축방향은 동–서(87°)이다. 발굴과정에서 불에 탄 나무틀이 확인되었고, 주변에서 이를 연결하는 철제 꺽쇠가 발견되었다. 또 낮은 속도의 물레보완을 거친 수제토기편, 회색의 윤제토기편, 철제 방울, 철제 원추형 걸이장식 등도 확인되었다. 무덤바닥에서는 청동제 팔찌, 청동제 비녀, 청동제 귀걸이 등이 발견되었다,

2호 고분 :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고분 상면에 바다자갈이 부분적으로 있고, 윤제토기편과 작은 목탄이 확인된다. 상면의 크기는 3.6×2m, 깊이 0.58m 지점의 크기는 2.8×1.3m, 장축방향은 동–서이다. 발굴과정에서 불에 탄 나무구조물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바닥까지 이어지고 귀틀형식으로 만들어졌다. 구조물 서쪽 외벽에 진흙을 발랐고, 구조물을 따라 철제꺽쇠가 확인된다. 고분 남쪽부분에서 청동제 허리띠장식, 북서 모서리 부근에서는 철제 재갈도 확인되었다. 남동 모서리 부근에서는 나무구조물의 뚜껑으로 사용된 불에 탄 판자와 회색 윤제토기, 철제 화살촉 등이 발견되었다. 이외에 무덤바닥에서 철제 화살촉, 청동제 비녀 수제 토기 등이 확인되었고, 고분 시설물 흔적으로 보이는 기둥구멍이 고분 주위를 따라서 발견되었다.

3호 고분 :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으나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고분 상면에서 바다자갈과 작은 목탄 군집이 확인된다. 상면의 크기는 2.1×2m, 깊이 0.53m 지점의 크기는 1.6×1.3m, 장축방향은 동–서이다. 직접적인 흔적은 아니지만, 목재 구조물의 흔적, 즉 목탄, 철제 꺽쇠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철제, 청동제 허리띠 장식, 철제 방울과 칼, 적갈색 윤제토기, 낮은 온도에서 소성된 윤제토기 등이 있다.

4호 고분 : 형태는 파괴로 인해 부정형이며, 고분 상면에서 돌과 목탄 군집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크기는 깊이 0.5m 지점에서 2×2.2m, 장축방향은 동–서(108°)에 가깝다. 발굴 과정에서 목재 구조물의 흔적인 목탄, 철제 꺽쇠 등이 확인되었다. 이외에 출토유물로는 옥수제 목걸이알, 유리제 목걸이알, 수제토기 등이 있다.

출토유물로 볼 때 유적은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 즉 발해 후반으로 편년 가능하

그 림 1.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2. 1호 고분 1, 5 층 평면도
3. 고분군 출토 토기들
4. 2호 고분 5, 6층 평면도
5. 2호 고분 출토 철제 화살촉
6. 고분군 출토 청동제품 및 구슬 등

해 제 박규진

다. 또 연해주 동부에서 발해의 영향이 강하게 확인되는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발굴결과를 통해 본 고분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고분에서 나무관이나 나무틀을 사용했고 화장의 장례방식이다.
2. 모든 고분에서 인골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모든 고분은 특별히 넓게 굴착한 구덩이 안에 있고 내부에 매장시설을 설치한 흔적이 있다.
4. 모든 고분에서 바다 자갈을 활발하게 사용하였다.

Никитин Ю.Г. 2002. Средневековый могильник в бухте Глазковка //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Вып. 4. Благовещенск: Изд-во АмГУ. С. 179-188.

| 해제 | 이 논문은 토광묘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비록 그 수량이 적고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지만, 관련 자료가 적은 이 지역에서는 매우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적이 위치한 곳은 연해주 동부 해안가로, 지금까지 확인된 발해와 관련 있는 고분군이 주로 연해주 남서부에 위치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위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이와 같은 유적이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해준다. 또 출토유물을 봤을 때 이른바 발해계 유물과 말갈계 유물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저 자 E.Yu. 니키틴 외
Е.Ю. Никитин
E.Yu. Nikitin
연 도 2012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2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체르냐티노-5 고분군 매장시설 구조의 특징

주 제 어 체르냐티노
발해
말갈
고분
석축묘
토광묘

목 차
1. 전축묘
2. 석축묘
3. 토광묘

이 논문은 연해주에서 발굴된 체르냐티노-5Черняпино-5(Chernyatino-5) 고분군 내 각 고분들을 구조적인 특징을 통해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징, 등장배경 등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고분연구는 발해고고학에 있어 흥미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정혜공주묘貞惠公主墓 발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유적이 조사되었고, 이 덕분에 고분의 구조적 특징 및 부장품 등을 통한 유형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연해주에서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체르냐티노-5고분군을 발굴하였는데, 이 유적은 발해 솔빈부率賓府지역에 위치하며 7세기 중엽에서 9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중국 고고학자 정영진은 발해고분을 크게 전축(Ⅰ유형), 석축(Ⅱ유형), 토광(Ⅲ유형) 3가지로 구분하였다. 필자는 해당유적에서 발굴된 고분을 위의 기준을 이용하여 분류하였고, 새로운 세부형식을 추가하였다. 한편 해당유적의 경우에서는 석축묘와 토광묘만 확인이 된다.

Ⅰ유형 : 전축묘 : 이 유형은 발해 후기에 존재하였고, 상위계층에서 사용되었다. 전통적인 고구려 묘제와는 차이가 있고 당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지하식으로 고분 위에는 탑이 있는 경우도 있다. 발해 후기에 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해주 지역에 경우 아직 확인된 사례가 없지만, 염주鹽州로 추정되는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 주변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Ⅱ유형 : 석축묘 : 해당유형은 크게 지상식, 반지하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구조에 따라서 5개의 형식으로 구분가능하다.

1형식-돌천정이 있는 고분 : 두 개의 세부형식으로 구분된다. 1A-고임식석실봉토분, 1B-평천정석실봉토분, 2형식-평정봉토분(개석 없이 흙으로 덮음), 3형식-석관봉토분, 4형식-석광봉토분, 5형식-장방형 부석묘. 5형식의 경우 정영진의 분류안에 없는 것으로 체르냐티노-5 고분군을 발굴하면서 추가되었다. 이상의 석축묘는 고구려 고분축조 전통과 연관시킬 수 있다.

Ⅲ유형 : 토광묘 : 해당유형은 수혈을 판 후, 위에 흙을 덮어 만들었거나, 바로 지면 위에 무덤을 만든 경우로, 5개의 형식으로 구분가능하다.

1형식-토석벽봉토분(수직의 토광벽 1~2면에 돌로 벽을 만들고, 내부에 목제 구조물을 사용), 2형식-토광개석정봉토분(시신 매장 후 흙을 채우고 윗부분에 돌을 깔음. 내부에 목제 구조물을 사용), 3형식-토광수혈봉토묘(단순토광묘로 내부에서 관, 곽이

표 1. 발해고분의 유형
2. 체르냐티노–5 고분군 석축구조 고분(제원)
3. 토광묘(체르냐티노–5고분군)

그림 4. 체르냐티노–5 고분군 유형별 비율
5. Ⅱ–1B유형 고분. 46호분
6. Ⅱ–4유형 고분. 55호분
7. Ⅱ–5유형 고분. 161호분
8. Ⅲ–3유형 고분. 60호분
9. Ⅲ–1유형 고분. 144호분
10. Ⅲ–4유형 고분. 169호분
11. Ⅲ–5A유형 고분. 57호분
12. Ⅲ–5B유형 고분. 55호분

해 제 박규진

자주 확인됨), 4형식–부석토광묘(토광바닥에 돌이나 자갈을 깔음. 부석 위에 바로 시신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 관이나 곽, 관과 곽을 사용) 5형식–지면 위에 바로 무덤을 만든 경우로 두 개의 세부형식으로 구분된다. 5A–지면 위에 바로 목관을 놓은 형식(땅을 평평히 하고, 관을 안치 후 흙으로 덮음), 5B–지면 위에 나무를 깔은 형식(판재 등을 지면 위에 평평히 깔음. 간혹 관을 사용하거나, 돌로 만든 바닥 위에 나무를 깔은 경우도 있음) 이상의 토광묘는 말갈의 전통과 연관시킬 수 있다.

위의 기준을 체르냐티노–5 고분군에 적용시켜 살펴보면 석축묘와 토광묘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석축묘의 경우 Ⅱ–1A형, Ⅱ–3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Ⅱ–1B형은 총 8기가 확인되었다. 형태는 장방형이고 모서리는 둥글다. 지면을 살짝 굴착했고, 비교적 평평한 돌을 이용하여 벽을 올렸다. 개석은 평평한 돌 여러 개로 이루어졌고 고분의 남쪽에 입구와 연도가 있다. 보통 내부에 목관을 사용하였고, 화장을 주로 했다. 시신장에 합장을 한 경우도 확인된다. (71호분) Ⅱ–4형은 지표에 무덤형태로 돌을 돌리고 내부를 굴착한 모습으로 정영진의 분류안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Ⅱ–1B형과 차이는 돌을 쌓은 정도가 덜하고, 연도나 입구의 흔적이 없다. 해당유형은 토광묘와 석축묘 사이의 과도기적 형태로 추정된다. Ⅱ–5형은 주로 장방형으로 지표에 강돌 한 겹을 평평하게 깔고 위에 목제 구조물을 놓았다. 목관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목곽과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무덤에서 바로 화장이 이루어졌다. 부장품을 볼 때 말갈과 발해의 중간적인 형태로 추정된다. 또 이러한 형식의 고분은 발해 중앙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

한편, 연해주에서는 지금까지 이 유적과 크라스키노성 주변, 2곳의 유적에서만 석축묘가 확인되었다. 크라스키노 성 주변 고분군에서 확인된 석축묘는 Ⅱ–1B로 분류가능하다.

토광묘는 해당 고분군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된 묘제이다. Ⅲ–2형을 제외한 모든 형식이 확인되었다. Ⅲ–1형은 토광의 한 벽 혹은 두 벽에 돌을 놓았고, 내부에서 불에 탄 목관이나 목곽, 뼈 등이 발견된다. 이 형태의 고분은 발해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토광묘에서 석축묘로의 전환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Ⅲ–3형은 해당 고분군에서 절반 넘게 확인되는 형식이다. 일반적인 토광묘로 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대부분 북서–남동의 장축방향이다. 내부에서는 탄화한 목관이나 목제틀, 불탄 뼛조각, 토기 등이 확인되거나 아무 것도 없는 경우도 있다. 한편 특이한 사례로 바닥에 나무판재를 깔은 것(5호분), 토광 안에 목재 원통 구조물이 확인된 것(9호분)도 있다. 이러한 고분은 발해이전이나 발해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Ⅲ–4형은 말각장방형의 토광 바닥에 자갈이나 돌을 촘촘하게 깔았고, 그 위에서 탄화된 관, 곽 등이 확인된다. 부장품으로 철제 칼이나 창이 종종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신분이 높은 피장자의 고분으로 추정된다. Ⅲ–5A형은 지면 위에 목관을 바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는 관의 잔여물이나 흔적을 통해서 고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에서는 불탄 뼈와 토기편이 발견된다. Ⅲ–5B형은 나무판재를 지면이나 돌

로 만든 기초 위에 깔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 화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돌로 만든 기초가 있는 고분의 경우, 고분 주위에 장방형의 석렬이 있거나, 네 모서리에만 돌을 놓은 사례도 확인된다. 이러한 형태의 고분에서 주로 발해 윤제 토기가 확인되는 것을 볼 때, 고분은 발해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유적에서는 총 187기의 고분이 발굴되었고, 이중 166기는 토광묘, 21기는 석축묘에 해당된다. 유형별 비율은 Ⅱ-1B: 4%, Ⅱ-4: 2%, Ⅱ-5: 5%, Ⅲ-1: 8%, Ⅲ-3: 67%, Ⅲ-4: 4%, Ⅲ-5A: 6%, Ⅲ-5B: 4% 이다.

위의 점유율에서 알 수 있듯 이 유적은 말갈 전통 토광묘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발해 중앙 묘제는 매우 적은 수의 고분에서만 확인된다. 이는 중심지가 아닌 발해의 변경에서 각 세력의 고분 전통이 혼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고분형식의 등장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Ⅱ-5형의 고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해당유적을 통해서 본래 말갈 기층문화가 있던 곳에 발해 중앙의 고분문화가 확산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Никитин Е.Ю., Телелюев А.Ю. 2012. Конструктив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погребений могильника Чернятино-5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2.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368-393.

| 해제 | 체르냐티노-5 고분군은 한-러 공동으로 수년간 발굴한 연해주지역 발해시기 대표고분군으로, 현재 이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규모로 발굴된 고분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발굴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고고학자의 형식분류안을 대입시켜 각각의 유형을 정리한 것으로, 구조적인 특징에 주목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 논문에서 인용한 형식분류안은 발해 중앙에서 확인된 것들을 바탕으로 설정된 것이기에, 비록 해당 고분군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형식을 추가했다고 해도, 변방으로 일컬어지는 이 유적에 대입하기에는 일정부분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조적 특징 이외에 부장품, 장례방식 등을 종합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발해의 벽돌무덤

저 자 V.V. 아흐메토프
В.В. Ахметов
V.V. Akhmetov

연 도 2018
간행물명 『동아시아 : 지역의 역사 및 문화 유산의 보존 및 연구 문제. 아무르주 역사문화유산 보존센터 15주년』
발 행 처 아무르주 역사문화유산 보존센터

주 제 어 발해
고구려
벽돌무덤

해 제 박규진

이 논문은 중국 경내에서 확인된 발해 전축묘의 현황과 특징을 살피고, 사용 주체를 규명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발해고분을 축조재료를 통해서 전축묘, 석축묘, 토광묘 등 세 종류로 구분한다. 전축묘는 다른 묘제에 비해서 그 수가 적은 편으로, 확인된 유적은 길림성 용해고분군龍海古墳群, 마적달馬滴達 유적, 하남둔河南屯 고분군과 흑룡강성 홍준어장고분군虹鱒魚場古墳群, 양초구고분군羊草溝古墳群 등이 있다. 전축묘는 보통 지하식이고 규모가 큰 편으로, 현실과 연도로 구성되어 있다. 묘상건축물로서 탑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적달 유적, 장백長白에 있는 영광탑靈光塔, 정효공주묘貞孝公主墓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홍준어장, 양초구 고분군에서 확인된 전축묘는 지상식이며 발해의 석축묘를 모방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전축묘는 발해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당나라의 영향 하에서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시기 고분은 기본적으로 돌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전통은 발해에서도 유지가 되었다. 본 논문의 필자는 전축묘 사용주체가 말갈계 상류층이며, 당나라의 물질적,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볼 때 발해 상류층은 주로 말갈 출신이며, 동시에 고구려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Ахметов В.В. 2018. Бохайские кирпичные погребения // Восток Азии: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и сохранения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региона. К 15-летию Центр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ООО «Издательство «Росток». С. 7-10.

| 해제 | 이 논문은 발해 전축묘의 특징과 현황에 대한 논문으로, 중국에서 확인된 발해 석축묘의 사례를 열거 후 이에 대한 해석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과 달리 원전자료를 참고하여 발해 석축묘의 특징을 전문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결론부분에서 석축묘 사용의 주체를 말갈계로 본 점, 발해 상류층이 주로 말갈 출신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통해서, 발해의 지배계층 구성에 대한 러시아 학계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저 자 N.A. 클류예프 외
Н.А. Клюев
N.A. Kluyev

연 도 2014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1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해주 콕샤롭카-8 고고유적: 1차 조사 결과

주 제 어 중세
고분
기와

지원사업 극동 중세 제국의 도시
Города средневековых импер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НФ№ 14-18-01165)

그 림 1. 콕샤롭카-8(고분). 고분 서쪽 부분 단면도 (2012년 조사 결과)

해 제 박규진

이 논문은 성 근처에서 새롭게 확인된 용도 미상 유구의 발굴을 통해 고분으로서의 성격을 추정해보고자 작성되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이 유구가 고분과 고분주위 시설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 유적은 한 · 러 공동발굴이 이뤄진 연해주 콕샤롭카-1Кокшаровка-1(Koksharovka-1)성의 주변지역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2010년 성 북문에서 북서쪽으로 약 600m 지점인 우수리강乌苏里江 우안에서 고분형태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2012년 발굴을 시작하였다.

발굴 전 고분의 형태는 타원에 가깝고, 평균면적 360~380㎡, 높이 1.1~1.5m이다. 고분의 표면은 초목으로 덮여 있었고, 직경 0.5~2.2m의 구덩이 여러 개가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양봉시설물이거나 도굴갱으로 추정된다.

조사는 고분의 서쪽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하부는 화강암 판석을 3단으로 쌓았고 높이 0.45~0.52m이다. 판석 사이는 강돌과 강모래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매웠다. 석축 위는 돌이 섞인 흙으로 덮여 있고 높이가 2.5~0.6m이다. 그 위는 표토로 0.12m에 이른다. 중요한 점은 가장자리에서 확인된 석재는 고분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고분 주위의 담장과 같은 구조물의 흔적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유물로는 금속제 방울, 성의 건물지에서 확인된 것과 비슷한 윤제토기, 자기편, 다량의 기와가 있다.

기와는 형태나 기술적 특징이 7~14세기, 주변지역에서 그 용도가 알려진 것들과 차이가 있으며, 형태와 기능에 따라 두 유형(암키와, 수키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두 종류의 기와는 두께가 얇은 편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기와가 유구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볼 때 고분 주위 담장 위를 덮고 있던 용도로 추정된다.

Клюев Н.А., Слепцов И.Ю., Саранцева С.Е. 2014.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объект Кокшаровка-8 в Приморье: первые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67-72.

| 해제 | 이 논문은 고분으로 추정되는 유구의 조사결과로, 해당 유구는 이 후 전면 발굴 되었고, 그 조사 성과가 이미 보고서로 출간되었다. 연해주 지역 중세고분은 알려진 사례가 적기 때문에 새로운 고분 자료는 매우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구가 고분에 해당하는지는 그 규모나 구조 등으로 볼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서 찾기 힘든 독특한 유구라는 점, 콕샤롭카-1성 내부 건물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기와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 성과의 관계 등을 놓고 봤을 때,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저 자 E.I. 겔만
Е.И. Гельман
E.I. Gelman

연 도 2002
간행물명 『극동과 중앙아시아의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의 문화 소속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주 제 어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
산성유적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발해
포크롭카(아무르 여진)

목 차 1. 연구사 개요
2. 청동기시대 층
3. 초기철기시대 층
4. 중세시대 층
5. 맺음말
6. 영문요약

소흥안령 동편(송화강松花江–우수리강乌苏里江) 아무르지역 주민의 기원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다.

V.E. 메드베데프B.E. Медведев(V.E. Medvedev)는 이 지역 주민들을 '아무르 또는 북 여진'으로 명이 논문은 노보고르데옙카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Novogordeevka) 마을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새로운 시각에 따라 시대별로 정리한 글이다.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은 연해주 아누치노Анучино(Anuchino) 지구, 아르세니옙카Арсеньевка(Arsenyevka) 강 우안에 위치하며, 노보고르데옙카 산성(크루글라야 솝카Круглая Сопка(Kruglaya Sopka))으로부터 동북편으로 약 500m 떨어져 있다. 1971년 발견되었고, 1972~74년 L.E. 세메니첸코A.E. Семениченко(L.E. Semenichenko)의 지도로 국립중세고고학분과 연구원들에 의해 발굴되었다.

1. 연구사 개요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에 대한 첫 번째 조사는 1972년에 있었다. L.Ye. 세메니첸코는 이 유적을 단층위 유적으로 보고 8~10세기로 편년하였다. 1973년 조사에서 세메니첸코는 당시 출토유물이 보다 이른 시기임을 감지하였으며, 특히 '광구호'에 주목하게 되며, 이를 철기시대로 간주한다. 청동생산 관련 유구는 8~10세기로 보았다. 세메니첸코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발해국 시대 연해주 주민의 물질문화(8~10세기)」에서 이 유적을 두 층위 유적으로 구분하였다. 즉 아래층은 청동기시대, 위층은 발해시대로 본 것이다. 그 후 L.Ye. 세메니첸코, V.I. 볼딘В.И. Болдин(V.I. Boldin), E.V. 알렉세예바Э.В. Алексеева(E.V. Alekseeva) 에 의해 『발해국(689~926)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민족들』이 발간된다. 그러나 알렉세예바는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과 산성유적에서 나온 동물 잔존물을 비교하여, 산성의 중세 층은 마을유적과 같은 시기가 아니라는 독특한 견해를 제시한다.

E.V. 샤프쿠노프Э.В. Шавкунов(E.V. Shavkunov)는 이 유적이 다른 발해유적의 토기 문양과 차이가 많음에 주목하고(1988), 이를 퉁구스 민족의 차이로 설명한다. 이러한 견해는 O.V. 디야코바О.В. Дьякова(O.V. Dyakova)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989년 이 마을유적의 이른 시기는 디야코바에 의해 리돕카Лидовская(Lidovka) 문화로 편년되었다.

2. 청동기시대 층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에서 1973년과 1974년 청동기시대 유물은 지표채집이나 몇몇 구덩이에서 출토되었다. 여러 석기들과 함께 구연부에 장식이 되어 있는 토기가

그 림 1.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 출토 청동기시대 유물
2.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출토 청동기시대 토기(세메니첸코, 1974)
3.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 올가문화 토기(세메니첸코, 1974)
4.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 출토 올가문화 토기
5.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 출토 올가문화 토기
6.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 발굴 1구역 평면도(1층).
7.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 발굴 1구역 평면도(2층)
8.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 발굴 1구역 평면도(4층)(세메니첸코, 1974)
9.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 발굴 1구역 토층도.
10.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 출토 윤제토기
11.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 출토 윤제토기 각종 토기 문양
12. 아무르 여진 유적 출토 각종 토기 문양(V.Ye. 메드베데프)
13.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 중세 층 출토 유물

해 제 홍형우

함께 발견되었다. V.I. 디야코프는 이 토기들을 리돕카 문화로 간주한다(1989). 그러나 보다 유사한 유물은 옥탸브리스키Октябрьский(Oktyabrskiy) 지구의 체르냐티노-2Черняпино-2(Chernyatino-2)유적 출토 유물들이다(Yu.G. 니키틴Ю.Г. Никитин(Yu.G. Nikitin)). 이렇게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 체트냐티노-2, 노보셀리셰-4Новоселище-4(Novoselische-4)(N.A. 클류예프Н.А. Клюев(N.A. Kluyev), 2001) 상층이 청동기시대 문화로 간주되었다.

3. 초기철기시대 층

비록 세메니첸코는 초기철기시대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당시 도면과 박물관 자료에 따르면 분명히 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 문화층이 존재한다. 크게 벌어진 '접시형' 구연을 가진 광구호가 대표적이다. 또한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들 중에는 다치구 압인문 토기도 있는데, 이 역시 올가 문화에 속한다. 한편 나이펠드найфельд(Naifeld) 유형과 유사한 토기들도 보이는데, 이는 올가 문화의 늦은 단계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ㄷ'자형의 외줄구들이 나왔는데, 같이 나온 다치구 압인문, 격자문 등으로 보아 올가 문화에 속하며, 금속 제작과 관련된 유적 역시 올가 문화에 속한다.

4. 중세시대 층

발굴 당시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의 중세 유물은 발해 문화에 속하며 8~10세기로 편년되었다. 윤제토기, 수제토기 등이 발해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드물지 않게 포크롭카Покровская(Pokrovka) 문화 토기들도 발견된다. 토기의 문양이 코르사콥카Корсаковский(Korsakovka) 등 포크롭카 문화(아무르의 여진)의 많은 유적에서 나온 유물들과 흡사하다. 따라서 이 유적의 토기와 문양들이 다른 발해 유적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포크롭카 문화 토기의 문양 요소와 문양 모티브에 포크롭카 문화의 요소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E.V. 알렉세예바의 사냥 동물상으로 돌아가 보면, 이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에는 노루(80.9%)가 우세한 데 비해, 노보고르데옙카 산성에서는 멧돼지(70.4%)가 우세하여 차이가 크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마을과 산성의 주민들이 다른 문화 그룹에 속하거나, 아르세니옙카 강 계곡에서 상이한 생태환경, 아마도 서로 다른 시기에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산성유적에서는 청동 장신구가 보이지 않는데 비해 마을유적에서는 많이 보인다. 이는 산성유적의 발해 유적과 마을유적의 상층이 서로 다른 시기임을 암시한다. 당시 포크롭카 문화의 유적에서는 청동 패식이 자주 보이는데, 형태와 크기에 있어 마을유적 출토품과 유사하다. 마을유적 청동 패식은 코르사콥카 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하다.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 출토 철제 화살촉 역시 코르사콥카 고분군의 것과 유사한다. 그렇다면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에 발해 층이 존재하는가? 매우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평행선문이 새겨진 토기 완은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 및 니콜라옙카-2Николаевское-2(Nikolaevka-2) 성, 아브리코스Абрикосовское(Abrikos) 마을유적의 완과 유사하다.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에서 출토된 철촉과 발해 유적 성격의 토기들은 포크롭카 문화(아무르 여진) 유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마을유적 발해 층의 존재를 보여주는 다른 유물들 역시 아직까지 포크롭카 문화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 아마도 이

문제는 새로운 자료들이 있어야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

5. 결론

이와 같이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은 3개의 문화층으로 구분된다. 아래층은 청동기시대로 체르냐티노–2 유적의 청동기시대 층과 유사하다. 초기철기시대 늦은 단계의 층에서는 외줄구들을 가진 주거지와 올가 문화의 토기들이 출토되었는데, 올가 문화 중에서도 늦은 단계에 속한다. 중세 시대 층은 가장 위층으로 청동 제작 흔적이 있다. 이 층에서 나온 대부분의 유물들은, 필자(E.I. 겔만)가 보건대, 포크롭카(아무르 여진) 문화에 속한다. 이는 연해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포크롭카 문화 유적에 해당한다. 아르세니옙카 강에 새로운 주민의 출현은 발해의 멸망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의 가장 위층의 연대는 10세기 후반보다 이르지 않을 것이다.

Гельман Е.И. 2002. К вопросу о культур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го селища //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 167-187.

크라스키노 성의 우물 발굴

저 자 E.I. 겔만 외
Е.И. Гельман
E.I. Gelman

연 도 2000
간행물명 『극동의 역사와 고고학: E.V. 샤프쿠노프 70주년』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발해
우물
크라스키노성
중세
발굴결과

목 차
1. 머리말
2. 발굴 과정 및 우물 구조
3. 우물 출토 유물
4. 맺음말

이 논문은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성내 사찰구역에서 발견된 우물의 조사내용이다.

E.I. 겔만, V.I. 볼딘과 A.L. 이블리예프는 크라스키노 성의 우물에 대하여 수갱 구조, 지붕 구조, 활용 시기를 파악하고 출토 유물을 조사하였다.

필자는 발해 우물 구조뿐만 아니라 크라스키노 성 사찰구역의 토층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소개하고 발해의 교류 관계를 우물에서 나온 유물로 확증하였다.

1997년과 1998년에 사찰 구역 내 생산시설이 확인된 지점인 서쪽 발굴조사에서 우물이 발견되었다. 1997년에는 기와지붕과 수갱 윗부분이 확인되었고 1998년에는 우물 구조가 파악되었다. 이 논문은 수갱 및 우물 구조와 함께 제원, 발굴 층위별 특징 등이 소개되고 있다.

그 다음 우물에서 나온 유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유물은 선철제 솥의 파편, 철제 못, 동물 이빨, 기와 및 , 용 모양의 소형 토제상 편, 놀이 말, 그리고 제물祭物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큰 돼지의 턱뼈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우물 근처에서 확인된 수혈은 가마와 토기 작업과 관련이 있다. 이 외의 반원형 석판은 파편으로 발견되었는데 우물 고정 뚜껑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우물은 귀틀 목제 구조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목재 편이 확인된다. 우물 바닥에는 우물 조성과정에 사용된 제사용 용기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지하수에 의해 발굴 현장이 지속적으로 침수되어 발굴조사는 중단되었다.

기와는 완형 9점과 818개의 편, 수막새 편도 출토되었다. 암키와는 사다리꼴이고 수키와는 좁아지는 고랑 모양이며 기와 등면에 문양이 확인된다.

토기는 총 22개체의 편이 출토되었는데 모두가 윤제 토기이다. 병은 연해주 지역에서 유일한 출토례인 거란 전통의 것과 고구려-고려 전통이 융합된 토기도 있는데 흑룡강성黑龍江省 목단강시牧丹江市에서도 비슷한 토기가 발견되었다.

거란 전통의 병은 현재까지 발해 유적에서 출토된 바 없다. 이는 광택이 있으며 바닥에 가까운 밑부분에는 9열의 격자문과 바닥 중간에 돌출된 원형이 있다. 형태와 문양은 거란 전통을 갖고 있으며 재료로 보아 현지 생산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병 3점은 모두 윤제이며 광택이 확인된다. 호는 서로 크기가 다르고 광택도 확인된다. 심발 광택이 있고 물레 흔적과 서리기법으로 만든 것도 있다. 흑색 광택을 낸 접시와 목제 배는 발해 유적의 독특한 유형이다.

크라스키노 성의 사찰 층위양상과 새로운 자료로 우물 구조를 살펴보았다. 가장 늦은 시기의 암키와는 발해 상경성上京城, 보리솝카Борисовка(Borisovka) 유적의 사찰과 코르

그 림 1. (1) 사찰구역에의 주요 유구 배치,
(2) 크라스키노 성의 우물, 기와지붕과 윗돌의 평면도
2. 우물 발굴 과정 평면도:
(1) 5번째 인공층을 조사한 후 현황
(2) 6번째 인공층을 조사한 후 현황
(3) 7번째 인공층을 조사한 후 현황
(4) 8번째 인공층을 조사한 후 현황
3. 크라스키노 성의 우물. 단면도, –405cm 수준의 수갱 평면도와 귀틀
4. (1) 고구려 평양의 우물 단면도
(2) 발해 상경성의 우물 단면도
5. 우물 수갱 출토 용기
6. 우물 수갱 출토 용기
7. 크라스키노 성 우물 발굴 시 발견된 용기와 유물

해 제 S.S. 실리체바

사콥카Корсаковский(Korsakovka) 사찰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 암키와가 만들어진 가마는 크라스키노 성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수막새는 크라스키노 성과 동경성東京城의 중앙 사찰을 장식했던 막새보다 이른 시기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물은 크라스키노 성의 가장 늦은 시기에 활용되었다고 본다. 크라스키노 성은 785~793년쯤 혹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건설되기 시작하고 930년 거란에 의해 동경성이 파괴된 것과 동일한 시기에 폐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크라스키노 성 우물 구조는 발해 상경성과 평양성에서 발견된 고구려 우물과 몇 가지 특징에서 비슷하다. 즉 물을 여과하는 시스템이 독특하고, 우물 수갱을 만들 때에 기와 생산 잔물을 재활용했던 것은 크라스키노 성 우물의 특징이다. 재활용된 기와 생산 잔물을 통해 크라스키노 성에서 사용했던 기와의 유형, 문양변화, 제작 기법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우물에서 나온 토기류는 전형적인 발해 토기 유형으로 보이며 거란, 통일신라, 고려와 관련이 있는 독특한 토기형도 발견되었다. 우물은 성내의 생산 과정에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축조 공사에서의 제의행위도 주목받고 있다.

Гельман Е.И.,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2000. Раскопки колодца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История и архе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 70-летию Э.В. Шавкунова. Владивосток. С. 153-165.

| 해제 | 이 논문은 크라스키노 성 우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 도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찰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우물 출토 유물 교류 양상을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우물 구조, 발굴 과정, 출토 유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후속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체르냐티노-2 주거유적 조사결과

저 자 Yu.G. 니키틴 외
Ю.Г. Никитин
Yu.G. Nikitin

연 도 2002
간행물명 『극동과 중앙아시아의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체르냐티노
다층위유적
크로우놉카문화
청동기시대
말갈
발해

목 차
1. 발해-말갈시대
1) 윤제토기
2) 수제 말갈토기
2. 초기철기시대
3. 청동기시대
4. 신석기시대

이 논문은 수이푼강绥芬河 중류 고고학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주거유적의 현황과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유적은 체르냐티노Черняпино(Chernyatino) 마을에서 남서쪽 2km지점에 위치한다. 1997년 수이푼강 우안지역의 연차조사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수이푼강 오른쪽의 대지로 남쪽으로 점점 높아지며 동쪽에는 오를리하Орлиха(Orlikha) 개천이 흐르고 있다. 면적은 약 80만㎡ 이상이다.

이 유적은 다층위 유적으로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부터 중세까지의 문화층이 존재한다. 지표에서 채집된 유물을 바탕으로 추정해본 각 시대별 분포면적은 신석기시대 4.5~5천㎡ 이내, 청동기시대 약 1만5천㎡, 초기철기시대 5만㎡, 발해시대 2만~2만5천㎡ 이다.

절개면에 대한 토층조사와 주변지역의 지표조사 결과, 유적 상층부(1, 2층)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확인되었고, 또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인 이주민의 파괴된 가옥들과 그 주변에서 자기, 농기구 등이 확인되었다.

1. 발해-말갈시대(3층)

문화층은 기본적으로 목탄과 소토가 포함된 흑갈색 사질점토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께는 0.25~0.8m이다. 문화층에는 이외에도 단면 렌즈형의 재층, 돌구조물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깊이 1.5m나 그 이상의 수혈도 확인된다. 이 층에서 확인된 토기는 크게 윤제토기, 삼채 등 발해계와 수제토기의 말갈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철제, 골제 화살촉, 기타 철기 등이 있다.

윤제토기는 다시 낮은 속도의 물레에서 제작된 것과 빠른 속도의 물레에서 제작된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기형, 시문 등에서 말갈토기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후자의 경우 우선 전자보다 훨씬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고, 기벽에는 평행한 암문暗汶이 확인된다. 또 대상파수, 시루의 저부 등도 확인된다. 이 문화층에서 확인된 윤제토기와 수제토기 등으로 보아, 유적의 상층은 발해시기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며, 주변의 체르냐티노-5 고분군과 분명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시넬니코보-1Синельниково-1(Sinelnikovo-1) 성에서 출토된 토기와도 유사하다.

수제 말갈토기는 구연부 융기대라는 전형적인 말갈토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확인 가능한 것 중 1/3에는 융기대에 무늬가 시문되었다. 기형은 완벽히 복원 가능한 개체가 없어서 추정하기 어렵지만, 심발형이나 호형으로 추정된다. 기벽에는 마연한 흔

그 림 1. 체르냐티노 마을 근처 수이푼강 유역(숫자는 유적번호)
2. 체르냐티노–2유적의 각 시기별 분포영역 변화도
3. 체르냐티노–2 유적 오를리하 하천 절단부 문화층 노출면 토층도
4. 체르냐티노–2유적 1구역 청동기 시대 주거지 잔존부 평면도
5. 체르냐티노–2유적 각 시기별 토기

해 제 박규진

적, 음식물이 탄화한 흔적이 있다. 확인된 토기편 중 약 절반에서 태토에 샤모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 토기들은 체르냐티노–5고분군과 시넬니코보–1성을 비롯한 수이푼강 유역 말갈유적에서 출토된 수제토기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2. 초기철기시대(4층)

발해–말갈문화층 바로 아래 위치하며 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두께는 0.16~0.4m이고 부분적으로 회황색 사질점토와 단면 렌즈형의 재층이 확인된다. 해당층에서 다량의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문화 토기와 석기, 폴체Польце(Poltse)문화 요소가 있는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이 주거유적의 경우 초기철기시대의 점유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다량의 유물뿐만 아니라 분포범위가 매우 넓다.

토기의 경우 전형적인 발형토기, 그루터기형 파수부토기, 두형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확인된 토기들은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동시기 유물과 비교 했을 때 그 기술적 수준이 높은 편이다. 많은 수의 토기편에서 마연의 흔적이 확인되었고, 태토에 샤모트, 작은 알갱이 크기의 토기파편이 포함되어 있다. 출토 토기 수량의 절반은 산화 소성燒成되었고, 이후 연기 씌움을 한 것도 있다. 환원소성의 경우도 확인된다. 중요한 점은 비록 소수이지만 회전판에서 제작된 토기편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또 유적의 북동쪽 모서리 부근에서 토기소성유구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기한 토기의 특징으로 봤을 때, 크로우놉카 문화의 후기단계와 관련시킬 수 있으며, 연해주 남서부지역에 같은 시기의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3. 청동기시대(6층)

초기철기시대층 아래 부분적으로 얇은 실트층(5층)이 퇴적되어 있고, 그 아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내부토는 암갈색이며 목탄과 소토를 포함한다. 두께는 0.12~0.2m이다. 주거지는 절개면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괴되었고, 내부에서 많은 양의 토기편, 석기편, 토제품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토기는 약 91개체 분량이며 연해주지역 다른 청동기시대 문화의 토기전통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토기의 크기는 다양하며, 제작 기술에 따라 조개껍질가루 같은 유기물을 섞은 경우와 섞지 않은 경우로 구분이 가능하며, 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후자의 경우 샤모트 혼입 유무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강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주거지 한 기가 1구역에서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생토를 굴착해서 만들었고 깊이는 0.15~0.3m이다. 주거지 바닥에서 기둥구멍 여러 개, 주거지 밖에서 수혈 몇 개가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토기편, 슬레이트 격지, 석기, 골각기, 동물뼈 등이 발견되었다. 출토된 유물의 특징을 연해주 다른 지역 유적과 비교해 볼 때 청동기시대로 편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물들은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연해주 다른 유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새로운 유형이나 문화 설정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수이푼강 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평지형과 고지형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유적의 경우 체르냐티노–3유적과 대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양

상을 통해서 당시 사회 속 어떠한 관리조직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4.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유물은 기본적으로 후퇴적 상태에서 확인된 것들로 그 수가 많지 않다. 확인된 것들은 흑요석제 격지, 석기편, 자이사놉카зайсановская(Zaisanovka) 문화에 해당되는 토기편 등이다. 순수한 문화층의 경우 부분적으로 확인되며 자이사놉카 문화의 토기편이 출토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이 유적에 옛 사람들이 3000년 이상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의 경우 그간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문화일 가능성이 있고, 초기철기시대의 경우 크로우놉카문화의 가장 후기단계로 말갈시기 직전까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말갈과 폴체토기와 관련된 것으로 연해주 남서부 국가이전단계 유적의 교차편년에 있어 큰 시사점을 준다. 발해시기 문화층 경우는 다시 세부적으로 여러 개의 시간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출토된 유물로 볼 때 주변에 위치한 시넬니코보-1성, 체르냐티노-5고분군, 체르냐티노-3 유적과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Никитин Ю.Г., Гельман Е.И., Болдин В.И. 2002.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селения Чернятино-2 //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С. 213-227.

| 해제 | 이 논문은 수이푼강 유역의 지표조사 보고로, 이 유역은 연해주 일대에서 가장 넓은 평원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시기 많은 유적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 중 위의 유적이 위치한 곳은 서로 연관 있는 여러 유적이 긴밀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97년 조사 이외에 한국과 러시아가 수년간 공동으로 본 주거유적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여러 유적을 발굴하였다. 이 유적은 우선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를 거쳐, 구한말 한인 이주민의 집터까지 확인된 보기 드문 다층위 유적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 각각의 문화층 모두가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자료이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발해시기만을 놓고 봤을 때도, 연해주의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성-주거지-고분군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적이 너무 광범위하여 부분적으로 발굴되었고, 또 마지막 발굴 이후 10년 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샤이가-레두트 성 말갈 주거지

저 자 V.E. 샤프쿠노프
В.Э. Шавкунов
V.E. Shavkunov

연 도 2014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1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연해주
성곽
스몰노예 문화
말갈
주거지

지원사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간부회 지원사업
грант Президиума ДВО РАН № 12-I-П-33-02

그 림 1. 샤이가–레두트 성 말갈 주거지 평면도

해 제 M.A. 스토야킨

이 논문은 2012년 발굴조사된 성 내부의 주거지 조사내용이다. 반지하식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말각방형이며 면적은 약 16㎡이다. 내부 구조는 중앙에 위석식 노지 형태의 시설물이 있고 북벽과 남벽에 각 2개씩 총 4개의 기둥구멍이 위치한다. 벽체를 따라 나무로 된 벽체가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출토 토기는 수제토기이며 구연에서 융기대를 붙여 각목문 혹은 주열문이 시문되었다. 이 성은 스몰노예Смольное(Smolnoye) 문화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문화에 해당하는 다른 유적에서는 지상식 주거지에서 'ㄱ'형 고래를 갖는 쪽구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구연에 돌대가 있는 말갈계의 특징을 갖는 토기가 출토된 사례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샤이가–레두트Шайга-Редут(Shaiga-Redut) 성에 조사된 주거지의 구조 특징과 내부에 말갈 토기의 요소가 갖는 토기가 출토된 점 등으로 보아 조사된 주거지는 나이펠드найфельд(Naifeld) 유형 말갈 문화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스몰노예 문화에 속하는 이 유적에서 말갈 주거지의 존재이유와 2개 문화의 관련성을 밝혀야 하는 것이 향후 조사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Шавкунов В.Э. 2014. Мохэское жилище городища Шайга-Редут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ып. 1.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180-183

| 해제 | V.E. 샤프쿠노프가 스몰노예 문화로 간주한 샤이가–레두트 성에서는 이 문화의 전형적인 요소와 다른 말갈 요소가 확인되고 있다는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다. 특히 이 지역은 말갈문화의 영향이 많았다는 점을 들어 향후 2개 문화의 교류양상 파악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발굴조사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저 자 Zh.V. 안드레예바
Ж.В. Андреева
Zh.V. Andreeva

연 도 2002
간행물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11권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의 문화-연대 복합체

주 제 어 시니예 스칼리
다층위 유적
신석기
초기철기
올가문화
발해
개원통보

그 림
1. 1977년 발굴 평면도 (부식사질토 중간층)
2. 1977년 발굴 평면도 (갈색사질토 아래층)
3. 문화-연대 복합체 (부식사질토 위층) 유물
4. 올가 문화 문화-연대 복합체 유물
5. 초기철기시대 문화-연대 복합체
6. 초기신석기시대 복합체 유물

해 제 홍형우

이 논문은 다층위 유적인 시니예 스칼리Синие Скалы(Siniye Skaly) 유적에서는 약 20년에 걸쳐 이루어진 발굴조사, 즉 1967년, 1972년, 1977년 그리고 1983~84년에 진행된 발굴 중 1977년 발굴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형식의 글이다.

1977년에 조사한 발굴 1구역에서는 여러 층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총 4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아래에서부터 신석기시대 층, 2개의 초기철기시대 층, 그리고 발해시대 층이 확인되었다. 초기철기시대 층은 위층이 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 문화층이고, 아래층은 특별한 언급 없이 초기철기시대 층으로 기술되어 있다.

논문의 앞부분에서는 러시아식 수평 발굴 즉 한층한층 벗겨내며 유물을 기록하고 수습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 섹터(발굴 구역내 소지역, 예를 들면 남동섹터, 서편섹터, 중앙부분 등)별로 수평면에서 발굴된 유구의 흔적과 유물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문화층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주거지가 1기 발굴되었는데, 주거지 바닥에서 주조철부 편, 관옥편, 마제석도, 어망추, 방추차, 그리고 다수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로 보아 초기철기시대의 주거지로 추정되었다. 이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층을 파고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늦은 층은 발해시대 층으로, 청동제 허리띠 장식, 동전(개원통보開元通寶) 1점, 철제 화살촉, 철제 고리, 철제 칼, 석제 디스크형 귀걸이편, 다수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연대는 8~10세기로 추정되었다.

올가 문화층에서는 각종 석기, 주조철기 4편, 방추차, 그리고 전형적인 올가문화의 광구호 구연부편을 비롯한 다수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초기철기시대 문화층은 올가문화층과는 갈색사질토층으로 구분되는데, 석촉을 비롯한 각종 석기, 주조철기편, 관옥, 방추차, 다수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신석기시대 문화층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철기시대 주거지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란되었다. 출토된 신석기시대 유물은 초기신석기시대 유물(소형 타제 석기, 방추차, 토기편)와 후기신석기시대 유물(소형 타제 석기, 방추차, 토기편)으로 구분되었다.

Андреева Ж.В. 2002. Культурно-хронолонические комплексы поселения Синие Скалы // Труды ИИАЭ ДВО РАН. Т. 11.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рхеологии.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59-74.

저 자 Zh.V. 안드레예바 외
Ж.В. Андреева
Zh.V. Andreeva
연 도 2018
간행물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20권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남사면 고고학조사
(1962년 제1구역과 1965년 제3구역)

주 제 어 연해주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다층위 유적
초기철기시대
중세시대
중세 고분

목 차
1. 노어, 영문초록
2. 머리말
3. 1962년 조사
4. 1965년 조사
5. 맺음말

이 논문은 연해주 북동부에 분포하는 시니예 스칼리Синие Скалы(Siniye Skaly) 주거유적에서 1962년과 1965년에 이루어진 발굴 결과 보고서 형식의 글이다. 먼저 전체적인 조사 내용을 요약하고 있고, 이후 연도별 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유적은 연해주 북동부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유적이다. 다양한 시대의 문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즉 신석기시대에서 중세까지이다. Zh.V. 안드레예바에 의해 1958년까지 1984년까지 15차례 야외조사가 있었다.

이 논문은 유적 남사면 구덩이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유물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크기와 구조에 차이가 있는 유구들이 발견되었다. 발굴 결과 수습된 유물들은 시니예 스칼리 마을유적에 퇴적된 다양한 문화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유물의 보존 상태와 수량으로 볼 때, 1965년 조사된 주거지와 저장구덩이는 초기철기시대에 속한다. 다른 시대의 유물들은 경사면의 위쪽에서 이곳으로 굴러 떨어진 것들이다. 1962년 발굴의 상황은 좀 다르다. 여기에도 초기철기시대 주거지가 있었지만, 이곳의 문화층은 확실히 여러 차례 교란되었는데, 처음에는 발굴구역 동북부에 주거지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인들'에 의해서, 그 다음은 중세시대에 이 유적으로 들어온 다른 주민들에 의해서 교란되었다.

중세 유물의 구성과 그 지역성으로 볼 때, 여기에는 포크롭카Покровская(Pokrovka) 문화로 보이는 중세시대 고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62년 조사. 발굴면적은 200㎡이다. 경사면에 교란과 층위 중복이 심하고,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뒤섞여 있어, 발굴 당시 유구는 물론 유물의 시대구분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표토층에서 중세시대 청동유물(방울, 팔찌), 철기(낫, 칼, 화살촉, 작살)과 말갈 토기, 그리고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었던 올가 문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초기철기시대 유물('ㄱ'자처럼 수평으로 외반된 구연에 침선문 토기)도 출토되었다. 표토층 바로 아래층에서는 신석기시대 유물(굵개, 기하학문양이 있는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그 아래층 역시 중복과 교란으로 구분이 어려웠는데, 전체적으로 초기철기시대 유구를 올가 문화층이 주거지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교란하고 있으며, 그 이후 중세의 구덩이(아마도 고분)의 축조를 과정에서 다시 교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962년 발굴된 유물을 구분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인데, 심하게 섞여 있어 분류에 어려움이 따른다. 초기철기시대 토기는 높은 목에 수평의 덧띠를 한줄 돌린 것, 'ㄱ'자처럼 수평으로 외반한 구연에 낮은 목을 가진 것, 외반구연호, 그리고 외반구연옹으

그 림 1.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남사면 발굴 배치도
2.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남사면 발굴(1962년 제1구역과 1965년 제3구역)
3.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1962년. 제1구역. 제1층 출토 토기와 유물
4.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1962년 제1구역. 유구 내부토 출토 초기철기시대 토기
5.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1962년. 제1구역. 유구 내부토 출토 올가 문화 토기
6.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1962년. 제1구역. 유구 내부토 출토 철제 및 청동제 유물
7.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1965년. 제3구역. 1유구 출토 토기
8.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1965년. 제3구역. 2호 주거지 출토 토기
9.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1965년. 제3구역. 3호 주거지 출토 토기

해 제 홍형우

로 구분된다. 높은 목에 수평 덧띠문 토기는 6호 주거지(1972년 발굴) 출토품과 유사하다. 'ㄱ'자 수평외반구연부 토기는 유적 중앙부에서의 발굴(1972년 발굴과 1983~84년 발굴) 출토유물과 유사하다. 여기에 마제 석기와 자갈돌 석기가 속한다.

올가 문화 토기들은 깔대기 모양으로 크게 벌어진 구연, 좁은 목에 수평으로 그어진 선문, 격자 타날문과 지두문 등의 특징으로 뚜렷히 구분된다. 이와 같은 유물은 1959년 발굴된 올가 문화 주거지 및 다른 유적(불로치카Булочка(Bulochka), 말라야 포두셰치카Малая Подушечка(Malaya Podushechka), 센키나 샵카Сенькина Шапка(Sen'kina Shapka))에서도 발굴된 바 있다. 이 유물들은 동북편 수혈에서 출토되었다. 초기철기시대 층을 파괴하고 올가 문화 주거지를 축조하였으며, 이후 중세시대에 다시 교란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세시대 유물은 청동방울, 청동패식, 철제 화살촉, 찰갑편, 팔찌, 구슬 등인데 포크롭카 문화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홍옥과 유리제 구슬은 유크카탄-1Юктакан-1(Yuktakan-1) 고분군, 코르사콥카Корсаковский(Korsakovka) 등에서도 나왔다. 또한 허리띠는 나데진스키Надеждинский(Nadezhdinsky), 코르사콥카, 나자이첸스키Назаичевский(Nazaichevskiy), 두보보예Дубовое(Dubovoe) 등 코르사콥카 유형 고분에서 나온 바 있다.

1965년에 주거지 2기와 저장혈 1기가 발굴되었다. 발굴면적은 154㎡이다. 1962년 발굴 구역과 동남편으로 바로 이어져 있는 지역이다. 2호 주거지는 일부 발굴되었다. 3호 주거지 역시 일부만 노출되었는데 동편 경사면 아래쪽은 삭평되었다. 상대적으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ㄱ'자 구연부 토기, 동체부 덧띠를 두른 깔대기모양 또는 수직의 목을 가진 토기, 외반구연 토기, 그리고 두꺼운 기벽의 토기 등이다. 철기와 청동기는 중세시대에 속한다. 숫돌, 망치돌, 어망추 등의 석기도 나왔는데, 주거지 바닥에서는 마제 석부, 구슬,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와 1호 저장구덩이는 초기철기시대 유구로, 나중에 폐기구덩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시대의 유물들이 뒤섞여 있었다. 3호 주거지 역시 초기철기시대에 속한다.

Андреева Ж.В., Пискарёва Я.Е. 2018. Некоторые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южном склоне поселения Синие Скалы (раскоп № 1 1962 года и раскоп № 3 1965 года) // Труды ИИАЭ ДВО РАН. №20.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24-39.

| 해제 |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의 남사면 낮은 지역 발굴에서 주거지와 저장구덩이가 발굴되었고, 유물은 신석기에서 중세시대까지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1965년 발굴에서는 주거지와 저장구덩이가 나왔는데 초기철기시대에 속한다. 1962년 발굴은 이와는 다른데, 이곳에도 초기철기시대 주거지가 있었을 것인데 여러 차례 교란되었다. 처음에는 올가 문화에 의해, 나중에는 중세시대에 파괴되었다. 중세시대에는 포크롭카 문화의 고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콥카-10 주거유적의 고고조사

저 자 Yu.V. 크리불랴
Ю.В. Кривуля
Yu.V. Krivulya

연 도 2002
간행물명 『극동의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연해주
주거 유적
말갈
주거지
토기

이 논문은 1993년에 발굴된 주거유적의 조사내용을 소개하는 글이다. 유적은 우수리스크Уссурийск(Ussuriysk) 지구 라콥카Раковка(Rakovka) 마을 주변에 위치한다. 유적의 면적은 약 6,000㎡이며 총 14개 수혈이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수혈은 평면 원형이며 크기는 직경 4~7m, 깊이 약 0.5m이며 구조가 모두 유사하다.

조사면적은 약 200㎡이며 주거지 3기, 1 · 2호 주거지 사이 형성된 공간 등이 발굴되었다. 반지하식 주거지는 평면상 말각장방형이며 면적은 22~32㎡이다. 중앙에 노지가 있고 서남모서리에서 출입시설이 조성되었다. 벽체에 따라 목탄이 확인되었다.

2 · 3호 주거지 동남모서리에 수혈이 있는데 저장용 수혈로 판단된다. 한 개의 수혈에서 토기가 수직으로 세워 놓은 채로 발견되었다. 2호 주거지의 바닥면은 진흙을 발라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청동기(태구), 석기(마제 석부, 갈판, 숫돌, 연마제), 토기 43점 등이다. 특히 1호 주거지 내 · 외부에 토기 대부분인 31점이 확인되어 주거용 외에 보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출토 토기는 수제토기와 물레보완 토기로 2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수제토기는 다시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1형은 구연부가 약간 외반되고 세장한 몸체, 저부가 평평한 토기이다. 2형은 구연부가 크게 외반되고 동체부가 베풀어지고 저부가 평평한 토기이다. 3형은 굽이 있는 평저이며 완형이다.

문양은 구연부에 융기대를 붙히고 무문이나 각목문을 시문하였다. 경부는 대부분 압인문이고 일부 빗살문도 있다. 동체부에는 침선문, 압인문, 파도 문양 등이 있다. 3유형은 무문토기다. 토기의 특징은 테쌓기 성형과 얇은 기벽, 속심의 동일 색상, 사립혼입태토, 암문과 화장토 등이다. 물레보완토기 1점은 무문이고 흑회색, 평저 호형이다.

주거지는 보수 흔적이 없고 주거지 사이 공간의 문화층이 얇은 점에서 운용기간이 길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구성과 출토 유물은 연해주 서남부 아브라몹카-3Абрамовка-3(Abramovka-3), 미하일롭카-1Михайловка-1(Mikhailovka-1) 등 20개 이상 유적 출토품과 유사하여 중세 초기 말갈 문화에 해당된 것이다.

한편 라콥카-10 주거유적에서 과형토기, 철기를 모방한 독특한 돌대문이 갖는 토기 등의 특징은 이 유적이 7세기 이후로 편년될 것으로 주장한다. 이 연대는 1호 주거지에 획득한 방사선탄소연대의 결과와 같다.

그 림 1. 라콥카–10 주거유적의 평면도
2. 1호 주거지 평면도
3. 2·3호 주거지 평면도
4. 1형 토기
5. 2형 토기
6. 유물:
1 – 청동제 태구;
2, 4, 5 – 3형 토기;
3 – 물레 보완 토기

해 제 M.A. 스토야킨

Кривуля Ю.В. 2002.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поселении Раковка-10 //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ладивосток. С. 174—180

| 해제 | 2005년에 Ya.E. 피스카료비Я.Е. Пискарева(Ya.E. Piskareva)가 연해주 분포 말갈관련 유적을 5개 지역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라콥카–10 주거유적을 라콥카 그룹으로 포함하고 있어 필자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유적은 발해가 연해주로 확장하면서 소멸된 것으로 말갈–발해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저 자 Yu.V. 크리불랴
Ю.В. Кривуля
Yu.V. Krivulya
연 도 2015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3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미하일롭카-1과 미하일롭카-4 주거유적 조사

주 제 어 연해주
주거 유적
말갈
주거지
토기
라콥카 그룹

말갈족은 발해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발굴조사된 중요한 말갈 주거유적에 2개소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된 논문이다.

미하일롭카-1Михайловка-1(Mikhailovka-1) 주거유적은 총 5개 수혈이 라콥카Раковка(Rakovka) 강 우안에 규칙 없이 배치되어 있다. 수혈은 원형을 띠고 있으며 직경 6~8m이다. 1989년에 조사된 1호 주거지는 반지하식이고 평면상 말각장방형이며 면적은 24㎡이다. 벽체의 높이는 0.2~0.4m이고 서남 · 동남 모서리에서 작은 단이 있다. 바닥은 평평하고 중앙에 원형 노지가 설치된다. 주거지 모서리에 주혈이 확인되나 나무 구조물이 남아 있지 않다. 출토 유물은 철기(철촉), 석기(숫돌) 및 토기 편 255점이 있다. 토기는 갈색 수제이고 기벽 두께 0.4~0.8cm이고 형태는 복원 불가능하다. 토기 중 평저가 있고 구연 아래에 융기대를 붙여 무문이나 각목문이 시문된 토기가 있다. 동체부에는 2 · 3중 압인문이 시문되었다.

미하일롭카-4 주거유적은 미하일롭카 마을 주변 라콥카 강 우안 테라스 위에 위치한다. 유적의 면적은 약 4,000㎡이며 총 15기 수혈이 일렬로 배치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은 원형이며 직경 4~8m이다. 2006년에 2기를 발굴조사하였다.

1호 주거지는 반지하식이고 평면상 말각장방형(4×4.2m)이며 면적은 16㎡이다. 벽체의 높이는 약 0.2m이다. 바닥은 평평하고 중앙에 원형 노지가 설치된다. 주거지 모서리에 주혈 구멍이 발견되었다. 주거지에서 나무 구조물이 남아있지 않다. 내부에서 수제토기 편 70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구연이 외반하고 구연 아래에 융기대를 붙여 각목문이 시문되고 동체부에는 1 · 2중 압인문이 시문되었다. 하부에서는 수직 방향으로 침선문이 시문된 토기도 있다.

2호 주거지는 반지하식이고 평면상 말각장방형이며 면적은 약 20㎡이다. 벽체의 높이는 0.2~0.5m이다. 바닥은 평평하고 진흙을 바른 흔적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중앙에 원형 노지가 설치되었고 모서리에 주혈이 발견되었다. 벽체에 따라 나무 구조물이 남아있다. 유물은 모자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청동 장식품과 갈색 수제토기 약 100점이 출토되었다. 구순이 외반하거나 내건하고 구연 아래에 융기대를 붙여 무문이나 각목문이 시문된다. 평저도 있고 동체부에 2중 압인문이 시문된 토기도 있다.

주거지의 구성과 출토 유물을 보아 5~8세기로 편년된 노보셀리세-2Новоселище-2(Novoselische-2) · 라콥카-10 · 미하일롭카-2 주거유적과 유사하다.

그 림 1. 미하일롭카-1 주거유적의 평면도. 1989년에 Yu.V. 크리불랴가 견취도 함
2. 미하일롭카-1 주거유적의 1호 주거지 평면도
3. 미하일롭카-1 주거유적의 1호 주거지 출토유물: 1 – 철기; 2–8 – 수제토기 편
4. 미하일롭카-1 주거유적의 1호 주거지 출토 수제토기 편
5. 미하일롭카-4 주거유적의 평면도. 1992년에 Yu.V. 크리불랴가 견취도 함
6. 미하일롭카-4 주거유적의 1호 주거지 평면도
7. 미하일롭카-4 주거유적의 1호 주거지 출토 수제토기 편
8. 미하일롭카-4 주거유적의 2호 주거지 평면도
9. 미하일롭카-4 주거유적의 2호 주거지 출토유물: 1 – 청동제 장식품; 2–15 – 수제토기 편

해 제 M.A. 스토야킨

Кривуля Ю.В. 2015.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селений Михайловка-1 и Михайловка-4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3.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447-458

| 해제 | 이 논문에서는 연해주 말갈 문화를 대표하는 2개 유적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통해 발해와 말갈과의 연관성 연구에 대한 비교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Ya.E. 피스카료바Я.Е. Пискарева(Ya.E. Piskareva)(2005)는 2개의 유적을 라콥카 그룹에 포함시켰는데 필자도 주거지의 형태와 출토유물간의 유사성을 통해서도 라콥카 그룹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저 자 Yu.V. 크리불랴
Ю.В. Кривуля
Yu.V. Krivulya

연 도 2015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3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아브라몹카-3 중세 전기 주거유적의 주거유구와 경제유구

주 제 어 주거유적
주거유구
경제유구
중세
연해주

목 차
1. 머리말
2. 주거유구
3. 경제유구
4. 맺음말

그 림
1.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 평면도 (1), 주거유구 및 경제유구 배치. Yu.V. 크리불랴에 의한 견취도 (1989년)
2. 1, 3호 주거유구의 불탄 구조물의 평면도.
3. 5, 6호 주거유구의 불탄 구조물의 평면도.
4. 1,3호 주거유구의 아래 생활면의 평면도.
5. 생토층 평면도, 1,4호 주거유구의 테두리 (벽) 및 수혈구덩이의 토층 단면도.
6. 대륙의 평면도, 3, 6호 주거유구의 테두리(벽) 및 수혈구덩이의 토층 단면도.
7. 1, 2호 주거유구의 평면도 및 토층 단면도.

해 제 S.S. 실리체바

이 논문은 연해주 아브라몹카–3Абрамовка-3(Abramovka-3) 주거유적의 주거지와 건축유구(경제유구)에 대한 간략한 조사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필자는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에 대한 1990년대의 발굴성과 보고서를 기초로 주거지와 건축유구만을 소개하였다. 유구의 발굴 과정, 토층, 구조 등 특징에 대한 내용이다.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은 1989~1993년에 조사되었고 주거지에 해당하는 수혈은 12개 확인되었는데 배치에는 규칙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 사이에 건축유구가 노출되었다. 이 유구에서 수집된 목제 구조목의 방사성 탄소연대는 기원후 7세기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장방형이며 모서리가 원만하고, 타서 숯이 된 목제 기둥은 유지되어서 지붕은 우진각지붕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기둥 구멍도 남아 있고 바닥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주거지 안의 공간 분화가 있었고, 생산 공간이 존재하였지만 전체적으로 한 주거지는 3~5명의 작은 가족을 위한 집이었다.

경제유구는 주거유구 사이에 배치되었고 원형에 가까운 형태였다. 이들 안에 6개의 기둥 구멍이 확인되어서 목제 마루가 안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으나 아마도 식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추정된다.

Кривуля Ю.В. 2015. Жилища и хозяйственные постройки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поселения Абрамовка-3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3.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469-480.

| 해제 | 이 논문은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 중 주거 및 경제유구 등을 통해 연해주 중세 전기를 연구하는데 가치가 있다. 소개된 유구는 도면과 같이 정리되어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이 논문은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 자 Ya.E. 피스카료바
Я.Е. Пискарева
Ya.E. Piskareva
연 도 2010
간행물명 『천년기의 장막을 열면서: Zh.V. 안드레예바 80주년 기념』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남사면 고고학 조사(1958~1965)

주 제 어 연해주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다층위 유적
초기철기시대
올가 문화

목 차
1. 머리말
2. 1958년 시굴갱 출토 유물
3. 1959년 발굴 출토 유물
4. 1963, 1965년 조사

시니예 스칼리Синие Скалы(Siniye Skaly) 유적은 연해주 동편 아바쿠몹카Аввакумовка(Avvakumovka) 강변하구에 위치한다. 1915년에 처음으로 조사된 후, 1958년에서 1972년까지 간헐적으로 조사되었다. 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 문화층과 발해 문화층이 알려져 있으며, 연해주에서 올가 문화를 분리하게 된 유적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연해주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남사면에서 1958년에서 1965년까지의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문환-연대를 분석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글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958년 시굴갱 유물

남사면 중앙부에 4×1m 크기의 시굴갱을 넣어 조사하였다. 약간의 토기편이 나왔는데, 부드럽게 외반한 구연 또는 'ㄱ'자와 같이 크게 외반한 구연부가 출토되었으며, 수평 침선문이 새겨진 것도 있다. 이러한 유물은 1972년에 발굴된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데, 초기철기시대로 편년되었으나, 고고학적 문화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초기중세의 토기는 연해주 초기중세 말갈유적(트로이차-5, 보리솝카-3 등)과 유사하며, 구연 아래와 동체부에 덧띠가 있는 수제 발형토기는 크라스키노 같은 발해 유적 출토품과 유사하다. 청색 유리제 구슬은 체르냐티노-5 발해 유적 출토품과 닮았다. 격자 타날문 토기는 올가 문화에 속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타날문은 연해주 발해 유적(고르밧카, 크라스키노, 마리야놉카 성) 출토 수제토기에도 많다.

2. 1959년 발굴 유물

주거지가 1기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일부만이 발굴범위에 포함되어 일부만 노출되었다. 세 줄의 단 같은 것이 'ㄷ'자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저장구덩이와 노지가 나왔다. 바닥 출토유물 중에는 접시 같은 구연부를 가진 광구호, 동체 · 구연 · 목에 문양 있는 토기, 덧띠문이 있는 호형토기, 지두문이 있는 토기 등이 있다. 제작기법, 문양, 기형으로 보아 올가 문화에 속한다. 서북편 내부토에서 나온 토기들 역시 올가 문화에 속하는데, 동체에 격자문, 크게 외반한 구연 등은 불로치카Булочка(Bulochka), 글라좁카Глазовка(Glazovka) 유적 출토품과 일치한다.

한편 1층과 내부토에서는 'ㄱ'자형 외반구연 토기와 부드럽게 외반한 토기, 두꺼운 기벽의 토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초기철기시대에 속한다. 이밖에 발해 유물들도 출토되었는데, 이른바 '3겹입술' 구연부는 마리야놉카 유적 출토품(5%)에서도 보인다. 상층부에서 출토된 철촉들은 유엽형 유경식촉으로 크라스키노 성, 체르냐티노-2 주거유적 등 발해 유적의 출토품이다. 청동과대장식은 9~10세기 말로 편년되는 것이다.

그 림 1.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남사면 평면도
2.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1958년 시굴갱 단면도와 출토유물
3.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1959년 출토유물
4.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1959년 주거지 평면과 단면도
5.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1963년 제2구역, 1965년 제1구역, 유구 평면과 단면도
6.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1963년 출토유물
7.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1965년 출토유물
8.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1965년 출토유물

해 제 홍형우

이밖에 교란층에서는 잔손질된 칼이 나왔는데, 비록 토기가 함께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신석기시대 보이스만Бойсман(Boisman) 문화로 볼 수 있다. 이는 1977년, 1983~84년에 유적 중앙부 발굴에서 신석기시대가 있었던 것과 같다.

3. 1963 · 1965년 조사

1963년에는 남사면 발굴구역 가장 남쪽(제1구역)에서 조사하였다. 1963년(제2구역)과 1965년(제1구역) 발굴에서는 토기 가마와 주거지 2기 등 모두 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1963년 조사된 토기 가마에서 두형토기 6점과 암포라형 토기 2점이 출토되었다. 1호 주거지는 1965년 발굴 제1구역에서 나왔는데 크기는 3×5m이고 방형에 가깝다. 2호 주거지는 서북편에서 나왔으며 크기는 3.2×4.3m이다. 중앙 부분에 노지가 있다.

문제는 이 세 유구가 동시대 유구인지와 이들이 어떤 문화–연대에 속하는지를 알아내는 일이다. 먼저 토기 가마와 주거지 바닥 출토유물은 일련의 공통된 특징을 보여준다.

1. 3 유구 바닥에서 출토된 토기는 제작기법상 공통된다. 한 점만이 예외적으로 회전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수제이다. 그러나 세 유구 출토유물에는 약간의 차이도 보인다. 토기 가마 바닥에서는 두형토기와 암포라만 출토되었다. 1호 주거지 바닥에서는 두형토기와 'ㄱ'자형 구연부토기가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 바닥에서는 깔기형 목을 가진 화병형과 암포라가 출토되고 두형토기는 나오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키옙카Киевка(Kievka) 유적, 말라야 포두셰치카 유적 토기상과 유사하다.

2. 다른 유물이므로 석기 역시 칼, 마제석부 등 공통된 것이 많다. 철기는 비록 소량이지만 출토되었다. 석기들은 초기철기시대에 사용된 석기들과 유사하다. 얀콥스키Янковская(Yankovsky) 문화에 속한다.

이와 같이, 주거지와 토기 가마 바닥에서 축토된 토기와 다른 유물들은 공통된 요소가 많으며, 따라서 같은 문화–연대에 속한다. 1963년과 1965년에 발굴된 세 유구에서 출토된 토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꺼운 기벽, 둘째, 'ㄱ'자형 구연부와 동체부 침선문 토기, 부드럽게 외반하는 구연부와 경부를 따라 덧띠문이 있는 토기, 대형 암포라, 셋째, 문양이 조금 있거나 없는 토기. 이와 같은 특징은 얀콥스키 문화 토기의 특징과 같다. 말라야 포두셰치카, 발렌틴 유적에서 이러한 양상이 잘 보인다. 두형토기 역시 얀콥스키 문화의 특징적인 두형토기와 같다.

한편, 토기 가마에서 나온 토기가 얀콥스키와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 문화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견해가 있다(E.V. 시도렌코E.B. Сидоренко(E.V. Sidorenko)). 당초 토기 가마와 주거지는 올가 문화로 본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올가문화에 속한 것은 1959년 조사된 주거지뿐이다. 1963년과 1965년에 발굴된 유구는 초기철기시대에 속하며 현재로서는 고고학적 문화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Пискарёва Я.Е. 2010.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южном склоне поселения Синие Скалы в 1958—1965 гг. // Приоткрывая завесу тысячелетий: к 80-летию Жанны Васильевны Андреевой. Владивосток: ООО «Рея». С. 165—169.

저 자 V.I. 볼딘
В.И. Болдин
V.I. Boldin

연 도 2000
간행물명 『극동의 역사와 고고학: E.V. 샤프쿠노프 70주년』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발해 야요지
-코르사콥카 주거유적 자료를 중심으로

주 제 어 연해주
발해
주거유적
가마터

그 림 1. 가마터 1–3 평면도

해 제 이우섭

이 논문은 코르사콥카Корсаковское(Korsakovka) 유적의 조사내용으로 확인된 3기의 가마터에 대해 기술하고 그 구조적 특징에 대해 살펴본 글이다. 새 문단으로 일대의 거의 모든 발해 유적에서는 다양한 생산 시설들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도토기류 제작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발굴조사를 통해 많은 양의 토기편들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와(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와 토기류(니콜라옙카-2Николаевское-2(Nikolaevka-2) 성, 코르사콥카 주거유적)의 소성을 위한 가마터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코르사콥카 주거유적에서는 소성실이 잘 남아있는 공방지가 발굴되었다. 주거유적는 연해주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발해국의 동쪽 수도였던 솔빈부率賓府의 남쪽에 해당한다.

주거유적내의 가마와 수혈의 발견은 공방지와 같은 통합된 생산 복합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혈형태의 가마구조는 열의 손실을 막고, 점토질 소성의 보다 나은 결과물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기벽이 두껍고 큰 토기들의 소성은 좋지 못했다. 이러한 토기들을 위한 소성을 위해 충분한 온도가 보장되지 못했다. 따라서 제대로 소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량품의 토기들은 1/3이 기벽이 두꺼운 토기에서 나온 것들이다.

가마터는 구조상 크라스키노와(기와 가마) 발해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기와, 벽돌 가마) 동경성東京城에서 발굴조사된 가마와 유사하다. 상경성과 크라스키노 가마터 역시 수혈 내에 형성되어 있었고, 단층으로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러한 유사한 구조물은 고려시대로 이어졌고 20세기까지 한국의 가마터에 잘 남아있었다. 이 가마들은 언덕 경사를 따라 위치했고, 아궁이는 연통부의 중심부 아래에 위치했다. 이것들은 별개의 방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연소실, 소성실, 연통부인 것으로 보인다. 언급하고 싶은 것은, 단층형태의 소성가마가 요나라와 금나라에 존재했고, 발해인과 한국의 가마들은 보다 복잡한 구성으로 차별점이 있었다. 특히 가마터의 바닥과 벽은 다양한 토양들로 이루어진 겹층으로 열을 보호하는데 용이했다.

Болдин В.И. 2000. Бохайские гончарные печ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Корсаковского селища) // История и архе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 70-летию Э.В. Шавкунова. Владивосток. С. 124—127.

| 해제 | 이 논문은 코르사콥카 유적에서 확인된 가마터의 고고학적 조사내용을 충실하게 서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구조적인 비교를 통해 크라스키노와 발해 상경성과의 유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渤海考古學

論文解題集

유물 IV

1) 토기류

2) 금속류

3) 자연유물류

4) 기타유물

01 토기류

E.I. 겔만
Ya.E. 피스카료바 「크라스키노 성의 말갈토기」 ····· 178

E.I. 겔만 「크라스키노 성의 토기」 ····· 180

V.E. 샤프쿠노프 「니콜라옙카-1 성 스몰노예 문화 토기」 ····· 182

S.A. 콜로미예츠 「센키나 샵카 다문화층 유적 토기복합체」 ····· 184

S.D. 프로코페츠 「니콜라옙카-1 성의 다문화 토기」 ····· 185

Ya.E. 피스카료바 「체르냐티노-2 주거유적의 말갈토기」 ····· 186

Ya.E. 피스카료바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의 토기복합체 특징」 ····· 187

Ya.E. 피스카료바 「크라스키노 성 고고자료로 본 발해 문화 내의 말갈요소」 ····· 189

02 금속류

E.I. 겔만
E.V. 아스타셴코바
I.Yu. 부라블료프
A.A. 보이코 「크라스키노 성의 청동거울」 ····· 192

E.I. 겔만
E.V. 아스타셴코바
I.Yu. 부라블료프 「크라스키노 성 고고자료로 본 발해의 청동생산」 ····· 195

Yu.M. 바실리예프 「포크롭카 문화의 무기」 ····· 198

V.I. 볼딘
V.E. 샤프쿠노프 「크라스키노 성의 철촉 형식」 ····· 200

E.V. 아스타셴코바 「크라스키노 성 주민의 장식과 공예」 ····· 202

G.G. 코롤 「연해주와 아무르지역의 투르크식 대장식구: 유사성 문제」 ····· 205

N.A. 클류예프
I.V. 그리다소바 「연해주 콕샤롭카-1 성의 금속 생산 및 금속 작업의 증거」 ····· 208

03 자연유물류

E.I. 겔만 V.A. 라코프 「고르밧카 발해성에서 출토된 연체동물」 …… 210

M.S. 랴셉스카야 L.A. 간제이 「크라스키노 성 문화층에서 나온 고생물학적 연구」 …… 212

N.V. 레셴코 「크라스키노 주민들의 목제 수공업」 …… 214

N.V. 레셴코 「고고자료로 본 연해주 니콜라옙카-2 평지성의 생계 경제」 …… 216

L.N. 베세드노프 E.I. 겔만 「고르밧카 발해 평지성의 어로」 …… 218

O.A. 샤로바, E.I. 겔만 V.A. 라코프 「크라스키노 발해 성에서 출토된 연체동물」 …… 220

E.A. 세르구셰바 「연해주 올가 지구 시니예 스칼리 주거 유적의 곡물종자」 …… 221

E.A. 세르구셰바 E.I. 겔만 「아브리코스-1 발해마을 유적에서 출토된 식물종자의 결과」 …… 223

E.A. 세르구셰바 E.I. 겔만 「크라스키노 성의 동문지 조사구역 출토 시료에 대한 부유법 식물분석 예비결과」 …… 225

V.E. 오멜코 M.A. 비노쿠로바 「2009년 크라스키노 성 출토 동물뼈 분석」 …… 227

04 기타유물

N.V. 레셴코 「크라스키노 성의 토제 건물장식품」 …… 229

V.A. 벨랴예프 S.V. 시도로비치 「연해주의 신 발견 금석문 유물」 …… 231

V.I. 볼딘 N.V. 레셴코 「연해주 발해유적의 석제와 토제 상호 횡단 투공이 있는 물품에 대한 문제」 …… 235

E.V. 아스타셴코바 「연해주 발해와 여진의 예술에서 용」 …… 237

E.V. 아스타셴코바 「크라스키노 성의 고누알」 …… 239

크라스키노 성의 말갈 토기

저 자 E.I. 겔만 외
Е.И. Гельман
E.I. Gelman

연 도 2002
간행물명 『동아시아의 전통문화』 4호
발 행 처 국립 아무르대학교

주 제 어 말갈
발해
토기
크라스키노성
형식분류
기술
기법

목 차
1. 머리말
2. 발해 유적의 말갈 토기 및 트로이츠코예 유형의 연해주 유적 분류 쟁점
3. 크라스키노 성의 말갈 토기의 유형분석 및 기술기법 분석
4. 크라스키노 성의 말갈 토기의 유형 특징 및 문양
5. 크라스키노 성의 말갈 토기의 기술·기법 특징
6. 크라스키노 성의 말갈 토기 연구 성과
7. 맺음말

이 논문은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에서 출토된 말갈 토기를 살펴보고 트로이츠코예Троицкий(Troitsky) 그룹의 토기와 비교연구하였다.

필자는 크라스키노 성에서 출토된 토기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다른 말갈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와 비교하여 분류하였다.

이 논문은 말갈 토기를 분류하는 과정에 어떤 속성 유무뿐만 아니라 그 속성의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발해 유적 중에 발해에 일찍 편입된 유적 연구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트로이츠코예 그룹은 오시놉카Осиновка(Osinovka), 우스티-막시몹카Усть-Максимовка(Ust'-Maksimovka), 클류체보예Ключевое(Klyuchevoe), 우툐스노예Утёсное(Utesnoe) 주거유적들, 켐스코예Кемское(Kemskoe), 쿠즈네초브스코예Кузнецовское(Kuznetsovo), 투나이나Тунайна(Tunaina)성 등이 있다. O.V. 디야코바O.B. Дьякова(O.V. Dyakova)는 토기 문양을 바탕으로 하여 트로이츠코예 그룹을 분류하였지만 필자는 그가 근거로 제공했던 사실을 비판한다. 즉, 문양과 토기 유형 사례, 태토, 기법 등을 주관적으로 비판한 뒤에 연해주 유적에서 트로이츠코예 유형의 분류방식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크라스키노 성에 말갈 토기가 많지 않으며 1983~2001년간에 말갈 토기는 150점 이상 발견되었으며 적어도 토기 47점으로 복원될 수 있다. 크라스키노 성의 윗생활면에는 말갈 토기가 2.3%를 초과하지 않았고 이들은 모두 발해 윤제 토기와 함께 발견되었다. 말갈 토기는 출토지에 따라 4개의 소그룹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그룹은 수제 토기로 대표되고 2개체가 복원되었다. 이 그룹의 토기는 구순口脣이 있고 격자문을 확인하였다. 두번째 소그룹은 12개의 수제 토기와 12개의 윤제 토기 몇몇의 조각으로 대표되고, 구순 모양이 4가지로 분류된다. 오목한 문양은 2개의 토기에서만 확인되었다. 세번째 소그룹은 3개의 수제 토기로 대표되는데 구순에 문양이 확인되며 오목한 문양과 광택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이 중 한 토기는 구순이 없으므로 말갈 토기가 아니라고 주장된다. 네번째 소그룹은 7개의 수제 토기, 5개 윤제 토기로 대표되고 구순에서는 문양이 확인되지만 오목한 부분의 문양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첫번째 소그룹과 두번째 소그룹은 서로 비슷하며, 세번째 소그룹과 네번째 소그룹도 서로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첫 번째 소그룹과 두번째 소그룹을 그룹 A로, 세번째 소그룹과 네번째 소그룹을 그룹 B로 분류하였다.

필자는 태토를 분석하여 특징을 서술한 다음 토기 기법을 살펴보았다. 토기는 한

그 림 1. 1소그룹 말갈 수제 토기; 1~6 V.I. 볼딘В.И. Болдин(V.I. Boldin) 견해, 7~13 O.V. 디야코바 견해.
2. 2소그룹 말갈 수제 토기
3. 2소그룹 말갈 윤제 토기
4. 3소그룹 말갈 수제 토기
5. 4소그룹 말갈 수제 토기
6. 4소그룹 말갈 윤제 토기

해 제 S.S. 실리체바

단계씩 걸쳐서 테쌓기 기법으로 제작되었고 토기를 말린 뒤 오목한 문양을 만들었다. 또한 토기 표면에 광택을 내기도 하였다. 소성燒成 방법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토기에 탄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요리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주장한다. 또한 토기 두께는 얇아져서 견고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격자문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본고에는 그 외 다양한 제작 과정과 변형도 서술되었다.

크라스키노 성의 말갈 토기는 형태와 기법에 따라 2그룹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말갈 토기는 한 전통 안에 변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그룹들은 토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 그룹은 더 이른 시기이며 다른 그룹은 보다 늦은 시기였다. 또한 격자문과 구순을 갖는 특징은 트로이츠코예 그룹의 토기와 유사하다고 보지만 실제로 차이점이 더 많아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내용이다.

크라스키노 성에서는 발해 문화 이른 시기의 말갈 토기가 적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갈 토기는 발해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것으로 연해주 발해 유적을 특징짓는다고 본다. 다른 발해 유적에는 트로이츠코예 그룹 토기와 비슷한 부분이 확인된 다른 토기 전통도 존재하였다.

말갈족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경제활동도 달리하였는데 이것은 유형문화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말갈문화는 그 어떤 특징의 유무 및 유사성에 근거할 수 없고 그 특징의 의미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해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유적의 토기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Гельман Е.И., Пискарева Я.Е. 2002. Мохэская керамика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Вып. 4. Благовещенск: Изд-во АмГУ. С. 156-178.

| 해제 | 이 논문은 크라스키노 성의 토기를 트로이츠코예 그룹 토기와 비교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말갈과 발해 요소가 고려된 토기 생산의 기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이전의 말갈 토기 특징을 분류한 O.V. 디야코바의 연구를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가설을 주장하였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필자들이 분류한 말갈 토기는 기법 · 기술 · 형식 등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어 이 논문은 말갈 토기를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크라스키노 성의 토기

저 자 E.I. 겔만
Е.И. Гельман
E.I. Gelman

연 도 2018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2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윤제토기
수제토기
크라스키노성
발해
토기형식
생산기술

목 차
1. 머리말
2. 생산 기술
1) 수제 토기
2) 윤제 토기
3. 토기 형식
1) 수제 토기
2) 윤제 토기
4. 맺음말

이 논문은 2018년 이전까지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에서 출토된 토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형식분류를 하기 위하 쓰여 졌다.

E.I. 겔만은 계속 발굴 중인 크라스키노 성에 대하여 2018년 이전까지 출토된 토기를 모두 분석하여 구체적인 형식분류를 하였다. 더불어 토기의 기술 · 기법 · 함량성분 등을 시도하였다.

필자는 크라스키노성 출토토기를 28그룹 및 77형으로 구분하였다. 게다가 수제와 윤제 토기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룹과 유형의 특징과 제작기법을 설명하였다.

크라스키노성은 행정 중심지이자 항구도시였다. 지금까지 발굴조사 과정에는 대략 10만 점의 토기 편이 출토되어 부분 복원 500점 이상, 완전 복원 170점 이상 진행되었다. 유약을 바른 토기와 유약을 바르지 않은 토기 2종류, 수제 토기와 윤제 토기 2 종류로 나뉘기도 한다. 본고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는 토기만 살펴보았다.

크라스키노 토기를 수제와 윤제로 나누어서 특징을 소개한다. 수제 토기는 태토를 살펴보고 그 제작 과정을 설명한다. 제작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밑에서 위로 점토 띠를 쌓고 나서 반반하게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구연부를 따로 붙혀 구순口脣으로 꾸몄다. 그 다음으로 표면 가공과 문양을 시문하고 마연까지 하였으나 문양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이후 필자는 소성도와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이 토기들은 오직 요리할 때 이용하였다고 추정한다.

윤제 토기도 태토를 살펴보면서 제작 과정을 설명한다. 윤제 토기는 물레에서 윤적법으로 점토 한 덩어리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수제 토기와 비슷하게 테를 밑에서 위로 쌓은 다음 반반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구연부를 제작하였다. 표면을 건조하게 한 후 마연하였는데 이로 인해 토기 안쪽과 바깥에 오목하거나 돌출한 문양이 생겼다. 또한 슬립을 바르기도 하였다. 소성은 산화소성, 환원소성과 이둘 사이의 소성방법도 적용되었다.

수제 토기는 A로 지정하며, A류는 총 토기 1% 이하에 달한다. A류의 토기는 부분적으로 유지되었는데 연해주에 확인된 5그룹 중에 크라스키노 성에서는 말갈 토기를 포함하여 3그룹(A1, A4, A5)의 토기가 발견되었다.

윤제 토기는 B류로 명하게 되고 28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B1그룹~B28그룹은 말갈 토기, 여러 가지 호형, 배형, 여러 가지 접시, 뚜껑, 화병형, 단지와 항아리, 솥, 대야, 병, 삼족기, 받침, 잔, 향로 등 다양한 유형을 수량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며 토기 분

표 1. 수제 토기
2. 윤제 토기
3. 윤제 토기(2)
4. 윤제 토기(3)
5. 윤제 토기(4)
6. 윤제 토기(5)
7. 윤제 토기(6)

그 림 1. 크라스키노 성의 호 및 단지 구연부의 지름 비례
2. 크라스키노 성의 배 및 대접 구연부의 지름 비례
3. 크라스키노 성의 접시 구연부의 지름 비례

해 제 S.S. 실리체바

류에 대한 도면도 제공한다. 토기 유형이 다양하지만 수량이 가장 많은 토기 유형은 호형이다. 또한 남아 있는 상태가 좋지 않은 토기가 있음에도 다른 유적의 유사한 유물과 비교해서 분류하였다.

수제 토기는 3그룹이고 각 그룹은 3유형으로 구분된다. 윤제 토기는 28개 그룹으로 구분하지만 각 그룹에는 유형 수가 서로 다르며 총 77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필자는 앞으로 발굴조사와 심도 깊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고에는 기법과 기술 특징과 문양에 대한 관찰도 소개하고 있다.

Гельман Е.И. 2018. Керамика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2.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40-64.

| 해제 | 이 논문은 2018년까지 크라스키노 성에서 출토된 토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기는 기술 · 기법 · 함량 · 성분 · 유형 · 문양 등 여러 면으로 연구하여 소개되었다. 더불어 토기 유형의 도면이 표로 제공하고 있어 발해나 말갈 토기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분류한 토기 유형들은 지나치게 간략히 설명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저 자 V.E. 샤브쿠노프
В.Э. Шавкунов
V.E. Shavkunov

연 도 2016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4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니콜라옙카-1 성 스몰노예 문화 토기

주 제 어 니콜라옙카-1 성
스몰노예 문화
발해
말갈
폴체(올가)
크로우놉카

2015년에 연해주 미하일롭카Михайловский(Mikhailovsky) 지구에 위치하는 니콜라옙카-1Николаевское-1(Nikolaevka-1)성에서 스몰노예Смольнинская(Smolnoye) 문화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그 문화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논문 2편(I.S. 주시홉스카야 И.С. Жущиховская(I.S. Zhushchikhovskaya), S.D. 프로코페츠 С.Д. Прокопец(S.D. Prokopets))이 발표되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몰노예 문화의 서쪽 경계 확장과 발해와 스몰노예 문화 접촉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발굴자(S.D. 프로코페츠)에 따르면, 스몰노예 문화에 속하는 격자문 토기편이 발굴구역1에서는 3점, 발굴구역2에서는 33점이 출토되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토기는 발해에 속하며 이밖에 말갈, 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 자이사놉카зайсановская(Zaisanovka) 문화 토기도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 필자에 따르면 격자문 토기는 미하일롭카 지구 발해 유적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며, 여러 여진 유적에서도 확인되는 등 많은 중세 유적에 격자문 토기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모두 스몰노예 문화에 속하지 않는다. 실제 니콜라옙카-1 유적에서 발굴자에 의해 스몰노예 문화로 구분된 토기는 1구역에서는 800편 중 3편, 2구역에서는 4,000편 중 33편으로 전체 0.5%에 불과하다. 스몰노예 층이 명확히 구분된 것도 아니다.

또한 필자는 스몰노예 문화 수제토기 1그룹으로 본 토기편들은 크로우놉카 문화로, 2그룹으로 본 것은 올가 문화의 토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스몰노예 문화로 확실한 것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모든 증거들로 보았을 때, 니콜라옙카-1 성은 스몰노예 문화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반대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니콜라옙카-1 성의 발굴구역 이외 지역에 스몰노예 문화층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니콜라옙카-1 성이 위치하는 스텝 지역에는 6세기에 말갈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며 7, 8세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스몰노예 문화인들이 말갈 거주지역으로 산악지대를 넘어 힘겹게 넘어왔을 리가 없으며, 사료상으로도 미하일롭카 지구은 7~8세기에 점진적으로 말갈과 발해인이 점유하였다.

필자는 니콜라옙카-1 성에서 출토된 스몰노예 토기와 유사한 격자타날문토기는 전형적인 스몰노예 토기인 윤제 호형토기와는 달리 단지나 발형토기 등에 시문된 것이며, 격자타날문 구연부편 역시 스몰노예 토기와는 다른 것으로 본다.

그 림 1. 니콜라옙카-1 성 토기(S.D. 프로코페츠)
2. 스몰노예 성 수제토기 첫 번째 그룹 토기 저부 각종
3. 샤이가-레두트 성 수제토기 두 번째 그룹 토기 구연부 각종

해 제 홍형우

그러나 스몰노예인과 발해인이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으며, 발해 영역을 통해 시베리아, 자바이칼, 아무르의 상품이 스몰노예 쪽으로 들어왔을 수 있으며, 스몰노예 문화의 특징이 있는 발해의 미니어쳐 토기가 교역의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니콜라옙카-1 성에는 스몰노예 문화에 속하는 수제토기는 없으며, 격자문 윤제토기 편의 수도 많지 않으며, 그 층도 확실치 않다. 따라서 이 유적을 스몰노예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Шавкунов В.Э. 2016. «Смольнинская керамика» Николаевского-1 городищ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4.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406-414.

| 해제 | 이 논문은 스몰노예 성과 샤이가-레두트Шайга-Редут(Shaiga-Redut) 성 발굴을 통해 분리된 스몰노예 문화가 서편으로 수 십 km 떨어진 미하일롭카 지구에 위치하는 니콜라옙카-1 성에서 확인되었다는 두 편의 논문에 대한 반박 논문이다. 스몰노예 문화의 연대는 발해와 거의 동시기인 8~11세기로 편년되며, 격자타날문 윤제토기 대호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제작기법은 공반되는 수제 연질토기를 통해, 연해주의 폴체(올가) 문화와 크로우놉카 문화의 수제토기 제작기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적은 주로 연해주 남동부에 분포한다. 스몰노예 문화를 발해와는 다른 독립된 문화로 보는 논문의 필자와는 달리 발해의 지방 유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저 자 S.A. 콜로미예쯔
С.А. Коломиец
S.A. Kolomiets

연 도 2000
간행물명 『극동의 역사와 고고학: E.V. 샤프쿠노프 70주년』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센키나 샵카 다문화층 유적 토기복합체

주 제 어 연해주
주거유적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발해
토기

그 림 1.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토기
2. 초기철기시대 토기
3. 중세시대 토기

해 제 M.A. 스토야킨

이 논문은 센키나 샵카Сенькина Шапка(Sen'kina Shapka)에서 출토된 모든 토기를 분류하여 유적의 운용시기를 규명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수이푼綏芬河 중류, 언덕 위에 위치하며 1955~56년에 조사된 후 신석기시대, 철기시대와 여진문화에 걸쳐 운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필자는 토기분석을 통해 이 유적이 신석기 · 청동기시대,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 문화, 폴체Польце(Poltse)(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문화와 발해시기 등 총 5단계로 운영된 것으로 주장한다.

신석기시대 토기는 형태, 태토, 문양 등으로 보아 자이사놉카зайсановская(Zaisanovka) 문화의 토기와 유사하다.

청동기시대 토기는 외반구연호가 주종을 이루며 무문이고 표면 색조, 태토 등에서 시네가이Синегайская(Siniy Gai) · 리돕카лидовская(Lidovka) 문화에 확인된 토기와 매우 유사하다.

수량이 적은 일부 토기는 무문이고 태토, 표면 마연, 기형(시루, 그루형 손잡이, 두형) 등으로 보아 크로우놉카 문화 유적 출토 토기와 비슷하다.

다음 운영 기간은 연해주 남부의 폴체(올가)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나팔형 토기의 구연부, 외반구연호, 풍부한 문양, 수제공법, 태토, 색조 등 요소가 해당된다.

발해 시기에 속하는 회색, 흑회색 윤제토기 6~7점은 뚜껑, 시루, 완, 관 등이 포함된다.

출토유물의 수량으로 보아 유적은 청동기시대에 가장 오래 운용한 것으로 보이나 각 문화에 따라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Коломиец С.А. 2000. Керам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многослойного памятника Сенькина Шапка // История и архе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 70-летию Э.В. Шавкунова. Владивосток. С. 49-52.

| 해제 | 이 논문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에 대한 종합적인 형식분류와 비교를 통해 유적은 선사~발해까지 오랜 기간을 운영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연해주 고고 편년의 다양한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 자 S.D. 프로코페츠
С.Д. Прокопец
S.D. Prokopets
연 도 2016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3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니콜라옙카-1 성의 다문화 토기

주 제 어 니콜라옙카-1 성
다층위 유적
스몰노예
발해
말갈
폴체(올가)
크로우놉카
자이사놉카 문화

목 차 1. 머리말
2. 중세
3. 초기 중세
4. 철기시대
5. 초기철기시대
6. 신석기시대
7. 참고문헌

표 1. 발굴 1. 층위별 토기
2. 발굴 2. 층위별 토기
3. 니콜라옙카-1 성 출토 여러 문화의 토기 편년표

그 림 1. 니콜라옙카-1 성 평면도

해 제 홍형우

니콜라옙카-1Николаевское-1(Nikolaevka-1) 평지성은 연해주 미하일롭카Михайловский(Mikhailovsky) 지구에 위치한다. 성은 평면 장방형, 면적 7.5ha이다. 첫 번째 발굴조사는 1977년에 실시되어, 발해와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 문화층이 확인된 바 있다. 2010년에 발굴구역1(5×5m)과 발굴구역2(10×10m)에서 면적 125㎡를 발굴하였고, 2012년에 발굴구역2를 추가 조사하였다.

10cm씩 제토하여, 발굴구역1에서는 8개, 발굴구역2에서는 9개의 인공층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성 건축과 생활 구덩이 흔적이 확인되었고, 토기,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대부분의 토기는 발해 시기이며, 그 밖에 초기철기시대, 신석기시대 토기도 구분되었다.

시대별 토기는 다음과 같다.

중세시대는 대부분이 발해 토기로 호형, 대상파수 호형, 완형의 기종이 구분되며, 윤제, 수제와 윤제, 회전판 손질로 제작되었다. 격자문 토기인 스몰노예Смольнинская(Smolnoye) 문화 토기편도 소량 출토되었다.

중세 초기의 말갈 문화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그룹 토기가 소량 출토되었다.

발달된 철기시대의 폴체Польце(Poltse) 역사문화공동체(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 문화) 토기가 소량 출토되었다.

초기철기시대는 크로우놉카 문화 토기가 소량 출토되었다.

신석기시대인 자이사놉카Зайсановская(Zaisanovka) 문화 한카Ханка(Khanka) 유형의 토기가 소량 출토되었다.

Прокопец С.Д. 2015. Разнокультурная керамика из городища Николаевское-I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3.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345-350.

| 해제 | 이 논문은 발해 성으로 잘 알려진 니콜라옙카-1 성에서 새로운(2010, 2012년) 발굴을 통해, 신석기시대층에서 발해층까지 다양한 문화가 분포하였음을 보여준다.

저 자 Ya.E. 피스카료바
Я.Е. Пискарева
Ya.E. Piskareva

연 도 2001
간행물명 『동아시아의 전통문화』 3호
발 행 처 국립 아무르대학교

체르냐티노-2 주거유적의 말갈토기

주 제 어 말갈
발해
토기
체르냐티노
수제토기
윤제토기
형식분류
연해주

목 차 1. 머리말
2. 수제 토기
3. 윤제 토기
4. 맺음말

도 면 1. 깊이 잘라낸 구멍이 있는 토기
2. 수제 토기
3. 제목 없음; 윤제 토기

해 제 S.S. 실리체바

이 논문은 체르냐티노-2Чернятино-2(Chernyatino-2) 주거유적에서 확인된 새로운 연해주 토기 자료를 소개하는 것이다. Yu.G. 니키틴Ю.Г. Никитин(Yu.G. Nikitin)의 지도하에 체르냐티노-2 주거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Ya.E. 피스카료바는 토기를 수제와 윤제로 구분하고 문양, 기법 등 각각 토기 종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교연구를 통하여 체르냐티노-2 주거유적의 모든 토기는 다른 말갈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체르냐티노-2 주거유적에서 말갈 토기 편은 44점의 윤제와 수제 토기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구연부의 유무에 따라 2그룹으로 잠정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문양 배치에 따라 구순과 용기 윗부분으로, 문양 표면에 따라 오목 무늬, 편평한 무늬, 볼록 무늬로, 문양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찍기, 긋기, 갈고 닦기로 분류하기도 한다.

수제 토기는 전체 토기 70%에 달하고 구연부가 있고 없는 사례가 있다. 이 외에는 중국 유적과 블라고슬로벤노예-2Благословенное-2(Blagoslovennoe-2)에서도 출토된 바 있는 한 측면에서 깊이 잘라낸 구멍이 있는 독특한 형태 토기도 발견되었다. 진흙 줄을 하나씩 붙인 테쌓기법(윤적법)으로 제작했는데 표면을 반반하게 하고 나서 광택을 하였다. 문양은 긋거나 찍었고 27%는 아가리 외부에서 탄착흔이 확인되기도 한다.

윤제 토기는 전체 토기 30%에 달하고, 수제 토기처럼 구연부가 있고 없는 사례가 있다. 윤제토기가 물레나 회전판에 윤적법으로 제작했는데 수제 토기 기법과 같이 표면을 반반하게 하고 나서 광택을 하였다. 문양 자리가 수제 토기와 똑같고 문양 종류는 수제 토기에도 보이는 오목한 무늬와 편평한 무늬에 더불어 돌출한 무늬도 확인된다. 오목한 무늬는 구순과 용기 윗부분에 긋거나 찍힌 것이고, 편평한 무늬는 광택으로 대표되고, 돌출한 무늬는 꼭지 모양이다.

Пискарева Я.Е. 2001. Мохэская керамика поселения Чернятино-2 //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Вып. 3. Благовещенск: Изд-во АмГУ. С. 131-138.

| 해제 | 이 논문은 서로 다른 말갈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 비교되어 체르냐티노-2 주거유적의 토기에 대한 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들 토기가 사용되던 시기를 발해 건국 전후 시기로 본다면 체르냐티노-2 주거유적의 토기도 발해 문화의 일부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술적인 의미가 있는 분류형식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략해서 전문가가 아닌 독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저 자 Ya.E. 피스카료바
Я.Е. Пискарева
Ya.E. Piskareva

연 도 2014
간행물명 『동아시아의 전통문화』 7호
발 행 처 국립 아무르대학교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의 토기복합체 특징

주 제 어 말갈
발해
토기
연해주
주거유적
문양
형식

목 차
1. 머리말
2. 상부 문화층 토기
3. 주거유구 토기
4. 토기 형식분류
5. 토기 문양 기술
6. 맺음말

이 논문은 아브라몹카-3Абрамовка-3(Abramovka-3)주거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특징을 소개하여 말갈 문화에 대해 심도 깊은 정보을 제공하고자 하는 문제인식에서 쓰여졌다.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 발굴성과는 이전에는 간략한 보고로만 언급되었는데 Ya.E. 피스카료바는 이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를 형식 분류하였다. 또한 발해 시기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필자는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의 토기에는 다른 문화요소가 있고 발해보다 더 이른 시기의 것으로 주장한다.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에서 12기의 주거지가 발견되었고 발굴조사는 1989~1992년에 Yu.V. 크리불랴Ю.В. Кривуля(Yu.V. Krivulya), 1999년에는 E.V. 샤프쿠노프Э.В. Шавкунов(E.V. Shavkunov)에 의해 진행되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결과 이 유적은 5~8세기로 편년되었으며 발해 이전 시기의 말갈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만 상부층에는 말갈 주거지와는 다른 구조물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은 적어도 2개의 문화층이 존재한다.

상부 문화층에서 출토된 토기 대부분은 편이지만 단지형 용기가 1점 발견되었다. 이 용기는 수제이며 내부에 불탄 흔적과 아랫부분에 격자문이 확인된다. 나머지 토기 조각들은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사하다.

총 6기 주거지 조사에서 642점의 토기 편과 완형 13점이 출토되었다. 모두가 수제이며 윤적법으로 제작한 토기이다. 불탄 흔적이 확인되어 식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반반하게 하는 기법의 흔적이 있지만 광택이 확인되지 않는데 일부 토기 구연부 밑에 손가락 흔적도 보인다.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특징은 구순口脣이 없는 것으로 2개체와 더불어 8점 토기 편이 발견되었다. 유사한 토기는 루카셉카-5Лукашевка-5(Lukashevka-5), 미하일롭카-1 · 2Михайловка-1·2(Mikhailovka-1·2), 트로이차Троица(Troitsa)만 가마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에서 출토 된 총 13점의 완형의 토기는 구연부가 있는 용기(호형, 화병형)와 구연부가 없는 용기(심발형, 배)가 있었다. 형태는 연해주 서남 에서 위치하는 말갈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사하지만 기종은 단순하다. 문양은 종류와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고 더 넓은 표면에 확인되어서 화려하다. 필자는 문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전체 토기의 35%는 다양한 문양을 가진다고 한다.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은 2개 문화층이 있고, 이 유적 상부 문화층에서 출토된 격

그 림 1.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 출토 토기.
1– 최초 생활면 토기(1990년),
2~4 – 3호주거 토기(1989년),
5 – 2호주거 토기(1990년),
6~9 – 3호주거 토기(1991년),
10~12 – 4호주거 토기 (1992년).

해 제 S.S. 실리체바

자문 토기 중에 일리스타야Илистая(Ilistaya) 강 유역에 위치하는 발해 성들에서 출토된 토기와 유사한 토기가 확인된다.

주거지에서 나온 토기는 발해 이전 시기의 말갈 문화에 속한다. 토기의 특징은 표면과 구연부 가공, 문양에서 볼 수 있고 한카 평원에 위치하는 말갈 유적보다 더 이른 시기로 편년된다. 트로이차만 가마, 자보베드노예–2заповедное-2(Zapovednoe-2)주거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가장 유사하다. 또한 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 문화와 오호츠크охотская(okhotsk) 문화의 요소도 확인된다.

Пискарева Я.Е. 2014. Особенности керам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селения Абрамовка-3 //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Вып. 7. Благовещенск: Изд-во АмГУ. С. 201-211.

| 해제 | 이 논문은 미공개되었던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기술 · 기법 · 함량 성분 등을 분석하여 형식분류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전까지 하나의 문화층을 갖는 유적으로 여겨져 왔던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을 다문화층 유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필자는 토기 특징에 대한 초보적인 분석을 실행하였는데 더 깊은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저 자 Ya.E. 피스카료바
Я.Е. Пискарева
Ya.E. Piskareva

연 도 2019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2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크라스키노 성 고고자료로 본 발해 문화 내의 말갈요소

주 제 어 말갈
발해
초기중세
크라스키노성
주거지
토기
전통

이 논문은 그간 주목되지 않았던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 출토 말갈계 유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층위별 구성 유적 내 주류문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발해가 다민족국가이며, 발해를 구성하는 하나의 큰 세력을 말갈로 보고 있다. 발해는 점점 영토를 확장해서 8세기 전반에는 그 영역이 연해주 남서부까지 이르렀고, 이 지역에는 말갈 원주민이 거주했다. 따라서 말갈의 전통은 발해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다.

크라스키노성은 이미 30년 넘게 발굴이 실시되었고, 이 과정에서 당시의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확보되었다. 따라서 이 유적의 자료는 발해문화 속 말갈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크라스키노성과 주변유적에서 확인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당시 말갈문화의 여러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층위별 토기 변화상을 분석하고 각 시기별로 반영된 말갈문화적 요소를 확인하고 있다.

발해 염주가 존재했을 당시, 주변 해안지역인 표트르대제Петр Великий(Peter the Great)만과 포시에트Посьет(Pos'yet)만에는 이미 말갈 주거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트로이차-2 Троица-2(Troitsa-2) 유적(장기점유 주거지), 바라바시-3Барабаш-3(Barabash-3) 유적, 포시에트 동굴유적(사냥과 어로를 위한 계절성 점유지), 트로이차-5유적(공방지), 로모노소프-2 Ломоносов-2(Lomonosov-2) 유적(패총) 등의 존재로 증명할 수 있다. 상기 유적은 연해주 중부 지역의 말갈 주거유적과는 차이가 있는데, 연해주 중부는 유적 내 주거지의 수가 50~100기인 반면, 남서해안지역은 그 수가 약 10여기이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거유적에는 방어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역 말갈인은 농경, 수렵, 수공업, 수산물 채집 등 다양한 생업활동에 종사하였고, 이 모든 활동은 발해인의 생업활동에서도 확인된다. 말갈인이 주로 재배했던 곡물은 기장과 보리 등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농업이 말갈인의 주된 생계수단은 아니었는데, 이는 다른 발해인의 주거지에서 더욱 다양한 종류의 곡식과 농기구가 출토된 것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또 가축도 사육했는데, 돼지 그리고 말, 개 등이다. 한편 해안지역은 어로에 적합한 입지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말갈유적에서는 어로와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크라스키노성 내에서는 물고기 뼈, 어망추, 낚시 바늘 등의 어로 관련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수산물 채집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 내 발해와

그 림 1. 말갈의 주거지
2. 크라스키노성(2014, 2015년 조사) 제 6건축면 출토 말갈토기편들
3. 2011, 2014년 조사 제 5건축면 출토 말갈토기편들
4. 2007년 조사 제 5건축면 출토 말갈토기편들
5. 2009, 2014년 조사 제 4건축면 출토 말갈토기편들
6. 사원 담장 출입문에서 몇 미터 남쪽으로 떨어진 생업활동과 관련 있는 퇴적물 5~7 인공층 출토 말갈토기들
7. 2014년 조사 제 3건축면 출토 말갈유형 토기편들. 44구역 동, 서 섹터
8. 2009년 조사 제 3건축면 출토 말갈유형 토기편들
9. 사원복합체 근처 제 2건축면 수혈 출토 말갈토기들
10. 사원복합체 내부 제 2건축면 출토 말갈토기들

해 제 박규진

말갈유적에서 그 증거가 확인된다. 분석결과 말갈인은 주로 굴을 채집하였다.

말갈의 전통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것은 주거건축과 토기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말갈 주거지는 기본적으로 수혈식이며, 내부에 쪽구들은 없다. 평균면적은 약 20㎡, 형태는 장방형이나 방형, 주거지의 벽은 수직이고, 주공은 4개에서 9개까지 확인된다. 지붕은 우진각이고, 노지는 평면 방형의 수혈식으로 주로 중앙이나 출입문 반대편 벽 근처에 위치한다. 이러한 특징의 주거지가 크라스키노성 하층 건축면(5~6층)에서 확인되었는데, 상층 건축면(4~1)에서는 지상식 쪽구들이 있는 주거지가 주로 확인된다.

크라스키노성에서 확인되는 토기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말갈계 수제토기와 물레보완토기이고 두 번째는 말갈토기와는 기술적, 형태적 특징이 다른 전형적인 발해 윤제토기이다. 수량으로 봤을 때, 말갈계 토기는 해당유적에서 확인된 전체 토기자료의 2.5%를 넘지 않는다.

이 유적 말갈계 토기는 일찍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발굴의 미비로 인해서 제한적 이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진행된 발굴을 통해서 총 6개의 건축면을 구분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각 층위별 토기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가장 오래된 퇴적층은 제 6건축면으로, 가장 최근인 2014~2015년에 조사되었다. 이 층에서는 말갈계 수제토기편과, 물레보완토기편이 출토되었다. 형태는 주로 심발형이고 구연부에 융기대가 있다. 융기대에 문양이 시문된 경우도 확인되었다. 동체부편의 경우 타날문이 있는 것도 발견된다.

제 5건축면에서는 주거지, 수혈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 두 개의 수혈은 저장 구덩이로 추정할 수 있는데, 내부에서 말갈계 토기가 포함되어 있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7세기 말에서 8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해당 층에서 확인된 6호 주거지에서는 말갈토기편이 10여점 출토되었고 대부분은 느린 속도의 물레보완을 거친 것들이다. 이 토기편들은 주로 기벽이 얇은 편이고, 저부가 얇은 것도 확인된다. 태토에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고, 표면에서 음식물이 탄화한 흔적이 확인된다.

제 4건축면에서 말갈계 토기가 확인된 유구는 13호 주거지와 15호 주거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토기들은 느린 속도의 물레보완을 거쳤고, 구연부에 융기대가 있으며, 융기대에 문양이 시문된 경우도 소수로 존재한다. 한편 사원 담장 출입문 근처 수혈에서 출토된 토기들 역시 이 건축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수혈에서는 '木'이 새겨진 토기도 발견되었다.

제 3건축면의 말갈계 토기는 12호, 17호 주거지 출토품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토기들은 구연부에 융기대가 있고, 융기대에 문양이 시문된 것들도 확인된다. 또 1996년 사원 남쪽 근처에 위치하는 수혈에서 출토된 토기들도 이 층에 해당된다. 이 토기들은 기벽이 얇은 편이고 수제이며 구연아래에 융기대가 있고 경부에 마연을 하였다.

상층 건축면은 제 2건축면, 제 1건축면으로 구분된다. 제 2건축면에서는 복원이 가능한 수제토기 8개체가 확인되었다. 이 토기들은 구연부, 경부에 융기대가 부착된 경

우가 있고, 동체부에는 타날의 흔적이 있다. 제 1건축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사원구역과 그 주변에서 출토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작은 토기편 상태이고 수제토기와 물레보완토기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건축면에서 확인되는 말갈계 토기의 변화상은 다음과 같다. 가장 아랫 건축면에서는 주로 수제와 느린속도로 물레보완을 한 토기가 주로 확인되지만, 상층으로 갈수록 수제토기보다 말갈계 물레보완토기의 비중이 늘어난다. 모든 건축면에서는 무문의 토기와 함께 타날의 흔적이 있는 토기가 확인되었다. 아직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토기는 주로 발해 중후기 일리스타야Илистая(Ilistaya) 강 유역 발해유적을 비롯한 발해가 진출한 영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말갈전통의 영향을 받은 발해토기는 구연부가 시문된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유적의 모든 퇴적층에서 종종 확인된다. 또 전형적인 말갈계 토기로 볼 수 있는 삼태기형 토기가 상층 건축면에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크라스키노성이 운용되었던 전 시기 주민들의 생활 속에는 말갈의 요소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발해 도시 내 문화를 귀족적 문화와 대중적 문화로 구분하고 있는데, 말갈의 전통을 영위한 사람들은 아마도 일반적인 주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생계경제, 수공업체계, 주거건축 등에 반영되어 있다.

Пискарева Я.Е. 2019. Мохэский компонент в Бохайской культур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2.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104-122.

| 해제 | 이 논문은 크라스키노성 발굴자료를 통해 발해 문화 속 말갈요소를 살펴 본 글이다. 해당 유적은 이미 수십 년간 체계적인 발굴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다양한 유구가 확인된 것뿐만 아니라 유적 내 모든 층위가 확인되었다. 특히 이 유적의 경우 말갈계 문화보다는 발해계 문화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말갈계 고고자료, 특히 토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논문의 저자는 이 말갈토기에 주목하여 층위별 변화상, 토기의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크라스키노성에 대한 기존 논문들은 주로 발해적인 것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 논문은 이와 달리 말갈, 즉 유적 내 말갈문화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편이다.

저 자 E.I. 겔만 외
Е.И. Гельман
E.I. Gelman
연 도 2015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2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크라스키노 성의 청동 거울

주 제 어 발해
크라스키노
청동 거울
문양
연해주
거란

이 논문은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에서 출토된 청동 거울을 자연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고고학적 맥락 고찰을 통해 그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청동거울은 발해 유적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되었으며, 소수만이 확인되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총 2개 유적에서 거울편이 발견되었는데 그 유적은 크라스키노 성(하산Хасанский(Khasan) 지구, 추카놉카Цукановка(Tsukanovka) 강)과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성(미하일롭카Михайловский(Mikhaylovskiy) 지구, 일리스타야Илистая(Ilistaya) 강)이다. 크라스키노 성은 발해 연주 지구의 중심이었고,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에 포함되었다. 유적의 발굴조사는 1980년부터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거울편은 단 한 점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모든 거울 편들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특히 완형의 거울은 매우 희귀하다.

거울편의 특징과 고고학적인 출토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자. 2013년 크라스키노 성에서 고고학자들은 북쪽 구역 유적(47구역, 섹터 6)에서 수혈을 발견했는데, 갈색 점사질토와 다양한 크기의 모래들이 채워져 있었다. 수혈은 부분적으로 구들이 잔존한 주거지의 흔적들과 함께 나타났다. 수혈과 주거지는 토층상 상층에 해당되고, 자갈돌들이 놓인 도로 주변에 위치한다. 수혈의 내부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완형의 청동 거울이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수혈에서 물레 성형으로 만든 구연부 편과 토기 기벽편들이 위치했다. 거울은 매끈한 정면부가 위로 향한 채로 놓여있었다. 거울의 형태는 방형이고 작고 둥글며 구형이다. 손잡이의 중간은 약간 납작하고 크기는 7.58×7.51~7.56cm이며, 거울의 두께는 0.1cm이다. 손잡이의 높이는 0.28~0.3cm이고 그 크기는 0.58~0.65cm이다. 구멍의 직경은 0.2~0.24cm이고, 무게는 37.1g이다.

거울의 표면은 자연 녹청과 산화된 엷은막이 덮여있었다. 이것은 유기질의 혼합물이 산화되는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다. 산화 체계는 거울 표면의 동이 이온화 되게 만들면서 음이온으로 전하된다. 그리고 염화물들이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 집중도는 부분적으로 서로 다르고, 결과적으로 동의 염화가 형성된다. 즉 거울 반대쪽에서는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거울면이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는 산화되는 조건 속에서의 풍부한 염화물들과 균일하지 않은 부산물들이 나타난다.

청동거울의 제작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거울은 분리가 가능한 석제품에 주조방식을 통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에는 구멍을 위한 홈이 존재하고, 원추

그 림 1. 크라스키노 성 출토 청동 거울
2. 크라스키노 성 출토 청동 거울 양면
3. 크라스키노 성 출토 청동 거울 도면

해 제 이우섭

형의 구멍을 통해 용융된 금속물이 주입되었다. 문양을 새기는 과정은 거울의 뒤쪽에서 이루어졌고, 일직선과 바깥면의 침선은 다양한 형태의 뾰족한 도구로 그려 넣었다. 작은 구멍은 원추형을 띠고, 점들로 이루어진 무늬를 형성한다. 거울 표면의 바깥면을 정밀화하기 위해 돋을새김 기법을 사용했다. 또한, 거울 표면에 광택을 내기 위해 다듬어진 돌을 활용했다.

청동거울에는 부정형의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발생은 아마도 다양한 시기에 걸친 토양의 부식 과정 속에 구리 합금의 파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멍이 형성된 지점은 전반적으로 볼 때 금속이 충분히 주입되지 못한 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속의 주입 부족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는데, 주조틀에 채워지지 못하고 모서리를 따라 응고된 돌출부가 존재했다.

분석 방식과 관련해서는 유물의 고고학적 가치를 감안해 비파괴 분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거울의 표면에는 조밀하게 산화된 구간이 있어 동합금과 미네랄층의 화학적인 상관관계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른 방법들은 모두 파괴 분석이었기에 이런 경우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의 얇은 구멍을 내어 시료를 채취해 원자방출 분광법으로 분석해야 했다.

거울은 기하학–식물 문양으로 장식되었으며, 중앙에 돌출된 손잡이 주변에는 8개의 꽃봉오리가 둘러싸여 있었다. 크라스키노에서 출토된 거울은 매우 희귀한 것으로 지금까지 발해 유적에서 문양이 있는 거울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문양은 비교대상 자료가 없어 개별적인 요소들이 다른 거울에서 어떻게 유사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꽃봉오리 문양과 유사한 청동 거울이 중국 길림성의 한 성곽에서 발견된 바 있는데 이것은 당나라 시대에 널리 알려진 문양이다. 연구자들은 이 성곽이 3단계에 걸쳐 존재했고, 10~12세기로 편년되는 거울이 발해 중기의 유형에 해당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유사한 요소들이 발해 시기에 존재했고 요나라 시기의 것과도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연주문인데, 발해 예술에서 종종 등장하는 것으로 와당의 건축장식에서도 확인된다.

발해의 거울과 크라스키노 출토품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잠정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무엇보다도 그 형태를 말할 수 있다. 크라스키노에서 출토된 거울은 사각형을 띠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두께이다. 발해 거울은 매우 얇고 테두리가 높지 않으며 중앙부의 손잡이 부분이 작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거울에서 확인되는 문양은 당나라시대의 특징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거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더 확실한 것은 청동 생산의 흔적들이 크라스키노 성곽을 포함한 연해주의 발해 유적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필자의 가설이 맞다면 이것은 발해국 주민의 예술적 발전의 특징을 논할 수 있는 연해주 발해 유적에서 발견된 첫 장식 거울일 것이다.

Гельман Е.И., Асташенкова Е.В., Буравлев И.Ю., Бойко А.А. 2015. Бронзовое зеркало из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ып. 2. Городища и посел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9—16.

| 해제 | 이 논문은 연해주 크라스키노에서 발견된 청동 거울을 자연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고고학적인 맥락도 함께 살펴보면서 종합적 고찰을 시도한 글이다. 청동 거울은 사각형을 띠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특징을 보유한다. 발해 거울은 두께가 얇고 테두리가 높지 않으며 손잡이 부분이 작게 표현되었다. 또한, 거울에서 확인되는 문양은 당나라시대의 특징이 아니고 오히려 거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저 자 E.I. 겔만 외
Е.И. Гельман
E.I. Gelman

연 도 2017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3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크라스키노 성 고고자료로 본 발해의 청동생산

주 제 어 연해주
발해
청동
고고학
크라스키노

표
1. 불교 의례품들
2. 허리띠 장식품들
3. 생활 제품과 장식들
4. 화학적 분석 제품들
5. 도가니 편들과 도표 복원
6. 객체 1 합금의 원소 조성
7. 객체 3 합금의 원소 조성
8. 객체 5 합금의 원소 조성
9. 객체 7 합금의 원소 조성
10. 객체 8 합금의 원소 조성
11. "오른쪽 눈" 과 "낙타"녹의 원소 조성
12. "오른쪽 뒷다리" 와 "낙타"녹의 원소 조성
13. "뒤쪽 오른쪽 혹" 의 1지점과 "낙타"녹의 원소 조성
14. "뒤쪽 오른쪽 혹" 의 2지점과 "낙타"녹의 원소 조성

이 논문은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에서 출토된 발해 청동유물들을 자연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종합적인 고찰을 위해 작성되었다.

크라스키노 성곽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로 많은 수의 청동제품들이 축적되었다. 현재까지 컬렉션의 일부만 연구되었지만, 많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청동 유물들은 물질적이고 사실에 기초한 역사적 내용들을 제공한다. 현재의 역사 연구는 자연과학적 분석(물리, 화학, 물리-화학 방법들) 없이는 이미 가능하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주사현미경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크라스키노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제시하려는 목적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 가능하다.

일단, 분석에 기반을 둔 특별한 기술과정의 복원과 생산 발전 수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평가함에 있다. 또한 장인들의 수준과 전문적인 관심들의 과정을 규명한다. 나아가, 청동생산의 사회적인 양상들을 연구하면서, 출토된 유물들의 수량과 종류를 확인한다. 또한, 크라스키노 성곽 내 유물들의 공간적 배치를 규명하고, 주조품의 화학적 구성요소와 합금의 종류를 밝힌다.

연구 대상은 크라스키노 성곽에서 발견된 160점의 청동제품으로 하며, 그 중에서 16점은 지표수습 유물의 형태로 발견되었다. 총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그룹은 불상, 두 번째 그룹은 허리띠 장식들이 해당된다. 세 번째 그룹은 거울과 일상용품들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장신구류들이다. 청동으로 주조된 유물들 가운데 20점 이상이 도금된 유물들이다. 철기류는 총 4점이 사원지 내에서 출토되었는데, 허리띠 부속구에 속한다.

사원지 내에서는 60점 이상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주거지에서 30점, 도로유구와 그 인근에서 20점 가량이 나타났다. 동문지의 42구역 발굴조사에서 단 한점만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분포는 상당히 논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원 구역과 도로 구역이 인접한 지역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사원 구역은 가치 있는 장신구를 바쳐야 하는 곳이었고, 이곳에서 도금된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도로에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직업군의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곳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졌고, '고누'와 같은 놀이도 병행되었다. 도로에 인접한 주거지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발해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청동 제품들은 5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다양한 청동 종류는 성곽이 육로와 해로의 교차로에 위치한 항구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동제품 일부는 허리띠

그 림 1. 객체 1의 표본 구조
2. 객체 1의 요소들의 표면 분포도
3. 객체 1의 정량 분석 수행을 위한 촬영 지점
4. 객체 1 표면 에너지 분산 스펙트럼
5. 객체 1 합금 요소들의 표면 분포도
7. 객체 3의 조직 구조
8. 객체 3 요소들의 표면 분포도
9. 객체 3 표면 에너지 분산 스펙트럼
10. 객체 3의 합금 요소 분포도
11. 객체 5의 표본 구조
12. 객체 5 (800×) 요소들의 표면 분포도
13. 객체 5 정량 분석 수행을 위한 촬영 지점
14. 객체 5 표면 에너지 분산 스펙트럼
15. 객체 5의 합금 요소 분포도
16. 객체 7의 의 표본 구조
17. 객체 7 요소들의 표면 분포도
18. 객체 7 정량 분석 수행을 위한 촬영 지점
19. 객체 1 표면 에너지 분산 스펙트럼
20. 객체 7의 합금 요소 분포도
21. 객체 7의 의 표본 구조
22. 객체 8 요소들의 표면 분포도
23. 객체 8 정량 분석 수행을 위한 촬영 지점
24. 객체 8 표면 에너지 분산 스펙트럼
25. 객체 8 합금 요소 분포도
26. 낙타의 세부 사진 일괄
27. 현미경 탁자에 연구 대상품을 올려놓는 과정
28. "오른쪽 눈"과 "낙타"의 전자스캔 현미경 사진
29. "낙타", "오른쪽 눈"의 표본 구조
30. "낙타", "오른쪽 눈" 요소들의 표면 분포도
31. "낙타", "오른쪽 눈"의 정량 분석 수행을 위한 촬영 지점
32. "낙타", "오른쪽 눈"의 표면 에너지 분산 스펙트럼
33. "낙타"(오른쪽 눈)의 합금 요소 분포도
34. "오른쪽 다리"와 "낙타"의 전자스캔 현미경 사진
35. "낙타"와 "오른쪽 뒷다리"의 표본 구조
36. "낙타"와 "오른쪽 뒷다리" 요소들의 표면 분포도

장식, 불교 숭배, 생활을 위한 유물들로, 다른 발해유적들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유사한 제품들이다. 하지만, 크라스키노 성곽 청동제품 중에서도 희귀한 유물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적인 청동생산의 전통적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성곽 내 청동제품의 분포 및 철성분과 조화를 이루는 도금품의 지역성을 놓고 볼 때, 중앙 도로와 북쪽의 사원지 근처에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곳에서는 교역과 공개 연설이 있었고, 길가의 주민들은 '고누'놀이를 하면서 여가를 즐겼을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청동제품과 그 편들을 소유자들이 잃어버렸고, 인근 가옥에서 나온 주민들의 쓰레기와 함께 도로에 유입되었을 수도 있다.

합금들의 화학적 구성 연구에는 총 10점의 객체들이 분석되었다. 객체 1은 동–납–합금의 성분을 띠고 철과 비소가 혼합물로 함유되어 있다. 철과 비소 이외에도 합금에는 백랍, 규소, 인, 금, 은이 혼합물로 첨가되었다. 납과 청동은 마찰력이 높은 것으로 판별되고, 이것은 높은 속도와 고압에 작용하여 부속품을 만드는데 활용된다. 이 객체가 납 자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압연방식과 실로 뽑아내는 방식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한한다. 객체 3은 동–납–합금의 성분을 띠고 비소와 규소가 주요 혼합물로 포함되어 있다. 비소와 규소 이외에도 합금에는 유황, 철, 인, 주석, 금, 아연, 은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체로 모두 하나의 종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객체5는 동–주석 합금이고, 주요 혼합물은 규소, 납, 철이다. 객체 7은 청동합금으로 CU–Pb.Sn을 포함한다. 합금의 주요 요소는 비소이다. 객체 8은 연구 결과 표면에 부식이 있다. 부식의 특징은 진동 방식으로 양질의 광택을 낼 수 없어 많은 오차가 있다. 합금은 주석과 납이 함유된 청동이고 주요 혼합물로는 철, 비소, 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각각의 객체들의 주요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동–납 합금 (객체 1, 3, 9), 동–주석 합금 (객체 5), 청동 합금 구조 (CU–Pn–Sn), 주석–납 청동 (객체 8, 10)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객체 7과 10이 47구역의 발굴조사에서 발견되었지만, 다양한 질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명확한 사실은 이 제품의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력이 존재했거나, 합금에 다른 재료를 사용했거나 혹은 유물 자체가 다른 곳에 기원을 두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크라스키노 성곽 발굴조사에서 낙타 모양의 청동제품이 발견되었는데, 상태를 고려해 표면의 녹청 층을 제거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낙타의 오른쪽 눈, 뒷다리의 오른쪽 부분, 등의 봉우리 부분을 분석했다. 확보된 자료들은 합금의 규명을 위해 활용하기 적절치 못했는데, 그것은 녹슨 층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토양층이 제거된 부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낙타상 합금은 Cu–Sn–Pb의 구성을 보인다. 합금의 혼합물 중에서 보다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비소이며, 주석과 납은 합금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의 시론적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총 4개의 합금 그룹으로 구분되었고, 이것들은 모두 크라스키노 성곽에서 발견된 주조품들이다. L.V. 콘코바Л.В. Конькова(L.V. Kon'kova)가 발해의 특징으로 7개의 합금으로 구분하기는 했으나, 그 중에서 동–납–주석의 합금

그 림 37. "낙타"와 "오른쪽 뒷다리"의 정량 분석 수행을 위한 촬영 지점
38. "낙타"와 "오른쪽 뒷다리"의 표면 에너지 분산 스펙트럼
39. "낙타"(오른쪽 뒷다리)의 합금 요소 분포도
40. "낙타 오른쪽 뒤쪽 혹"의 전자스캔 현미경 사진
41. "오른쪽 뒤쪽 혹" 부분의 낙타 표본 구조(관찰점 1)
42. "오른쪽 뒤쪽 혹" 부분의 "낙타" 표면 요소들의 분포도
43. "오른쪽 뒤쪽 혹" 의 촬영 점 (관찰점 1)
44. "오른쪽 뒤쪽 혹"과 "낙타"의 전자스캔 현미경 사진. (관찰점 1)
45. "낙타"의 합금 요소 배치도 (오른쪽 뒷다리 관찰점 1)
46. "낙타"의 표본 구조 (오른쪽 뒷다리) (관찰점 2)
47. "낙타"표면 요소들의 분포도 (오른쪽 뒤쪽 혹) (관찰점 2)
48. "낙타", "오른쪽 혹"의 표면 에너지 분산 스펙트럼

해 제 이우섭

은 언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발해 시기의 청동합금 특징 목록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다.

청동 주조품은 성곽 내에서 생산되었을 것이고 최소 네 번째 건축학적 층위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적의 공방지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내리기는 어렵다.

Гельман Е.И., Асташенкова Е.В., Буравлев И.Ю. 2017. Бронзолитей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 Бохае (по данным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ып. 3. Ремесла и промыслы.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141—179.

| 해제 | 이 논문은 크라스키노에서 출토된 청도제품들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합금들의 화학적 구성 연구를 통해 발해시기의 청동제품들이 어떤 구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안을 제시했으며, 동–납–주석의 구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저 자 Yu.M. 바실리예프
Ю.М. Васильев
Yu.M. Vasiliev

연 도 2000
간행물명 『극동의 역사와 고고학: E.V. 샤프쿠노프 70주년』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포크롭카 문화의 무기

주 제 어 포크롭카 문화
발해
무기
철모
도자
철부
대도

이 논문은 포크롭카Покровская(Pokrovka) 문화의 대도, 창, 도끼 등 무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필자는 무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전통적으로 몇몇 무기는 단순히 무덤에 부장될 수 없었고 세대를 거쳐 무기가 전해지는 경우도 많았으며, 종종 의도적으로 무기를 부장하지 않은 점에서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도자刀子는 보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였다. 특정 목적으로 전문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하나의 도자가 요리, 도살, 짐승의 껍질 벗기기, 목재 다듬기 등 다용도로 사용되었다. 가장 흔한 도자의 길이는 9~11cm이지만, 길이가 긴 것은 사냥이나 전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간혹 날이 옆으로 약간 구부러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까지도 유사한 도자들이 나나이족들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목재를 대패질하는 데 사용되었다. 고분에서는 도자가 허리, 가슴, 머리 근처, 때로는 토기류 아래에 부장된다. 도자는 자주 칼집(자작나무 껍질, 가죽, 나무, 천)에 넣어진 채로 확인된다. 날의 방향과 고분에 부장되는 칼끝의 방향에는 규칙이 없다.

포크롭카 문화 고분군에서는 아직 양날의 전투용 단검과 찌르고-자르는 용도의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칼등이 직선이거나, 볼록 또는 오목한 긴 외날 칼이 소수 있는데, 이는 전투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끼는 러시아 극동지방의 고분군에서는 아주 드물게 확인된다. 일상생활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투용 도끼는 공구용과는 대조적으로 가볍고 긴 형태다. 소형의 손도끼를 제외한 모든 도끼를 경제적, 군사적 용도의 것으로 지칭하는 V.E. 메드베데프В.Е. Медведев(V.E. Medvedev)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필자는 필요하다면 어떤 도끼든지 전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창矛은 대중적으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고 고분에 부장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모든 창에는 공부孔部가 있고, 단조품이다. 공부에는 세로 방향의 틈과 고정 못을 위한 구멍이 있다. 필자는 전투용 도끼가 점차 창으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일부 연구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포크롭카 문화 유적들에서 발견된 전투용 도끼의 수량은 창보다 훨씬 적을 뿐더러 나데진스키Надеждинский(Nadezhdinsky) 고분군 92호분에서 도끼와 창이 함께 출토된 것은 한 기종이 다른 기종으로 치환될 것이라는 가설의 반증이라고 서술하였다. 필자는 높은 완성도에 도달한 창이 도끼와 동시에 존재하였다고 강조한다. 창은 매장주체부의 중앙이나 피장자의 가슴 부분에 부장된다.

그 림 1. 도자
2. 전투용 칼
3. 손도끼
4. 창끝
5. 대도

해 제 최재경

대도大刀 역시 출토량이 적다. 모든 대도는 외날로, 한쪽 끝이 일직선이며, 종종 40~45°의 각도로 비스듬히 삭제되어 날카롭게 벼려진다.

무기가 지역성을 가지는가, 아니면 수입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필자는 대부분의 대도는 투르크와 연결되어 수입될 것으로 보았다. 도끼는 연해주 금대金代 유적에서 나온 도끼와 공통점이 없고, 중앙아시아의 것에 더 가깝다고 보았으며, 도자와 전투용 단검 또한 독창적인 것으로 보았다.

Васильев Ю.М. 2000. Холодное оружие покровской культуры // История и архе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 70-летию Э.В. Шавкунова. Владивосток. С. 139-146

| 해제 | 포크롭카 문화는 9~10세기 전반까지 존속시기가 발해와 중복되며, 문화적인 유사성이 지적되어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그동안 소개된 자료가 소략하여 그 물질문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논문은 그 중 무기류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크라스키노 성의 철촉 형식

저 자 V.I. 볼딘
В.И. Болдин
V.I. Boldin

연 도 2020
간행물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26권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연해주
발해
말갈
크라스키노 성
화살촉

표 1. 크라스키노 성의 무경식 철촉
2. 크라스키노 성의 유경식 철촉

해 제 최재경

이 논문은 연해주지역 최대의 발해 유적인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에서 출토된 철촉을 형식 분류 후 분석하고 인근 고고문화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크라스키노 성에서 출토된 철촉은 유경식과 무경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무경식은 총 두 점 출토되었다. 한 점은 신부가 평면 오각형이고, 다른 한 점은 삼각형이다. 본 논문의 필자는 일반적으로 무경식 화살촉이 폴체Польце(Poltse) 문화의 유적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이 문화로부터 크라스키노 성으로 전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경식 철촉은 100점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수량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14가지 형식 및 하위 형식으로 분류되었다.

종합적인 분석결과, 필자는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몇몇 형식은 고구려에서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인들로부터 이른 시기 말갈과 발해인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에서 제작된 철촉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아 최초 거주자들이 크라스키노 성의 영역에 발해 초기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 1형식의 B형, 7형식의 B형 등은 발해 초기나 동시기 타문화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발해의 멸망 이후 성립한 여진의 동하국에서는 널리 사용되었다. 이러한 형식의 철촉이 크라스키노 성 내 공인들에 의해 생산되었다면, 연해주 지역에 여진 문화가 확산될 무렵에 생산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즉, 발해가 멸망한 뒤에도 해당 성곽은 계속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크라스키노 성의 꽤 긴 존속기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해주는데,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혹은 12세기까지 하한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둘째, 크라스키노 성에서 출토된 32가지 변형 형식의 철촉 중 23개는 아무르 지역과 연해주 북부의 말갈 문화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동북부의 발해와 말갈 간의 긴밀한 접촉과 교류(경제, 문화, 군사)를 분명히 보여준다.

셋째, 크라스키노 성에서 출토된 4가지 형식의 철촉(1형식의 B형, 2형식의 B형, 4형식의 B형, 7형식의 B형)은 유사한 철촉의 출토사례가 전혀 없거나, 여진 후기의 무기 창고에서 확인되거나, 어디에서도 영향받을 수 없는 형태다. 따라서 이 형식들은 개선된 화살촉을 생산하기 위해 크라스키노 성 내 공인들이 노력했던 흔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Болдин В.И., Шавкунов В.Э. 2020. Типология наконечников стрел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Труды ИИАЭ ДВО РАН. №26.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175-186.

| 해제 | 이 논문은 크라스키노 성에서 출토된 철촉을 집성하여 형식분류하고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주변 고고학 문화와의 비교까지 시도한 점에 의의가 있는 글이다. 다만 고구려 철촉과의 형태적 비교를 통해 크라스키노 성의 존속연대를 추정해보고 말갈 철촉과의 유사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유사성이 제기된 철촉의 도면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저 자 E.V. 아스타셴코바
Е.В. Асташенкова
E.V. Astashenkova

연 도 2019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2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크라스키노 성 주민의 장식과 공예

주 제 어 발해
크라스키노 성
장식
공예

목 차
1. 서론
2. 본론
1) 건축 장식 부재
2) 허리띠 장식
3) 기타 장식
(1) 비녀, (2) 구슬,
(3) 투공이 있는 토제품
4) 일상용품
(1) 거울, (2) 토기편
5) 모형
(1) 토제품, (2) 청동제품
3. 결론

이 글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하산Хасанский(Khasan)지구에 위치한 대형 평지성인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성에서 확인된 장식–예술품을 대상으로 생산 방식, 문양 및 형태, 출토 유구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발해시기 예술적 선호 및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1) 건축 장식

건물 내 · 외부를 장식하는 토 · 석제 연화문 · 동물문이 새겨진 외장용 건축장식과 청동제 불상 모형이 포함된다. 이는 불교사원이 위치한 북서지구에 집중 분포하여, 불교의 상징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해당 건물유구는 발해 도성의 궁성–사원 대응 관계와 유사하여 주목된다. 그 외에 토제 불상 부조품에서 확인되는 '천불千佛'의 도상은 팔련성八連城의 것과 유사하고, 치미를 포함한 장식 기와에서 확인되는 용의 도상은 상경성上京城의 것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행정적 위성衛城으로서 발해 도성과 공통되는 건물 축조 규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금동제 장식예술품 중 다수가 불교사원 인근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점에서도 정치사회적 위상이 높은 계층과 관련된 유구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주거지구에서는 불교관련 예술품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 전체 주민으로부터 대중성을 고르게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숭이와 사자의 외양이 결합된 듯한 토제 동물 모형 2점과 용머리 토제 모형 1점에는 지역적 예술 특성도 반영되어 있다. 출토 지점으로 미뤄보아 전자는 기와벽실 유구의 지붕, 용머리 모형은 우물 지붕을 장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1차적으로는 지붕의 장식부재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기복적 의미를 가진 개별 예술품의 하나로서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인들은 도상학적 측면에서 고구려 · 수 · 당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독창적인 예술성을 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문화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막새는 성곽 내 가장 이른시기부터 늦은시기 건축층까지 확인된다. 북서지구에서는 지역적인 특성을 띤 막새가 출토되었고, 주거 지구와 불교사원 사이의 도로에서는 5건축층에서 가장 이른시기 문양 형식(Ⅱ Ⅵ)의 막새가 출토되었다. 특히 고구려 문화의 영향이 강한 도상으로 연구된 바 있다. 4건축층은 성벽 축조 전후 단계로 편년되며, 치미와 막새가 출토되었다. 치미의 형태는 연해주 코피토Копытинский(Kopyto) · 아브리코스Абрикосовский(Abrikos) · 코르사콥카Корсаковский(Korsakovka) · 보리솝카Борисовский(Borisovka)사원

도 면 1. 크라스키노 마을 및 크라스키노 성의 지리적 위치
2. 토제 건축 장식 부재 각종
3. 불상 관련 청동제 및 석제품
4. 유리제 · 석제 · 청동제품
5. 토제 · 석제품
6. 청동제품
7. 토제품 및 석제품
8. 토제품 및 청동제품
9. 토제 · 유리제 · 청동제 장식품
10. 토제 소상편
11. 청동제품
12. 청동제품

해 제 정윤희

지의 것과도 유사하며, 막새는 4개 형식(Ⅳ Ⅴ Ⅶ Ⅷ)이 확인되었다. 3건축층은 불교사원 지구과 주거 지구 사이에 도로유구가 건설되었고, 2건축층에서는 발해 도성 출토품과 유사한 2개 형식(Ⅰ Ⅲ)이 확인되어, 중앙으로부터의 영향력이 건축 장식의 도상에도 파급된 양상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건축 장식 부재는 유적을 편년하고, 도시화가 진행된 단계를 설정할 수 있어 주목된다.

2) 허리띠 장식

대인용對人 혹은 대마용對馬으로 추정되는 띠 장식으로, 과판 · 대구 · 대단장식 · 꺾쇠 등의 부품이 포함되며 형태 · 재질 · 조합 방식 · 문양에 따라 형식을 분류할 수 있다. 재질로는 (금)동제, 석제, 철제와 청동제가 결합된 것이 확인되며, 출토유구로는 도로 · 폐기유구 · 주거유구 · 불교사원 등이 있다. 6개 건축층 모두에서 확인되며, 가장 하층에서 상층까지 점차적으로 출토수량이 증가한다.

문양이 있는 것은 수량이 영세하나, 식물문 · 기하학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식물문은 간략하게 도식화된 화문花紋및 하나의 줄기로부터 뻗어나와 대칭을 이루는 넝쿨이 있는 화문을 들 수 있으며, 일부는 불교에서 연화문을 상징하는 도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단장식 2점에서 확인된 넝쿨과 꽃을 빼곡하게 배치하는 도상은 거란양식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하학문으로는 곡선형 수공垂拱이 있는 평면 방형의 금동제 과판에 새겨진 소형 원문圓紋과 과판 3점과 대단장식에 새겨진 횡선 융기문橫線 隆起紋을 들 수 있다. 한편, 문양이 없는無紋청동제 과판에 대한 성분분석에서는 합금 비율 및 기법으로 미뤄보아, 성곽 내에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3) 기타장식

비녀는 재질 · 형태 · 기능으로 미뤄보아 위세품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기존에 발해 도성지역 및 고분군에서 출토되어 3가지 형식으로 분류된 바 있으며, 본 유적에서는 2개 형식이 출토되었다. 구슬은 4건축층의 다양한 유구에서 약 30점 출토되었다. 재질은 토제 · 유리제 · 석제(홍옥수, 옥수, 수정)품이 있으며, 평면 형태는 반구형 · 원통형 · 원추형으로, 대체로 발해 유적에서 출토되는 전형적인 형식이 확인되었다. 유리제 구슬은 3점 확인되었는데, 발해시기 유리 생산지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 대내 교역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구슬 전체 지름은 0.7~0.9cm에 분포하며, 내부 투공 지름은 0.2cm로, 비교적 규격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평면 형태에서의 차이점은 원재료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투공透孔이 있는 토제품은 연해주 및 중국 동북지역의 발해유적에서 종종 확인되는 독특한 기종이다. 이는 외곽 형태 · 문양 · 투공의 개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외곽 형태는 건물 모양과 직육면체 모양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4점 중 2점이 해당 유적에서 출토되었고, 전자 중 치미가 있는 기와 건물 외형을 본뜬 것 측면 일부에는 인물 도상이 표현되어 있다. 나머지 1점은 불교사원의 9층 탑 외형을 본뜬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는 가장 많은 수량이 출토되는 것으로, 표면에는 기하학 · 인물 · 부엉이형의 문양 유무의 차이가 있다. 해당 기종은 공통적으로 구멍마다 탄화

흔이 존재하는 점, 불교사원 · 주거지 · 문지 등 다양한 성격의 유구에서 존재하는 점으로 미뤄보아 실용성과 상징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형태와 문양이 변형되면서 널리 사용된 일상 물품으로 볼 수 있다. 즉 주민들의 일상 의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불교와 같은 새로운 사상적 변화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일상용품

거울은 발해유적에서 출토수량이 많지 않으나, 연해주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성 및 흑룡강성 홍준어장虹鱒魚場 · 용두산龍頭山고분군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대부분 당에 계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라스키노 성 출토품은 전면에 식물 · 기하학적 문양이 시문되어있는데, 문양의 의미론적 특성 및 제작기법으로 보아, 현지에서 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해 유적 출토 동경은 두께가 매우 얇은 점, 외곽 평면형태 방형인 점, 외곽을 따라 얕은 테두리가 있는 점, 정중앙에는 투공이 있는 단추형 꼭지가 배치된 점과 같은 양식적 특징이 있다. 문양은 당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도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5) 모형상模型像

토제 새 모형상은 불교사원 주변의 도로유구에서 확인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도상이 여타 발해유적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 여기에 유약이 발려있고, 소형인 것으로 미뤄보아, 귀중품을 담았던 상자뚜껑의 장식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청동 낙타 모형상은 쌍봉낙타를 본뜬 것으로 초원로와 해로의 결절지結節地 중 하나였음을 반증한다.

위와 같이 예술 공예품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크라스키노 성에서만 확인되는 유형과 여타 발해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형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질적 · 양적인 측면에서 도시화가 충분히 진행된 도성의 위성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Асташенкова Е.В. 2019.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е искусство населения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2.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62-81

| 해제 | 필자는 크라스키노 성 발굴에 다년간 직접 참여한 후,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응용예술적 특성을 지닌 금속제 · 토제 예술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신자료까지 수합하여 정리한 논고이다. 대장식구 문양 중 소형원문은 한국학계에서는 어자문魚子紋기법으로 불리는 것으로, 당대唐代 금은기金銀器에서 확인되는 정교한 기법이다. 다만, 비녀와 거울은 장식용품이자 위세품威勢品으로, 투공이 있는 토제품은 일상적 신근물품身近物品으로 분석했으므로, 필자가 설정한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전자는 장식용품류, 후자는 일상용품류 혹은 모형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 자 G.G. 코롤
Г.Г. Король
G.G Korol
연 도 2016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4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해주와 아무르지역의 투르크식 대장식구 : 유사성 문제

주 제 어 말갈
발해
연해주
아무르
투르크식 대장식구
사얀–알타이
자바이칼
포도문

이 글은 A.D. 8~10세기 러시아 극동(연해주, 아무르주)지역 · 시베리아(사얀–알타이)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출토 투르크식 대장식구帶粧飾具, 帶金具 34점을 대상으로 교류의 가능성을 논한 것이다. 중세 전기 유라시아 초원지역의 투르크식 대장식구가 주변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파급되었기 때문에, 지역 간 교류를 명료하게 판단하기 위해 시문된 문양을 근거로 삼았다.

6~7세기에는 문양이 없는 대장식구(과판 · 대구帶扣 · 드리개)가 우세하였으나, 8세기 후반부터는 식물문양을 중심으로 동물 · 기하학문을 새긴 것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초원식 문양은 널리 보급되는 동시에 지역성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으로 포도 넝쿨 대칭 문양 및 변형된 팔메트 문양, 암사자가 서있는 문양, 인물 문양을 들었다.

대표적으로 '포도 넝쿨 대칭' 문양이 새겨진 평면 방형의 과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팔메트 문양은 중세 전기에 널리 사용된다. 하나의 줄기에서 뻗어나간 넝쿨이 3개 부분에서 둥글게 말리며, 중앙부분은 3엽 꽃잎을 형성하기도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Самарканд(Samarkand) · 아흐시케트Ахсыкет(Akhsyket), 키르키즈스탄 비시케크Бишкек(Bishkek), 러시아 사얀 알타이(사포고보Сапогово(Sapogovo) · 산치크Шанчиг(Shanchig) · 부후산Бухусан(Bukhusan) · 미누신스크Минусинская(Minusinsk) 분지)및 흑해 인근 드네프르Днепр(Dnieper) 강 상류역에서 출토되었다. 유적 분포로 보아 대부분 동–서방향의 횡축선상에 연속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흑해 출토품만은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있어서 광역 간 접촉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뒷받침할 수 있는 고고자료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세미레치예Семиречье(Semirechye) 지역 및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티시Иртыш(Irtish) 강 상류역의 'T'형 대장식구에서도 변형된 팔메트 문양들이 확인된다. 극동지역의 연해주에서는 발해유적에서 식물 문양이 새겨진 평면 가리비형帆立貝形의 투르크식 대장식구가 확인되었는데, 여기에 새겨진 문양은 아무르주 출토 투르크식 과판 4점과 유사하다. 그 중 연해주 지역 출토품은 '十'자형으로 배치된 팔메트 문양으로, 서아무르지역 출토품의 키르키즈 계보와는 달리, 중국 만주지역 혹은 미누신스크 지역에서 흡사한 구성을 찾을 수 있다.

아무르 지역의 카메누시카Каменушка(Kamenushka) 및 산치크 유적에서도 남시베리아식의 포도 넝쿨 대칭의 팔메트계 문양에 기하학적 특성이 가미된 대구가 출토되었다. 스

도 면 1. 〈포도넝쿨대칭문양〉관련자료
1) 자료 분포 지역
2) 자료 도면
2. 자료 도면
1) 극동지역 자료
2) 사얀–알타이지역 자료
3. 소형 금속공예품에서 확인된 문양 도상
1~7) 사얀–알타이지역 자료
8~9) 프리아무르지역 자료
4. 자바이칼 남부 지역 호이체고르 고분 출토 하프형 드리개 (축척부동)

해 제 정윤희

로스키노Сросткино(Srostkino) 유적 출토 평면 U자형 대단장식帶端裝飾에서도 팔메트 문양이 확인되며, 이와 비교하여 예니세이Енисей(Yenisey) 강 중 · 상류역에서는 중앙부의 꽃잎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특징적이다. 러시아 미누신스크 분지와 아무르 지역 코르사콥카 Корсаковский(Korsakovka) 고분에서는 포도 열매 혹은 침엽수형의 솔방울로 추정되는 문양이 새겨진 드리개가 확인되었다. 전자는 도금상태 및 주연부周延部 문양이 일부 조잡한 것으로 미뤄보아 모방품으로 판단되나, 후자는 원형原形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어 그보다는 이른 시기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암사자가 서있는 문양이 새겨진 대장식구를 들 수 있다. 알타이 지역 출토 드리개에서 확인되며, 유사한 형태의 도상은 아무르주 코르사콥카 유적 출토 대단장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중국 당唐代 공예품의 도상과 유사하나, 지역성이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의 관련성은 극동지역에 불교가 도입되었던 발해시기부터 종종 나타나는 '경계없는 선' 문양이 새겨진 장식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물문양이 새겨진 하프형竪琴形드리개는 부리야트Бурятия(Buryatia) 호이체고르 Хойцегорский(Khoytsegor)출토품이 대표적이다. 해당 도상은 유럽에서 인도, 중앙아시아 동투르키스탄 등에 널리 퍼져있던 비잔틴 주화鑄貨의 문양과 흡사한 사례로, 시베리아 자바이칼 지역과의 관련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위와 같이 10세기 전후로 편년되는 대장식구에서 확인되는 유사한 문양을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대장식구의 외형뿐만 아니라, 문양 도상에 대한 세부 이해 또한 수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양의 계보는 유라시아 대륙의 서부 스텝지역으로 추정된다. 기존 연구에서 사얀–알타이 지역은 기원후 1천년기 후반 중세 전기 시베리아 일대 소형 금속장식구 제작의 중심지 중 하나로 주목된 바 있다. 사료에서는 상업에 종사한 소그드인에 의해 세미레치예 지역에서 극동 지역까지 소위 실크로드 노선에 위치한 중심지들을 거쳐 교역한 정황이 확인된다. 더 나아가 소그드로부터 공인집단이 이주했을 가능성도 언급된 바 있다.

특히 위구르 멸망 이후 흥기한 예니세이 키르키즈 시기에 집중적으로 파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위구르 · 키르키즈 혹은 남시베리아 전통이 혼재 · 병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극동지역의 투르크식 대장식구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으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중국의 영향 또한 존재한다. 위구르 · 키르키즈 계보로 추정되는 대장식구가 출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정세 변동에 의해 이주해 온 세력, 이들과 교역했던 지역 내 재지세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특히 위구르가 멸망(847)한 이후, 그 세력이 발해로 이주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발해는 말갈 · 고구려 · 투르크 · 거란 · 실위室韋 · 소그드인 등의 다종족이 거주한 국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것들을 '중앙아시아계 유물'로 통칭할 수 있다.

Король Г.Г. 2016. «Тюркские» ремённые украшения в Приамурье и Приморье: к проблеме аналогий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4.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337-357.

| 해제 | 필자는 중세 유라시아 유목민족의 공예품의 문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전통에 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해 왔다. 팔메트계palmette문양은 러시아 극동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까지 오랫동안 변형되며 널리 사용된 도상이다. 그리고 하프형 드리개의 경우, 한반도에서는 호리병박 형태를 닮았다하여 '호로형葫蘆形드리개'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역에서 출토된 대장식구의 계보를 밝히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다만 본문에서 제시한 코르사콥카 유적 출토품은 정치체 귀속문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여, 영향관계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 자 N.A. 클류예프 외
Н.А. Клюев
N.A. Kluyev
연 도 2017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3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해주 콕샤롭카-1 성의 금속 생산 및 금속 작업의 증거

주 제 어 연해주
발해
건물지
구들

이 논문은 콕샤롭카-1 유적에서 출토된 금속유물들에 근거해 유적 내에 수공업생산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쓰여졌다. 저자들은 콕샤롭카 Кокшаровка(Koksharovka) 성곽내의 발달된 수공업 제품의 존재가 금속생산과 금속작업의 증거이며, 이곳에 금속생산을 위한 구역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연해주의 중세 고고학은 금속생산과 금속공예를 포함한 다양한 수공업이 발전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야금술과, 무기 제작, 예술적 주조물, 다채로운 금속들과 다양한 합금의 장신구 제작이 매우 발전했다. 가장 명료한 증거는 연해주 중세시대 성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많은 금속 유물들이다. 공방에서 제작된 유물들은 중세시대의 금속작업 과정의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콕샤롭카-1 유적은 연해주의 금속생산과 금속작업의 증거를 대표할 만 곳으로, 시기적으로 발해 후기에 해당하고, 발해 이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2008~2014년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의 주목적은 독특한 건축학적 조화를 이루는 7개의 건물지였다. 각각의 건물들은 2개의 연도가 달린 'ㄷ'자형으로, 연통부는 건물 바깥에 배치되어 있었다. 건물복합체들은 커다란 안쪽 마당과 생산 시설물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지에 흙을 성토하여 축조하였고, 주변을 따라서 석제 담장이 둘러져 있었다. 연해주의 고고학에서 이와 유사한 건물지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건물지의 구조적인 특징들은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적이고 특히 발해 건축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

복합적인 건축물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동쪽 구역 발굴조사의 결과로 몇몇 생산 구조들의 기단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그 중 하나는 대지의 남동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동주조 공방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공방지의 흔적들은 장방형의 지상식 구조물로 나타나며, 기초부는 둥근 강돌과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로 축조되어 있었다. 구조물의 모서리 바깥면을 따라서는 기둥아래에 주초석이 위치했다.

건물의 안쪽에서는 수혈이 몇 기 발견되었다. 그중에 5기는 동쪽 기단을 따라 1m의 거리를 두고 놓여있었고, 대체로 깊다. 위치와 규모의 특징으로 볼 때 이것은 기둥 혹은 건물을 보강하는 시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기초시설이 간격을 두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입구시설의 존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동벽 바깥에 아궁이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벽자

그 림 1.1 콕샤롭카-1 성곽 위치가 표시된 연해주 지도
1.2 성곽의 위치도
1.3 성곽 평면도
2. 도가니 편 출토지점이 표시된 청동기 제작 공방 평면도
3. 평저형 도가니와 거푸집
4. 원저형과 첨저형 도가니들
5. 콕샤롭카-1 성곽 출토 금속제품

해 제 이우섭

체가 없었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공방의 구조는 굴립식 구조물로 4개의 모서리에 기둥이 흔적이 있어, 지붕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 직접적인 증거로는 금속의 용해를 위한 점토 도가니를 들 수 있다. 콕샤롭카-1 유적에서 발견된 도가니들은 총 32점이다. 저부의 형태로 보아 3개의 그룹 평저, 원저, 첨저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평저형의 도가니는 2점 발견되었다. 그 중에 한 점은 시굴조사에서 보다 이른 시기의 층에서 발견되었는데, 크기가 큰 편에 속한다. 구연부는 곧게 올라가면서, 이중구순으로 되어 있다. 도가니의 표면 안쪽은 높은 온도로 인해 유리질화되거나 팽창되어 있었다. 이것은 모래 첨가물이 용융되어 유리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판단컨대, 청동의 용융과 가열을 위해 작은 도가니를 배치하고 그 안에 뜨겁게 달구어진 목탄을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도가니는 과거 연해주의 중세 유적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원저형 도가니는 3점, 첨저형은 7점 발견되었다. 모든 도가니들은 소형이고 기벽은 곧게 뻗어있거나 위쪽에서 원통모양을 형성하다가 외반하면서 원추형을 띤다. 원형과 첨저형 저부의 도가니는 어떤 유적에서도 완형으로 발견되지 않아 명확한 주구의 형태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상 조사된 모든 도가니의 형태들은 바깥면이 용해되어 유리질화가 이루어져 있다. 안쪽 표면에는 녹색의 금속 흔적들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청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도가니는 청동생산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공방 안쪽에서는 장방형의 거푸집이 발견되었다.

금속 생산의 증거는 2009~2011년 E.A. 베소노바E.A. Бессонова(E.A. Bessonova)가 진행한 콕샤롭카-1 유적 물리탐사 조사과정에서 확보되었다. 성곽의 북서쪽 구역에서 자기이상값이 확인되었는데, 제철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표면에서 슬래그 편들이 발견되었고, 분석을 통해 이것이 주철 생산과정에서 확보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성곽에 흑색철금속 생산과 관련된 공방지의 존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콕샤롭카 성곽내의 발달된 수공업 제품의 존재는 금속생산과 금속작업의 증거이며, 발견된 금속제품들은 금속을 생산하기 위한 공방지가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Клюев Н.А., Гридасова И.В. 2017. Свидетельства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металлообработки на городище Кокшаровка-1 в Приморье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ып. 3. Ремесла и промыслы.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67—75.

| 해제 | 이 논문은 콕샤롭카-1 유적에서 확인된 공방지들의 성격과 기능을 처음으로 집중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발견된 도가니들과 거푸집 그리고 제철유구의 존재는 연해주 중세시대 고고학에서 이 유적이 제시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저 자 V.A. 라코프 외
B.A. Раков
V.A. Rakov
연 도 2002
간행물명 『극동의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고르밧카 발해성에서 출토된 연체동물

주 제 어 발해
고르밧카 성지
연체동물
이매패 조개
온난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발해성지는 연해주의 미하일롭카Михайловский(Mikhailovka) 지구 일리스타야Илистая(Ilistaya) 강변에 위치한다. 전체면적은 5헥타르 정도이며, 한 변의 길이가 1250m인 성벽과 4개의 문이 있다. 1997년과 2000년에 실시했고, 주거지를 발굴했다. 발굴을 통해서 1문화층과 2문화층이 확인되었고 각각 1호와 2호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3문화층에서는 3호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홍수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아래층에서는 생토층이 확인되었고 이곳에 아궁이가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 안에서는 유약이 발린 도자기가 출토되는데, 8세기 말에 생산된 것이다.

유적 전체에서는 동물 뼈, 철, 청동, 주철, 토기, 물고기 뼈, 연체동물, 탄화된 목제 등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2종의 500개체 이상의 연체동물이 확인되었는데, 가장 많은 수는 이매패二枚貝 조개(93%)이다.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체동물은 민물 한 종만 확인되었다.

고르밧카 유적에서 확인된 연체동물의 양과 종은 이 유적에서 어업이 있었음을 존재한다. 민물 종류뿐만 아니라 해양생물도 확인되는데 고르밧카 유적과 바다와는 도로와 강을 따라서는 95~130km 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유적에서 출토된 해양 연체동물은 식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조개에는 인공의 구멍이 있고 일부 표면이 마연된 것으로 보아서 장기간 사용되었다. 이 조개가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은 접시 혹은 국자 대용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 해양 이매패 조개류 가운데 참굴Crassostrea gigas, 바지락Rudiapes philippinarum, 우럭Mya japonica, 백합Dosinia Japonica 등의 껍질이 확인되는데, 바다에서 유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신선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극동 라파나 베노사 종류는 적어도 3~5일간 공기 중에서 살아 있는데, 고르밧카 성지까지 배달되는 기간은 충분하다.

유적에서 발견된 해양 이매패 조개류 가운데 돌조개A. inaequivalvis는 유적에서 발견된 해양 이매패류 가운데 47%를 차지하는데, 현재는 포시에트Посьет(Pos'yet) 만에는 살지 않는 것이다.

고르밧카 성곽에서 연체동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발해인들은 강과 바다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식품과 가정용품 및 보석류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너무 적극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몇몇 해양종의 경우는 어획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수 있다. 특히 발해 국가의 경제에서 문물 교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발해에서는 3가지 유약을 써서 만든 도자기를 직접 생산했고, 연체동물의 껍질도 교환품이 되었을

표 고르밧카 성지에서 출토된 연체동물의 종류와 개수

해 제 김재윤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고르밧카 유적 외에도 다른 유적에서도 멸종된 연체동물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멸종된 연체동물은 발해 시기에는 현재보다 기온이 더 온난했을 가능성을 알게 한다.

Раков В.А., Гельман Е.И. 2002. Малакофауна бохайского городища Горбатка //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С. 127-133.

| 해제 | 겔만은 발해도자기와 발해성을 주로 연구하고, 라코프는 동물고고학자이다. 겔만이 발굴한 고르밧카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 뼈 가운데서 연체동물을 분석해서 얻은 결과이다. 그 결과 조개류가 바다와 민물에서 사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 식품으로 이용된 것은 민물조개이며, 바다조개류는 주로 가내공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바다조개는 현재 연해주의 포시에트 만에는 살지 않은 것으로 현재 보다 발해시기가 더 온난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포시에트 만은 연해주에서 주로 어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동해의 다른 곳은 수심이 너무 깊어서 어업활동이 원만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예로 든 것이다. 또한 연해주 가장 남쪽의 만으로 가장 따뜻한 곳 중에 하나이다. 연해주의 발해고고학 연구 중에서 생업에 대한 연구는 다른 국가의 발해연구에 비해서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 자 M.S. 랴셉스카야
М.С. Лящевская
M.S. Lyashevskaya

연 도 2017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3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크라스키노 성의 문화층에서 나온 고생물학적 연구

주 제 어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해수면변동
고생물
건조
습윤기

목 차 분석된 결과와 결론

2014년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발해 성에서 주거구역의 문화층에서 포자 꽃가루 분석을 위해 샘플을 수집했고, 2015년에는 44차 발굴로 유적의 남서부 지역에서 대륙 퇴적물 샘플을 채취했다. 이 지역은 주거구역으로 깊이 1.9m의 주거지 북벽에서 채취했다. 전체적으로 매우 검고 끈적거리는 토양 샘플이지만, 흙의 성질에 따라서 4개의 분층으로 나눠지는데, 0.2~0.60m, 0.60~1.25m, 1.25~1.55m, 1.55~1.90m 깊이로 구분된다.

동해의 해수면 변동은 6000년 전에 최대로 올라갔는데, 현재보다 2~3m 높아졌다는 의견이 있다. 크라스키노 성지가 형성되었을 때는 매우 온난한 시기로 인접한 추카놉카Цукановка(Tsukanovka) 강의 물이 따뜻했고 담수화된 얕은 만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곳에는 연안 해양 및 기수 규조류(Diploneis interrupta, Rhopalodia musculus, Lyrella lyra, Actinocyclus octonarius, Auliscuscaelatus, Tryblionella compressa)가 매우 많이 확인되어서 이를 입증한다. 크라스키노 고분군 유적에서는 봉분의 꼭대기에서 해양저서종과 착생동물이 확인되었는데, 따뜻한 석호가 주변에 있었을 의미한다. 강으로 바닷물이 침투한 흔적은 담수 강과 호수 습지 규조류(Pinularia intermedia, Luticolagoeppertiana)의 발견으로 알 수 있다. 이때 유적 주변의 자연환경은 오리나무가 계곡 숲으로 둘러 쌓인 습한 초지로, 얕은 산의 경사면에는 참나무로 덮였을 것이다.

발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매우 습한 장소를 선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인들은 이 영토를 흙을 메꾸어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지역에서 어두운 침염수림이었을 때, 충적토로 채운 것이다. 유적이 존재했을 때 습기에 따라서 3개의 기간으로 구분된다. 첫 번 째는 상대적으로 건조할 때, 두 번째는 좀 더 습할 때, 세 번째는 다시 상대적으로 건조해졌을 것이다.

꽃가루 가운데는 재배식물(기장, 밀, 보리, 메밀 및 십자화과)의 존재가 확인되는데 농업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잡초과의 꽃가루 가운데는 바다 갈매 나무속이 있다. 이는 주거 구역 내에 채소밭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꽃가루가 확인되지 않는 퇴적물(깊이 0.2~0.6m)이 있는데, 이는 성을 메꾸기 위해서 가져온 토양 사용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문화층에서 상기한 꽃가루가 줄어드는 현상(최대 3%)은 문화층의 일부에 벌목과 화재의 결과로 산림 식생이 차지하는 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크라스키노 발해성지에서 발해인들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주변 풍경은 해안 저지

그 림 1. 크라스키노 XLIV 구역내 남서지역에서 확인된 꽃가루 다이어그램
2. 크라스키노 발해성의 문화층에서 확인된 꽃가루 다이어그램

해 제 김재윤

대에는 오리나무가 지배적인 초지가 형성되었고 계곡에 숲은 드문드문 확인되고, 얕은 경사면에는 잎이 많은 참나무로 덮여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Лящевская М.С., Ганзей Л.А. 2017. Палин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слоя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ып. 3. Ремесла и промыслы.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86-93.

| 해제 | 이 논문은 E.A. 세르구세바E.A. Сергушева(E.A. Surgusheva)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적 분석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하지만 세르구세바는 흙에서 물질해서 발췌한 곡물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지만 이 연구는 흙 내부의 모든 자연유기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유적에서 서식한 동물과 식물류를 밝힌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동해가 기온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발해시기의 크라스키노 유적지에서도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적지를 매립했다는 점, 유적이 형성될 때와 유적의 마지막 기간 경관의 모습, 유적에서 기간에 따라서 습도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저 자 N.V. 레셴코
Н.В. Лещенко
N.V. Leshchenko
연 도 2012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1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크라스키노 주민들의 목제 수공업

주 제 어 발해
크라스키노 성지
가내수공업
목제품

연해주 발해국가에서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지에서 확인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가내수공업 중에서 목공업에 대한 연구이다. 목공업이 활용된 예는 주택건설, 가정용품 제조 및 선박 건설에서 주로 이용되었다. 발해인은 숙련된 항해기술이 있었는데, 이 기술은 발해 앞 시기에 거주한 옥저인들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특히 건물의 기초공사에서 목제기술을 잘 알 수 있다. 주택 구역에서 발견된 건물 아래 구덩이에서 지름 90cm, 깊이 80cm구덩이에서 목제 기둥(길이 68cm, 두께 30cm)이 확인되었다. 비슷한 구조는 절터에서도 있었다. 크리스키노 성지에서는 목제 우물도 발견되었다. 평면형태는 사각형(99×99cm)이고 깊이는 14cm이다. 우물바닥에서는 목제 잔이 발견되었다. 받침대가 있는 형태로 그릇의 높이는 6.4cm, 바닥의 지름은 4.2×3cm이다. 얇은 부분의 두께는 3mm를 넘지 않는다. 유적에서는 예전에 말갈 유형의 토기에 '木'과 가까운 글자가 새겨진 토제그릇이 발견된 적이 있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과 나무를 상징하는 글자는 일상성의 의미 외에도 부적과 같은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다.

목제구조물을 분석한 결과 나무를 가로, 방사형, 접선 세 방향으로 잘라서 만든 것이다. 수종분석결과 6개의 샘플은 오크(참나무), 1개는 버드나무, 5개는 오리나무, 수상나무, 사과나무 또는 배였다.

성 내의 절터에서도 나무 구조물이 발견되었다. 북쪽 구석이었는데, 나무판, 기둥, 말뚝 등이다. 나무판은 편평한 것과 볼록한 것이 있었다. 이들 유물의 절개면을 살펴본 결과 나무판은 40~45°로 도끼로 가공한 흔적이 뚜렷했다. 이 외에도 칼로 자른 흔적이 있었고 말뚝에도 42도 각도로 도끼로 잘라낸 흔적이 있다. 나무 조각에 구멍이 뚫린 경우도 있는데, 칼의 끝 부분을 이용했을 수 있다. 나무에 난 흔적들로 보아서 목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특수한 공구세트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무 끝을 다듬기 위한 날, 목제 표면을 예리하게 파내기 위한 일종의 조각 칼, 목제 끝을 갈고 홈과 구멍을 내는 칼과 끌, 톱질을 위한 톱, 구멍을 내기 위한 천공도구 등이다. 구조물도 고생물학 연구소에서 수종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오크나무 일종Quecus dentata Thunb.으로 밝혀졌다.

이와 유사한 목제 구조물이 크라스키노 고분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무덤의 구조물로 사용된 목제이다. 무덤을 결구하는 방법은 주거 구역에서 발견된 우물 및 건축물의 목제를 결구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이다. 무덤에서 나온 목제를 수종 분석한 결과

그 림 1. 1 – 나무판
2, 3 – 정방형 나무조각
4, 5 – 나무 막대기
6, 7 – 나무말뚝
2. 1–5: 목제 구조물의 파편
3. 구멍이 있는 구조물의 파편
4. 잔(토기), 2–명문토기
5. 1–4, 6–철제 칼
7–철제 낫,
5–송곳

해 제 김재윤

소나무, 버드나무, 호두, 자작나무, 너도밤나무, 올리브, 느릅나무, 단풍나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양한 칼도 나왔다.

Лещенко Н.В. 2012. Обработка дерева в системе домашних ремёсел населения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1.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95-105.

| 해제 | 크리스키노 성지에서 확인되는 여러 목제 유물에 대한 글이다. 건축구조물로 사용된 건축부자재 및 목제 용기 등에 대한 유물의 자세한 사이즈, 이용된 목제의 수종 및 목제 가공에 이용된 도구들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크라스키노 성지에서 출토된 모든 종류의 목제류를 다룬 것이 아니라 글이 써진 당시에 알려진 몇 몇 자료만으로 작성되어서 크라스키노 성 내의 목제 수공업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지 못했다. 글이 좀 더 자세하거나 제목에서 좀 더 구체화 되었다면 더 명료해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 자 N.V. 레셴코
Н.В. Лещенко
N.V. Leshchenko

연 도 2012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2호
발 행 처 국립 아무르대학교

고고자료로 본 연해주 니콜라옙카-2 평지성의 생계 경제

주 제 어 발해
니콜라옙카-2성
생계 경제
일상 용품

목 차
1. 사냥
2. 어로
3. 가내수공
4. 목가공
5. 교차 투공이 있는 토제품

이 글은 발해시기에 운용된 평지성 중 하나인 니콜라옙카-2Николаевское-2(Nikolaevka-2)성 출토유물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생계경제의 일면을 논한 것이다. 본 유적은 1975~1977년 발굴조사결과, 건축층 상층은 발해 후기(9세기 후반~10세기), 하층은 발해 전기(8~9세기 전반)로 편년되었다. 일리스타야Илистая(Ilistaya)강의 좌안左岸에 위치하며, 산림과 평야의 경계이자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변화하는 지형에 입지한다. 토양은 갈색 포드졸podzol에 속하며, 산림은 야생 수풀과 관목灌木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재들을 이용해 제작한 생계경제도구들은 사냥 · 어로 · 가내수공 · 목가공 및 기타 공구로 나눠볼 수 있다.

1. 사냥

동물유체에 대한 분석결과, 하층에서는 늑대 및 곰 · 우제류偶帝類 · 설치류齧齒類등 17종, 상층에서는 14종 등의 야생동물이 확인된다. 관련 유물로 크기와 형태가 다른 골제 유경촉 · 무경촉, 명적鳴鏑, 동물의 털가죽 등이 있다.

2. 어로

민물생선뼈 · 민물복족류腹足類 · 조개껍질 등은 건축층 상 · 하층의 수혈주거지 및 저장 · 폐기용 수혈(경제유구)에서 출토되었다. 그 중 돌조개과andara inaequivaalvis는 해양열대기후에서 확인되는 종이나, 해당 유적을 비롯하여 아브리코스Абрикосовское(Abrikos)주거유적 ·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성에서도 출토되었으며 장식용 드리개의 제작에 이용되었다. 어로와 관련된 유물은 좌우 양 끝단이 움푹 패인 편암제 어망추, 낚시바늘이 있다.

3. 가내수공

동물유체들을 2차 가공하여 수공예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석제용구로 문지르고 긁고, 투공하는데 이용했다. 평면 방형의 수혈주거지에서 다양한 예비품이 다량 출토되었으며, 1형-일상용구(칼자루 맞춤구, 바늘, 삼蔘칼, 고누알), 2형-사냥용구 및 무구(명적), 3형-장식구(띠끝장식, 장식판), 4형-의례용구(신근물품身近物品)의 4가지의 용도로 분류해볼 수 있다.

4. 목가공

목제 공구들은 덮개판 · 뚜르개 · 자루 · 돗자리 · 새끼줄 · 직조용 횡대가 확인되어, 수레용 · 주거축조용 · 방직용 등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토제품

토제품은 유적 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것으로, 어망추, 방추차, 주물용 국자 등

도　　면 1. 골제품
1~3) 뿔로 제작한 용품,
4·5) 가지뿔,
6·42) 찌르개, 뚜르개,
7) 칼자루맞춤구,
8) 바늘,
9) 장식판,
10~14·22~25) 손잡이,
15~19) 삼칼,
20) 발뒤꿈치뼈距骨,
21) 물주머니 마개,
26~30·38) 문양 장식판,
31·32) 송곳니로 만든 장신구Amulet,
33) 돌림쇠,
34~37·43~47) 손가락 장식판
39) 빗살문거치구有櫛紋,
40·41) 바늘,
42) 띠끝장식, 48) 명적
2. 뿔로 만든 예비 용구
3. 목제 용구
4. 교차 투공이 있는 토제품
5. 토제품
1) 구슬,
2·3·5·13) 방추차,
4) 어망추,
6~12) 고누알,
14~31) 고리

해　　제 정윤희

이 있다. 따라서 '기능 불명'으로 기술되었던 석제 · 토제품들의 대다수는 식료품 가공용구로 볼 수 있다. 석제품은 주로 편암, 일부 사암을 이용하였다. 그 중 사립이 다량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고 그을음이 심한 토제고리는 토기 소성燒成시 재임용으로 추정된다. 토제품은 장신구(구슬) · 놀이용구(고누알)로 사용된 것 외에 투공이 있는 방형 토제품이 주목되는데, 심하게 그을린 흔적이 있으며 소성된 후 문양이 새겨진 것도 있다. 이는 금속용해 및 토기소성시 통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 혹은 의례용구라는 의견이 있다.

Лещенко Н.В. 2012. Система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населения городища Николаевское-II в Приморь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2.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284-294.

| 해제 | 필자는 중세시기 러시아 극동~아시아지역의 고고자료로 본 생활경제양상에 대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니콜라옙카-2성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유기적으로 정리하였다. 발해시기 출토품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동시기의 크라스키노 성 · 고르밧카 성 출토품과 함께 발해 생계경제의 특징을 파악하는데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르밧카 발해 평지성의 어로

저 자 L.N. 베세드노프 외
Л.Н. Беседнов
L.N. Besednov

연 도 2011
간행물명 『고대 및 중세의 러시아 극동: 문제, 탐색, 해결』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고르밧카
발해성
내륙
바다
물고기 뼈
바닷물고기
회유어
해양무역
생업

표 1. 고르밧카 발해 성지에서 출토된 물고기의 종류

해 제 김재윤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발해성에서 출토된 물고기뼈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민물고기는 잉어이다. 현재 한카호와 일리스타야Илистая(Ilistaya) 강에서는 잘 볼 수 없는데, 발해 당시에는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산란기에는 어종이 많이 잡히지만 초봄부터 늦가을까지는 모든 어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획의 계절성은 알기 힘들다.

유적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해양어종은 극동청어와 넙치이다. 청어가 넙치 보다 훨씬 더 많이 출토되었다.

그 외에도 회유어는 연어, 극동 러드(잉어과), 가숭어(숭어과)로 대표된다. 전체 어종의 9.17%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영양가는 첨 연어와 분홍 연어이지만 뼈가 남은 것은 가숭어가 4.69%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유적에서 확인된 해양과 회류어는 각 층(5건축층)에서 출토된 담수종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슷한 비율로 확인된다. 그러나 일부 물고기 중에서 회유어 중 가숭어의 비율이 높이 확인되었다. 해양물고기 가운데 봄에만 잡히는 청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봄부터 가을까지 어획이 가능하다. 유적에서 나온 바다 물고기는 아마도 바다해안에서 이곳 내륙까지 말려서 가져왔을 것이다.

고르밧카 유적의 주변에는 얕은 물에서 낚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륙의 유적에서 해양과 회유어 물고기가 확인되는 것이 매우 예외적이다. 고르밧카 유적에서 연체동물 표본 중 28종 가운데 17종이 해양생물이다. 이 유적에서 바다까지 90km가 넘는 거리로 바닷가에서 가져온 물품은 어패류 외에도 유약을 바른 도자기일 수 있다. 발해 삼채는 발해 수도에서 수입된 것으로 중국 정주郑州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적에서 출토된 물고기 뼈를 수집해서 분석한 연구는 발해 동북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간의 무역관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적에서 물고기가 어떤 형태로 운송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거리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생물이 아니라 사전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적에서 확인된 물고기 뼈를 통해서 고르밧카 유적의 주민 생업에 미친 영향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Беседнов Л.Н., Гельман Е.И. 2011. Рыболовство населения бохайского городища Горбатка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проблемы, поиски, реш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 ООО «Рея». С. 187-194.

| 해제 | 고르밧카 유적은 연해주 내륙에 위치한 유적으로 바다와는 거리가 있다. 논문에서 연해주의 바다는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았으나 동해 쪽으로는 시호테알린 산맥을 넘어야하기 때문에 연해주 남부의 바다(하산Хасанский(Khasan) 지구)로부터 해양물고기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 정주에서 제작된 발해삼채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연해주 남부를 염두해 둔 것이다. 발해유적에서 출토된 자연유체분석은 대부분 식물유체 및 동물 뼈, 연체동물류가 대상이 되었으나 어류에 대한 분석은 드물게 이루어졌다. 발해가 해양국가임을 생각해본다면 해양과의 관련성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고기 뼈를 통해서 발해 식생활문화 복원을 위한 한 방편은 될 수 있으나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저 자 O.A. 샤로바 외
O.A. Шарова
O.A. Sharova

연 도 2011
간행물명 『고대 및 중세의 러시아 극동: 문제, 탐색, 해결』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크라스키노 발해 성에서 출토된 연체동물

주 제 어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연체동물
엑스페디치야만
굴
갑각류
채취

그 림 1. А–참굴
Б–봉우리따개비
В–피뿔고둥
Г–북방대합
Д–북방밤색무늬조개
Е–동해담치

해 제 김재윤

2006~2007년에서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발해성에서 출토된 연체동물은 모두 17종이다. 이매패Bivalvia, 피뿔고둥Rapana venosa, 동해담치Crenomytilus grayanus, 털담Modiolus sp., 참굴Crassostrea gigas, 가리비Mizuhopecten yessoensis, 북방대합Spisula sachalinensis, 개량조개Mactra chinensis, 동죽조개Mactra veneriformis, 바지락Ruditapes philippinarum, 백합Dosinia japonica, 우럭조개Mya arenaria, 북방밤색무늬조개Glycymeris yessoensis, 복족류Gastropoda, 고동Neptunea bulbacea, 만각류Cirripedia, 봉우리따개비Balanus rostratus이다.

다양한 종류의 갑각류는 다양한 생태에서 사는데, 굴은 엑스페디치야 Экспедиции(Ekspeditsii) 만灣, 우럭조개는 이 만의 해안가, 홍합은 엑스페디치야 만의 입구에 있는 바위, 가리비 등은 가까운 나지모바Назимова(Nazimova) 모태톱과 엑스페디치야 만의 해안가에서 채취할 수 있다. 이곳은 크라스키노 성지와 5~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곳에서 채취된 조개류는 어획량의 주요 부분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Шарова О.А., Гельман Е.И., Раков В.А. 2011. Малакофауна бохайского городища Горбатка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проблемы, поиски, реш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 ООО «Рея». С. 194-199.

| 해제 | 크라스키노 유적이 위치한 곳은 연해주의 가장 남쪽이며, 동해와 인접한 곳이다. 그 곳에서 가장 가깝고 어업이 가능한 곳은 엑스페디치야 만이다. 유적에서 출토된 갑각류를 분석한 결과 발해시기에도 이 만에서 어업이 실제로 있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어획량의 주요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유적에서 남아 있는 해양 동물 유체(갑각류의 껍질)만을 대상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하지만 연해주의 토양 특징상 유기물질은 거의 남지 않는다. 크라스키노 발해성은 고도가 낮아서 물이 잘 차는 특성에서 유기물질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동물 뼈가 대표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발해의 항해기술을 이용해서 큰 어종이나 해양 동물을 대상으로 한 어업이 성행했을 수도 있다.

저 자 E.A. 세르구세바
Е.А. Сергушева
E.A. Sergusheva

연 도 2010
간행물명 『천년기의 장막을 열면서: Zh.V. 안드레예바 80주년』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해주 올가지구 시니예 스칼리 주거 유적의 곡물종자

주 제 어 시니예 스칼리 유적
철기시대
발해
기장
조
밀
겉보리

목 차
머리말
시니예 스칼리 고고유형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에서 출토된 곡물종자의 특징
올가문화 주거지 내부토에 출토된 곡물종자
발해 문화층에서 출토된 곡물종자
도출된 결과분석
맺음말

표
1. 시니예 스칼리 주거지에서 출토된 곡물종자의 종류와 양 목록
2. 시니예 스칼리 유적의 올가문화 주거지 출토 보리의 크기(2번시료, 1984년 발굴 A, B–12격자 7분층 출토)
3. 시니예 스칼리 유적의 발해 문화층 출토 보리의 크기(8번시료, 1984년 발굴 E–5 격자 1분층 출토)
4. 시니예 스칼리 유적의 발해 문화층 출토 보리의 크기(8번시료, 1984년 발굴 E–5 격자 1분층 출토)
5. 시니예 스칼리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시대(올가문화)의 주거지와 중세시대(발해)의 곡물종자

올가지구 시니예 스칼리Синие Скалы(Siniye Skaly) 유적에서는 6립 보리 알갱이와 조粟가 소량 확인된다. 재배식물 외에도 유럽꼭두선이Madder, Rubiaceae 종자도 확인되었다. 그래서 철기시대 시니예 스칼리 유적에서는 최소한 세 가지 유형의 식물을 재배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농업을 지지한 것은 보리를 재배하는 것이다. 기장 작물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이 식물이 발견된 것은 작물의 국지적인 현상일 수 있다. 시니예 스칼리 유적의 철기시대 문화층에서 보리의 존재는 이미 알려진 것으로 6립 보리 알갱이다. 2번 발굴지의 남쪽 경사면에서 확인된 것이다. 올가ольгинская(Olga) 문화의 토기 제작장으로 알려진 곳으로 평균입자크기(길이 2.5~5.5 mm, 두께 1.5~3 mm 이상)인데, 작은 크기로 동아시아 품종의 특징이다.

이와 비슷한 곡물 데이터가 출토되고 비교적 시간과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은 크로우놉카의 셀로마예프 클류치Шеломаев Ключ(Shelomayev Klyuch) 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 주거지의 구덩이에서 발견된 토기 안에 재배된 종자인 기장과 보리가 확인되었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 유적은 2,160B.P.이다. 그렇다면 연해주 동부의 철기시대 2개의 주거 유적에서 얻은 식물학적 데이터로 보아서 이 지역에서 재배된 곡물은 6립 보리가 우세하다. 이는 연해주 동부의 농업기후 때문일 수 있다.

연해주에서는 대부분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여름 상반기(5월 하순~7월 중순)이다. 일사량이 부족하고 안개가 늦봄까지 방해하고, 하반기에는 추위와 폭위로 어렵다. 올가지구는 연해주의 동부로 농업을 하기 좋은 기후는 아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만족스러운 수확량을 제공하는 식물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6립 보리일 가능성이 있다. 보리는 다른 곡물이 자라지 않은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곡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연해주의 철기시대 얀콥스키 문화 유적인 말라야 포두세치카 유적에서는 보리, 페스챤느이-1 유적에서는 기장이 발견되었다. 연해주 중부의 크로우놉카 문화인 아누치노-1 유적, 크로우놉카-1 유적에서는 보리가 확인되었다. 폴체Польце(Poltse) 문화의 글라좁카 유적에서는 기장이 확인되었다.

아무르 지역의 철기시대 유적에서는 다른 곡물은 없고 기장만 확인되었는데, 연해주에서 발견된 곡물과의 차이점이 생기는 원인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시니예 스칼리 유적의 발해층에서는 보리, 말린 기장, 콩 종자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유적에서 출토된 보리와 기장의 존재는 미미해서 발해시기의 인구에게 식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그 림 1. 시니예 스칼리 유적 철기시대 주거지(올가문화의 주거지)에서 추로된 곡물종자(1984년 발굴 A-12격자, 5분층):
1) 6립 보리알갱이
2) 기장
3) 조
4) 갈륨 속
2. 시니예 스칼리 유적의 발해 문화층 출토(1984년 발굴, 3-4격자, 1분층):
1) 6립 보리알갱이
2) 기장
3) 콩
3. 시니예 스칼리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시대(올가문화)의 주거지와 중세시대(발해)의 곡물종자 크기 비교

해 제 김재윤

하지만 연해주의 다른 발해 유적지인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유적, 아브리코스Абрикосовское(Abrikos) 유적에서는 기장은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니예 스칼리 유적에서는 겉보리, 기장, 콩을 재배했고 다른 발해 유적지에서는 재배 식물의 목록은 광범위하다.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유적에서는 겉보리Hordeum vulgare, 쌀보리H. vulgarevar. nudum, 밀Triticum aestivum, 피Echinochloa, 조Setaria italica, 기장Panicumi liaceum, 팥Phaseolus angularis, 콩Glycine max, 십자화과 식물Brassicaceae, 아마도 머스타드Brassica sp.등 8가지 유형의 재배식물 종자가 구분되었다. 고르밧카 유적에서는 조, 기장, 밀, 팥, 콩, 겉보리, 쌀보리, 메밀, 들깨 등이 확인되었다. 아브리코스 유적에서는 기장, 밀, 팥, 콩, 들깨가 출토되었다. 모든 유적에서 기장족에 속하는 피, 기장, 조가 가장 많이 재배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 외에 가장 빈번하고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곡물은 밀이고, 겉보리는 수량이 많지는 않다 .

따라서 유적의 발해 층 곡물은 크라스키노, 고르밧카, 아브리코스 등 다른 발해에서 출토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한 가지는 생태학적인 특징 때문이다. 시니예 스칼리 유적은 생육조건이 좋지 않아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라는 보리가 자랐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이유는 유적의 발해 문화시기의 인구구성에 따라서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원주민으로 그들의 문화도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작물은 자리를 잡지 못했고, 겉보리가 우세한 작물로 유지되었을 수 있다.

Сергушева Е.А. 2010. Семена растений с памятника Синие Скалы (Ольгинский район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 Приоткрывая завесу тысячелетий: к 80-летию Жанны Васильевны Андреевой. Владивосток. С. 29-49.

| 해제 | 시니예 스칼리 유적은 나홋카Находка(Nakhodka) 북쪽에 위치한 올가 강변에 위치하는 산 위에 자리잡은 유적이다.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인 올가문화, 발해 문화층까지 확인되어 오랜 기간동안 사람이 산 흔적이 남아 있다. 특히 이 유적에서 중심 문화층은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이다. 청동기시대의 동모와 동포를 제작하는 용범류가 30개 발견되어 청동기를 직접 제작하던 곳으로도 알려졌다. 철기시대에는 올가문화가 확인되는데, 연구자에 따라서 연해주의 폴체문화라고도 한다. 이 유적을 발굴한 Zh.V. 안드레예바Ж.В. Андреева(Zh.V. Andreeva)는 이 유적을 발굴하고 올가문화를 정리했다. 발해 시기에는 말갈문화의 유적으로 알려졌다.

연해주에서는 발해시기의 유적이라도 발해와 말갈의 유적을 토기로 구분한다. 다만 이는 러시아 학계의 말갈과 발해유적을 구분하는 기준에 입각한다. 발해 건국 전후를 기준으로 말갈과 발해, 그리고 수제手制의 말갈토기, 윤제輪制의 발해토기 등과 같은 기준이다. 필자 또한 크라스키노 유적과 같이 물레인 녹로轆轤를 사용해서 만든 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발해유적, 녹로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말갈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말갈 유적으로 구분한다. E.A. 세르구셰바가 분석한 크라스키노 유적, 고르밧카 유적, 아브리코스 유적은 모두 발해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이지만 시니예 스칼리 유적은 그렇지 않아서 말갈의 유적이다. 그래서 유적에서는 다른 발해유적에서 많이 출토되는 기장족(기장, 조, 피)이 확인되지 않고 겉보리만 확인된다고 본 것이다. 올가 강은 연해주의 동해안과 가까운 곳으로 이 지역의 문화는 신석기시대부터 연해주의 다른 문화와는 차이가 있는데, 재지적인 성격이 강한 지역적 특성이 있다.

좀 더 부연하면 시니예 스칼리 유적에서 발해시기의 말갈문화층은 유적에서 중심시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연해주 말갈 유적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적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말갈 문화 유적과 비교를 한다면 좀 더 유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저 자 E.A. 세르구세바 외
E.A. Сергушева
E.A. Sergusheva

연 도 2014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1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아브리코스-1 발해 마을유적에서 출토된 식물종자의 결과

주 제 어 아브리코스-1
발해취락지
기장속
조
피
밀
보리
6종의 야생식물

목 차
머리말
연구분석방법
아브리코스-1 취락지에서 출토된 곡물의 형태결과
재배곡물
채취된 야생곡물
확인된 결과에 대한 토론

아브리코스-1Абрикосовское-1(Abrikos-1) 유적은 연해주의 라즈돌나야Раздольная(Razdolnaya) 강(수분하綏芬河)의 지류인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ка(Krounovka) 강의 강변에 위치하는 유적이다. 이미 1980년대에 E.V. 샤프쿠노프Э.В. Шавкунов(E.V. Shavkunov) 박사가 발굴한 아브리코스 유적은 절터로 잘 알려진 곳이다. 절터와 인접한 곳(남서쪽으로 2.5km)에서 마을 유적을 확인했고, 2007년과 2008년에 걸쳐서 발굴했다.

아브리코스-1 발해유적에서 8가지 종류의 재배식물이 확인되었다. 기장속(3종류), 콩류(2종), 유지 종자(1종)이 확인되었다. 연해주 발해시기의 다른 유적에서도 재배된 전형적인 것들이다. 이 결과로 보아서 유적에서 인구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재배식물 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기장속인데, 전체의 63.3%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곡물은 조로 총 발견 수의 42.75%, 피와 기장은 17.7%, 3위는 밀 16.7%, 보리가 10.4%로 4위이다. 이는 4㎡의 두 개의 수혈에서 얻은 결과이다. 그러나 두 개의 수혈에서 출토된 곡물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아브리코스-1 유적에서 출토된 기장은 연해주의 중세시대(발해)에서 인구의 생계유지 시스템에서 기장이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외에 산나물과 야생 사과도 채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브리코스-1 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유적에서는 6종의 야생 식물 및 약용 식물(포도, 사과, 체리, 소나무, 개암, 오갈피속)이 확인되었다.

아브리코스 지역에서는 야생 식물이 매우 풍부하다. 오늘날에도 이 지역에는 다양한 식용 야생식물이 자란다. 아욱과 잡초의 종자가 발견되면 유적 주변 근처에 보기 힘든 활엽수 종이 서식했던 숲 식생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메밀의 종자는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견된 종자 가운데 불명확한 것은 재배된 기장 속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유적의 2번 발굴지에서는 많은 양의 곡물류가 발견되었는데, 추후의 연구가 기대된다고 한다.

Сергушева Е.А., Гельман Е.И. 2014.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семян растений из бохайского поселения Абрикосовское-1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ып. 1.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117-127.

그 림 1. 발해유적의 위치
1 – 아브리코스 사원,
2 – 아브리코스 취락지
2. 아브리코스 취락지의 발굴구역
3. 2007년 아브리코스 취락지의 발굴지역 2구역에서 출토된 피
4. 2007년 아브리코스 취락지의 발굴지역 2구역에서 출토된 밀

표 1. 아브리코스 취락지의 발굴지 2구역과 4구역에서 출토된 곡물종자의양(2007년, 2008년)
2. 2007년, 2008년 아브리코스 취락지 발굴지 2구역과 4구역에서출토된곡물의종류, 개수, 사이즈

해 제 김재윤

| 해제 | 발해 유적의 수혈에서 채취된 흙은 부유선광 방식을 도입해서 분석한 결과, 많은 곡물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르구세바는 연해주의 신석기시대 유적부터 발해 및 여진시기(연해주의 중세시대)까지 모든 유적을 대상으로 분석해서 연해주 농경사를 정리하고 있다. 아브리코스–1 유적에서 확인된 재배식물 조, 피과 기장, 밀, 보리는 고르밧카 유적에서도 확인되어서 발해에서 재배한 곡물의 종류를 알게 한다.

저 자 E.A. 세르구셰바 외
E.A. Сергушева
E.A. Sergusheva
연 도 2014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1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크라스키노 성의 동문지 조사구역 출토 시료에 대한 부유법 식물분석 예비결과

주 제 어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동문지
재배식물
83.5%
야생식물

목 차
머리말
연구분석방법
분석결과
20발굴지역에서 출토된 식물
분석결과에 대한 토론

그 림
1. 2002년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동문지(20발굴구역)에서 출토. 재배식물:
1) 콩, 조
2. 2002년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동문지(20발굴구역)에서 출토. 재배식물.
1) 기장
2) 밀
3. 2002년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동문지(20발굴구역)에서 출토. 야생식물과 잡초과.
1) 명아주, 피
4. 2002년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동문지(20발굴구역)에서 출토. 야생식물과 잡초과.
1) 까마중
2) 콩과
5. 2010년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동문지(39발굴구역), 재배식물,
1) 콩, 대마씨
6.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20발굴구역, 39발굴구역, XL발굴구역에서 출토된 곡물의 비교
(А–동문지 20발굴구역, Б–동문지 39발굴구역, В–XL발굴구역 주거지 9호, Г–XL발굴구역 주거지 10호

2008년부터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에서 조사된 흙을 물질해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크라스키노 발해성의 주민의 생업에 농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유적에서 확인된 재배된 곡물은 최소 8가지로 보리, 밀, 기장속(피, 조, 기장), 콩과식물(팥과 대두), 채소류인 순무이다.

본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는 크라스키노 발해성지의 동문지 옆에서 이루어진 20발굴구역(2002년) 및 39발굴구역(2010년) 발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20발굴구역에서 확인된 곡물은 재배된 곡물류 5종류, 잡초과 3종류, 야생식물 2종류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재배곡물은 콩Glycine max (L.) Merr., 밀Triticum aestivum L., 조Setaria italica L., 기장Panicum miliaceum L., 피Echinochloa utilis Ohwi et Yabuno이다. 잡초과는 명아주Chenopodium album L., 까마중Solanum nigrum L., 피속Echinochloa crus-galli L.이다. 야생식물로는 콩과Leguminosae와 싸리Lespedeza sp.가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확인된 재배식물의 종자는 현재까지 해당 유적에서 확인된 재배식물의 83.5%를 차지한다. 그래서 농경이 크라스키노 발해 주민들의 중요한 생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39발굴구역에서는 콩Glycine max (L.) Merr., 대마Cannabis sativa L., 조Setaria italica L. 혹은 기장Panicum miliaceum L.이 출토되었다.

크라스키노 성지 재배식물의 종자는 40발굴구역(2009년)과 42발굴구역(2009년) 발굴에서 얻은 데이터로 이 유적에서 재배된 고식물종을 분석한 바 있다. 20발굴구역와 39발굴구역인 동문지에서는 겉보리와 쌀보리, 팥, 순무는 확인되지 않았다.

크라스키노 발해성지의 동문지 퇴적물에서는 유적에서 최초로 대마씨가 발견되어서, 이 유적지에서 주민이 사용한 재배식물 목록에 한 가지가 추가되었다. 대마씨가 연해주 유적에서 출토된 경우는 초기철기시대 크로우놉카Кроуновская(Krounovka) 문화에 해당되는 셀로마예프 클류치Шеломаев Ключ(Shelomayev Klyuch) 유적에서 출토된 것 뿐이다. 단결문화團結文化의 유적에서도 대마씨가 발견되었다.

동문지에서 발견된 재배식물은 겉보리, 쌀보리, 팥, 밀이 출토되지 않는다. 이는 크라스키노 유적의 주거지 및 다른 발해 유적지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것이다. 또한 동문지에서 발견된 재배식물 가운데 기장은 매우 적은 양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례적인 것이다. 기장은 연해주의 중세유적에서 발견되는 곡물 중에서 가장 널리 퍼지고 일반적인 곡물이다. 동문지에서 추출된 샘플의 또 다른 특징은 콩의 함량이 다른 곡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40발굴구역(2009년)과 42발굴구역(2009년) 발굴에서는 피이

표
1.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20발굴구역에서 출토된 곡물의 종류
2.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20발굴구역에서 출토된 곡물의 사이즈
3.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20발굴구역에서 출토된 기장의 사이즈
4.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20발굴구역에서 출토된 피의 사이즈
5.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39발굴구역에서 출토된 곡물의 종류
6.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39발굴구역에서 출토된 콩의 사이즈
7.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39발굴구역에서 출토된 대마씨의 사이즈

해 제 김재윤

우세했고, 조는 단일종으로 유일하게 확인되었다. 그런데 20발굴구역(2002년) 및 39발굴구역(2010년)에서 나온 샘플 가운데 콩이 우세한 것은 우연한 임의성의 요소가 내포되었을 수 있다. 동문지에서 얻은 퇴적물에서는 샘플 하나만이 채취된 것으로 이 특성이 크라스키노 발해 동문지의 특별한 요소로서 자리 잡기는 힘들다. 즉 이번에 콩이 특별히 많이 채취되었다고 다음번에도 콩이 많이 출토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종별 비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20발굴구역 발굴지에서는 잡초 종류인 명아주의 종자(65개 표본)가 발견되었다. 이 식물은 연해주의 다른 유적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는데, 다른 잡초가 자라지 않는 지역에서 잘 자란다. 이 식물은 다른 잡초에 비해서 빽빽하게 자라고 엄청난 수의 종자가 자라기 때문이다. 이 발굴지에서는 탄화된 종자가 많이 나왔다. 이는 시점에 우연히 화재구역으로 떨어졌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부 씨앗이 탄화되어 토양에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싸리도 확인되는데, 이는 열린 공간에서 약간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란다. 싸리가 자라는 곳은 주로 정착지의 경계 또는 바로 근처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발굴된 곳은 매우 습한 곳으로 싸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인 초목이 더 많고 건조한 환경이었던 정착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동문지 옆의 발굴에서 얻어진 곡물 샘플자료는 흙 1m 평균 6.8 종자와 50종자의 비율로 출토되었다. 앞으로의 성과가 더 기대된다.

Сергушева Е.А., Гельман Е.И. 2014.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изучения семян и плодов раст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из раскопок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 районе восточных ворот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ып. 1.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128-141.

| 해제 | 세르구세바의 논문에는 발굴에서 흙을 채취하는 과정과 방법, 곡물의 정확한 종류 및 학명, 각 곡물의 개수, 각 곡물의 크기까지 전부 밝히고 있다. 식물고고학 연구자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20발굴구역와 39발굴구역 발굴은 2002년과 2010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동문지 옆의 같은 지점이지만 발굴기간에 차이가 있다. 이는 러시아 발굴 특성상 일년 동안 여름에만 발굴을 할 수 있는데, 비가 오는 기간을 빼면 발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같은 공간이라도 그 해 발굴을 다 못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발굴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크라스키노 유적만의 특징이 있는데, 유적은 해발고도 보다 낮아서 물이 많이 찬다. 그래서 발굴은 유적의 북쪽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동쪽문지 부근에서도 발굴이 된다. 즉 물이 차면 발굴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크리스키노 발굴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39발굴구역 발굴에서 확인된 대마씨는 모두 33점이 확인되어서 우연히 생긴 종류는 아니다. 이 종자는 온대와 아열대지역에서 매우 따뜻한 지역에 자란다. 뿐만 아니라 싸리의 발견되었는데, 세르구세바는 유적이 현재와는 달리 건조한 환경에 놓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크라스키노 주변에는 발해와 다른 시기의 유적도 있어서 많은 가능성이 있다. 2009년 발굴에서는 크라스키노 유적지의 최하층에서 탄소연대결과가 고구려 시기까지 내려가는 연대치가 확인되었고, 주변에 여진시대의 무덤도 확인된다. 앞으로의 발굴성과 및 연구결과가 기대된다.

저 자 V.E. 오멜코 외
B.E. Омелько
V.E. Omelko
연 도 2014
간행물명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1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2009년 크라스키노 성 출토 동물뼈 분석

주 제 어 크라스키노
발해성지
포유류
동물뼈
가축
개, 소, 말, 돼지, 양
야생동물

이 논문은 2009년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남문지 옆을 조사한 42발굴구역 결과로 작성되었다. 이곳에서 확인된 동물뼈는 507개로 기본적으로 대형 포유류(우제류)가 많다. 출토된 유물은 가축류는 개, 소, 말, 돼지, 양, 야생동물은 노루Capreolus pygargus, 꽃사슴Cervus nippon, 말사슴Cervus elaphus, 고산토끼Lepus timidus, 오소리Meles leucurus, 설치류Rodentia와 부정확한 동물도 2종류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뼈는 2012년 크라스키노 발해성의 44발굴구역에서 발견된 동물뼈와 보존상태가 다르다. 이곳에는 뼈가 보존되기 힘든 환경조건으로 인해서 땅에서 뼈가 나온 후 갈라지고 박리되는 현상이 심했다. 유적의 남쪽과 북서쪽이 가깝지만 성 내부의 환경이 매우 달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염소나 양의 뼈가 발견되기는 했으나 잘 보존 되지 않으면 구분하기 힘들다. 본 발굴에서 확인된 동물 뼈는 다른 발해 유적지인 니콜라옙카-2Николаевское-2(Nikolaevka-2) 유적, 콘스탄티놉카-1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1(Konstantinovka-1) 유적 등에서도 발견되어 발해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야생 동물로 생각된다. 현재 크라스키노 유적과 가까운 곳에 깊은 숲은 없지만, 과거에는 정착지와 숲이 매우 가까웠고 사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

그런데 2009년에 확인된 동물뼈는 남쪽으로 도로 구간이 있는 지역으로 주거구역인 유적의 북서쪽 발굴지인 44~48발굴구역보다 훨씬 많은 동물 뼈가 나왔다. 이곳에서 개와 말은 없었고 야생동물 뼈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크라스키노 발해성지의 북서쪽과 남쪽이 다른 조건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로나 틈새 공간에 퇴적물을 메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얻은 데이터로 그간 유적에서 발견된 동물 뼈의 종류를 더 밝힐 수 있었으며, 다른 발해 기념물 보다 크라스키노 발해성지가 농업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Омелько В.Е., Винокурова М.А. 2014. Анализ костей животных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исследований в 2009 году) //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73–79.

그 림 1. 부러진 동물뼈, 척추
(42발굴지역, A–2방안, 3분층)
2. 42발굴지역 출토 부러진
동물뼈(a–Ж–2방안, 2분층,
b–Д–2방안 2분층)
3. 42발굴지역 출토 부러진
동물뼈(B–3방안,3분층)
4. 42발굴지역 출토 부러진
동물뼈(M–1방안 3분층)
5. 42발굴지역출토 말뼈와 불탄
맹수뼈(a–M–1방안 3분층,
b–Г–4방안, 2분층)
6. 42발굴지역 출토 설치뼈
(E–1방안 3분층)
7. 42발굴지역출토 소뼈,
소형(M–1방안 2분층)과
보통(Д–2방안 2분층)

표 1. 2009년 크라스키노
발해성에서 출토된 동물
(42발굴구역, 2분층과 3분층)
2. 돼지이빨의 치수
3. 각 분층에서 출토된 돼지뼈의
사이즈
4. 개뼈의 측정지수
5. 각 분층에서 출토된 개이빨의
사이즈
6. 소의 세 번째 지골의 크기
7. 소의 이빨 크기
8. 야생동물의 이빨 사이즈

해 제 김재윤

| 해제 | 크라스키노 발해성 연구에서 괄목할만한 부분은 유적에서 확인되는 자연유물인 곡물종자와 동물 뼈 및 연체동물에 대한 분석, 자기장 측정을 통한 분석, 기후 환경변화 등 다른 학문과 융합을 통한 연구 분야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연구성과는 크라스키노 유적의 중점 발굴지인 북서쪽과 남서쪽의 환경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북서쪽은 사원지 뿐만 아니라 주거구역이 확인되는 곳이고 남서쪽은 남문지 주변과 도로 일부가 확인되었다. 이곳은 해발고도보다 낮아서 물이 차는 곳으로 발굴을 잘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유적의 남쪽과 북서쪽 환경이 다르지만, 발해시기에도 환경이 달랐다는 점은 발굴에서 나온 자연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적의 남쪽으로는 문지가 있고, 유적이 이곳에 만들어진 이유와 이 성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기대해 본다.

저 자 N.V. 레셴코
Н.В. Лещенко
N.V. Leshenko
연 도 2002
간행물명 『동아시아의 전통문화』 4호
발 행 처 국립 아무르대학교

크라스키노 성의 토제 건물장식품

주 제 어 발해
연해주
크라스키노
토제 장식품

이 논문은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출토 토제장식품의 예술학적 고찰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 장식품은 스키토-시베리아 동물문양의 특징을 보인다.

2001년 여름 크라스키노 성의 북서쪽 사원 복합체 주변에서 토제 장식품들이 발견되었다. 이것들은 말의 머리를 원형으로 하여 표현한 것으로, 투박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장식품은 짐승의 용모로 명확하게 제작되었고, 눈동자는 타원형이고 크다(0.7×0.5cm). 콧구멍은 부풀어 올라있고, 약간 대각선 아래로 기울어져 있다. 말의 입 역시 명확하게 새겨진 선들로 표현되었다. 갈퀴는 목과 분리되어 있었고 작은 침선들로 표현되었다. 윗부분은 물결모양이고, 고삐는 작은 구멍으로 나타났다. 토제품의 높이는 4.7cm이고 목 아랫부분에는 0.5cm 직경의 구멍들이 있는데 철정을 꽂아 넣기 위한 것이다. 말은 고삐가 물린 형태로 묘사되었고, 머리는 사실상 수평으로 위치한다. 목은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유물들이 사원지와 인접한 영역에서 발견된 것이 우연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새와 동물의 형상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유적 발굴조사에서 확인된다.

원통형 혹은 돌출된 표면들은 기울어진 면으로 전환되고, 갈비뼈 모양의 모서리와 교차한다. 이를 통해 스키타이 동물문양에서만 보이는 특징적인 예술적 양상들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것은 말의 작은 몸통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관찰된다. 토제 장식품의 모든 면은 명확하게 모형화되어 있다. 스키토-시베리아 동물양식의 그 다음 특징은 크라스키노 토제품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은 동물의 일정 부분을 명확하게 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력, 힘, 민첩성을 상징하는 커다란 눈, 콧구멍, 입, 동물의 장기가 크게 나타난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이 더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보다 늦은 단계에서 활용되는 것이다. 몸의 개별적인 부위에 특별한 표식을 새기는 것인데 원형이나 점모양의 나선형 표식, 달 모양의 호, 괄호, 구부러진 삼각형과 나선의 타래모양으로 나타난다.

말의 형상은 중세시대 고고 유물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며 생활 도구나 의례 도구에서 확인된다. 말갈 시기의 유적인 오시놉카Осиновка(Osinovka) 주거유적에서는 토제 말장식이 2점 발견되었고, 시니예 스칼리Синие Скалы(Siniye Skaly) 다층위 주거유적의 상층 8세기~10세기 층에서 청동 기마상이 발견되었다. 청동 기마상은 발해의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에서도 발견되며, 점토재질의 기마상 2점은 아브리코스Абрикосовское(Abrikos) 주거유적에

그 림 1. 크라스키노 성출토 토제장식품
2. 크라스키노 성출토 토제장식품

해 제 이우섭

서 1989년 발견된 바 있다.

상술한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말의 형태는 연해주 중세시대 유적에서 생활, 의례 유물로 자주 활용되었다. 하지만, 여진 시대의 말형상은 청동재질의 유물이 많았고 발해시대에는 점토 재질의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 금속재질의 판형 장식의 전통은 스키토–시베리아 동물문양에서 확인되는데, 기원전 1천년 기에 동아시아에서 건너왔다.

이 양식은 다양한 민족들의 예술에 영향을 주었고 발해의 수공업자들은 그 전통을 따랐다. 그 대표적인 예가 크라스키노 성에서 출토된 것인데, 이것은 스키타이 장식품의 형식분류에 따라 1형식에 속하며, 동물의 머리가 원통형에 단면은 원형이나 타원형을 띠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것이 러시아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Партизанский(Partizanskiy) 지구 니콜라옙카Николаевское(Nikolaevka) 성곽의 점토 오리 형상인데 샤먼적인 요소를 가진다.

Лещенко Н.В. 2002. Терракотовое навершие с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Вып. 4. Благовещенск: Изд-во АмГУ. С. 188—192.

| 해제 | 이 논문은 크라스키노 출토 토제장식품과 스키토–시베리아 동물양식의 유사성을 살펴본 글이다. 시공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유물들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한 것은 다소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구려 장식품이나 다른 비교군과의 종합적인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론적인 성격이 강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연해주의 신 발견 금석문 유물

저 자 V.A. 벨랴예프 외
V.A. Belyaev V.A.
В.А. Беляев

연 도 2015
간행물명 『연해주의 중세』 3호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주 제 어 연해주
발해
부절
금석문
금제국
철리번
정원11년
맹안
모극

이 논문은 연해주에서 새롭게 발견된 2개의 금석문 유물의 글자를 분석하고, 그 의미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쓰여졌다.

2013년 시베리아와 극동의 온라인 향토학자 지역 포럼에서 지난 몇 년간 연해주에서 발견된 금석문 관련 유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수십 개의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공통적인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유물들 중 일부는 온라인 출판으로 이미 학계에 통용되고 있으며, 일부 나머지 것들은 확인이 요구된다.

첫 번째 유물은 35g의 유물로 나홋카Находка(Nakhodka)市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사진촬영 결과 이 유물의 길이와 폭은 각각 62mm, 19.7mm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께는 측정 결과 4~5mm이었다.

유물은 사진과 내용들로 볼 때 청동재질의 판형 제품이고, 표면은 도금되어 있다. 표식의 위쪽 끝은 약간 둥글고 아래쪽은 테두리에는 굴곡이 존재한다. 바깥 면에는 철리번걸사하鐵利蕃乞土夏의 글씨가 적혀있다. 여기서 철리鐵利는 민족 철리를 의미하고 '鐵'은 고어로 새겨져 있었다. '蕃'은 서예체로 적혀 있었으며, 사전을 찾아본 결과 유사한 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안쪽 면의 위쪽에는 커다란 글씨로 '合'이 침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맥락상 '함께 연결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합合 아래쪽에는 정원십일년貞元十一年이라고 적혀있다. 이것은 통치명 정원 11년으로 번역된다. 절단면은 마지막 글씨인 '年'의 중간 지점을 지나간다. 글씨의 아래쪽이 손상되어 있지만, 글씨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쉽게 복원이 가능하다.

중국의 역사에서 정원貞元은 2번 확인된다. 첫 번째는 785~805년 당나라 시기이고, 두 번째는 1153~1156년 금나라의 네 번째 황제시기에 사용되었다. 금나라 시기에 이 연호는 4년밖에 사용되지 않았기에, 표식은 당나라 시기 즉 795년에 발행된 것이 맞다. 당나라 시기의 표식들은 온라인 자료로 많이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유물과 유사한 문양은 찾지 못했다.

철리鐵利는 말갈에 속하는 민족이긴 했지만, 진상을 바치기 위해 궁전에 나타났다. 이 기록에 대한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답례로 황제를 호위하는 엘리트 군사부대의 역할 중 하나를 철리에게 명예직위로 하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허구적인 직위를 시상하는 과정에서 물고기모양의 부절을 동반하기도 했다. 아쉽게도 일련의 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포함해 귀족이나 철리족의 족장에게 수여하는 내용은 아직

그 림 1. 도금된 청동 표식
2. 청동 인장
3. 명문들
4. 모극의 도장 크기
5. 맹안의 도장 크기
6. 모극과 맹안의 변형 이후 크기 배치 히스토그램

해 제 이우섭

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송화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철리지역이 발해로 복속된 것은 대인수大仁秀(818~831) 통치의 마지막 시기이다. 이와 관련해 언급하고자 하는 사실은, 바로 철리가 779년까지 발해로부터 독립해 있었다는 점이다. 합리적으로 드는 의문점은 과연 이 지역의 권력 균형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부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당과의 접촉을 끊을 이유가 있었을 까이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는 없었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철리의 운명은 더 이전에 결정되었을 것이다. 표식에서 확인되는 금석문의 연대는 철리가 795년 당나라에 사절을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당시에 철리가 발해에 종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상술한 것처럼, 표식이 발견된 곳은 철리족이 살던 지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와 관련해 언급하고자 하는 점은, 일련의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이 당제국과 발해국의 구성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국가를 형성하지 않은 채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해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니콜라옙카Николаевское(Nikolaevka) 성곽에서 1980년대에 청동의 물고기 모양 부절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나라 8세기 중엽의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학자는 이것이 흑수말갈의 수장이 소유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옙카 성곽은 상대적으로 나홋카市와 가까운 곳에 있다. 당나라 궁궐에서 발행된 표식이 이렇게 근접한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별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에 발견된 표식과 관련해 생각되는 점은 이와 유사한 판형 제품들이 동시기에 물고기모양의 부절로 활용되었는가 이다. 필자는 8세기 말 물고기모양의 표식의 생산과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표식은 부절의 원형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황제 가문으로부터의 물고기모양 표식의 형태의 기원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유사한 대용품을 위한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아마도 이 논문에서 검토하고 있는 시대의 세력 균형은 다음과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까지도 다른 민족들은 당나라 제국과 발해국에 국가로서 복속되지 않았다. 인접지역의 민족들은 과거 당나라 정부에 부과된 전통적 관계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것을 표식의 형태 변화에 투영하려 했다. 이는 일본 내 철리부 대사관의 사례나 발해국 대사가 높은 자리와 관련해 논쟁하는 점들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비록 해당 사건이 표식이 발행된 시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기 민족들의 자체 평가 수준이 높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와 유사한 경향이 당나라에 간접적인 쇠약을 가지고 왔는가?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서 당나라 정부의 정교한 정치적 게임을 엿볼 수 있다고 본다. 점진적으로 당나라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야만족들의 손으로 야만족들을 온순하게 하는' 연습을 통해 철리부와 같이 고개를 드는 민족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켰을 수 있다. 이로써 당나라의 종주권을 전통적으로 암시하지 않는 새로운 양상의 표식을 부여하면서, 부족 지도자들의 지위를 독립적이고 새롭게 강조했던 것이다. 물고기 모양의 형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나라 왕조의 성을 따르지 않고, 당나라 군사조직에 부여

된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유물은 청동 인장으로 샤이가Шайга(Shaiga) 성에서 발견되었는데, 여진족이 통치하던 금나라시기의 것이다. 도장의 석판은 방형으로 각각 62mm이다. 도장의 두께는 20mm이며, 손잡이를 포함한 전체 높이는 45mm이다. 무게는 775g이고 손잡이 위쪽 경계에는 '上'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도장의 석판은 두께 3mm의 가장자리로 감싸져 있었고, 문자는 각각 2줄로 적혀 있었다. 한 줄에 3글자씩 쓰여 총 6개의 글자인 금해하모극인琴海河謀克印이 확인된다. 도장의 반대편에는 많은 글자들이 보이는데 손잡이 오른쪽에는 대정십년윤오월大定十年閏五月, 왼쪽에는 일소부감조一少府監造가 쓰여 있다. 내용은 '소부감이 대정 십년 오월에 만들었다'로 해석된다. 측면에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금해하모극인琴海河謀克印이 똑같이 중복되어 확인된다. 그 옆에는 계포체맹안하係蒲昧猛安下 6글자가 나타난다.

금나라에는 군사-행정조직인 맹안모극제가 존재했다. 이 제도의 기본 개념은 여진 사회를 인종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요나라 제국과의 전쟁 이후 여진족은 거란족에게 맹안모극제도를 시행했으며, 주민들과 부족들을 인종적인 특징으로 구분해 통합하고 복속시켰다. 모극이라는 용어는 100명의 군사를 의미하고, 행정제도로서는 300호戶를 뜻한다.

모극이라는 용어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인장의 명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금해하琴海河라는 용어는 아마도 호수를 의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카호수는 금나라 시대에 북해하北琴海로 불렸다. 맹안과 모극이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본다면, 금해하琴海河와 북해하北琴海의 명칭은 상당히 유사하다. 즉 모극이 상술한 호수에서 기원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즉 필자가 볼때, 모극이라는 단어는 한카호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본다.

아쉽게도 맹안에 복속된 모극의 거리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1169~1170년으로 편년되는 도장에서 2쌍의 모극 글씨가 발견되었다. 여기서 이 2개의 모극은 하나의 맹안에 속한다. 출토 유물의 지리학적 맥락으로 볼 때 하나의 맹안에 속한 모극과 모극 사이의 거리는 직선으로 250~300km였다. 이 거리는 물로 막힌 도로나 도로의 지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 거리이다. 하나의 맹안 안에 유사한 모극이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현실과 부합한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맹안 포체(蒲昧)를 신뢰할만한 위치 판정은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N.G. 아르테미예바Н.Г. Артемьева(N.G. Artem'yeva)는 샤이가 성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중세 성곽이기에 동하국의 맹안과 부합한다고 보았다. A.L. 이블리예프А.Л. Ивлиев(A.L. Ivliev)와 V.A. 린샤В.А. Лынша(V.A. Lynsha)는 지금까지 출토된 금-동하국 시기의 인장들이 출토된 지점에서 활용되었을 것 이라고 판단한다. 만약에 이러한 견해에 기초한다면, 금나라 시대 샤이가 성에 맹안포체蒲昧가 존재했고, 이 성은 동하국이 아닌 금나라시대의 초기 구조물로 시대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총체적인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다른

유력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 상황만으로 볼 때 인장은 이곳에서 우연하게 잃어버린 유물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검토된 금석문 유적들은 더할 나위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잊혀져 있었던 모극금해하謀克琴海河와 맹안포체猛安蒲躰의 명칭을 일깨워주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역사 지리적 간극을 부분적으로 채워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다른 금석문 유물이 나온다면 모극과 맹안의 명칭적 기원과 위치 비정 문제가 더 확실하게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Беляев В.А., Сидорович С.В. 2015. Две новые эпиграфические находки из Приморья //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Вып. 3.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114-134.

| 해제 | 이 논문은 연해주에서 새롭게 발견된 2개의 금석문 글자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한 글이다. 또한 물고기 모양의 부절을 통해 당시의 정치적인 세력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석문 자체가 가지는 사료적인 가치와 그 해석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고고학적 출토 맥락과 함께 논리를 전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저 자 V.I. 볼딘 외
В.И. Болдин
V.I. Boldin
연 도 2011
간행물명 『고대 및 중세의 러시아 극동: 문제, 탐색, 해결』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해주 발해유적의 석제와 토제 상호 횡단 투공이 있는 물품에 대한 문제

주 제 어 연해주
발해
토제품
입방체

이 논문은 연해주 발해유적에서 발견된 토제품의 용도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쓰여졌다. V.I. 볼딘, N.V. 레셴코Н.В. Лещенко(N.V. Leshenko)는 발해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장방형 입방체가 고구려시대에도 등장하고 다양한 시기에 걸쳐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의례적인 용도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명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해주의 발해유적에서 발견된 다양한 유물들 가운데 점토재질의 장방형 입방체는 종종 확인된다. 대체로 파손된 채로 확인되나 일부 완형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토제품의 특징은 3개의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2개의 구멍은 그을음의 흔적들과 평행하게 있고, 주변을 따라 원추형의 구멍이 존재하며 서로를 관통한다. 대체로 이러한 입방체들은 모서리 부분이 잘려나가 있다. 일부 토제품들은 맞배지붕의 집모양 형태를 띠고 있는데,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와 체르냐티노-2Чернятино-2(Chernyatino-2) 주거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최근까지도 앞서 기술한 제품들의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어떠한 연구자는 이것들을 샤먼이 지팡이에 심어 의례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L.E. 세메니첸코Л.Е. Семенченко(L.E. Semenichenko)는 유사한 제품들이 토기의 소성과 금속을 녹일 때에 공기의 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물체들은 용도미상이라고 일컫는다. 일본에서는 북쪽에 위치한 니가타현新潟県 센다이 시仙台市 주변에 박물관에서는 장방형의 유사한 제품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목제품으로 아궁이 위에서 솥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 발해의 제품들에 표현된 평행한 2개의 구멍에 닮은 흔적과 그을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것은 아궁이 위 솥을 조절함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물건들을 이동하면서 발생한 부담으로 수직으로 난 구멍들이 보다 자주 망가졌다.

인물형상의 집모양은 상부장식, 의례적인 용도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집모양 형상의 제품은 가정에서 명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유물들은 바닥에 구멍이 나 있는 토기들과 수평으로 부착된 파수와 함께 연해주 발해 문화의 징표이다. 의문점은 언제 어디서 이러한 제품들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고구려 호로고루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유사한 유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중이다. 연해주 이외에도 이러한 물건들은 퉁화시通化市 주변의 완파보쯔萬發撥子 유적(발해 구국舊國영토)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금제국

그 림 1. 토제품 각종
2. 석제품.
크라스나야 솝카–2
주거유적

해 제 이우섭

의 유적인 아성阿城(금金 상경성上京城)과 바리성八里城에서도 출토되었으며, 여진 동하국東夏國의 유적으로는 샤이가Шайга(Shaiga)와 크라스노야르Красноярское(Krasnoyarovka) 성곽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조절 부착장치는 발해인들이 중세시대의 일본인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한 시점에 등장했을 수 있고, 현재까지 그것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Болдин В.И., Лещенко Н.В. 2011. К вопросу о назначении глиняных и каменных изделий с взаимопересекающимися отверстиями из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Приморья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проблемы, поиски, реш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 ООО «Рея». С. 91—95.

| 해제 | 이 논문은 발해 유적에서 확인되는 장방형 입방체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발해의 문화가 시대와 공간을 넘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주었다. 일차적인 비교 연구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발해 유적에서 출토된 입방체가 인근지역의 어느 유적에서 확인되는지에 대한 비교자료를 정리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저 자 E.V. 아스타셴코바
Е.В. Асташенкова
E.V. Astashenkova
연 도 2002
간행물명 『동아시아의 전통문화』 4호
발 행 처 국립 아무르대학교

연해주 발해와 여진의 예술에서 용龍

주 제 어 발해
여진
금
동하국
불교

목 차
머리말
1. 발해 예술에서의 용
2. 금, 동하국에서의 용 도상
맺음말

이 글은 연해주 소재 발해와 여진(금 · 동하국)유적 출토 유물 중 용의 도상이 표현된 것을 대상으로 어떤 의미로 활용되었는지 비교한 것이다. 아시아에서 상상속의 동물인 용은 형상과 종류에 따라 해마, 말, 뱀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동방東方을 수호하는 청룡, 치수治水의 능력을 상징했다.

1. 발해 예술에서의 용

발해 출토품은 고급유물이나 건물장식부재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불교사원 장엄에 이용되었다.

아브리코스 Абрикосовский(Abrikos) 불교사원지 출토 치미는 용의 눈 · 머리 · 송곳니 · 혀 · 추정 뿔이 부조로 선명하게 표현되어있다. 이는 9~10세기초 만당晩唐시기의 도상, 통일신라시기의 도상과도 유사하며, 사원건물의 방화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 출토 소형조각상은 용의 몸통이 결실되고 머리 부분만 잔존하는데, 뿔과 귀가 결합되고, 둥근 눈이 확대 돌출되어있는 형태이다. 이는 상경성上京城 출토품과 유사하지만, 좀 더 투박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예술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연해주와 아무르 지역에서는 청동제 기마인물상 장식판과 같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다른 동물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중 말의 도상은 다리가 없고 꼬리와 목이 매우 길다는 점에서 하늘을 나는 용과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2. 금, 동하국에서의 용

여진(금, 동하국) 출토품은 발해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확인되며, 주로 토제와 청동(도금, 도은포함)으로 제작되었다.

토제품은 대형 건축장식부재, 자기瓷器를 들 수 있다. 궁정 · 사원 · 왕실 제단 장식 중 파르티잔스크Партизанский(Partizansk)지구 니콜라옙카Николаевское(Nikolaevka)성(출토 용머리 조각상과 동일한 양식은 투바Тува(Tuva) 덴테르크Ден-Терек(Den-Terek)성 출토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나니옙카 성과 샤이가 성 출토 정요定窯계 자기(완, 접시류)에는 2마리의 용이 원형으로 배치되었고, 꽃이 핀 넝쿨이 표현되어있다.

청동제품은 허리띠 부속품, 거울, 저울추 등 일상용품을 들 수 있으며, 주로 용의 측면 모습이 부조로 표현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허리띠 부속품(대단장식, 교구)에는 모두 용이 장식되어 특징적이다. 청동제 거울은 아나니옙카Ананьевское(Ananievka)성과 샤이가Шайга(Shaiga)성에서 다수 출토되었는데, 아나니옙카 성 21, 87, 14호 주거지와 샤이가

도 면 1. 용의 도상 (축척부동)
2. 용의 도상 (축척부동)
3. 용의 도상 (축척부동)
4. 자기瓷器에 표현된 용의 도상 (축척부동)

해 제 정윤희

성 112호 주거지 출토 거울에서는 모두 동일한 주제를 따르고 있다. 용의 주변에 호랑이, 산양이 배치되었으며, 용의 송곳니와 콧구멍이 강조되고, 구부러진 털과 곧게 뻗은 뿔이 표현되어있다. 여기에 거울의 둥근 테두리를 따라 병의 치료와 후대의 번영을 바라는 명문이 배치되어있다. 그 외 아나니옙카 성 27호 주거지 출토 청동제 거울에서는 파도를 타는 물고기형 몸체로 표현되어있으며, 유사한 도상은 13~15세기(몽골제국~원)거울에서 확인된다. 청동제 저울추는 샤이가 성 69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콧구멍과 붉은색의 콧수염이 강조되어있는데 투르크계 전설에서 종종 표현되는 도상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양한 소재 · 기종의 일상용품의 장식에 널리 사용되었고, 제작수준이 비교적 높고 도상이 양식화되었다. 따라서 소수를 위한 제작품이 아니라, 상용기성품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대십국五代十國시기 『신오대사新五代史』에 따르면 용의 몸은 3체절體節(머리~어깨~허리~발목)로 구분하고, 사슴의 뿔 · 악마의 눈 · 물고기의 비늘 등 10개 요소는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등 계층의 우열에 따라 용의 색상과 발톱개수 등의 세부차이가 정해져있다.

따라서 발해에서는 불법 수호를 위한 상상 속 동물로 사용되었고, 여진(금, 동하국)에서는 권위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기복의 상징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Асташенкова Е.В. 2002. Дракон в искусстве бохайцев и чжурчжэней Приморья //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Вып. 4. Благовещенск: Изд-во АмГУ. С. 280–294.

| 해제 | 필자는 용의 도상이 확인되는 발해 · 금 · 동하국 시기에서의 주요 출토품을 정리하고 비교하였다. 이는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따른 비교를 통해 고고미술사적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발해, 발해 멸망 이후 금 · 동하국시기 연해주에서 소재하는 주요 출토품을 정리하고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해 시기에 용을 주로 불교예술에서 사용한 점은 불법의 상징으로서 표현했던 당 · 통일신라와 같은 동아시아의 시기적 특성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 자 E.V. 아스타셴코바
Е.В. Асташенкова
E.V. Astashenkova

연 도 2018
간행물명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20권
발 행 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크라스키노 성의 고누알

주 제 어 발해
연해주
크라스키노
고누
놀이용 알

이 논문은 연해주의 발해유적에서 놀이용 말들이 다수 출토되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쓰여졌다. 놀이용 말의 대다수는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Kraskino) 성곽에서 출토되었으며, 유물 중에서 많은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놀이용 말은 고르밧카Горбатка(Gorbatka), 니콜라옙카Николаевское(Nikolaevka), 콘스탄티놉카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Konstantinovka), 체르냐티노-2Чернятино-2(Chernyatino-2) 주거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놀이용 말은 연구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크라스키노 성곽의 몇몇 건축학적 층위의 다양한 유구들에서 발견된 놀이용 말들의 수량과 공간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 외에도 놀이용 말들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었고 놀이의 규칙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크라스키노 성곽에서 1500점의 놀이용 말들이 발견되었으며, 토기의 기벽, 기와, 석제편들로 만들어졌다. 제작기술은 모서리 부분을 편평하고 매끈하게 다듬은 것과 거칠게 만든 것까지 다양하다. 몇몇 단계를 거쳐 둥글게 만든 형태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토기 편으로 만든 놀이용 말들이 기와로 제작된 것보다 모서리가 일정하고 정밀하게 작업되어 있었다. 아마도 이것은 토기편이 기와에 비해 얇은 경우가 많아 작업하기 수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와를 재료로 해서 만든 것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기와편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주 재활용되었다. 사암으로 만든 놀이용 말은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형태에 모서리가 매끈했다. 사암은 단단하지 않은 재질이어서 다듬는 작업을 할 때 많은 공력이 요구되지 않았다.

놀이용 말들은 심한 주황색부터 명갈색까지 그리고 암회색부터 명회색까지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흰색을 띠기도 했다. 기와편으로 만든 놀이용 말은 회색이 많았고, 사암으로 만든 것은 적갈색, 응회암은 백회색이 많았다. 놀이용 말들의 크기 또한 다양한데 3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 번째 그룹은 작은 것들로 직경 0.7~0.9cm, 두 번째 그룹은 2~3cm, 세 번째는 5~7cm이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두 번째 그룹이며 두께는 0.5~2.5cm까지 다양하다.

놀이용 말들은 잘 알려진 것처럼 발해 성곽과 주거유적에서 자주 발견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발해 무덤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크라스키노 성곽

표
1. 크라스키노 발굴조사 지역의 놀이용 알 밀도
2. 크라스키노 발굴구역 47, 섹터 3 (36 평방미터)의 도로 유구(1–5건축학적 층위)에서 출토된 놀이용 알들
3. 크라스키노 49발굴구역 (160 평방미터)의 도로유구 (첫번째 건축학적 층위)에서 출토된 놀이용 알들
4. 크라스키노 발굴구역 44(2014년) 주거구역 (116 평방미터)에서 출토된 놀이용 알들

그림
1. 토기 기벽으로 제작된 놀이용 알 (크라스키노 출토)
2. 돌로 만들어진 놀이용 알 (크라스키노 출토)
3. 토기 기벽과 기와로 만들어진 놀이용 알 (크라스키노 출토)
4. 크라스키노 성곽의 고고학적 조사에서 발견된 놀이용 판, 석판에 침선을 새김
5. 고누 놀이를 위한 놀이용 판
6. 고누 놀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판 예시들

해 제 이우섭

에서는 이러한 유물들이 다양한 유구(주거유적, 사원지, 우물, 가마, 수혈, 쓰레기장, 도로 등)에서 발견되었다.

2014년 성곽의 북동쪽 도로 유구 조사를 통해 많은 수의 놀이용 만들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해당 도로 유구에서는 1㎡마다 1~2점의 놀이용 말들이 한 층위에서 발견되었고, 주거유적역에서는 1㎡마다 0.2개의 말들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부분인 것이 도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이곳 주변에서는 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상업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도로 유구에서 발견된 놀이용 말은 해당 유구의 사회적이고 의례적인 의미를 재차 강조한다. 도로에는 도시의 시장이 열렸을 것이고,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 유명했던 놀이를 하며 모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년간의 분석은 층위상으로 상층에서 더 많은 놀이용 말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성곽이 성립되고 발전됨에 따라 그 지위는 단계적으로 바뀌었고, 인구 밀도는 증가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여가는 수도의 주민들과 같은 삶의 수준에 가까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놀이는 점차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을 것이고, 그 정점은 9세기~10세기 초에 나타났을 것이다.

크라스키노 성 기와 가마 발굴조사에서 흥미로운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선이 새겨진 석제품이다. 유적의 연구자들은 이 유물이 놀이를 위해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유사한 판은 세계 고고학적으로 다양한 시공간에서 발견된다. 중국의 낙양성洛陽城에서 발견된 유물은 크라스키노 출토품과 유사하기는 하나 안쪽에 사각형의 문양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위구르 성곽인 카라발가순Карабалгасун(Karabalgasun)에서는 놀이용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크라스키노의 것과 유사하다. 또한, 길림성 박물관에서는 벽돌로 만든 놀이용 판을 소장하고 있는데 금나라시기로 편년된다. 크라스키노 성곽에서 발견된 돌들은 '고누'라는 놀이를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발해민들은 도박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성곽과 주거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에서 알 수 있다. 보다 명확한 가설은 크라스키노 성곽의 주민들이 고누 놀이를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견해들을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선이 그어진 놀이용 판과 다양한 재질과 색깔을 띠는 놀이용 말들이다. 자갈돌과 석제 말들은 자체적인 놀이를 위해 활용되었을 수 있다. 바닥판의 크기는 놀이를 위해 필수적인 말의 크기를 결정한다. 고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놀이였고, 놀이를 위한 바닥은 그리 크고 무겁지 않았다.

고대 한국에서 사람들은 땅에 놀이판을 그리고 말들과 목제 물건들을 활용했었다. 이와 유사한 놀이판이 발해 주민들에게 이어졌고, 다양한 크기의 놀이용 말들과 제작 방식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크라스키노 고고학 조사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놀이용 말들은 어떠한 크고 작고 편평한 것들도 가능했다. 중요한 것은 색깔이 되었든 형태가 되었든 재질이 되었든 말이 서로 달랐으면 가능했다. 인기가 많은 놀이일수록 그 성곽은 크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본다. 즉 층위상으로 상층에 더 많은 수의

유물들이 출토되며, 발해의 북동쪽 구역인 크라스키노 성이 발해 시기 높은 지위의 도시였음을 설명해 준다.

Асташенкова Е.В. 2018. Игральные фишки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ДВО РАН. №20.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РАН. С. 187—197.

| 해제 | 이 논문은 크라스키노 유적에서 출토된 놀이용 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발해인의 고누놀이에 대해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이 그어진 놀이용 판과 다양한 재질과 색깔을 띠는 놀이용 말들은 발해인들이 고누놀이를 즐겨했다는 증거가 된다.

渤海考古學
論文解題集

부 록 V

1) 러시아 연해주 발해 조사 연구
현황 및 성과

2) 해제 논문 수록 간행물 소개

3) 수록 논문 목록(간행물별)

4) 러시아어 한글표기 비교표

【부록 1】

러시아 연해주 발해 조사 연구 현황 및 성과

A.L. 이블리예프 · N.A. 클류예프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극동민족역사학고고학민족학 연구소)

번역: 정윤희(국립문화재연구소)

1. 주요 발해 유적 조사 현황

러시아 학계의 발해연구는 19세기부터 시작되어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Z.N. 마트베예프[1], E.V. 샤프쿠노프, A.P. 오클라드니코프가 발해사에 대한 개설적 논고들을 발표한 이후, 새로운 고고유적의 발견, 발해와 말갈문화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발해의 존속시기 및 지역 구분, 발해 성곽 및 마을에 거주한 사람들의 생활상도 밝혀지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단이 조직되었고, 크라스키노 성, 고르밧카 성, 시넬니코보-1 성, 스타로레첸스코예 성, 콕샤롭카-1 성, 니콜라옙카-1 성, 아브리코스 주거유적, 체르냐티노-2 주거유적, 체르냐티노-5 고분군, 콕샤롭카-8 석축구조물이 조사되었다. 대부분 해외연구자(한국, 일본, 중국)들과의 공동조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크라스키노 성, 시넬니코보-1성, 스타로레첸스코예 성, 체르냐티노-2 주거유적, 체르냐티노-5 고분군, 콕샤롭카-1성, 콕샤롭카-8 석축구조물 유적은 조사 직후 한국어로 발굴조사보고서가 출간된 바 있다. 상기 유적에 대한 조사성과와 관련된 심화분석을 통한 학술논문들의 발표는 이번에 발간되는 해제집에 수록된 논문들에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해주 발해문화의 표지 유적으로 크라스키노 성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사이에는 이견이 없다. 성곽에 대한 발굴은 1980년 V.I. 볼딘의 첫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2007년부터 E.I. 겔만이 담당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1980~1990년대 조사에서는 불교사원 구역, 기와 가마터, 우물, 성벽과 외부 해자에 대한 절개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동문지와 치稚의 존재도 확인되었다. 2000년에는 사원구역 남쪽에 위치한 주거구역을 발굴한 결과, 총 20여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지상식 구들 주거지 · 반수혈식 주거지 · 원락院落식 주거지 · 초석 건물지가 포함되며 격자형 도로로 구획되었다.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문화층의 전체 두께는 1.6~2.5m 에 달하며 6개의 건축 단계로 나뉜다. 또한 학제간 연구조사를 통해 농경을 기반으로 한 목축 · 사냥 · 어로 및 수산물 채취와 같은 주민들의 생계 경제 일면을 복원해볼 수 있었다. 출토된 유물들은 신라, 거란, 당과 같은 주변국가와의 교역 관계를 잘 드러낸다. 그 중 최근 조사에서 발견된 낙타뼈, 청동제 낙타 모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철과 비철금속, 토기, 기와 제작과 같은 주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한다.

---

1) 부록에 수록된 글에는 한글만을 표기하였고 일부에만 한자어를 병기하였다.

1960년에 크라스키노 성은 E.V. 샤프쿠노프에 의해 염주성으로 비정된 바 있으며 지리적으로 동경 용원부의 치소로 추정되는 팔련성과 약 60km떨어져 있다. 동경이 780~790년에 발해 수도였음을 고려하면 연해주 발해 성곽유적 중 크라스키노 성만큼 발해 도성과 가까운 유적을 찾기 힘들다. 물론 발해 문화의 성격이 뚜렷한 유물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실제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2008~2014년에는 콕샤롭카-1성(러시아 조사단장 N.A. 클류예프)에 대해 한 · 러 공동발굴이 이뤄졌다. 주요 발굴구역은 성 북부에 위치하는 북편건물지군으로, 평면 장방형의 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축조하였으며 연해주에서 확인된 단일 건물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건물 7동이 남쪽을 정면으로 하여 나란히 배치되었으며 총 길이는 78m이다. 그 외에 넓은 내부 마당과 창고, 중심 문지 및 추가문지, 석축 담장도 함께 확인되었다. 이러한 콕샤롭카-1 북편건물지군의 성격에 대해서는 발해 도성 내 궁정 건물지와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의견, 단축 벽체에 출입시설을 낸 초석 건물지 및 구들 주거지를 들어 발해와 여진의 주거지일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구들과 연결되는 굴뚝은 외부로 멀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발해 상경성 내 4호 침전 건물지의 구들과 흡사한 것이다. 하지만 콕샤롭카-1 건물지에서는 기와가 출토되지 않았는데, 이는 발해 궁정 건물지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높은 대지를 마련하고 기단을 조성한 후 내부 공간을 구획하는 초석과 기둥을 세운 점, 들보를 올린 후 기와로 덮은 점과는 차이가 있다.

출토 토기의 유형에 대해서는 E.I. 겔만에 따르면 대체로 9~10세기 초 발해 전성기의 토기 제작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요定黨 · 월주요越州窯 자기편도 확인되어 이를 뒷받침한다. 그 외에 발해 토기의 전형적인 특징과 다른 기종도 확인되었다. 구연부에 3중 돌대가 부착되고 기고가 낮은 납작한 토기, 과瓜형 토기, '춤추는 인물들' 문양이 시문된 토기편들을 통해 발해 동쪽 경계와 인접한 지역과의 상호교류를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우수리 강 북동부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기종이라는 점에서 발해 멸망 이후에도 일정기간 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아 발해 문화의 특징뿐만 아니라 아무르 강 유역 및 우수리 강 분지 일부에 존재하던 포크롭카 문화 요소도 확인되었다. 구들 주거지 축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고 발해 도성에서의 궁정건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발해 변방 지역에서도 대지를 마련하고 궁정 건물을 축조한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된 후 그 영토에 10세기 동단국東丹國과 같은 국가들이 출현한 점과 관련될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콕샤롭카-1성이 발해 존속시기에 초축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국 발굴조사단(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안변부의 치소로 판단하였다.

유적 내부의 평면 배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고고물리탐사 결과에서는 축조시기가 다른 3단계의 건물 배치를 확인하였다. 확인된 유구들은 1) 가로 방향 건물지(유적 북부 및 서부), 2) 대각선 방향-1(유적 남부 및 남동부), 3) 대각선 방향-2 (유적 북동부)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콕샤롭카-1 성 인근에 위치한 콕샤롭카-8 매장의례콤플렉스[콕샤롭카-8 석축구조물]에 대해서도 발굴조사가 이뤄졌으며 연해주 중세 유적 조사에서 이전에 확인된 바 없는 매장유구의 형태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잔존규모 15x16m인 평면 방형의 대형 석축구조물이었다. 다듬은 판석을 쌓아 축조되었고, 높은 지위를 지녔던 피장자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콕샤롭카-8 유적은 건축적 요소와 시기적, 지역적으로 가까운 발해 귀족 및 왕실 고분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발해 고분 전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출토 유물과 방사선탄소연대로 보아 10~11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고르밧카 성은 E.I. 겔만의 발굴조사를 통해 5단계의 조영 단계가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주거유구도 노지가 딸린 반수혈식 주거지, 평면 ㄷ자 2줄 고래 · 단면 ㄷ자 터널식 구들(크로우놉카–고구려 유형)과 같이 2가지로 분류된다. 그 외에 석축 성벽과 4곳의 문지도 확인되는데 동일한 단계에 조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두 번째 조영 단계에 속하며 그 이전 단계에서 홍수 범람으로 인해 주거지들이 폐기된 양상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동製銅 유구를 포함한 수공업 구역도 확인되었다. 가장 마지막 조영 단계에서는 우물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크라스키노 성의 우물 형태와도 유사하다. 동문지 앞에서는 대지를 마련한 초석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절반정도가 발굴조사되었다.

고르밧카 성은 극동지역 중세 유적 중 처음으로 발굴조사에서 주거유구 및 수혈유구별 내부토를 채취하여 부유선별법을 적용한 사례이다. 분석 결과, 발해시기 일리스타야 강 수계 거주민들이 재배한 12종의 작물이 확인되었다. 다량의 조개껍질 편(대부분 부유선별법을 통해 동정된 극소형)은 아무르 만의 북부에서 채취한 해양 조개류가 조달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리스타야 강 수계에서 채취한 민물 조개류(진주조개 포함)도 확인되었는데 식용 외에 장신구, 기타 용구로 가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유 토기, 자기류도 출토되어 발해의 대내외 교역 양상을 보여주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

2015~2016년에는 시넬니코보–1산성에 대한 한국–러시아 공동발굴조사가 이뤄졌다. 1990년 V.I. 볼딘에 의해 조사되어 발해시기로 속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인된 바 있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주거지, 집수시설, 수혈 유구 등이 확인되었으며 방사성탄소연대 결과로 보아 7세기로 판단된다. 그 외에 후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유물도 출토되어 일찍이 운용되어오던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Y.E. 피스카료바에 따르면, 시넬니코보–1 산성 내 말갈 주거지 출토 토기와 인근에 위치한 체르냐티노–2 주거유적, 체르냐티노–5 고분군 출토 토기와 비교한 결과, 동일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 토기와 같은 말갈문화 이른 단계[2]의 토기 유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주민 유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668년 당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고구려에 편입되어 있던 말갈주민이 이곳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A. 세르구셰바의 식물유체분석에 따르면 연해주의 여타 말갈 문화유적에서 동정되는 작물들의 품종 및 수량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발해 국가로 편입되기 직전 말갈세력들의 농경 발전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다. 다시 말해 시넬니코보–1산성의 농경이 변화하는 점은 해당 지역의 국가체제 편입이 사회 · 경제적 측면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연해주 발해 성곽 중에서 중소형 평지성으로 알려진 스타로레첸스코예 성에 대한 한국–러시아 공동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구역은 3개 지점과 성벽(전체면적 300㎡)으로 구분하여 3차에 걸쳐 연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구역 중에서 강안 노출면(구하도舊河道 포함) 190m 구간에 대한 정리조사, 유적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시굴트렌치 조사도 포함된다. 조사 결과 성 내부 구조 및 문화층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강돌로 포장한 도로유구는 길이 12m, 너비 3m가 잔존하며 유적 남부에 위치하는데 'ㄴ'자형으로 내만하는 형태의 옹성이 딸린 문지까지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혈식 석축저장시설에서는 평면 장방형의 공간에서 동물유체, 삼족기를 비롯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주목되었다.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확보된 동물유체와 고고유물들은 동정 및 분류 정리가 진행 중이다. 토기 외 유물 중에서는 토제 어망추, 토기편을 재가공한 고누알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청동제 핀셋형 귀이개와 같은 흔치 않은 유물도 확인되었다. 토기는 윤제토기 일색이며 대체로 시루, 호류, 병류 3개 기종으로 나눠볼 수 있다. 기형 및 문양은 크라스키노

2) 발해 건국 이전시기

성, 니콜라예프-2성 등 여타 발해 유적 출토품과 흡사하며 추정 한자가 음각된 토기편도 확인되었다. 수막새는 해당 유적으로부터 불과 20km 떨어진 코피토 발해 불교사원 출토 수막새와 유사하며 연해주 출토 발해 수막새 중 이른 형식에 속한다. 유단식 기와 또한 코피토 불교사원 출토품과 유사하는 등 발해 전기와 후기에 속하는 형식이 모두 확인되었다.

연해주 발해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적 중 체르냐티노-5 고분군을 빼놓을 수 없다. 토광묘, 묘광 바닥에 돌을 깐 묘, 석실묘 등 200기 이상의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은 주변에서 화장한 후에 매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체르냐티노-5 고분군의 일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에 따르면, 가장 이른 시기의 유구는 5~6세기, 가장 늦은 시기의 유구는 10세기로 편년된다. 또한 발해 중앙 지역(현재의 중국 길림성)에 위치하는 고분 양식과 흡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과 같이, 2000년대에는 연해주 발해 고고자료들을 바탕으로 학계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제간 연구방법이 도입되면서, 발해 주민의 일상 및 생계경제, 대외 교역관계에 대한 연구주제도 부상하였다. 또한 유적의 건축단계와 관련하여, 토기와 같은 몇몇 물질문화 자료를 통해 세부 편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올해 들어서도 러시아 발해 학계의 연구주제는 심화연구 및 외연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이전에는 소략한 자료 상황으로 인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각 분야에서 최신 연구방법에 힘입어 새로운 접근이 이뤄지는 것이다.

연해주는 발해 존속기간 동안 변방에서 지방으로 순차적인 편입이 이뤄졌다. 이후 9세기 말 솔빈, 월희, 철리 등 복속되었던 민족과 그 주변의 민족들은 발해 중앙세력이 약화된 후에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2. 주제별 연구성과

현재까지 러시아 발해 학계의 범위에 포함된 논문 주제는 다양하다. 연구자들은 고고 문헌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를 통해 접근하였고, 이를 공통적인 주제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화의 특징과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2005년과 2018년에 출간되었다. 2005년 출간된『러시아의 극동의 고대와 중세: 발견, 문제, 가설』에서 N.N. 크라딘은 〈발해사 개론〉을 통해 발해를 포함한 러시아 극동 중세 국가들의 성립과 변혁에 대한 문제를 논하였다. E.I. 겔만은 〈발해의 중앙과 주변의 상호관계〉를 논하면서, 발해의 동부 및 경계 지역 간 토기 및 기와 생산 수준과 단계의 차이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Yu.G. 니키틴도 〈당, 발해와 동이〉에서 발해 중앙과 변방의 개념에 대해 이미 거론한 바 있다.

2010년 출판된『고대 및 중세의 러시아 극동: 문제, 탐색, 해결』에서 E.I. 겔만, E.V. 아스타셴코바, S.D. 프로코페츠, A.L. 이블리예프는 발해 도시의 특징에 대해 논하였고, E.I. 겔만, E.V. 아스타셴코바는 발해인의 문화 및 생활상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둘째, 중세 고고유적 발굴조사보고를 포괄한 것이다. V.I. 볼딘의 시넬니코보-1 성 · 노보고르데옙카 성 · Yu.G. 니키틴의 글라즈콥카 고분군 · 체르냐티노-5 고분군, Yu.V. 크리불랴의 라콥카-10 주거유적 · 미하일롭카-1 주거유적 · 미하일롭카-4 주거유적, V.E. 샤프쿠노프의 아우롭카 성 · 샤이가-레두트 성, S.A. 삭마로프의 오크라인카 성에 대한 발굴조사보고는 새로운 연구성과를 도출하는데 마중물이 되었다.

셋째, 출토 유물 및 유구의 범주를 특정하고 이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토기(E.I. 겔만, Ya.E. 피스카료바, S.D. 프로코페츠, S.A. 콜로미예츠), 무구(Yu.M. 바실리예프, V.I. 볼딘, V.E. 샤프쿠노프), 공구(V.I. 볼딘, N.V.

레셴코), 주거유구(V.E. 샤프쿠노프, Yu.V. 크리불랴)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넷째, 생계경제 · 물품생산 · 예술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자연과학분야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집필한 경우가 많았는데, N.V. 레셴코, E.I. 겔만, V.I. 볼딘, E.A. 세르구셰바, V.E. 샤프쿠노프, L.I. 베세드노프, E.V. 아스타셴코바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해당된다.

다섯째, 현대 고고학의 전형으로 자리잡은 자연과학적 분석결과이다. 물리탐사(E.A. 베세노바, V.B. 잘리샤크 외), 화학(I.Yu. 부라블료프), 고환경(M.S. 랴셉스카야, L.A. 간제이), 생물학(V.A. 라코프, O.A. 샤로바, V.I. 오멜코)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것이다. A.L. 이블리예프, A.V. 폴루토브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사를 정리한 A.A. 김의 연구와 A.L. 이블리예프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 중 A.L. 이블리예프는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던 A.P. 오클라드니코프의『연해주의 먼 과거』의 중세사 부분을 재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논저들은 비단 발해뿐만 아니라, 선대문화인 말갈, 후대문화인 연해주와 아무르 지역 고고문화(스몰노예 문화, 포크롭카 문화)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는 발해 문화의 계보가 발해 멸망 후 연해주, 아무르 지역 민족의 향방과도 필연적으로 결부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발해고고학 논문해제집–러시아–은 매우 훌륭한 기획도서라고 하겠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학계에 발해 관련한 러시아 극동 남부지역(연해주, 아무르 일부) 중세 고고학계에서 2000~2020년에 발표된 105편의 연구성과물을 소개하는 첫 번째 책이 될 것이다.

이번 해제집에는 학술잡지에 수록된 논고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 독자들에게 연해주 지역 발해 고고학계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학술 단행본들이 선별되었다. 그 중 연속간행물(부정기 발행 연구논문집)의 수록 논고 70여편 중에서 53편은 극동지역 고고학술책임기관인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극동민족역사학고고학민족학 연구소(블라디보스토크) 소속 연구자들이 집필한 것이다. 본 연구소에는 고고연구 관련 전공자 40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5개 부서 중 3개 부서에서 중세고고학 부문을 담당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서적이 러시아 연해주 및 아무르 중세 고고학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학계 간 공동 연구에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부록 2】

해제 논문 수록 간행물 소개

A.L. 이블리예프 · N.A. 클류예프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극동민족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번역: 정윤희(국립문화재연구소)

이번 해제집에는 2000~2020년까지의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출간된 연구단행본, 기념논총, 논문모음집, 연속간행물의 유형에 속하는 13종 105편의 발해 관련 학술논고가 선별되었다.[1)]

첫 번째, 연구단행본은 학술주제를 기획한 후 작성된 논문들을 수록한 전문개설서의 유형으로, 다음의 2종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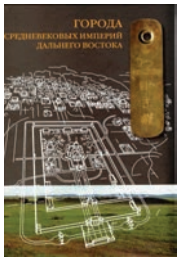
1. 『러시아 극동의 고대와 중세 : 발견, 문제, 가설』



러시아 극동의 고대와 중세 : 발견, 문제, 가설(2005)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극동민족역사학고고학민족학 연구소(이하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기획으로 2005년에 출간되었으며, 집필진은 러시아 발해 학계의 주요 연구자들로 구성되었다. 이 책에서는 출간 이전 10~15년간의 새로운 방법론과 유형론에 입각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연해주의 말갈문화(Ya.E. 피스카료바), 발해 문화(N.N.크라딘, A.L.이블리예프, E.I.겔만, Yu.G.니키틴), 프리아무르 지역의 포크로프카(Yu.M.바실리예프) 문화의 연구성과와 특징을 다루었다.

2. 『극동 중세 제국의 도시』



극동 중세 제국의 도시(2018)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소속 연구자들이 논고를 집필하고 주요 출판사 중 하나인 동방문학사에서 2018년에 출간하였다. 이 책은 풍부한 역사 ·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극동지역의 도시화 과정을 주제로 삼은 개론서이다. 극동지역 중세 제국들의 700년 역사 변동에 따른 도시의 위치와 역할을 다루고 있다. 총 5개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곽, 물질문화, 말갈–발해–후발해(발해 멸망 이후) 주민들의 생계 경제와 일상생활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필자: E.V. 아스타셴코바, E.I. 겔만, I.V. 그리다소바, A.L. 이블리예프, N.A. 클류예프, Ya.E. 피스카료바, S.D. 프로코페츠, E.A. 세르구셰바).

---

1) 저자의 글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지 사진 삽입, 원고 가감 등 일부 편집함

두 번째로 기념논총은 극동지역 고고학계의 저명한 학자 및 연구기관의 기념일을 기하여 출간한 유형으로, 다음의 2종이 해당된다.

3.『극동의 역사와 고고학: E.V. 샤프쿠노프 70주년』

극동 중세 고고학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자인 E.V. 샤프쿠노프를 기념하여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와 국립극동대학교 소속 연구자들이 작성한 논문들을 수록하였으며, 2000년에 출간되었다. 광범위한 시간적 범위에 걸쳐져 있으며, 연구논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극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세 민족들과 관련된 고고 ·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논고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새로운 고고자료를 추가하고 기존에 보고된 자료들을 재검토한 논고 6편을 선별하였다. (필자 : V.I. 볼딘 Yu.M. 바실리예프, E.I. 겔만, A.L. 이블리예프).



극동의 역사와 고고학:
E.V. 샤프쿠노프 70주년 (2000)

4.『천년기의 장막을 열면서: Zh.V. 안드레예바 8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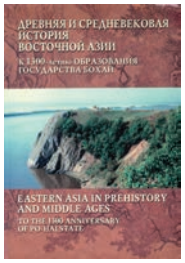
극동 선사고고학의 대표적 연구자인 Zh.V. 안드레예바를 기념하여 2010년 출간되었다. 주로 극동지역의 새로운 선사 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논고들이 수록되었고, 그 중 중세 유적에 관련된 논고 2편을 선별하였다 (필자 : Ya.E. 피스카료바, E.A. 세르구셰바)


천년기의 장막을 열면서:
Zh.V. 안드레예바 80주년(2010)

세 번째로 논문모음집은 극동지역에서 진행된 학술대회 발표논문들을 정리하여 출간한 유형으로, 그 중 발해조사 연구가 수록된 것은 다음의 5종이 해당된다.

5.『동아시아의 고대와 중세 역사: 발해건국 1300주년』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와 국립극동대학교가 개최한 동아시아의 고대와 중세 역사 1300주년 국제학술대회(1998. 11. 21.~26., 블라디보스토크) 발표 논고를 정리하여 2002년에 출간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고대와 중세, 특히 발해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새로운 조사결과를 고찰하는 논고들이 수록되었다. 그 중 논고 5편을 선별하였다. (필자 : G.L. 실란티예프, E.V. 샤프쿠노프, V.E. 샤프쿠노프, V.I. 볼딘, S.P. 네스테로프)



동아시아의 고대와 중세 역사:
발해건국 1300주년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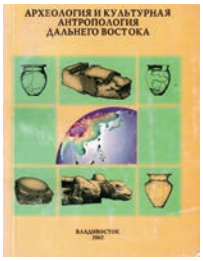
6.『극동의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제9회 극동지역 고고민족학 학술대회(1999. 4. 12.~15.)에서 발표된 논고들을 정리하여 2002년에 출간한 것이다.

7.『극동과 중앙아시아의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제10회 극동지역 고고민족학 학술대회(2001. 4. 10.~17.)에서 발표된 논고들을 정리하여 2002년에 출간한 것이다. 『극동의 고고학과 문화인류학』과 마찬가지로 구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극동 · 시베리아 · 중

앙아시아지역의 고고학, 고대사, 민족학 및 문화인류학과 관련된 논고가 실려 있다. 위의 2권의 도서에는 새로운 조사성과, 주목되는 고고자료, 기존 학계에 보고된 내용을 재해석한 주제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고고 조사에서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논고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 중 극동지역 중세 고고학과 관련된 논고 6편을 선별하였다. (필자 : E.I. 겔만, V.A. 라코프, Yu.G. 니키틴, E.I. 겔만, Yu.V. 크리불랴, V.I. 볼딘)



극동의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2002)



극동과 중앙아시아의 고고학과 문화인류학(2002)

8.『고대 및 중세의 러시아 극동: 문제, 탐색, 해결』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가 개최한 Zh.V. 안드레예바 기념 학술대회(2010. 10. 26~27.,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된 논고들을 정리하여 2011년에 출간한 것이다. 기념행사를 개최한 연구자들이 러시아 극동지역 고고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특히 자연과학적 방법의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폭 넓은 주제를 다루었다. 그 중 중세시기와 관련된 논고 7편을 선별하였다. (필자 : E.A. 베소노바, A.V. 삽첸코, L.N. 베세드노프, E.I. 겔만 , V.I. 볼딘, N.V. 레셴코, O.A. 샤로바, V.A. 라코프, N.A. 클류예프, S.S. 말코프, M.A. 야쿠포프, I.Yu. 슬렙초프, 김동훈)



고대 및 중세의 러시아 극동: 문제, 탐색, 해결(2011)

9.『동아시아 : 지역사 및 문화 유산의 보존 및 연구 문제 – 아무르주 역사문화유산 보존센터 15 주년』

아무르주 역사문화유산 보존센터 15주년 기념 학술대회(2018. 4., 블라고베셴스크)에서 발표된 논고들을 정리하여 2018년에 출간한 것이다. 경제개발로 피해를 입게되는 지역 대한 구제발굴 조사성과가 결과가 수록되었으며, 그 중 논고 1편을 선별하였다. (필자 : V.V. 아흐메토프)



동아시아 : 지역의 역사 및 문화 유산의 보존 및 연구 문제 (2018)

네 번째로, 연속간행물은 연구기관 및 대학교의 편집진에 의해 동일한 제호 아래 순차적인 번호가 매겨지며 부정기적으로 출간되는 유형이다. 이번 해제집에 수록된 논고들 중 대다수가 해당된다.

10.『동아시아의 전통문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 아무르대학교, 국립 블라고베셴스크 사범대학교,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와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공동고고실험실에서 창간한 후, 총 7권 발간하였다. 발간 회차에 따라 주제별(고고학, 역사학, 지역학, 종교학, 역사학, 민속학), 시기별(고대~현대) 범위를 다르게 기획하였다. 그 중 논고 9편을 선별하였다. (필자 : E.V. 아스타셴코바, A.I. 메젠체프, E.I. 겔만, Ya.E. 피스카료바, N.V. 레셴코, Yu.G. 니키틴, V.I. 볼딘, N.N. 크라딘)



동아시아의 전통문화(2001)

11.『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1959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간행물로 발간되었는데 2018년부터는 연 4회 정기 발간하는 학술잡지로 전환하여 발간하고 있다. 4회 중 1회는 고고 연구 기획 도서로 발간되고 있다. 극동 및 그 주변 지역의 고고학 조사 연구에 대하여 이전에 발간 및 발표하지 않았던 논고를 싣고 있으며, 그 중 논고 14편을 선별하였다. (필자 : E.I. 겔만, A.L. 이블리예프, N.N. 크라딘, Ya.E. 피스카료바, E.V. 아스타셴코바, V.I. 볼딘, V.E. 샤프쿠노프, Zh.V. 안드레예바).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2020)

12.『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에서 출간한 것으로 2018년부터 연 2회 발행하는 학술잡지로 전환되었다. 고고학 및 학제간 연구주제에 한정하며 '논문 비평', '최신 발굴성과', '소장 유물'의 장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론 연구와 학술 자료 연구, 사회 · 경제적 측면의 복원, 새로운 소장유물 및 발굴조사결과 소개, 학술적 논점 및 비평이 포함되며 연구대상 지역은 북아시아 및 동북 아시아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논고 21편을 선별하였다. (필자 : Ya.E. 피스카료바, E.V. 아스타셴코바, S.D. 프로코페츠, E.A. 세르구셰바, A.L. 이블리예프, N.A. 도로페예바, M.A. 랴셉스카야, V.B. 바자로바, N.F. 프세니츠니코바, E.V. 샤프쿠노프, N.A. 클류예프, M.A. 야쿠포프, A.M. 마시킨, N.V. 레셴코, M.A. 랴셉스카야, L.A. 간제이, I.Yu. 슬렙초프)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2019)

13.『연해주의 중세』

2012년부터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에서 총 4권 발간하였다. 연해주와 주변지역의 중세 고고학 및 역사학에 대한 새로운 학술자료를 소개하였으며, 그 중 논고 23편을 선별하였다. (필자 : A.A. 김, A.V. 폴루토브, A.L. 이블리예프, E.V. 아스타셴코바, N.V. 레셴코, A.L. 메젠체프, I.S. 쥬시홉스카야, V.I. 볼딘, D.A. 비츠코프, V.A. 타타르니코프, V.A. 벨랴프, S.V. 시도로비치, G.G. 코롤, S.D. 프로코페츠, V.E. 샤프쿠노프, E.I. 니키틴, A.Yu. 텔레류예프, Yu. 크리불랴, S.A. 삭마로프)



연해주의 중세(2012)

【부록 3】

수록 논문 목록(간행물별)

▶ 한국어

Ⅰ. 연구단행본

1.『러시아의 극동의 고대와 중세 : 발견, 문제, 가설』

E.I. 겔만	2005	「발해의 중심과 변두리 지역의 상호관계 (물질문화의 몇몇 측면의 예를 통해)」	-	p.60
Yu.G. 니키틴	2005	「당, 발해와 동이(발해의 동부 변방)」	-	p.70
Yu.M. 바실리예프	2005	「아무르 유역의 포크롭카 문화(9~13세기)」	-	p.30
A.L. 이블리예프	2005	「발해사에 대한 개요」	-	p.82
N.N. 크라딘	2005	「중세 국가의 형성과 진화」	-	p.49
Ya.E. 피스카료바	2005	「연해주 말갈 유적의 지역 그룹들」	-	p.56

2.『극동의 중세 제국 도시』

E.I. 겔만, E.V. 아스타센코바	2018	「발해 도시의 문화와 일상생활」	-	p.16
E.I. 겔만, E.V. 아스타센코바 S.D. 프로코페츠, A.L. 이블리예프	2018	「발해국가의 도시」	-	p.19
E.A. 세르구셰바	2018	「도시 주민의 농사」	-	p.37
N.A. 클류예프, A.L. 이블리예프 I.V. 그리다소바	2018	「후발해의 도시」	-	p.51
Ya.E. 피스카료바	2018	「말갈 성」	-	p.136

Ⅱ. 기념논총

3.『극동의 역사와 고고학: E.V. 샤프쿠노프 70주년』

E.I. 겔만, V.I. 볼딘 A.L. 이블리예프	2000	「크라스키노 성의 우물 발굴」	-	p.157
Yu.G. 니키틴	2000	「국가이전단계 수이푼강 유역의 주민」	-	p.68
Yu.M. 바실리예프	2000	「포크롭카 문화의 무기」	-	p.198
V.I. 볼딘	2000	「발해 야요지(코르사콥카 주거유적 자료를 중심으로)」	-	p.173
V.E. 샤프쿠노프	2000	「연해주 남부의 중세 성곽」	-	p.122
S.A. 콜로미예츠	2000	「센키나 샵카 다문화층 유적 토기복합체」	-	p.184

4.『천년기의 장막을 열면서: Zh.V. 안드레예바 80주년』

E.A. 세르구셰바	2010	「연해주 올가 지구 시니예 스칼리 주거 유적의 곡물종자」	-	p.221
Ya.E. 피스카료바	2010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남사면 고고학 조사(1958~1965)」	-	p.171

Ⅲ. 논문모음집

5.『동아시아의 고대와 중세 역사: 발해건국 1300주년』

S.P. 네스테로프	2001	「아무르지역의 발해 이주와 아무르 여진의 기원」	-	p.67
V.I. 볼딘	2001	「1994~1998년 연해주 발해유적의 발굴조사 결과」	-	p.33
E.V. 샤프쿠노프	2001	「발해의 민족과 문화의 구성」	-	p.74
V.E. 샤프쿠노프	2001	「아우롭카 성 발굴조사」	-	p.124
G.L. 실란티예프	2001	「8~13세기 러시아 극동의 남부 발해와 여진의 바닷길과 정박지」	-	p.76

6.『극동의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E.I. 겔만, V.A. 라코프	2002	「고르밧카 발해성에서 출토된 연체동물」	-	p.210
Yu.G. 니키틴, E.I. 겔만	2002	「수이푼강 유역의 체르냐티노-5 중세 전기 고분군에 대한 일부 조사 결과」	-	p.144
V.I. 볼딘	2002	「시넬니코보-1성과 연해주 남서부의 중세 고고문화 편년」	-	p.112
Yu.V. 크리불랴	2002	「라콥카-10 주거유적의 고고조사」	-	p.166

7.『극동과 중앙아시아의 고고학과 문화인류학』

E.I. 겔만, V.A. 라코프	2002	「노보고르데옙카 마을유적의 문화 소속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	p.154
Yu.V. 크리불랴	2002	「체르냐티노-2 주거유적 조사결과」	-	p.159

8.『고대 및 중세의 러시아 극동: 문제, 탐색, 해결』

L.N. 베세드노프, E.I. 겔만	2011	「고르밧카 발해 평지성의 어로」	-	p.218
E.A. 베소노바	2011	「발해 취락 주거유적의 지표면 지질 환경의 자기적 성질」	-	p.98
E.A. 베소노바, A.V. 삽첸코	2011	「크라스키노 성 북부의 고고학 문제해결을 위한 암석물리학, 광물학 및 지구-화학적 연구 결과」	-	p.99
V.I. 볼딘, N.V. 레센코	2011	「연해주 발해유적의 석제와 토제 상호 횡단 투공이 있는 물품에 대한 문제」	-	p.235
O.A. 샤로바, E.I. 겔만 V.A. 라코프	2011	「크라스키노 발해 성에서 출토된 연체동물」	-	p.220
I.Yu. 슬렙초프, 김동훈	2011	「토층상 자료를 통해 본 콕샤롭카-1 성 북편건물지군의 구조 특징」	-	p.128
N.A. 클류예프, S.S. 말코프, M.A. 야쿠포프	2011	「2008~2009년 연해주 콕샤롭카-1 성의 조사 결과」	-	p.132

9.『동아시아 : 지역의 역사 및 문화 유산의 보존 및 연구 문제. 아무르 지역의 역사 문화 유산 보존 센터 15 주년』

V.V. 아흐메토프	2018	「발해의 벽돌무덤」	-	p.152

Ⅳ. 연속간행물

10.『동아시아의 전통문화』

V.I. 볼딘	2001	「연해주 중세 전기의 시넬니코보–1성」	3호	p.110
Ya.E. 피스카료바	2001	「체르냐티노-2 주거유적의 말갈토기」	3호	p.186
E.I. 겔만, Ya.E. 피스카료바	2002	「크라스키노 성의 말갈토기」	4호	p.178
Yu.G. 니키틴	2002	「글라즈콥카 만에 위치한 중세 고분군」	4호	p.147
N.V. 레센코	2002	「크라스키노 성의 토제 건물장식품」	4호	p.229
E.V. 아스타센코바	2010	「연해주 발해와 여진의 예술에서 용龍」	4호	p.237
N.N. 크라딘, Yu.G. 니키틴	2010	「연해주 북부의 중세 성곽」	6호	p.129

A.L. 메젠체프	2014	「우수리스크 주변 지역의 발해말갈시기 마을 주거지들에 대한 지형적 분류」	7호	p.29
Ya.E. 피스카료바	2014	「아브라몹카-3 주거유적의 토기복합체 특징」	7호	p.187

11.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연구소의 저서』

V.I. 볼딘, A.L. 이블리예프	2002	「다층위 유적 노보고르데옙카 성: 1986~1987년 발굴조사 결과」	11권	p.115
V.E. 샤프쿠노프, E.I. 겔만	2002	「다문화층 아우롭카 성 유적」	11권	p.119
Zh.V. 안드레예바	2002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의 문화-연대 복합체」	11권	p.163
E.I. 겔만	2018	「연해주 유적 고고자료로 살펴본 발해의 농업과 경제 생산활동」	20권	p.14
E.V. 아스타센코바	2018	「크라스키노 성의 고누알」	20권	p.239
Zh.V. 안드레예바, Ya.E. 피스카료바	2018	「시니예 스칼리 주거유적 남사면 고고학조사(1962년 제1구역과 1965년 제3구역)」	20권	p.164
A.L. 이블리예프	2018	「동단국과 연해주 고고학」	20권	p.44
E.I. 겔만	2019	「발해의 대내외 교역」	25권	p.64
E.V. 아스타센코바	2019	「발해인과 여진인의 예술에서 권력과 부富의 상징」	25권	p.79
N.N. 크라딘	2019	「극동 국가형성의 특징과 구조」	25권	p.91
Ya.E. 피스카료바	2019	「극동 남부의 말갈문화: 사회-경제 양상」	25권	p.54
E.I. 겔만, A.L. 이블리예프 V.I. 볼딘	2020	「크라스키노 성의 방어시설」	26권	p.106
V.I. 볼딘, V.E. 샤프쿠노프	2020	「크라스키노 성의 철촉 형식」	26권	p.200
A.L. 이블리예프	2020	「A.P.오클라드니코프의 『연해주의 먼 과거(1959)』에서 고대와 중세에 대한 논평」	26권	p.88

12. 『고고학의 학제간 연구』

E.I. 겔만, E.V. 아스타센코바, Ya.E. 피스카료바, E.A. 베소노바 V.B. 잘리샤크, S.A. 즈베레브	2014	「크라스키노 성 부근의 발해 고분군 조사」	1호	p.141
V.E. 샤프쿠노프	2014	「샤이가-레두트 성 말갈 주거지」	1호	p.162
E.A. 세르구셰바, E.I. 겔만	2014	「아브리코스-1 발해마을 유적에서 출토된 식물종자의 결과」	1호	p.223
E.A. 세르구셰바, E.I. 겔만	2014	「크라스키노 성의 동문지 조사구역 출토 시료에 대한 부유법 식물분석 예비결과」	1호	p.225
V.E. 오멜코, M.A. 비노쿠로바	2014	「2009년 크라스키노 성 출토 동물뼈 분석」	1호	p.227
N.A. 클류예프, I.Yu. 슬렙초프	2014	「연해주의 콕샤롭카-8 고고유적: 1차 조사 결과」	1호	p.153
Ya.E. 피스카료바	2014	「연해주 말갈유적 편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1호	p.58
E.I. 겔만 E.V. 아스타센코바 I.Yu. 부라블료프 A.A. 보이코	2015	「크라스키노 성의 청동거울」	2호	p.192
A.M. 마시킨, V.I. 볼딘	2015	「크라스키노 성 주변의 자연-기후 현황」	2호	p.97
V.E. 샤프쿠노프	2015	「스몰노예 문화 주민의 가내 수공업」	2호	p.35
E.I. 겔만, E.V. 아스타센코바 I.Yu. 부라블료프	2017	「크라스키노 성 고고자료로 본 발해의 청동생산」	3호	p.195
M.S. 랴셴스카야, L.A. 간제이	2017	「크라스키노 성 문화층에서 나온 고생물학적 연구」	3호	p.212
N.V. 레센코	2017	「고고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본 7~13세기 극동의 어로」	3호	p.24
G.L. 실란티예프	2017	「중세 전기 연해주·아무르 지역 및 일본의 물품 교역 관계 – 유리제품을 중심으로 –」	3호	p.39
N.A. 클류예프, I.V. 그리다소바	2017	「연해주 콕샤롭카-1 성의 금속 생산 및 금속 작업의 증거」	3호	p.208
E.I. 겔만	2018	「크라스키노 성의 토기」	2호	p.180
V.E. 샤프쿠노프	2019	「스몰노예 문화 주민의 교역에 관하여」	1호	p.36
N.A.클류예프, M.A.야쿠포프	2019	「연해주 콕샤롭카-1 성의 방어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1호	p.134

Ya.E. 피스카료바, E.V. 아스타셴코바 S.D. 프로코페츠, E.A. 세르구셰바 A.L. 이블리예프, N.A. 도로페예바 M.A. 라셉스카야, V.B. 바자로바, N.F. 프셰니츠니코바	2019	「연해주 한카 지구의 노보셀리셰 성에 대한 종합조사」	1호	p.139
E.V. 아스타셴코바	2019	「크라스키노 성 주민의 장식과 공예」	2호	p.202
Ya.E. 피스카료바	2019	「크라스키노 성 고고자료로 본 발해 문화 내의 말갈요소」	2호	p.189

13. 『연해주의 중세』

N.V. 레센코	2012	「크라스키노 주민들의 목제 수공업」	1호	p.214
A.L. 메젠체프	2012	「연해주 성의 규모와 분류」	1호	p.26
A.A. 김	2012	「러시아 극동 남부에서의 발해 북쪽 경계와 926년 멸망이후 발해주민에 대한 문제」	2호	p.66
E.I. 니키틴, A.Yu. 텔레류예프	2012	「체르냐티노-5 고분군 매장시설 구조의 특징」	2호	p.149
N.V. 레센코	2012	「고고자료로 본 연해주 니콜라옙카-2 평지성의 생계 경제」	2호	p.216
V.E. 샤프쿠노프	2012	「샤이가-레두트 성곽 연구의 예비결과」	2호	p.126
E.V. 아스타셴코바	2012	「발해의 불교 조각과 조형예술」	2호	p.41
V.A. 타타르니코프	2012	「연해주 북동지역 달네고르스크 지구의 발해시기 광물업」	2호	p.100
A.A. 김	2015	「1990~2000년 북한 고고학자들의 극동지역 발해유적 조사에 대한 평가」	3호	p.22
V.A. 벨랴예프, S.V. 시도로비치	2015	「연해주의 신 발견 금석문 유물」	3호	p.231
V.I. 볼딘	2015	「러시아 연해주 발해인들의 농업과 목축」	3호	p.34
I.S. 쥬시홉스카야	2015	「연해주 스몰노예 문화: 실제적인 조사 문제」	3호	p.46
Yu.V. 크리불랴	2015	「미하일롭카-1와 미하일롭카-4 주거유적 조사」	3호	p.168
Yu.V. 크리불랴	2015	「아브라몹카-3 중세 전기 주거유적의 주거유구와 경제유구」	3호	p.170
A.V. 폴루토브	2015	「발해와 일본의 외교사절(722~763)」	3호	p.94
S.D. 프로코페츠	2015	「니콜라옙카-1 성의 다문화 토기」	3호	p.185
N.V. 레센코	2016	「노보고르데옙카 성의 생계 시스템」	4호	p.109
V.I. 볼딘	2016	「노보고르데옙카 성에 대한 조사의 예비결과」	4호	p.113
D.A. 비츠코프	2016	「연해주 중세 성곽의 가시권 : 이론, 방법 및 전망」	4호	p.72
S.A. 삭마로프	2016	「오크라인카 성에 대한 예비조사결과」	4호	p.117
V.E. 샤프쿠노프	2016	「니콜라옙카-1 성 스몰노예 문화 토기」	4호	p.182
A.L. 이블리예프	2016	「중세시대의 연해주와 철리부鐵利部」	4호	p.86
G.G. 코롤	2016	「연해주와 아무르지역의 투르크식 대장식구: 유사성 문제」	4호	p.205

▶ 러시아어

Ⅰ. Коллективные монографии

1.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Гельман Е.И.	2005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центра и переферии в Бохае (на примере не которых аспектов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	p.60
Никитин Ю.Г.	2005	Тан, Бохай и «восточные варвары» (Восточная периферия Бохая)	-	p.70
Васильев Ю.М.	2005	Покровская культура Приамурья (IX-XIII вв. н.э.)	-	p.30
Ивлиев А.Л.	2005	Очерк истории Бохая	-	p.82
Крадин Н.Н.	2005	Становление и эволюция средневеков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	p.49
Пискарева Я.Е.	2005	Локальные группы мохэ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Приморье	-	p.56

2. Города средневековых импер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Гельман Е.И., Асташенкова Е.В.	2018	Культура и повседневность бохайских городов	-	p.16
Гельман Е.И., Асташенкова Е.В., Прокопец С.Д., Ивлиев А.Л.	2018	Города Боха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	p.19
Сергушева Е.А.	2018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город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	p.37
Клюев Н.А., Ивлиев А.Л., Гридасова И.В.	2018	Городища постбохайского времени	-	p.51
Пискарёва Я.Е.	2018	Городища Мохэ	-	p.136

Ⅱ. Сборники статей

3. История и архе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К 70-летию Э.В. Шавкунова

Гельман Е.И.,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2000	Раскопки колодца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p.157
Никитин Ю.Г.	2000	Население долины р. Суйфун в пред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риод	-	p.68
Васильев Ю.М.	2000	Холодное оружие покровской культуры	-	p.198
Болдин В.И.	2000	Бохайские гончарные печ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Корсаковского се лища)	-	p.173
Шавкунов В.Э.	2000	Средневековые городища южной част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	p.122
Коломиец С.А.	2000	Керам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многослойного памятника Сенькина Шапка	-	p.184

4. Приоткрывая завесу тысячелетий: к 80-летию Жанны Васильевны Андреевой

Сергушева Е.А.	2010	Семена растений с памятника Синие Скалы (Ольгинский район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	p.221
Пискарёва Я.Е.	2010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южном склоне поселения Синие Скалы в 1958—1965 гг.	-	p.171

Ⅲ. Сборники материалов конференций

5. Древняя и средневековая история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 130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Нестеров С.П.	2001	Бохайские миграции в Приамурье и происхождение амурских чжурчжэней	-	p.67

Болдин В.И.	2001	Результаты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Приморья в 1994~1998 гг.	-	p.33
Шавкунов Э.В.	2001	О слагаемых этноса и культуры Бохая	-	p.74
Шавкунов В.Э.	2001	Раскопки Ауро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	p.124
Силантьев Г.Л.	2001	Морские пути и якорные стоянки бохайцев и чжурчженей на юг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в VIII-XIII в.	-	p.76

6.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Гельман Е.И., Раков В.А.	2002	Малакофауна бохайского городища Горбатка	-	p.210
Никитин Ю.Г., Гельман Е.И.	2002	Некоторые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могильника Чернятино-5 в бассейне р. Суйфун	-	p.144
Болдин В.И.	2002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1 и периодизация средневековых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культур Юго-Западного Приморья	-	p.112
Кривуля Ю.В.	2002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поселении Раковка-10	-	p.166

7.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Гельман Е.И.	2002	К вопросу о культур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го селища	-	p.154
Никитин Ю.Г., Гельман Е.И., Болдин В.И.	2002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селения Чернятино-2	-	p.159

8.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проблемы, поиски, решения

Беседнов Л.Н., Гельман Е.И.	2011	Рыболовство населения бохайского городища Горбатка	-	p.218
Бессонова Е.А.	2011	Магнитные свойства близповерхностной геологической среды бохайских укреплённых поселений	-	p.98
Бессонова Е.А., Савченко А.В.	2011	Результаты применения петрофизических, минералогических и геохи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ля реше ни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задач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p.99
Болдин В.И., Лещенко Н.В.	2011	К вопросу о назначении глиняных и каменных изделий с вза имопересекающимися отверстиями из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Приморья	-	p.235
Шарова О.А., Гельман Е.И., Раков В.А.	2011	Малакофауна бохайского городища Горбатка	-	p.220
Слепцов И.Ю., Ким Дон Хун	2011	Городище Кокшаровка-1 : особенности строения северной платформы (по данным стратиграфии)	-	p.128
Клюев Н.А., Малков С.С., Якупов М.А.	2011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городища Кокшаровка-1 в Приморье в 2008—2009 гг.	-	p.132

9. Восток Азии: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и сохранения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региона. К 15-летию Центр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Ахметов В.В.	2018	Бохайские кирпичные погребения	-	p.152

IV. Продолжающиеся издания (журналы)

10.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Болдин В.И.	2001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1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ый памятник Приморья	Вып. 3.	p.110
Пискарева Я.Е.	2001	Мохэская керамика поселения Чернятино-2	Вып. 3.	p.186

Гельман Е.И., Пискарева Я.Е.	2002	Мохэская керамика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ып. 4.	p.178
Никитин Ю.Г.	2002	Средневековый могильник в бухте Глазковка	Вып. 4.	p.147
Лещенко Н.В.	2002	Терракотовое навершие с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ып. 4	p.229
Асташенкова Е.В.	2002	Дракон в искусстве бохайцев и чжурчжэней Приморья	Вып. 4.	p.237
Крадин Н.Н., Никитин Ю.Г.	2010	Средневековые городища Северного Приморья	Вып. 6.	p.129
Мезенцев А.Л.	2014	Топографическая классификация средневековых сельских поселений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Уссурийска	Вып. 7.	p.29
Пискарева Я.Е.	2014	Особенности керам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селения Абрамовка-3	Вып. 7.	p.187

11.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ДВО РАН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2002	Многослойный памятник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 городище: материалы раскопок 1986 – 1987 годов	т. 11	p.115
Шавкунов В.Э., Гельман Е.И.	2002	Многослойный памятник Ауровское городище	т. 11	p.119
Андреева Ж.В.	2002	Культурно-хронолонические комплекы поселения Синие Скалы	т. 11	p.163
Гельман Е.И.	2018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промыслы в экономике Боха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амятников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морья)	№20	p.14
Асташенкова Е.В., Гельман Е.И.	2018	Игральные фишки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20	p.239
Андреева Ж.В., Пискарёва Я.Е.	2018	Некоторые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южном склоне поселения Синие Скалы (раскоп № 1 1962 года и раскоп № 3 1965 года)	№20	p.164
Ивлиев А.Л.	2018	Государство Дундань и археология Приморья	№20	p.44
Гельман Е.И.	2019	Внутренняя и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в государстве Бохай	№25	p.64
Асташенкова Е.В.	2019	Символы богатства и власти в искусстве бохайского и чжурчжэнь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25	p.79
Крадин Н.Н.	2019	Особенности и механиз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политогенеза	№25	p.91
Пискарева Я.Е.	2019	Мохэская культура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25	p.54
Гельман Е.И., Ивлиев А.Л., Болдин В.И.	2020	Фортификационные сооружения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26	p.106
Болдин В.И., Шавкунов В.Э.	2020	Типология наконечников стрел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26	p.200
Ивлиев. А.Л.	2020	Комментарий к исторической части глав по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ю в книге А.П. Окладникова «Далёкое прошлое Приморья»	№26	p.88

12.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рхеологии

Гельман Е.И., Асташенкова Е.В., Пискарева Я.Е., Бессонова Е.А., Залищак В.Б., Зверев С.А.	2014	Исследования бохайской группы погребений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ып. 1.	p.141
Шавкунов В.Э.	2014	Мохэское жилище городища Шайга-Редут	Вып. 1.	p.162
Сергушева Е.А., Гельман Е.И.	2014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семян растений из бохайского поселения Абрикосовское-1	Вып. 1.	p.223
Сергушева Е.А., Гельман Е.И.	2014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изучения семян и плодов раст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из раскопок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 районе восточных ворот	Вып. 1.	p.225
Омелько В.Е., Винокурова М.А.	2014	Анализ костей животных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исследований в 2009 году)	Вып. 1.	p.227
Клюев Н.А., Слепцов И.Ю, С.Е. Саранцева	2014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объект Кокшаровка-8 в Приморье: первые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Вып. 1.	p.153
Пискарева Я.Е.	2014	К вопросу о хронологии мохэ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Приморья	Вып. 1.	p.58

Гельман Е.И., Асташенкова Е.В., Буравлев И.Ю., Бойко А.А.	2015	Бронзовое зеркало из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ып. 2.	p.192
Машкин А.М., Болдин В.И.	2015	Природно-клима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района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ып. 2.	p.97
Шавкунов В.Э.	2015	Домашнее хозяйство населения смольн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Вып. 2.	p.35
Гельман Е.И., Асташенкова Е.В., Буравлев И.Ю.	2017	Бронзолитей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 Бохае (по данным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ып. 3.	p.195
Лящевская М.С., Ганзей Л.А.	2017	Палин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слоя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ып. 3.	p.212
Лещенко Н.В.	2017	Рыболовств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VII-XIII века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ып. 3.	p.24
Силантьев Г.Л.	2017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контакты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насе ления Приморья, Приамурья и Япон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стеклообрабатывающе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ып. 3.	p.39
Клюев Н.А., Гридасова И.В.	2017	Свидетельства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металлообработки на городище Кокшаровка-1 в Приморье	Вып. 3.	p.208
Гельман Е.И.	2018	Керамика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2	p.180
Шавкунов В.Э.	2019	К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торговых отношений носителей смольн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1	p.36
Клюев Н.А., Якупов М.А.	2019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й оборонительных сооружений городища Кокшаровка-1 в Приморье	№1	p.134
Пискарева Я.Е., Асташенкова Е.В., Прокопец С.Д., Сергушева Е.А., Ивлиев А.Л., Дорофеева Н.А., Лящевская М.А., Базарова В.Б., Пшеничникова Н.Ф.	2019	Комплекс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Новоселищенском городище в Ханкайском районе Приморья	№1	p.139
Асташенкова Е.В.	2019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е искусство населения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2	p.202
Пискарева Я.Е.	2019	Мохэский компонент в бохайской культур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2	p.189

13. Средневековые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Лещенко Н.В.	2012	Обработка дерева в системе домашних ремёсел населения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ып. 1.	p.214
Мезенцев А.Л.	2012	Размеры и классификация приморских городищ	Вып. 1.	p.26
Ким А.А.	2012	К вопросу о северной границе Бохая на юг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и проблеме боха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сле 926 года	Вып. 2.	p.66
Никитин Е.Ю., Телелюев А.Ю.	2012	Конструктив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погребений могильника Чернятино-5	Вып. 2.	p.149
Лещенко Н.В.	2012	Система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населения городища Николаевское-II в Приморь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ып. 2.	p.216
Шавкунов В.Э.	2012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я городища Шайга-Редут	Вып. 2.	p.126
Асташенкова Е.В.	2012	Бохайская буддийская скульптура и пластика	Вып. 2.	p.41
Татарников В.А.	2012	Горное дело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Приморья (Дальнегорский район) в бохайское время	Вып. 2.	p.100
Ким А.А.	2015	Оценка изучения памятников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археологами в 1990-2000 гг.	Вып. 3.	p.22
Беляев В.А., Сидорович С.В.	2015	Две новые эпиграфические находки из Приморья	Вып. 3.	p.231

Болдин В.И.	2015	Земледелие и скотоводство бохай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ья России	Вып. 3.	p.34
Жущиховская И.С.	2015	Смольнинская культура Приморья: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исследования	Вып. 3.	p.46
Кривуля Ю.В.	2015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селений Михайловка-1 и Михайловка-4	Вып. 3.	p.168
Кривуля Ю.В.	2015	Жилища и хозяйственные постройки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поселения Абрамовка-3	Вып. 3.	p.170
Полутов А.В.	2015	Посоль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в Японию (727–763 гг.)	Вып. 3.	p.94
Прокопец С.Д.	2015	Разнокультурная керамика из городища Николаевское-I	Вып. 3.	p.185
Лещенко Н.В.	2016	Система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ып. 4.	p.109
Болдин В.И.	2016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м городище	Вып. 4.	p.113
Бычков Д.А.	2016	Средства визуаль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средневековых городищ Приморья: обоснование, метод и перспективы поиска	Вып. 4.	p.72
Сакмаров С.А.	2016	Результаты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городища Окраинка	Вып. 4.	p.117
Шавкунов В.Э.	2016	«Смольнинская керамика» Николаевского-1 городища	Вып. 4.	p.182
Ивлиев А.Л.	2016	Племя тели и Приморье в средние века	Вып. 4.	p.86
Король Г.Г.	2016	«Тюркские» ремённые украшения в Приамурье и Приморье: к проблеме аналогий	Вып. 4.	p.205

【부록 4】

러시아어 한글표기 비교표

러시아어 한글표기는 과거 발간된 출판물과 현재의 외래어표기법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미 발간된 국립문화재연구소 러시아 관련 간행물에 사용된 표기법과의 비교를 위해 아래 표로 정리하여, 유적·지명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본문 한글표기	이전 발간물 한글표기	러시아어	영어
고골렙카	고골레프카	Гоголевка	Gogolevka
고르밧카	고르바트카	Горбатка	Gorbatka
글라좁카	글라조프카	Глазовка	Glazovka
노보게오르기옙카	노보게오르기예프카	Новогеоргиевка	Novogeorgievka
노보고르데옙카	노보고르데예프카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	Novogordeevka
노보그레센카	노보그레센카	Новокрещенка	Novokreshenka
노보셀리셰	노보셀리셰	Новоселище	Novoselische
노보포크롭카	노보포크로프카	Новопокровка	Novopokrovka
니콜라옙카	니콜라예프카	Николаевское	Nikolaevka
라콥카	라코프카	Раковка	Rakovka
루다놉카	루다노프카	Рудановское	Rudanovka
루자놉카	루자노프카	Лузановский	Luzanovka
루카셴코바	루카쉔코바	Лукашенкова	Lukashenkova
루카셉카	루카쇼프카	Лукашевка	Lukashevka
리돕카	리도프카	Лидовская	Lidovka
마리야놉카	마리야노프카	Марьяновское	Maryanovka
말라야 포두셰치카	말라야 포두셰치카	Малая Подушечка	Malaya Podushechka
모나스트리카	모나스트이르카	Монастырка	Monastyrka
미하일롭카	미하일로프카	Михайловка	Mikhailovka
바라바시	바라바쉬	Барабаш	Barabash
바시콥카	바시코프카	Васьковское	Vaskovskoe
보리솝카	보리소프카	Борисовка	Borisovka
부랴트	부리야트	Бурятия	Buryatia
센키나 샵카	센키나 샤프카	Сенькина Шапка	Sen'kina Shapka
소콜롭카	소콜로프카	Соколовский	Sokolovsky
스로스키노	스로스킨	Сросткинская	Srostkino
스몰노예	스몰닌스카	Смольное	Smolnoye

본문 한글표기	이전 발간물 한글표기	러시아어	영어
스테클랴누하	스툐클랴누하	Стеклянухинское	Steklyanukha
스토곱카	스토고브카	Стоговское	Stogovka
시니예 스칼리	시니예 스칼르이	Синие Скалы	Siniye Skaly
아나니옙카	아나니예프카	Ананьевское	Ananievka
아브라몹카	아브라모프카	Абрамовка	Abramovka
아우롭카	아우로프카	Ауровское	Aurovka
얀콥스키-리돕카	얀콥스키-리돕카	Янковская-лидовская	Yankovsky-Lidovka
오를롭카	오를로프카	Орловка	Orlovka
오시놉카	오시노프카	Осиновка	Osinovka
올레뇹카	올레네프카	Оленёвка	Olenevka
우셸리예	우셸리예	Ущелье	Ushchel'ye
자이사놉카	자이사노프카	Зайсановская	Zaisanovka
지기톱카	지기토프카	Джигитовка	Zhigitovka
추구옙카	추구예프카	Чугуевское	Chuguevka
추카놉카	추가노프카	р. Цукановка	Tsukanovka
코르사콥카	코르사코프카	Корсаковский	Korsakovka
코피토	코프이토	Копытинский	Kopyto
콕샤롭카	콕샤로프카	Кокшаровка	Koksharovka
콘스탄티놉카	콘스탄티노프카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	Konstantinovka
쿠즈네촙스코예	쿠즈네초브스코예	Кузнецовское	Kuznetsovo
크로우놉카	크로우노프카	Кроуновская	Krounovka
탈롭카	탈로프카	Таловское	Talovka
트로이차	트로이짜	Троица	Troitsa
파블롭카	파블로프카	Павловка	Pavlovka
페트롭카	페트로프카	Петровское	Petrovka
포시에트	포시엣	Посьетская	Pos'yet
포크롭카	포크로프카	Покровская	Pokrovka
폴탑카	폴타프카	Полтавка	Poltavka

국외 간행물 수록

발해 고고학
논문 해제집
러시아 I

총괄 이주헌(국립문화재연구소)

기획 강동석 · 정성목(국립문화재연구소)

해제 김동훈 · 최재경(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김재윤(국립부산대학교)
박규진(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이우섭(국립청주박물관)
정윤희 · M.A. 스토야킨(M.A. Stoyakin) (국립문화재연구소)
홍형우(국립강릉원주대학교)
S.S. 실리체바(S.S. Silicheva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과정)

원고 A.L. 이블리예프(A.L. Ivliev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N.A. 클류예프(N.A. Kluyev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감수 한규철(前고구려발해학회장)

편집 · 교정 정성목 · 정윤희 · M.A. 스토야킨(국립문화재연구소)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발행처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www.nrich.go.kr
T. 042-860-9288 / F. 042-861-4924

디자인 **에코디자인**
30058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공단로 184-28
T. 044-868-0054 / F. 044-867-5432

발간등록번호 11-1550011-000995-01

ISBN 978-89-299-2026-5 93910

ⓒ 2020 **국립문화재연구소**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내용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외 간행물 수록

발해 고고학

논문 해제집

渤海考古學論文解題集

러시아

국립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SBN 978-89-299-2026-5 93910